顯隆園園所都監儀軌

[原典]

경기도박물관도서실
016810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박물관 학술총서

顯隆園園所都監儀軌

| 原 典 |

경기도박물관

발 간 사

우리 박물관에서는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도민에게 보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속적인 학술연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문서 · 전적 국역사업도 이러한 노력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국역하여 발간하는 『현륭원원소도감의궤(顯隆園園所都監儀軌)』는 1789년 7월부터 시작된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무덤인 현륭원 천원의식(遷園儀式)의 전말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주지하다시피 1762년(영조 38년) 5월 21일 창덕궁 휘경전 마당에 놓여진 뒤주 안에서 세상을 떠난 비운의 사도세자는 처음 양주 배봉산 갑좌의 언덕에 장례를 치르고, 묘소의 호칭을 '수은묘(垂恩墓)'로 하였다가 1764년(영조 40년) '영우원(永祐園)'이라고 개칭하였습니다.

그의 아들인 정조는 1774년(영조 50년)에 처음 묘소에 가서 절하였는데 이때 묘소의 형세와 모습을 본 직후부터 왕자의 묘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함에 마음 아파했다고 합니다. 즉위(1776년) 후에는 거의 매년 영우원에 행차하였고 공식적으로 정한 전배(展拜) 외에도 이곳을 지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들러 절하는 등 돌아간 아버지에 대한 정성을 다 하였습니다.

그후 1789년(정조 13년) 천원하기로 결정하고 그해 7월 20일부터 천원에 착수하여 10월 16일 안원전(安園奠)이 거행됨으로써 약 3개월간 숨가쁘게 진행되었던 원소를 옮기는 모든 작업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조선 왕실의 무덤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성되었는지, 무덤의 위치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무덤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무덤에 배치된 석물과 각종 목조 건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임시관청인 도감의 조직은 어떠하며, 조성비용의 조달 방법, 수원부 이읍(移邑) · 이민(移民) 과정 등등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조선후기 왕실의 장례풍습과 나아가 정조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원 소장처로서 이번 국역을 허락해 주신 서울대학교 규장각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풍수지리에 관한 난해한 용어가 많은 본 책을 국역해 주신 이해형 선생님과 임재완 선생님, 그리고 해제의 옥고를 보내주신 김지영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본 책을 감수하여 주신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한영우 명예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책자 발간에 심혈을 기울인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2006년 2월

경기도박물관장 이 종 선

일러두기

1. 이 책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현륭원원소도감의궤 顯隆園園所都監儀軌』(표지제목 『현륭원의궤 顯隆園儀軌』 도서번호 : 규 13630 : 원본크기 세로 37㎝, 가로 24㎝) 4권 4책을 30퍼센트로 축소하여 원본의 4쪽을 영인본의 1쪽에 모아서 실었다.
2. 원본 4권 4책을 1책으로 합본하였다.
3. 목차를 작성하여 찾아보기에 쉽게 하였다.
4. 표지의 도안은 현재의 융릉(현륭원) 사진을 이용하였다.

차례 contents

■ 발 간 사
■ 일러두기

권 1 (卷一)

도설(圖說) ····· 14
원상각(園上閣) ····· 14
수도각(隧道閣) ····· 15
녹로(æ) ····· 15
별조녹로(別造 æ) ····· 15
지대하박석(地臺下博石) ····· 15
정지대석(正地臺石) ····· 16
우병풍석(隅屛風石) ····· 16
면병풍석(面屛風石) ····· 16
만석(滿石) ····· 16
인석(引石) ····· 16
우와첨상석(隅瓦 裳石) ····· 17
면와첨상석(面瓦 裳石) ····· 17
석상(石床) ····· 17
장명등(長明燈) ····· 17
석호(石虎) ····· 17
석양(石羊) ····· 17
석망주(石望柱) ····· 18
문석인(文石人) ····· 18
무석인(武石人) ····· 18
석마(石馬) ····· 18
좌향석(坐向石) ····· 18
지석함(誌石函) ····· 18
증옥함(贈玉函) ····· 19

증백함(贈帛函) ····· 19
비(碑) ····· 19
정자각(丁字閣) ····· 19
찬궁(𡰥宮) ····· 19
회남수평상(回南首平床) ····· 20
운족평상 (雲足平床) ····· 20

좌목(座目) ····· 21

차개(差改) ····· 22
연설(筵說) ····· 22
승전(承傳) ····· 23
주계(奏啓) ····· 25

사례(事例) ····· 28
연설(筵說) ····· 28
승전(承傳) ····· 29
주계(奏啓) ····· 30

사실(事實) ····· 32
연설(筵說) ····· 32
승전(承傳) ····· 51
주계(奏啓) ····· 56

권 2(卷二)

시일(時日) ····· 65
연설(筵說) ····· 65
승전(承傳) ····· 67
주계(奏啓) ····· 68
부(附) 각양행일(各樣行日) 및 사역일시(事役日時) ····· 75

예의(禮儀) ····· 77
연설(筵說) ····· 77
승전(承傳) ····· 80
주계(奏啓) ····· 81
부(附) 의주(儀註) ····· 82

재용(財用) ····· 87
연설(筵說) ····· 87
승전(承傳) ····· 87
주계(奏啓) ····· 88

늠료(料) ····· 91
승전(承傳) ····· 91
주계(奏啓) ····· 91

상전(賞典) ····· 93
승전(承傳) ····· 93
주계(奏啓) ····· 96

잡조(雜條) ····· 111
연설(筵說) ····· 111
승전(承傳) ····· 112
주계(奏啓) ····· 113

권 3(卷三)

삼물조(三物條) ····· 117
연설(筵說) ····· 117
승전(承傳) ····· 118
주계(奏啓) ····· 119

조성조(造成條) ····· 126
연설(筵說) ····· 126
승전(承傳) ····· 127
주계(奏啓) ····· 128

노야조(爐冶條) ····· 133
승전(承傳) ····· 133
주계(奏啓) ····· 133

부석조(浮石條) ····· 134
연설(筵說) ····· 134
승전(承傳) ····· 136
주계(奏啓) ····· 139

보토조(補土條) ····· 148
연설(筵說) ····· 148
승전(承傳) ····· 148
주계(奏啓) ····· 149

수석조(輸石條) ····· 150
승전(承傳) ····· 150
주계(奏啓) ····· 151

부(附) 의궤(儀軌) ····· 152

관감(關甘) ····· 153

권 4(卷四)

삼물소(三物所) ····· 177

조성소(造成所) ····· 187

노야소(爐冶所) ····· 193

대부석소(大浮石所) ····· 195

보토소(補土所) ····· 201

소부석소(小浮石所) ····· 202

수석소(輸石所) ····· 206

별공작(別工作) ····· 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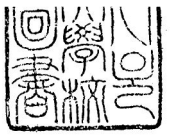
분장흥고(分長興庫) ····· 211

번와소(燔瓦所) ····· 213

園議軌 一

圖說
產目
改正
例事
實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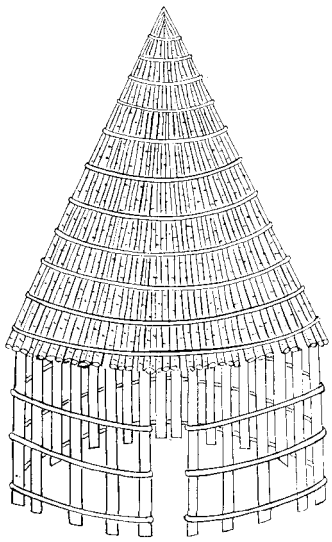
여 백



目錄

圖說
園上 隧道閣 甕罏 別造甕罏地臺下
石 正 地臺石 隅房風石 面房風石 滿
石引石 隅瓦 簷甍石 面瓦 簷甍石 床
長明燈石 石虎石羊 望柱 文石人石 武
石人石馬 坐向石 誌石 盈贈玉函贈
弟函 碑 田南首平床 雲
足平床
座目
差改 建議 承傳 參酌下皆倣此
事例
事實
卷之二
時日 附各衙行日
儀軌
關甘
卷之四
三物所
造成所
爐冶所
大浮石所
補土所
小浮石所
輸石所
別工作
分長與庫
禮儀 附儀註
財用
廩料
賞典
雜条
卷之三
三物条
造成条
爐冶条
浮石条
補土条
輸石条

圖上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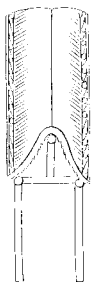
圖說

圖上閣南面當中連建隧道閣用六柱長十五尺五掾二間半本閣止此先覆油芭次以茅芭穀草左右障以茅芭門上垂以茅簷

仰帳旁帷門設障子四尺高上下施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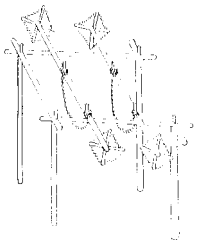
以備開闔

隧道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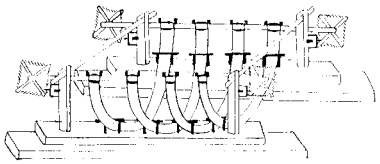
閣俗名用松木為柱十八長十四尺圍八尺下齊上漸殺至頂僅圍一尺下并同環立於壁堵之外當南作門他柱皆倣此閣以圍棟長十八丈九尺一環架於柱上兩端各出一尺四寸以當門之廣用一環架於柱上兩端各出一尺四寸以當門之廣用一環架於柱上兩端各出一尺四寸以當門之廣用

轆轤



轆轤（俗名絞車）圖樣（上下圓鑿如半月形以受轆轤之杠）先竪四柱於金井機四隅外柱上四面設攲（俗名拘攲木攲東）以小木橫貫之又以小木縱結於其旁作十字形又以索（熟麻繩以苧）結其端形如繅車用二大索（熟麻繩以苧布長六十尺）各繫其兩端於兩杠之中間左右以轉轆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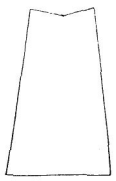
別造轆轤



別轆轤　墉上左右來往板兩端施以木掩釘安排別轆轤攲

杠各一（松木長九尺厚六寸廣九寸兩端各去一尺鑿孔竪小柱各一（加時木長二尺六寸六寸孔中心厚二寸五分廣五寸五分兩柱之間分以間一尺施以鐵箭各四每箭雙立圓釘長八寸釘端鑿孔橫以圓鐵圓鐵貫鐵箭箭長五寸仍設轆轤兩杠於小柱上（柱端五寸鑿形如半月）長九尺圓徑四寸杠兩端又去一尺分以間一尺立雙釘各四長五寸潤五寸下與鐵箭相齊乃以白細布貼作索各長四十尺兩端繫叉木掛於杠上釘間下垂貫於鐵箭兩杠兩頭鑿孔以小木二（加時木長二尺方一寸者貫作十字形其端環結紅絲索形如繅車以轉轆轤又用防木（加時木）二長五尺厚一寸五分者勒而作魚頷形加於杠上前後以防兩杠之內縮

地臺下博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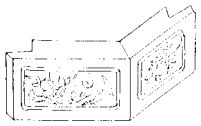
博石四十八長五尺二寸廣內端一尺六寸外端二尺五寸厚一尺二寸上設正地臺石（內端二尺六寸作介錫以防外逸）

正地臺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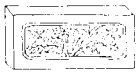
正地臺石十二橫長八尺三寸廣二尺六寸厚二尺上設屏石（上面作拿鎖以防動是）外上旁刻為圓隅刻雲形

隅屏風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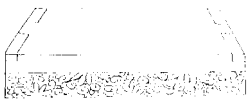
隅屏石十二廣四尺五寸厚一尺六寸四面面粧三寸高二尺刻蓮花葉設於地臺石十二隅上（左右作拿鎖文合面石以防動是）

面屏風石



面屏石十二廣三尺七寸厚一尺六寸高二尺刻牧丹設於隅屏石之間

滿石



滿石十二橫長八尺三寸廣二尺五寸厚一尺三寸鎮屏石上外下旁刻為圓隅刻牧丹前面當中篆刻正方位十二字（如石鴛項紅）

引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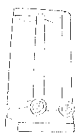
引石十二長四尺五寸廣一尺一寸五分厚八寸外端為仰蓮葉葉上為半開蓮花并高一尺七寸橫鎮滿石十二隅交頭上內端八封等中（滿引石上下作拿鎖文合以防動是）蓮花前面篆刻間方位十二字填紅

隅甬簷棠石



隅甬簷石十二長二尺七寸分其長二寸橫作防瓦半形一尺八寸作連瓦七寸作簷廣上四尺下四尺六寸（夫人廣四寸五分）棠內端一尺三寸外端八寸

面甬簷棠石



面甬簷石二十四廣上二尺下二尺五寸五分長厚及甬制同隅甬簷石每一面隅石各一面石各二合廣九尺七寸接正地臺石（內端作合鎖以防動）環鋪博石上

石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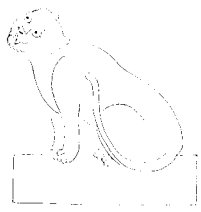


床（俗名現代石凱博石）長九尺九寸廣五尺九寸厚一尺七寸八分下設臺石長四尺九寸五分廣五尺九寸厚一尺三寸次設足石（一名踏石）於四隅高一尺七寸上下圓徑一尺一寸腹圓徑二尺五寸其狀如鼓四面刻羅魚頭設床於其上床前面篆刻癸坐二字填紅長明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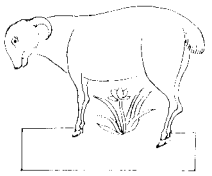
燈盞石高三尺五寸以上端八寸爲未開蓮花次以一尺爲已開蓮花次以一尺二寸爲二層蓮葉仍以五寸爲座形（八面每面二尺自盞石至臺石皆作八面）鑿其底以受體石體石長六尺六寸上端一寸納于盞石鑿中其下一尺四寸（每面一尺五寸）四面通鑿（每面一尺五寸）各設小龕四面篆刻壽福字次以一尺六寸爲隅石（每面一尺二寸五分）上刻連環花藻各分二面刻蓮花菊花牧丹不老草次以五寸作腰（每面一尺）刻連環次以一尺五寸爲臺石（每面廣八隅石）八隅刻連珠柱每面刻雲角下刻雲足下端一尺五寸作地臺入地中

石虎



石虎刻蹲形高前三尺一寸後一尺九寸廣一尺六寸五分長四尺九寸臺石入地一尺面與地齊

石羊



石羊刻立形高二尺七寸廣一尺三寸五分長四尺五寸四脚中間不鑿而刻草形臺石同虎石

石望柱



柱基上高七尺五寸五分以上端九寸為圓首次以一寸刻連環次以四寸五分作八面雲角（每面六寸自雲角至基石背作八面）次以一尺一寸作廉隅（每面四寸五分）次以四尺五寸作柱身內面刻細虎（左柱形在降形在右）下端五寸圓斬損於基石鑿中基石高二尺八寸（每一尺面一寸）上層高一尺分上下上刻蓮花下刻牧丹次以五寸作腰（每面）上下刻連環每面刻同心結下層一尺三寸一尺八寸入地中

文石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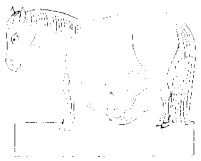
文石刻剃服執笏之象長六尺八寸廣上一尺九寸下二尺六寸厚上一尺八寸下二尺二寸基石入地二尺面與地齊

武石人



武石刻甲冑佩劒之象鞘在腰劒在手（刃向下）長七尺一寸廣上二尺八寸下三尺厚上二尺下二尺二寸五分基石同文石

石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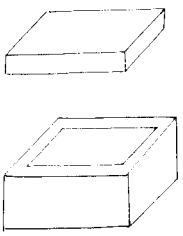


石馬高三尺一寸廣一尺六寸五分長五尺四脚刻制及基石同石羊

坐向石

坐向石長二尺廣一尺厚五寸楷刻　顯隆園左旋乾亥龍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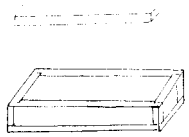
誌石



坐丁向（酉方午方分金乾乙中得水午破六深九尺用周尺屏風石圍徑三十二尺用營造尺減一尺旁灰三尺地灰三寸用禮器尺天灰限金井正地基石下用博石環鋪博石下等灰厚一尺七寸（縫分金針）九十字填紅埋安於　魂道博石左邊（靜廉御醫倫通修書）蓋石長廣同函以全石鑿成長三尺四寸廣二尺九寸高一尺四寸厚四寸

蓋石長廣同以銅綛橫縮結束

贈玉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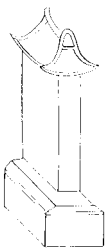


贈帛函

贈玉函長一尺二寸五分廣四寸三分高四寸五分厚三寸蓋石長廣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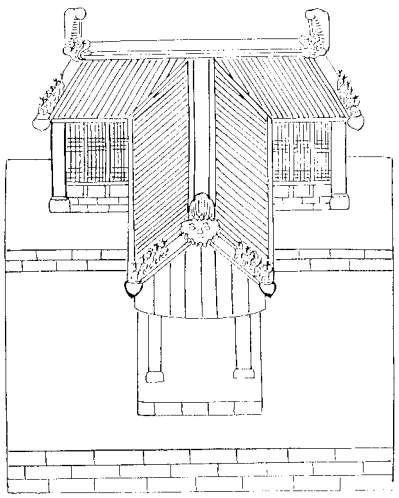
贈帛函長二尺五寸三分廣九寸六分高四寸八分厚同贈玉函皆以六尼石合成蓋石長廣同

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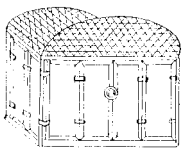


碑（額未）長八尺五寸（用營造尺下同）廣三尺二寸六分厚一尺七寸五分前面篆字陰記楷字填以唐朱（監督自內都刻）蓋石（俗名如屋形）長四尺九寸廣三尺四寸高二尺五寸趺石（俗名龜趺）長五尺三寸方三尺五寸高二尺七寸下有幢石二長三尺三寸五分廣四尺九寸高二尺二寸設閣以護之（閣二間內鋪瓦甎）

丁字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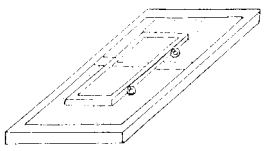


丁字閣（內架二大梁各長一丈四尺石柱二洞各十二尺）東西廣三十八尺（左右石二洞各十二尺）南北長二十四尺柱高十尺一寸正室之南當中連建二間（前後檐）南北長二十四尺東西廣十四尺柱高十尺六寸形如丁字并施卅樓



樓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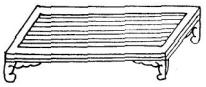
樓宮先設地杭木（長廣如樓宮各剩二尺用營造尺）次竪四柱（高六尺）柱上設方木架梯施椽（椽用竹）為屋形四面設障子（南北各二東西各一皆施鐵接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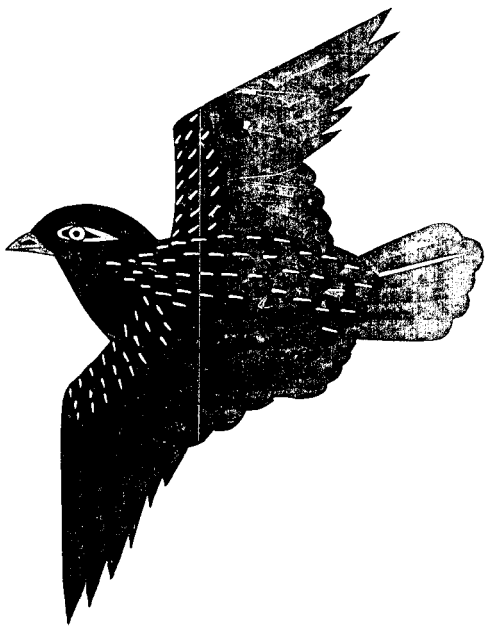
面中間兩支為內外塗紙另畫青龍白虎朱雀玄武各隨其方額戶以備開閉內面亦畫雲氣四圍中空一寸內設仰帳半屋上覆竹網又以素帽紬覆其上仍下垂為帷內設四角首平床

四角首平床

床造大小二床用俗所稱平床之制其牙頭牆木以備圍鬱上下疊鋪上床長七尺三寸廣二尺九寸高三寸五分下床長十尺廣七尺五寸高八寸另造圍木用黃楊木如弹丸而稍長獐狂二寸壓狂三寸俗名龍牙上床之下下床之上當中俱作圍鬱格容圍木以圍木納于圍鬱二床之間稍有空隙四旋上床如碾磑上床兩旁各施二鐵環以備挽引回旋又以二尼木支二床之間上下俾勿搖動奉持安床上後去尼木左旋南首復支如初床上設褥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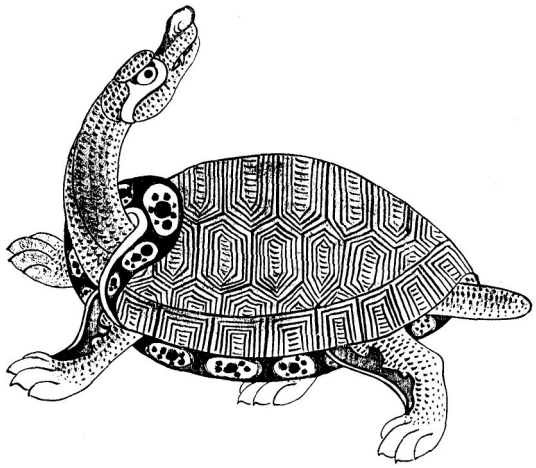


雲足平床丁字閣永排



床俗名神奇亦用筍子床之制長七尺廣三尺高三寸通足高四寸六分邊真茶簟黑假茶風心通足三綵茶四隅施飾鐵裡鐵上設褥席

座目
摠護使一員
議政府領議政金　煜 己酉九月二十七日削職
議政府左議政蔡濟恭
提調三員
行副司直金履素
行副司直鄭民始
行副司直李文源
都廳二員
副司果徐邁修
副司果沈晉賢 己酉七月十三日在外減下
司僕寺正俞漢謨



三物所郎廳二員
副司果李廷柢
龍仁縣令李社源
造成所郎廳一員
副司果吳在文
監造官一員
副司正呂駿永遷 圍都監監造官擬差來
爐冶所郎廳一員
副司果金　鎣
大浮石所郎廳一員
副司果徐直修
補土所郎廳一員

掌樂院僉正鄭東協
監造官一員
司饔院奉事申文顯遷 圍都監監造官擬差來
小浮石所監造官一員
副司勇金相儼
輪石所監造官一員
司宰監直長宋欽書遷 圍都監監造官擬差來
京都監郎廳一員
兵曹正郎俞漢人
別工作分差官一員
繕工監監役李端亨
長興庫分差官一員

長興庫直 長金葵行
幡足所分差官一員
凡審別 提催李閎
相地官觀象監訓導朴仁素
方外地師副司果朴大良
副司勇金春直
副司勇朱南述
副司勇蔡潤銓
前忠壯將成夢龍
訃 士李忠憲
李命權
醫 員催行參

參時官朴萬億
錄 事宋載官
都廳書 吏尹學洙刑曹
金振聲
韓錫麟以上戶曹
申翰周漢城府
鄭得元兵曹
金萬誠刑曹
金 瑛
白興允
金孟鵬
書寫金麗澤以上兵曹

庫直金庚嫌戶曹
金弘基兵曹
使令南斗星等八名宣惠廳兵曹各二戶曹司僕寺掌隷院平市署各一
捕盜軍士二名
守直軍士四名在京時給
京都監書吏韓繼興
金聲夏
朴東臣以上兵曹
使令羅三順等二名戶曹軍器寺
捕盜軍士二名
守直軍士四名

差改
遞說
己酉七月十一日入 侍時 上曰此時三公宜備捴護使之任領相自是例管左右相出去卜相後進去 園所可也同日奉審大臣以下入 侍時捴護使金煜曰遷 園園所兩都監堂即先為差下何如 上曰依為之 上曰吏曹堂上入侍可也吏曹參判金文淳參議李祖源進伏 上曰遷奉之禮今因諸臣所奏已為完定而設都監事不可緩緩問于大臣都監堂上即為差下可也文淳承 命退出 上曰都廳不可不擇差誰可為之卿等退去須即擇差可也都承吉金載瓚曰 園所遷 奉設都監舉行事 命下矣政官啀招開政何如 上曰依為之

七月十三日看山大臣以下入　侍時　上曰石役別看役則丁遇奉足矣而京都監不可無別看役卿等有何可爲者乎都監堂上鄭民始曰臣素無相知之人而似聞鄭道弘爲名者可合於別看役矣　上曰鄭道弘則只合於看役牌將而別看役之任若非手才如崔天若之類則當取自中之地處履歷卿等須廣求可合之人可也外都監別看役則欲用本邑人矣民始曰山役尤宜得人鄉軍門將校未必有可合者是可悶矣　上曰都廳沈晉賢以在外減下蓋以始役時惡有難等待其上來故也其代擇差可也摠護使金煜曰徐邁修似善爲之矣　上曰　園所監造官欲以本州士人付職差下故有所探問於本府矣今以五人錄來卿等出去商確耶其中三人啓下而監造官一人以京都監監造官相換可也軍校之別看役士人之初入仕皆欲避副本土民情之意也卿等當諒之矣若善道與摠護使書中欲得地理之吉則先得人心云者其言好矣

八月十八日都監堂郎入　侍時　上曰上梁文何當正書耶都監堂上徐有隣曰定緞令者　內下即當正書云矣　上曰草圖書先使費允亨書之　蚬遊石坐向及十二方所鋪石篆字使朴東進書之可也

承傳

七月十一日入　侍時幼學金泰直令該曹口傳付軍職冠帶常仕事　搨前下教

七月十三日入　侍時都廳中在外人減下更爲啓下事下教

同日入　侍時令番都監郎廳中時無職名及罷散人令該曹口傳付軍職事　搨前下教

七月十四日　傳曰前判官徐直修稍解山理　園所郎廳且不足加差下事分付

七月十五日　傳曰令番　園所都監監造官中三員以本地方士夫啓下無前啣叅下云何拘常格可合人草記先付軍職文官別無可爲之人而武弁則堂上堂下中多有之云此則

移色時武以都廳補神使用或以禦裨監董本俾出自將任
啓請使用無時不可以此分付　園役時別看役三寨只以
一寨屬京人餘皆以本土將校中衙事人草記啓下領役看
役牌將等京校則不得不用處將人外一並以土校差定該
都監三堂既承筵教下去後通同使役以為拔充定用之地
事分付該都監亦即下諭于本府府使處
同日監造官申文繩他司相避事　下教
八月初十日有　旨捕校捕卒雖令依狀啓下逐此輩作弊之
端別加嚴禁而該府使曾經捕將如或一毫犯科自銜捉治
大則狀聞張先鄒已上來前日三堂上所薦將校或他將校
中卿等相議差定申飭看役可也
九月初二日八　侍時幼學李廷弼口傳付軍職冠帶常仕事

下教
九月初四日有　旨今聞　園所都監狀啓及所報封　標處
稍東去浮土數寸真土出而色帶金黃性又堅粘滑膩如此
極吉之土色實所罕有此豈非天慳地秘有待於今日者乎
歡幸欲躍難以容諭龍仁縣令李社源進士蔡潤銓之所見
可謂超出至於朱南述之先見亦甚奇異進士蔡潤銓朱南
述即令該曹口傳付軍職冠帶常仕仍令都監給粮料朱南
述則聞自陽城進去蔡潤銓即令譏營驛騎下送龍仁縣令
李社源都監即廳特為加差下使之主管董役
同日有　旨　穴處東邊一間所得土色帶金黃性又堅粘云
都廳有所錄報然則龍仁倅及蔡潤銓朱南述之見可謂不
謀而同此等之人豈可不使用蔡潤銓自譏營給粮料下送
此意知悉
九月初六日　傳曰　園役時待令相地官副司果朴大良司
勇蔡潤銓朱南述金養直為定給粮料其餘地官並解送事
分付
九月十一日有　旨卿以沈寬鎮別看役差下事馳啓矣依狀
請施行
九月二十七日　傳曰朝廷之事首相主之齊額之舉班首主
之昨日舉措一則首相與班首之罪二則首相與班首之罪
大臣卿宰之一時謫削不但行不得之舉舉措反欠誠實令
日都監莫重舉行書寫官以下多在大臣重臣以此以彼宜
有區別處分大臣諸臣謫削　傳教並勿施前領議政金煜
行判府事徐命善並施中道付處之典少知有君綱門黜之
三司及竄配禁錮捕將定配之承宣逕無舉行公文嚴飭斯
速舉行
同日　傳曰在議政蔡濟恭為拘護使
十月十四日八　侍時　傳曰權作主簿窯令窯外不過直長
二奉事二而已　園役出六皆令勿拘訓鍊與出六朔數則
因其窯外還實合彼此疏通之方自後政依此知悉舉行

七崔孝閭移差本都監而方帶實職使之除本司專意都監之役所帶內贍主簿乃是　供上衙門勢難久曠云令該曹開司相換何如　上曰依為之

七月十五日　園陵都監郎廳以摠護使意　啓曰　闕內待令郎廳依例以入直武臣無宣傳官輪回察任何如　傳曰允

同日　園陵都監郎廳以摠護使意　啓曰本都監郎廳監造官中時無職名人令該曹口傳付軍職使之冠帶常仕何如　傳曰允

同日　園陵都監郎廳以摠護使意　啓曰幼學金相儼朴日源朴秀亨令該曹為先口傳付軍職何如　傳曰允

同日　園陵都監郎廳以摠護使意　啓曰本都監監造官前

寺正俞漢謨前判官徐直修差下使之察任何如　傳曰允

同日　園陵都監郎廳以摠護使意　啓曰本都監監造官前參奉申光河副司勇朴日源朴秀亨遷　園都監監造官副司正呂駿永　禧陵直長宋欽書南部奉事申文顯相換使之分掌察任何如　傳曰允

同日　園陵都監郎廳以摠護使意　啓曰前僉使丁遇泰本都監別看役差下使之看役何如　傳曰允

七月十六日　園陵都監郎廳以摠護使意　啓曰本都監郎廳監造官各陵分掌別單書　入之意敢　啓　傳曰知道

參　啓

七月十一日寅廳下相以判府事金煜為領相

同日政摠護使單金煜遷　園都監都提調單金煜提調金履素鄭民始李文源郎廳前牧使李廷枰掌樂僉正鄭東勛前郡守吳莊文前縣令金鏊

同日　園陵都監郎廳以摠護使意　啓曰本都監都廳二員別單書入之意敢　啓　傳曰知道

園陵都監別單

都廳二望

前校理徐邁修

副司果沈晉賢

七月十三日入　侍時　園陵都監堂上鄭民始所　啓前計

園所都監別單

三物所郎廳副　司　承芳延枫

造成所郎廳副　司　承長在文

監造官副　司正吉峻永

礎石所郎廳副　司　承金　鑿

補土所郎廳掌樂院僉正鄭東栻

監造官兩部奉事申文顯

大浮石所郎廳副司　承徐直脩

小浮石所監造官副司勇金相儼

輸石所監造官　禧陵直長宋欽書

同日摠護使入　侍時摠護使金煜所　啓監造官宋欽書方帶　禧陵直長之任職務相妨開司相捉使之專意舉行何如　上曰依為之

七月十七日　園所都監郎廳以摠護使意　啓曰　園所封標及始役在今二十日本都監提調以下十九日出去矣京都監郎廳一員依例以兵曹正郎俞漢人差下使之察任何如　傳曰允

同日禮曹　啓曰今此遷　園時　丁字閣上樑文令藝文館製進書寫等事亦令　園所都監舉行何如　傳曰允

七月十九日摠護使都監堂上入　侍時摠護使金煜曰本都監郎廳徐直修以三物色　啓下而昨為浮石下送江華地矣三物色不可無主管之人移屬他郎何如　上曰改付標以入好矣

七月二十五日入　侍時行禮曹判書李在簡所　啓耶考辛亥遷　陵時膳錄則代　眞官無守　殯官以代　眞官之不可薦祀別出大祝而以文官郎廳之在　陵所者差出二員矣今番遷　園時代　眞官無守　殯官事既已　啓下別出大祝亦當依辛亥年例舉行故敢此仰　達矣　上曰依為之

七月二十七日三大臣遷　園都監堂上入　侍時摠護使金煜曰鄭道弘閒甚慣熟於山役云亦為起送使之看役似好矣　上曰自都監別看役差下使之察任可也

七月二十八日　園所都監京郎廳以摠護使意　啓曰本都監別看役前僉使鄭道弘差下使之看役何如　傳曰允

八月初五日　園所都監京郎廳以摠護使意　啓曰本都都廳郎廳俞漢謨時無職名令該曹口傳付軍職何如　傳曰允

八月初十日　園所都監京郎廳以摠護使意　啓曰本都監堂上金履素時無職名令該曹口傳付軍職使之察任何如　傳曰允

同日巳時狀　啓　提調金履素郎廳民始

目今事役萬分時急之中石役尤為困措其在董飭之道靡不容極而本所看役郎廳忠根病重還歸丁遇奉則自當看檢正鍊之役本所監董無人嘉善張光郁差定本所看役各別檢督何如為白乎旀卑手蝦少輸入之役未免遲滯乙仍于方欲以摠軍同為輸入是白乎矣若無捕廳校卒則無以制用此辈即令左右捕廳各定勤幹解事將校一人卒二名領率摠軍同夜下來以為董飭舉行之地為白只為緣由馳

啓
同日 園所都監京卽廳以摠護使意 啓曰因禮曹 啓辭
丁字閣上梁文令藝文館製進書寫等事亦令 園所都監擧
行事 命下矣上梁文書寫官實預差別單書入而書寫時
擧行等節外都監處所旣遠勢難周旋令遷 園都監擧行
讀上梁文官各差備官及 祭官考例擇差 啓下事分付
吏曹 祭物亦令本都監措備待令何如 傳曰允讀上梁
文官及各差備官以本都監都廳及卽廳爲之可也
丁字閣上梁文書寫官別單
實差刑曹判書沈頤之
預差行副司直尹尙東
同日以司諭口 傳下敎曰此別單遂給書寫官以大臣中書

八
同日 園所都監京卽廳以摠護使意 啓曰依 下敎 丁
字閣上梁文書寫官實預差以大臣書 八之意 啓
傳曰知道
丁字閣上梁文書寫官別單
實差行判中樞府事徐命善
預差行判中樞府事李社源
八月二十六日八 侍時都廳李晩秀所 啓曰 遞以今番
程遞頻遠差備官之多數差出不無紛沓之慮預爲分排
稟定事伏承 下敎矣取考前例則開 封官一員拭 梓
室官一員執巾者一員執水者一員矣 上曰開 封官與
封鎖官通用執巾者執水者京鄕監造官中塡差可也晩秀
曰 紙牓出納大祝一員告 祭大祝一員矣 上曰一
大祝無行可也晩秀曰捧 贈玉官一員舉案者二員褥席
執事一員捧 贈帛官一員舉案者二員褥席執事一員矣
上曰捧 贈玉官以隨駕閣臣塡差捧 贈帛官曾經玉堂人
隨駕中塡差案褥席自 園所都監造置執事官亦以 園
所都監卽廳監造官分差官塡差可也晩秀曰 梓室官
一員矣 上曰宣傳官別軍職中塡差可也晩秀曰箱差備
官二員座子差備官一員帕差備官一員卓差備官一員矣
上曰京卽廳中以二員無差可也晩秀曰 大擧前捧 香爐
執事一員捧 香盒執事一員 神輦前捧 香爐執事一
員捧 香盒執事一員 大擧前翰檢實果進止執事二員
矣 上曰 香爐 香盒執事置之實果進止執事都廳卽
廳中塡時擧行可也晩秀曰 遣衣捕盜執事二員 捲衣
盜執事一員 銘旌盜執事一員前排外出差備官四員矣
上曰 遣衣依補鋪及兩千年例安於 梓室上勿用於退
塡而大祝自當主管執事官勿爲塡差 捲衣 銘旌盜
事監造官一員無差前排差備官置之可也晩秀曰攝司僕
正二員攝相禮八員羽葆捧持官一員矣 上曰攝司僕正
差一員兩興令司官令吏曹擬望差出攝相禮差二員而一
員或輪回擧行勿用假通禮例令吏曹擬望差出羽
葆捧持官令番則以都監待令該監官擧行可也
九月初五日午時狀 啓 (摠護使金蚊)
節該進士蔡潤銓朱南述付軍職龍仁縣令李社源都監卽
廳加差下使之主管董役事有 旨當日寅時量度在 園

所祇受為白有如乎荼潤銓朱南述令既来到是白遣龍仁縣令李祉源本都監三物所即應加差下使之主管董役而別單書入為白乎旅緣由馳啓

園所都監別單

三物所即應龍仁縣令李祉源

同日未時狀 啓 摠護使金煜

節該龍仁倅荼潤銓朱南述之見可謂不謀而同荼潤銓自儀營給粮料下送事有旨當日寅時量在園所祇受為白有如乎謹依有旨內辭意荼潤銓朱南述使之使用於都監是白遣相地官人數太多前来相地官朴大良金春直外成夢龍李廷弼方令還送是白乎旅緣由馳啓

九月十一日午時狀 啓 摠護使金煜

治石之役前為繫意囚夜董督而不可無專管檢飭之人前縣監沈寬鎮自泽石時已為看檢仍為別看役差下使之另加董飭何如為白乎乙卯緣由馳啓

九月二十六日遷園都監 啓曰摠護使金煜有中道付處之命矣摠護使之任不可暫曠令吏曹即為開政 啓下何如 傳曰已為除拜今日政下祇可也

十月十七日入 侍時都監堂上鄭民始呼 啓儀軌即應金鑒時帶 陵官彼此相妨令該曹以京司口傳相搜何如 上曰依為之

事例

筵說

己酉七月十九日入 侍時 上曰今番則道路稍遠都監堂郎中如有事故從便往来有情理者亦許往来可也

九月初九日入 侍時 上曰閘退 壙內三物所即應上直云誠可未安矣今番則使之上直於退 壙之外事分付而 上直等節另加申飭好矣

十月十七日入 侍時 上曰即應監造官果皆差遣乎金履素曰監造官金尚嚴之下吏有不善舉行之事故略干治罪矣以此撕捉至於見職之不為 厲謝事體所在極為未安推考警責何如 上曰官師相規朝體則然況堂郎體例尤為自別則么麼隸官安敢以該吏之被罪如是引嫌乎紀綱

兩在園當嚴勤而令儘效勞而隆施不廢分爻而教承書申
者曰即為爾謝之意嚴飭分付可也

承傳

七月十一日　傳曰今番遷　園及　園所都監舉行凡事當
從近例考據而舉行　寧陵遷　奉時辛亥　長陵遷　奉
時儀軌京史庫政府禮曹俱無所儲唯有辛亥遷　陵都監
儀軌器干卷云　園所都監舉行時急而無以考出令始開
之外至章閣兩年各都監儀軌皆有之云閣臣一員待開門
進去奉來後傳于都監使之取考事分付此時畿邑厨傳之
弊宜念此常時一切省減事亦為申飭

同日　傳曰　園所新定處待明朝當行初昏宿程途稍遠民
邑之弊不可不念初昏宿以後至設都監時動駕時諸臣皆
自持飯着山往來都監往來給馬事分付文書去來不可遲
滯依　肇慶廟奉安時例從便立撥驛人夫及將色之考例
給粮料比前加給此外自多舉行有礙營門錢貨限萬兩劃
給畿營事分付

七月二十三日口傳　下敎曰　園所都監水原府使狀　啓
勿以狀啓封裹以送依兩西撥便狀啓例中間措貼油紙
封裹事分付

九月初五日　傳曰禮判依遣敎開金井後上來京都雇李晩
秀水川縣監尹行恁亦依此為之事分付

九月初六日　傳曰外　梓宮陪進時宿所站以何處為之令
都監草記進去堂上以下自持飯雖微物無或責出於營邑
中使進去除之以此意申飭京都監及畿營俾無一毫民弊
梓宮下隅板及　隧道閣諸具傳授　園所都監即雇中解
事人京都監及長生殿宮吏并即上來事分付京外都監

九月初七日有　旨卿等以　丁字閣蓋瓦單役體大石物盡
輸事馳　啓矣　丁字閣蓋瓦已單體大石物亦宜運輸云
工役之速就甚可事也　冗家之役想亦就緒而　丁字閣
浮增似未撤去兩處守直各別嚴飭別定即校分更禁火而
即官終日董役之餘夜豈可更用直閣釰果俾別無職務限
上來聞夜必輸巡分更撿飭上來後撤浮增聞別定即官達
夜撿飭三物所宜員　冗家次知撿飭事卿等各別惕念舉
行今予一念憧憧又在於此并須知悉

九月十七日　傳曰新　園所距京恰過百里每歲展省勢難
若前雖欲聞年一為拘擊自如京而各司各營之弊外而民
邑之弊外此許多經費之原式近規無非貽弊之端貽弊如
此抑情至難須有別般講究援例期定之擧然後情可伸而

藥可祛為今日廟堂有司之臣者若知予心寧不另思對揚之策以求便好底道理予今年則凡係出自經費與民邑者纔已別下傳教而自來春展省之行船楫取辦於京江橋採勿用於惠廳以至糇用粮草亦并以儲置米會減陪扈百官軍兵各有定數官受盤纏各有定界俾得息肩排比磨琢十分稱好為京外按行之指南則自此情文無缺軍民永賴予可以安意展省是非尋常政令則宜示重其事之意合行条件彙成一副典則名之以 園行定例大臣總裁堂上以備堂中差定會于備局編摩以進事令廟堂知悉

十月十七日以 園所都監堂上安 園叅設行上来事狀啓 傳曰今見卿等狀啓安 園奠已設行當復命云大禮順成大事速完卿等之誠勤且感且嘉玆遣史官於中路特勞卿等之行

叅啓

七月十三日 園所都監即廳以摠護便意 啓曰 園所京都監吏曹排設之意敢 啓 傳曰知道

七月十五日 園所都監即廳以摠護使意 啓曰本都監應行諸事叅考前例磨錄別單書入之意敢 啓 傳曰知道 園所都監別單

都監應行諸事叅考謄錄磨錄後錄為白去乎依此擧行何如依所啓施行為良如教

後

一即廳監造官除本司仕上直凡公會勿叅差 叅安徐為白齊

一即廳七員內司僕寺正俞漢謨副司果徐邁修都廳稱號

其餘五員各所分掌使之察任為白齊

一各所監造官四員依謄錄差出而別工作監役官分長興庫官員蟾兎所監造官等乙良令各其司分差為白齊

一相地官醫員許士令各其司定送為白齊

一各該司忩慢官吏入　啓處置下人則因禁治罪為白乎矣凡分付時用粉牌為白齊

一堂上郎廳行用印信各一顆以禮曹所在取用為白齊

一各道時急公事行移時撥馬下送為白齊

一令番　園所役軍乙良依近例僧軍除良以募軍赴役為白齊

一都監堂上郎廳　園所及淳石所出入時依前例除　肅拜往来為白齊

一都監所用材木及石物輸運雪馬童車所造材木依前例私儲取用為白乎旀勿論士夫家墓山斫伐取用為白齊

一應用雜物中細鑽物件乙良勿為　啓稟自都監直為移文取用為白齊

一役軍救療藥物令該司待令進排為白齊

一未盡条件乙良追後磨鍊為白齊

七月十六日入　侍時都監堂上鄭民始所　啓各軍門待令卜馬姑為着勢取用之意前已陳　達而十九日都監出去時自多有雜物駄運之事為先容所入偕用何如　上曰依為之又所　啓　園所都監出去時堂郎以下以為給馬而前例或給二匹或給一匹令番亦以二匹磨鍊乎敢此仰達矣　上曰依為之

同日　園所都監郎廳以摠護使意　啓曰　園所始役之後凡有時急往復定奪之事不可一刻遲延別設擺撥於　園所乃是前例令兵曹依例擧行何如　上曰依為之

七月十七日入　侍時都監堂上鄭民始所　啓各年儀軌不可不持去而禮曹儀軌多有闕失者春秋館所在儀軌持去何如　上曰依為之又所　啓都監堂郎出往役所後自外邑定送柴軍刀尺乃是前例亦是不可無者而但本邑處在野中柴道甚貴而許多堂郎炊飯所用使外邑之民無價進排必多有弊端令番則柴軍刀尺姑勿磨鍊自都監斟量磨鍊給代何如　上曰依為之

七月二十四日　園所都監京郎廳以摠護使意　啓曰　園所斬草破土在今二十六日丑依例除　肅拜往来之意敢

啓　傳曰知道

七月二十六日巳時狀　啓（摠護使金煜提調金履素鄭民始事文源）當日曉頭行祠后土巳時斬草破土為白遣臣方復路緣由并以馳　啓

九月初三日禮曹　啓曰今九月十一日　園所開金井時摠護使觀象監提調本曹堂上承旨進去同審何如　傳曰允

雲監提調則　園所堂上中既有兼帶者不必進去矣

九月初八日午時狀　啓（聯名上同）

節該　丁字閣　旮家分吏掄飭事有　旨當日辰時量臣等在　園所抵受為白有如乎謹依有　旨內辭意　旮家及　丁字閣禁火段別定郎官與看役牌將分吏巡審着意擧行是白乎旀直閣李晚秀果川縣監尹行任使之輪巡掄

飭而上去之後則令各該衙門次知檢飭為白遣臣等亦為另加惕念嚴飭舉行詳料為白乎旀緣由馳啓

十月初一日入侍時摠護使恭濟恭所啓取考儀軌則新陵退擴穿開時摠護使下往奉審而今番退擴穿開適在今月初四日是日卽雲翠自舊園所進發之日也摠護使無以下往新園所勢不可不只令園所堂上擧行乎敢稟上曰卿則勿為進去可也

十月初十日午時狀啓（摠護使恭濟恭所啓 監董都監郎廳李始源）

本都監三物所卽廳李廷恢新除司僕寺僉正隨駕次上去矣事役姑未完畢卽為急速下送以為差役之地為白只為緣由馳啓

十月十六日辰時狀啓（捉詞金履素 都廳民始李文源）

當日平明臣等進詣園上奉審後辰時量安園廟依禮文設行為白乎旀京別着役及京着役牌將盡為入送為白遣臣等今方上去緣由馳啓

十月十七日書啓（記注官 庾橋）

臣敬奉聖教馳到果川弧峴地勞問于園所都監堂上行吏曹判書金履素行司直鄭民始行工曹判書李文源等處則以為至道史官中路勞問恩敎曠絕惶感無地臣等一行無事上來云矣敢啓答曰知道

事實

述說

己酉七月十一日錦城尉朴明源上疏伏以臣桑榆景迫痼病深痾萬念灰冷歸中待盡而惟是憂愛寸心炳然如丹夫地理之說始於漢晉間術士而盛於唐宋世間禍福雖未知必由於地理其說由來已久若皆虛僞豈能使人崇信如是乎程子雖不信地理然有彼安則此安彼危則此危之說又云須取山田水曲襟抱無虧欠地家所謂吉地者亦取如此也至於朱子則實深究其說其葬親之地既以其法求之而又論山陵得失甚詳今撮其大略而言之有曰以子孫而藏其祖考之遺體必致其謹重誠敬之心以為安固久遠之計使其形體全而神靈得安則其子孫盛而祭祀不絕此自然之

理也朱子嘗以無稽之說告之君父而垂之天下後世也伏惟　國祚事體顧何如也謝保亦何如也為今日之臣子思萬世之大計心無所不明其極義有所不敢自隱冒昧萬死仰塵　宗祧臣素昧揣與使同聲聲只以人人易知易見者而論之何乎一莎草枯損也二青龍穿鑿也三後北水勢之衝激也四後部等石之非天作也以此觀之則風氣之不順土性之不全地勢之污下推以可知也有一於此尚為臣民之至恫而況此此之備　國內近處賭結成群至今
御極之後而憧憧　聖念惟在於　國祚安否晨鐘夜燭幾灑深宮之淚春雨秋霜頻換　中朝之歎　玉食靡甘　丙枕不安臣之前後陳　對未嘗以此　啟者不啻屢矣在廷之臣亦豈不聞不知而特以事係莫重未敢容易發言臣側聽多年未嘗見一介臣為　殿下對揚者臣竊慨然臣即朝暮人耳終以出位為嫌而不陳無隱之恥則生為不忠之臣死為不順之鬼是負　殿下也是負於昭之　靈也臣豈忍為此也臣曾聞丙申初有以遷　奉藪端於　延庥者伏想　聖聰亦或記有而可見人心之不甚相遠也臣抑又有區區愚忱深泣而陳之嗚呼丙午五九月之變尚何言哉維山之鶴駕未返斗樞之虹光還墜臣今白首不死忍見我　聖躬惸惸獨立於上海籌漸向晚晛小肤尚遲綿蓂萬年　宗祧主鬯久虛八域生靈謳謌無所臣思之及此通宵不寐心肝蝕盡試以天道言之則我　聖上對越上帝敬授人時天無日月星辰之災地無草木人物之妖十風五雨時和年豐書曰作善降之百祥試以人事言之則我　聖上躬周公之達孝繼文王之志事指　國勢於磐泰之上奠民生於春臺之中將歎休哉上自萬紳下至匹庶家頌天保之章人獻華封之祝者凡今十有四年矣詩曰惟懷君子福祿攸降臣以天道人事及質忠惟則神人所勝則百之慶史不可勝書而年前變表一何舛也伊汲　誕彌尚留遲臣誠莫曉其由也茶以地理言之則臣嘗聞諸故老之言參以術士之議形局之拱抱對案之分明非不為合格而論之砂水之法則大為地家之所忌云若其言謬妄不足取則誠為　國家無疆之休而萬有一依俙彷彿者則其於　聖躬何　宗國何昔在　英宗大王七年辛亥　長陵遷奉時大臣諸宰以戊申以後中外顯望之情引朱文與食久遠之語　前席建議改卜吉地　國祚之靈長冥至今賴焉既有　先朝之故事則尤為今日之明證矣噫　列聖血脉之倚惟我　聖躬也　國所安然後　聖躬安也　聖躬安然後百世本支也古人所謂宗廟享之子孫保之者不其然歟不其然歟臣誠此齋沐具疏進呈　天鑒伏願　聖明矜然深思下臣此章于廟堂　博詢在庭而廣招地師諸取休咎以安　神道以伸　聖孝俾為百千代遠猷大策千萬至祝而仍治臣越俎妄言之罪以勵臣分不勝幸甚　答曰省疏具悉眞頑至今夙宵結轖于中卿請除至當問于大臣諸臣決之仍　傳曰此批答遣史官傳諭

同日時原任大臣閣臣宗親儀賓二品以上禮曹堂上請　對入　侍時判府事徐命善等曰臣等伏聞錦城尉朴明源以園所遷奉事陳疏云此是何等莫重莫大之事而臣等茫昧愚迷尚未陳請莫非臣等不忠之罪也都尉陳疏之後不容一時稽緩玆敢相率求　對矣　上命承旨李時秀讀錦城尉朴明源疏訖命善曰疏陳之事無容更議伏望亟下　成命為領敦寧洪樂性曰此非都尉一人之言也朝野閭巷此議已久而事係重大不敢容易陳　聞矣今既　登徹惟願即令舉行為判府事李福源曰疏語的當別無更達之辭遷奉之禮不容少後矣領議政金煜曰都尉疏中以朝廷之無一人陳請為慨然云者誠然矣今始　登聞實是臣等之罪而既聞之後又豈可遷延乎判府事李在協曰此疏至當有何更達之辭乎左議政李性源曰此事之至今遷就莫非群下之罪都尉之責臣固甘受而今日求　對惟冀亟奉　成命矣右議政蔡濟恭曰昔在　先朝甲午年間　聖教若曰春邸尚未有螽斯之慶　長陵遷奉之兆無或如何予至　命故奉朝賀洪鳳漢奉審　長陵而奉朝賀以新　陵移奉允為古兆而　奏然後　聖念始乃釋然此臣所仰覩之事今見都尉疏語實是　宗社無疆之大計為今日臣子者豈有更議乎亟擧　遷奉之禮區區之祝也禮曹判書李在簡僉判金魯淳參議李義駿等曰臣等待罪禮堂而都尉疏語無容更議伏願亟降　成命為提調金鍾秀等二品以上欲為進前奏矣　上飲泣哽咽不能　下教命善等曰伏覩疾懷若此下懷不勝悶迫而當此莫重莫大之事尤當保嗇　聖躬伏望十分　節抑為　上曰予之素有腦悶衝上之氣卿等亦必知之在平時雖十分理遣少有則每如此今見都尉之疏又聞卿等之奏語到　本園自不禁膺塞氣短痒難發言矣藥性曰顧　進茶飲以為下氣之道　上曰何必乃爾卿等姑勿徑陳待予氣少降可也煜等曰然則諸臣不必進前迭奏鍾秀等曰都尉疏請實是擧國之同情則果不必迭陳而重瀆　疾懷矣小頃　上曰錦城尉之疏果是何等重大之事也山理有無予實不知而若以先儒彼此安之說言之則亦不可謂全無是理然若惑信禍福之說遷移久遠之營域則雖閭巷匹庶之家固萬萬不可況國家莫重莫大之擧乎今予此言豈因一都尉之疏而發哉予之情事不欲以常人自處者卿等之所知數十年來抱玆煩煩風霄至慟結轖胷中若合土親膚三字則予懷同極當如何仍良久於悒不能　下教命善等曰當此日令舊事　聖懷痛迫安得不然而如是　疾懷非但有妨於　節宣若令克完之道則尤宜　節抑矣　上曰予亦豈不令及於此而欲說往事腦氣先塞自不覺如此矣　園所初卜於　健元陵右岡而單竟定於即今　園所始末今日登　筵諸臣亦必有知其詳者矣都尉疏中五条論列本非都尉之臆見稱說也萬口一談積有年所予於堪輿家說雖無所知而凡眼如此與情又如此則予今數十年一味遷延者是豈情理之可堪乎都尉之欲陳此疏予已聞知而非但不止之亦以為當陳之事矣今日始為陳疏而卿等又為聯請到今尤豈有他議乎予雖不肖無狀決不可當動於風水家禍福之說此則卿等亦必

諒之矣今則予意先定詢謀僉同惟當亟蕆　遷奉之禮而已地家之說姑無論先以勢知勢曉之事言之地中之不安不待五鹿云云可以決知大抵　次性即無氣死土有十分至難言之端予不欲詳言前官後兒之不成格而無暇論於朝山朝水之好否猶屬餘事問於都尉可以知之況都尉跋中莎草云云亦出不敢明言也且以堪輿家行用說話言之內作甲坐外作卯坐辛戌得水亥破甲卯亥俱木也辛戌水即所謂黃泉得水內堂無水不可但以偏水言又況乙入首而龍勢又無可論其他種種不敢詳說之事不一而足明知其如此之故自甲午辰省心中徑營即此一事然　移奉之舉果何等至重大果何等至審慎而新卜之地十勝萬勝於今日以前坐後底可無憾而以今行用地師地中之事孰能明見予公及于此夙宵憂懍況今山地從何新卜予命善等曰　聖教至當矣　園所移奉已有　成命今則求山卜吉為急先務而新卜之難又如　聖教實不勝憂悶矣　上曰都尉跋亦云丙申年有　遷奉之議云云矣蓋自御極之初予之洞屬一念惟在於此事伊時果有上下酬酢而已丙年三字已載於伊時之遺教而十四年之間惟今年年運山運園所本命運為上古前此而既無如此之年後此而難得如此之年入今年之後予懷益復憧憧食息靡寧乃於今日見都尉之跋聞諸卿之言從今以往宿志可遂大事可完豈非天意耶雖於痛迫之中遑切慰幸之心矣僉曰　移奉吉兆實為　宗國億萬年之計則臣等忭幸尤何可盡達乎　上曰自來封　標之處豈曰無之說或有之古人有言望氣尋龍勞登山占穴難云今之地師今逢大地豈特其十分善裁穴乎此尤可以焦嚇頃間不能自已者也凡膽夫之大地予雖不一一躬踏亦庶幾領略文義養性山友坐之原自古有云云而雖祖終欠太近不免有臂拂之氣砂水龍勢決難擬到長湍白鶴山下有三處包勢或狹小或微後　光陵左右岡中一處即達摩洞與文義齋稍之地而不但俱未合意其中一處山寺基重臣李文源亦必見之而神前佛後廢屋古廟古人之所忌決不可擬到龍仁云云處亦然外此　獻陵包內排樹洞　寧陵包內二處　康陵白帽遷如平諸處無一合意處惟有水原邑內封標三處中官家淺一處自是流來傳稱之地玉龍子所謂盤龍弄珠之形包且多前人明的之論況年運山運　本命運無不洽合予所謂天意者此也卿等之意何如嬰等曰水原之為吉兆果是自來相傳之說而吉運俱叶尤不勝萬幸僉曰臣等全昧地家之說雖未見其文蹟而此地之為吉兆亦皆耳熟聞而稔知矣　上曰國中國陵封標中三處最吉之說自古有之一則弘濟洞即今　寧陵也一則　健元陵右岡即今　元陵也一則水原邑也水原當居第一第二人孰不知乎　孝廟因山初議於水原而未果用始奉於　健元陵右岡癸丑年移　奉於呂州弘濟洞矣水原山地之論觀於已矣　寧陵儀軌如尹絳俞棨尹善道諸人及洪汝恃潘好義等術士之言可以知之上所謂三處中一處奉　寧陵又一處奉　元陵惟水原一區之最好地尚在似若有待於今日矣水原山論始末則莫詳於故重臣尹絳狀啓及尹善道文集中山陵議及與掘護使書

而予於水原留意已久博攷而詳察不知為幾年王龍子所評詳載其中而其言以為盤龍弄珠之形真是福龍大地而龍穴砂水盡善盡美誠千里所無千載一遇之地此正朱子所謂宗廟血食久遠之計也況地之極好極吉雖如此最是裁穴為十分難慎而蓋其形局雖使無知凡眼見之一見可辨穴星則乳頭下坦處而堂向則案對小阜是謂對珠而三對珠則兩峯間空處此又所謂對珠則當向空者也且分金則以此穴以此坐以此案亦當次之予意已以水原定之今對卿等略及篾中之說此非天意所陰隲神明所默佑乎燮曰今承 聖教臣亦恍然矣王龍子即道說之獅而所論果如此矣臣意則捨此更何求乎 上曰聞卿頗解堪輿家說云果然矣王龍子果是道說而卿之所見從容詳陳可也諸大臣皆曰自古傳稱今又運叶臣等只知為萬幸矣 上下水原山論抄出丹子 命承旨讀奏使諸臣聽之 上曰諸卿之意何如命善等曰古人所論既如此的當則到今豈有他議乎 上曰已爻所卜之兆非即今封標之二處也就其穴上稍低處欲為定用而故判書尹絳故參判俞棨皆為往尋而有所評論矣已爻封標處即所謂乳頭也比諸稍低之坦處真穴不無登露之嫌惟坦處圓暈處是真正福龍吉地也在協曰尹絳俞棨與尹善道伊時亦有議論矣 上曰卿亦詳知水原事蹟乎在協曰臣於地家說尤所昧然只見文集而記得矣 上曰尹善道山陵議及與摠護使書既載其文集而其外山論或在於本家云耶濟恭曰其子孫皆居在海南地矣臣但聞故老傳說則尹善道嘗以為有吉地如水原者此實 宗社億萬年無疆之兆云 國家若用之則古人所謂千年之說當有驗矣性源曰善道之孫德熙臣曾有面分而善道 山陵議亦嘗見之矣今其子孫居在海南而繁衍無比矣濟恭曰德熙曾以 御容摸寫之勞筮仕矣 上曰吉月不遠日下先務最宜安接本土之民而次議移邑之計予則曰人情安於舊地利亦吉民人遷徙則予已有多般經紀俾各奠安而任予宣布撫摩之責則道臣及地方官是已況於設都監之後則其為責任不輕而重今幾伯非不精詳近日畏約太過與該倅欲內擬矣 命書搦教曰兵曹參判前望單子入之待下批牌招察任又 命書搦教曰未前拜諫長許遞前望單子入之待下批牌招察任 上曰兵曹參判以趙鎮須布大司諫以金魯永須布事分付可也 上曰幾伯及水原既作堂卿等商量可合之人而方伯則守臬之外宜取履歷地方官則地望幹局當無責矣卿等其薦之性源曰然矣前監司中久任者在閣臣矣 上曰予意亦以為好矣該倅武將中思之性源曰將臣趙心泰未知如何 上曰好矣 命書搦教曰幾伯之代問于大臣各別擇差水原府使亦於今日內議薦並令當日辭朝京幾監司徐有防落點水原府使趙心泰落點 上曰今番 遷奉之舉事體莫重 本園祭儀皆用亞於 太廟余以大夫之禮摠護使當差出矣 上曰京幾監司水原府使入 侍有防心泰退伏 上曰幾伯則自是宿所今番負任比前尤重各別惕念水原倅則擇差有意須於今日內到任先以朝家之意宣諭民人以 移奉園寢係是莫重莫大之事為民一念何可弛

也日後蠲恤之政固已留念目下莫接之方尤所當先須勿動心各安厥居之意申申曉諭可也命善等曰大事既定則遷民等小節何可顧也而　聖諭申複　德意及此方伯守令曷敢不對揚乎　上曰錦城尉雖已陳疏既已登逕詳陳所懷可也明源曰臣之區區賤見已悉於疏中不必絮疊而今於　俯詢之下亦安敢默默而已蓋　園所事體何如而關係亦何如也臣雖素昧風水而青龍之穿鑿水勢之衝激後托之等石至於莎草拍損蛇虺成群此則不待術士之言某水為害某山有妨而人人所易見而易知者也是以非但國人嘖侍者如此有識之憂歎固已久矣以私家丘墓言之為子孫者不可一日自安於心況我　聖上出天之孝思無所不用其極者乎萬年　神道之安吉　園矣之祈永惟在於是伏願　博詢今日入　侍大臣諸臣並舉禮儀是臣千萬翼祝之至也命善樂性福源燈在物性源濟恭曰臣等今日聞都尉陳疏急於仰請與宗親儀賓諸卿宰相率來　對蓋都尉疏辭非都尉一人之言亦非今始有之論也閭巷搢紳之間往往有隱憂者久矣以我　聖上無窮之孝思十餘年洞屬於　宸衷臣等亦豈不仰認而莫重之事不敢以普時之見率爾開口因循至此今見都尉之疏五条陳論雖不敢更煩齊奏以慊　聖心而其為驚心痛迫當如何哉　遷奉之禮無容更議新卜吉地一日為急　園所一岡一麓皆是　聖教之所記有臣等亦於年年陪從時慣見而熟知不待更為奉審而事體至重至大臣等今日與禮堂觀象監錯工監提調進詣　園所奉審然後求山之行可以趂即舉行故敢此仰達矣　上曰予之痛寃之情輸卿等豈待今日遑教而知之乎況都尉之疏說如此　遷奉之節豈可一日少後乎年年展省必趁審局內外乎意卿等皆已知之與　長陵遷奉時事勢有異不待奉審而決之然以重事體之意今日則奉審待明朝仍為看山之行可也　上曰水原之議雖無他見而慎重之道宜先博詢然近來所謂地師能有可用者乎卿等私家亦必有常時任使之人矣古人則如尹絳俞榮尹吾道無不參涉於看山栽穴之議今亦有士夫中有識見者乎命善曰古人則有真知的見而今則士夫中未嘗聞以地術名者向來許曄見差都監即厥而此亦未必其有真箇所見矣至於私家所用之地師則無非庸陋無可稱者矣濟恭曰今之士夫徒能言方書之如此如彼者淄淄皆是而實則茫昧豈有真箇知識之士乎　上曰成夢龍屢任於安樂峴補土之役且有水原土著人金養直頗有識見云前此以慣於土役頗試之錦城尉必知之矣命善等曰局方中李命求稍勝矣　上曰卿等率三人莽以重事體之道先諸園所奉審而大臣以下先退可也

同日入　侍時　上教承旨金履成曰與相地官革罷已詳細奉審而永吉所見地師所言果何如履成曰地師所見皆是矣　上曰穴處非真穴即補土而穴性又不成樣方書所謂無氣之死土猶屬歇後地中事地師之言雖未可信水火虫木四患安知不俱備方書所載皆未必盡然至於十分無疑處雖凡眼可以知之豈待卜舊人之言而決知乎同副慣於風水每以此自任云術家之說俄遑則近於不經雖不言之

今適從容問之矣　本園乙辰作腦乙入首內作甲坐外作卯坐得水辛戌破則亥破也辰戌丑未方所謂玄龍方書一概可知亥是木甲卯亦木也木山之亥破亦非長生破乎且以得水言之在辛戌方亦非所謂黃泉得水乎至於內堂或云偏水而无無水則貧句云云而猶不覩似乙巳花於龍脈此猶不成格且況以乙入首乎安樂峴路每當展省踰此峴尤以此路為悶迫　園所自此峴乾戌方落脈變為辛戌丁未方剝換午丁再轉為脈乙辰入首辛戌丁未乙辰已萬萬鶯心況乙辰之下所達處為甲坐脈若第行而變為貴脈猶有一分可慰入首即為乙辰則可知其艱行寧有如許龍脈行度乎水法最勝處為坤方源水不長流水時亦始見而旋迴成木水由辛而歸於壬亥為及弓水先後天相破此猶屬欲後至於龍勢俗所謂風吹水刼無化生之病龍也復成曰壬癸破之說雖引不見三丈之法此法則用於平洋之地矣平洋則息水之砂以其低微而水去隱隱故到得不見三丈方謂之破而至若下砂頭截水勢即地變藏則不可用三丈之例明是亥破矣　上曰其時似以不見三丈之法論破而不以為忌矣俄遞所謂水原地乎雖未及目見幾年經營豈不領略乎癸坐年運山運　本命運俱吉過峽乙峽也配向得破無不俱美雖凡眼俗見決知為真龍真穴真砂真水大抵野中之龍盤如小藤騰間之脈乳而為窩左右砂稍如鳥舒翼空處圓暈宛然苗稍瞭然青龍四重白虎三重堂內之水悠揚挽回去如不去顯有顧我欲留之意無以明堂內小墩作真正之案青龍外朝山作古象之砂此非無上大地乎地既盡善盡美此後審慎之道惟在裁穴觀於儀軌及古人文字已有定置之穴穴宜稍低向宜對珠珠即小墩也俄遞所謂盤龍對珠之形也況千里行龍古人所稱此地自負兒山至於穴處起起伏伏行道不知為幾百里登封標處指點重密如在咫尺無論如此如彼今之地師之說豈足取信而此地傳來文蹟如此豈非萬幸乎履成曰臣為父母遷葬多見京鄉地師而語及於　園所無一人譽者故常懷耿耿隱憂每欲冒昧一陳而事係莫重合意未果今日都尉陳疏大計完定不勝大幸新占之地臣亦曾見而果是無等之地願從有司之後參觀裁穴時矣　上曰奉審大臣入侍入　侍時判府事徐命善等曰臣承　命馳詣　園所奉審則地師擾不得詳達而臣於地輿書全無聞見至於砂水向勢之好否固未能的知而參以儿眼閒諸輿論決知非永久　奉安之地臣於昔年忝居　雷肆仰觀　德容測侍庶時常以為即今所奉之　園所格局氣勢淺小低下大不合於　聖人萬年之藏且待罪揚州亦嘗因　聖教有所對矣今聞地師之說莫非臣不忠之罪也水法山勢之為地家所忌者已為論列於書　一路中一徑　睿覽可以俯悉矣改卜吉地不容暫緩亟下　成命是臣區區之望也　上命承旨李時秀讀書　啓說命善等齊拜曰臣等別無更達之事矣惟願亟下　成　命以為　國家億萬年無疆之計千萬幸甚矣　上曰相地官使之入侍成夢龍則以所著天翼使之入侍金養

直則既付軍職即令帽帶入侍可也成夢龍金養直入侍
上敎戶曹判書徐有隣曰相地官章服令本曹製給留京粮資亦為備給可也　上曰明日看山之行及設都監事出擧条可也命善曰臣等率地師進詣　園所詳細奉審則諸地師之言與都尉疏論汹然相合故使之各具意見条列於書啓中以備　庿覽而今此　遷奉之議似若　天心之默佑陰隲而有不容少緩者　宗社無疆之福自此可占臣不勝慶幸之至領敦寧洪樂性曰臣詳聞諸地師所論則指證明確果相符於都尉之疏陳矣今此　遷奉之擧實是　聖孝攸感而　宗社億萬年綿永之福自今伊始臣不勝欽誦慶祝之至判府事李福源曰都尉所陳五条之外諸地師疵議又如此人見既同　天意可占　遷奉吉地允合於禮臣無容他議矣判府事李在協曰諸地師所見具在書　啓中而都尉疏語儳為明的　遷奉之擧有不容少緩矣左議政李性源曰臣隨諸大臣入進詣　園所奉審則諸地師之言果與都尉疏論汹合　遷奉之擧決不容少緩矣右議政蔡濟恭曰閭巷之有此論已有年所而特以事係葬重故人不敢發言今幸都尉疏出矣臣忘承　命隨諸大臣入進諸奉審則不特相地官等所言與都尉疏汹合以臣蒙昧之見亦知其來龍無生動氣龍庿占筆薄決非帝王家萬年奉　安之所擇吉　遷奉實有光於　聖孝矣錦城尉朴明源曰臣之區區賤見已悉於疏中更無可　達之辭矣觀象監提調金鍾秀曰都尉之疏非都尉一人之見也國人於公之論其來已久而特以事重故不敢發言俞周chi奉審臣亦今始為之諸地師所論之外大體形勢淺且小其在事面不合於葬重
萬年奉　安之地宅　遷奉之節決不容少緩矣禮曹判書李在簡曰臣朝見都尉之疏隨諸臣入進諸奉審又聞諸地師言　遷奉之擧恐不容少緩惟願
上下　成命為俾工監提調李文源曰大臣諸臣既已詳陳臣豈有他見惟願
擧　遷奉之禮矣領議政金陶曰臣朝承新　除未及前
命故雖不得與諸臣同為奉審而今聞奉審諸臣所奏且伏見
書　啓中相地官各陳之言與都尉疏陳果為一一汹合
園所　遷奉之禮更無容他議今則奉審之行既已復
命史卜吉地不可一日暫緩明日臣等率相地官出往水原地者審　園葬置標處以來以為即速擧行之地何如　上曰明日曉頭除朝辭出去者審而再明復命可也　命大臣以下先退仍　命招入成夢龍李命求金養直進之前階　敎曰李命求今日雖初見而成夢龍金養直汝等兩人近聞以水原穴處成夢龍主毋坐之論金養直主癸坐之論云是豈如是之事乎於坐下向已戴於已亥儀軌伊時以稍上稍下為爭端而今以癸坐毋坐摠貳其可成說乎癸坐則向空而對珠對珠雖非每　陵所有者大抵向空之說即王者無對之意占陵者自古多說此議況毋坐而只對一峰則論以術法亦豈如此乎夢龍曰當如　聖敎矣　上曰癸坐山內堂午破外堂丙破無所拘碍況稍低則元無丙破之慮設如成夢龍之言稍上為丙破亦未必不可養直曰　聖敎至當矣夢龍曰丙破未安矣　上曰此山坦夷龍庿重重作門而內堂破於午外堂破於丙不可偏廢亦當以內外破言之因來

頭應驗言之則內破洞初運外破關次運雖以閭閻間事論之遷動舊山移安新兆係是莫重大至難慎之擧當先以初運吉利為主初運既吉利則次運自當亨泰況又外破多合格者乎內外堂並論非出臆料原於李淳風三分合之說蓋既有龍穴則必有分水合水處穴上水為初分合內明堂水為二分合外明堂水為三分合穴上若水關係最為緊要今若不論內破但論外破則能無擧一遺二之歎乎奉直曰稍低則癸坐午破分明矣　上曰成夢龍之以癸山丙破為疵者即偏信九星之論也癸坐山丙去水為乘存破故汝雖難之若合吉格則雖破軍廉貞甚於乘存者亦不為忌矣況此坐丁得水丙破則正合河圖天干生成格雖無得水若有好砂則亦合此格矣夢龍曰奉審然後可以知之矣　上曰汝等兩人前既屢審更宜有別見乎稍上之論古人已不用之然則當稍低用之丙破自歸於午破明白以坦處癸坐丁向午破者審可也奉直曰臣六十餘年居生於穴下數步之地豈敢以臆見仰對乎分明是癸坐丁向午破而坦處壇褥即真穴也　上曰金奉直之言是矣予亦量之熟矣　命地師先退　上曰已熟量而諦審不待明日着山之行予心釋然矣

七月十三日着山外來待大臣都監堂上吏兵判漢城判尹入侍時判府事徐命善曰仰睹　嘅容伏切問處方今吉地已卜　聖孝將伸伏望十分　寬抑為　上良久後　下敎曰纔見着山大臣狀啓予心一愜一幸當此大事豈不欲務重寬懷而從前結轖之懷不覺隨處輒發矣命善曰奉審諸大臣始未及入來而伏覩　戩下　俯敎且聞先到地師之言吉兆允叶輿議彼同下情欣幸何可勝　達領敦寧洪樂性曰着審之行盖為重事體之意而諸見無一參差尤為伏幸判府事李福源曰臣等未隨着審諸臣之後下懷缺然而耳聞無異於目見矣判府事李在協曰着審之前已知其十分無疑而三地師所論如出一口實為奇幸矣　上曰以予否德有何誠意而得此吉地實賴　神佑着審狀啓猶不如面談諸大臣之入來方臨軒而企之矣　上曰着審大臣諸臣隨到隨入可也領議政金陽左議政李性源右議政蔡濟恭都監堂上徐有隣李在簡鄭民始進伏地師成夢龍李命求隨入燈曰臣等到本府轉詣置標處上自主峯下審穴處而先坐上穴稍高處環覽局勢與龍虎則局勢非不平正龍虎非不拱抱而平正之中不無澗大之意拱抱之中差欠緊束之勢眼界亦似褊闊及其下坐於所謂坦處則不過為咫尺之間而局勢藴藉龍虎緊密又有穴左右蟬翼分開之形眼界十分從容望中小墩與穴處直為對峙此地素稱蟠龍之形而此墩為蟠龍之弄珠以臣凡眼亦似的確之論至於業對則兩峯瘦立若使向峯作案則似不得盡攬兩峯之勢就兩峰之間空處作向則兩峯之氣合作一案自古所謂對珠向空之說似以此意坐於向丁地師之說已皆歸一此坐之外似無他移局之道明矣此誠　宗國無疆之計而占得此無上古地臣等不勝慶忭之地性源曰臣本莊昧於堪輿求曲形容其萬一而以凡眼論之則局面宏濶穴處平正龍虎襯切拱抱自穴處距主峯似為數百步逶迤屈曲不知其竣而

蹲鴟之後始覺其高前後大坪四面拱帶皆窈然可見諸地師之言皆以為龍帑几九轉乾亥之下即入第矣第毋第艮云故臣令地師泛鐵指示則方位皆分明大體尊重隆厚有儀可象圖不敢盡言不能宣一言以蔽之曰天作高山以待今日雖深於術數者決不敢指的拈出讚歎其一二處矣對珠亦為看審則不高不低自作一阜於平野正中於主峯對案之間此其大略而實不勝萬萬慶忭之忱濟恭曰臣於堪輿素所昧昧某山某水某格某法不敢指識而隨兩大臣之後自主峯周覽體勢下來穴處之除有起有伏移步屢換已覺其主脉之奇異而乳頭既盡担處在下故坐而詳察則青龍如着肩胛緊緊襯抱而有三峯列在青龍之外其出如髻白虎行行拱抱而勢不高峻其外諸山宛宛補缺嫩若百朵芙蓉所稱堆顆前在數百步許而自担處視之宛是懷中之物不覺叫奇案對鋪立如屏而當中兩峯最為妍妙古人所云向空正謂執端用中不偏不倚之理後來者雖欲指說更無他巧以故無論諸大臣與諸堂不特一辭讚歎無不心悅誠服夫盡善盡美古今以來惟堯舜見稱而前人之於此山直用此四字其極意致歎豈可想矣此莫非 聖孝出天神明默誘占此大地臣不勝忭幸矣觀象監提調金鍾秀曰諸大臣皆已陳達臣無更達之語而術家格法臣雖全昧大體形局以凡眼見之亦無餘憾此是大局而自主峯淡腊至落穴處皆分明端的重重龍帑環拱有情之外不但遠近對案而已後主峯見之四面峯巒千百其數而入矚者無不明媚淨肅有若為此局巧設者所謂如八百國之朝周者真善形容矣有隣曰今此山地即自古有名稱之極吉大地而非但諸地師贊揚如此今雖以如臣素昧堪輿之凡眼奉審亦知其為極吉大地此莫非 聖孝所感而實為 宗社無疆之福誠不勝喜幸矣在簡曰今此山地雖以凡眼亦可知其為極吉大地龍勢則屈曲起伏雄偉豐厚局局則四面回抱無一罅隙至於對珠向空考諸文書亦合符節誠不偶然若有待於今日此實 宗社無疆之幸矣民始曰山勢磅礴蜿蜒而來盤紆大野特作形局淡障雄偉前面開朗穴處分明龍帑重疊不必術者以凡眼可知其為極吉之地至於穴處之稍上稍下坐向之或癸或丑諸地師之言今已歸一更無可誠天慳地秘以待今日誠非偶然此實 聖孝格天以啓國家無疆之休臣不勝慶幸矣 上曰今聞卿等之言一辭同然日此予心底無憾恨況襲年經營風宵憧憧何嘗食息弛心予雖欲躬審心中料量無異於躬審不待地師之說此地之為十全萬全孰不知之予今則已完定而以重事體之道再次三次省審當如例為之吉期在迫工役一時為急遷園日予擇吉以十六日為之應參諸臣來會舉行可也 上曰予之數十年至情苦心惟在此事而水原形局雖未目覩風宵想像常有心上商量自以謂十全百全萬全之地矣今以諸卿之言比諸所料可謂有增而無損諸卿豈或於此事容有一毫溢美而然耶煜曰臣等言辭拙訥固未能詳陳其大吉極貴之格豈敢為溢美之辭乎性源曰看山時例有圖形故臣等下去時率去畫員使之畫出形局則一幅摸畫只是依樣真箇靈淑之氣吉祥之格雖名畫粹難摸出故畫形雖

為持來而不足御廉　廉覽此可見山地之萬萬絶吉矣濟恭曰水原吉地為　宗國億萬年無疆之福已有前人之評以臣所見誠者所達盡善盡美四字之外更無他辭矣有隣在前等曰臣等戴見東國之內更未見如此吉地矣民始曰臣待罪北伯時奉審　定和陵窮以為兩　陵寢為北道八陵之最今審水原一如　定和陵而或有較勝處矣濟恭曰重臣之言果是臣意亦然矣　上曰地師三人皆來待乎　燈曰成夢龍李命求已入來而同副承旨以為載穴處合有商量今日欲為更審故留置金養直而來矣　上曰承旨不為入來耶有隣曰方留水原矣　上曰承旨即為復命金養直仍留以待再着山三者山後上來事折伯出去分付驛路可也　上曰錦城尉今日還來予有隣曰欲為調將數日而

来矣　上曰金養直之論何如　燈曰金養直以為右龍較足于東轉入水鄉南馳數百里則此是旺水大幹也到雉岳山脫殺換面平地渡峽庚兌盤旋突起主峯庚兌既是水龍沐浴則其在主峯之前已合孕育之意矣特相生之美成自主峰乾落轉亥一變為癸再變為丑三變為艮穴後丑艮之配緊束無比而且訣云旺水過艮真土方能結穴非此之謂歟艮下丁上一為山澤之配一為律呂之生亦所謂奇一格也穴雖窩體右掌傾瀉左掌端厚窩中挾左即取舍虛實之妙穴中消水之例也既有前人之論則當以對珠向空作為證葬而泛鐵左右葬輒不正惟當中挾左處不失內外二向安金之除雖或有上下左右之論而兩爭不過尺寸此則似當以土色卞之矣坐穴中回顧則門星端拱在坎即癸之乘存

水之帝旺只此一格已足以占萬世無疆之休況此主星含浮金氣抽出水脉宛轉曲動子母相生累百里右旋翻身於入首之際以作左旋正向者無非極貴之格苟有地理豈無其應乎龍虎則左右陰坂拘拘環護交鎖穴口不見流神之去四方之山不高不低面面有情至於生旺方悠遠之氣天太乙文明之象非筆舌所可盡述水勢則此是陰龍之體故內堂消水不嫌其小而惟其大結之地故外堂則隨龍大川都會于主峯之後非龍隨水水自隨龍力量之大於此可見大抵局勢至固至密不見為大而訣云將有大結之地則先開大明堂於其外今此後坪及細藍坪之開野可謂證左云矣　上曰向副所論載穴更商云者果何意耶　燈曰方書云十年裁穴孟言其難也今此裁穴之論已以癸坐為定則無

容更議而分金之法至微至妙有非淺術之所可知金養直則似能粗解此法故向副欲為更議矣民始曰臣於勞見之形局尚且茫昧況於葵重處裁穴何敢妄論而求之古人文跡參以諸臣目見則盤龍弄珠體勢明的當前小阜明是珠形雖使凡眼者見之可以摸索若其裁穴之法惟當合是葬對無一差錯而已且裁穴之難即指乳穴等未分明之地也今此正穴似不當更容別見而承旨之言如此故臣招問地師曰此是窩穴云既云窩體則合口之窩當用掌旋之中開口之窩當取向上之地古方之說不過如斯而已不必更有云云則金養直成夢龍同然一辭矣　遷奉之禮何莫非重大之事而至於裁穴尤宜審慎臣意則一依古人之著說無容術士之更談宜矣濟恭曰山地之取決於地術者即指定

晚未的處而此則形勢相結不甚雄壯築朝儀當極為明麗
牧卿軟媚而無久浮水留德而有情此俗凡眼所見何必更
問於堪輿家乎　上曰古人亦言八百諸侯朝周之形矣性
源曰右相之意何如濟恭曰別餉庫留庫未知實否而所重處
所用何拘京外某衙門乎　上曰卿等言似然而朝家有財
用處則每索閑西亦豈非苟艱乎予意則均役事目本嚴重
先朝聖德孝出於防民役之意而今既以不煩經費為定則此
亦為民之意也今若以均廳錢十萬兩劃給水原使之經紀
凡事則為好況　山陵之役例收於民今既特命除之則均
廳錢之取用亦豈非當然乎嬰曰　聖教至當矣當初事目
或慮用之無名貴之不郎而今此所用莫重莫大則以此充
彼何不可之有哉　上曰然則當給幾萬兩乎命善等曰移
定邑居新造公廨費固不貲而民戶給價又當多入似當以
累萬計矣　上曰十萬兩無不足之患耶如或有裕則添補
本邑還餉亦何妨也濟恭曰臣意亦以近十萬兩料量而畢
邑文義邑長淪白鶴山下　康恭陵內　獻陵梨樹洞諸處
敦睦相半靡所適從而水原則到今卜吉豈非天意之有待
乎卿等所謂天作之說果然矣　上曰內外都監工役中時
急稟定者諸堂盡達可也　上曰移邑還民萬不獲已之事
而水原雖曰折內稍贍之邑既當國役更有何力可以還邑
乎民家之當還者為幾何嬰曰似為三百餘戶矣　上曰若
是其多乎以予所聞似不過二百餘戶矣民始曰即今當移
處為二百餘戶次次應移者果可為三四百戶矣　上曰無
論移邑移民既有自公家助給之意則所入物力不可不汲
汲區劃而今番不煩經費已有素定外此有何指劃乎嬰曰
臣新叨是職姑未有料量不敢遽對矣性源曰目今京衙門
實無可以着手處關西別餉庫錢財勢將量宜取用矣　上
竟似過此數矣　上曰水原則先以十萬劃給為好矣民始
曰　園所完奉之後則禿城山城不當仍置矣　上曰大臣
之意何如嬰曰臣意則山城相距稍遠恐未必然矣民始曰
山城即與峯藏置戎器地師或以為欠且移邑當在山城下
則不必別設山城矣　上曰此則一番看審後欲決之而山
城蠻頭自穴上望見雖似至近而相距既十里之遠烟火之
氣鷄犬之聲元無關涉至於兵器藏置似無利害之可論矣
七月十五日看審大臣都監堂上漢城判尹入　侍時判府事
徐命善曰山論已悉於狀　啓中而臣等昨日看審之後閘
諸地師之言則一辭贊揚更無餘蘊雖以臣茫昧之見亦可
知其為出尋常大地大抵氣勢多過於雄偉而此地則嫵
媚明朗無一毫麤猛之氣真可謂天作地藏為　聖代啓億

萬斯年之基尹善道盡善盡美之說儻不虛矣如此大地不用於前後卜　陵之時若待今日誠不偶然矣　上曰幸及幾乎完定至於治石至今尚有其時石物之埋置者云果不偶然命善曰昨聞本倅言則凡事尚無頭緒云矣　上曰區劃錢從速下送然後可以及期指置先劃一萬兩自惠廳區處乎都監堂上徐有隣曰先以此書錢區劃矣　上曰為此大事久有儲置者一萬兩當內下自均廳區劃八萬以準十萬之數鱗次下送可也　上曰邑基今已新定民情果何如命善曰新占處即三南大路生理亦必勝於僻處且聞前此民情皆願移邑於今番新定處云而廣州二面又以　特教移爲民情必大悅矣　上曰邑基新定處聞是隋城縣舊基云亦不偶然矣

七月十六日抦謁使錦城尉觀象監提調禮曹判書　園所都監堂上　還園都監堂上入　侍時　上曰昨見水原府使狀啓則邑基定於八達山云卿其聞之乎抦謁使金嫟曰八達山未知其在於何處而臣未及聞之矣　上曰八達山在於柳川地即隋城縣舊基也山抱野開合置大邑云且距果川為四十餘里距舊邑為三十餘里介乎舊邑果川之間程道兩相均平雖於日後幸行時不必別設書停從邑站駐蹕亦甚便好故彌勤堂設院之舉徑命置之矣嫟曰邑基既得其所站院又不別設事事幸甚矣　上曰彌勤堂雖不設院使之建置倉舍者即是從民願裕民食之意也此意已令抦伯知之矣　上曰一用等兩面移付水原在水原雖有得地之幸在廣州不無感雖之歎此亦令道伯從長料理以聞矣

上敎錦城尉朴明源曰卿雖病甚且非該堂始役日及開金井時同為出去監董好矣卿之看審後所見何如明源曰極美極吉更無可違之事而龍勢極其蜿蟺穴星極其磅礴砂面水勢十分平吉以臣凡眼雖一砂一水元無執而為言之處實不勝忭幸矣　上曰穴處甚窄雖欲為各　園之制其勢未由今若當中截廣而為虛左之制則不但允合於地勢亦不患於挨左之議且　國朝　陵寢多有合　陵之例若後　園則厥閣之間其廣為幾許乎都監堂上鄭民始曰取考長陵儀軌隔厥用一尺然則其間似為二尺之廣矣　上曰此事後當下敎而都監堂上先為知悉可也

同日大臣禮曹堂上觀象監提調都監堂上入　侍時判府事李在協曰臣於港與雖無所見穴星案對左右龍虎雖使督眼見之可知其天作之有所待也不勝大幸　上曰諸堂所見果何如工曹判書鄭昌順曰臣雖詮昧於此而雄健之中清秀高聳實所未見矣都監堂上李文源曰術家稱也字形之為好而三枝端的此是也字形尤是出尋常之大地也禮曹參判徐鼎修曰臣固無眼目諸臣所奏之外更無可　達之辭矣　上曰今方移邑民情如何在協曰莫不欣躍民情少無可憂矣昌順曰以二百戶撤毀為定故其外之民乃以不參其中為恨文源曰臣多日留滯細察民情則大抵移邑之處乃是三南大路而大有益於渠輩生涯故移去者莫不大喜而其他衆民亦皆有願從之意矣　上曰然則民怨之慮遠為民願耶昌順曰臣聞本倅言則不但移居之為喜始役之時農務已畢故皆願募軍如得生涯之道民情事勢固

已然矣文源進山圖曰龍甫要害之地小有竦脫之處　遷奉之前勢將補土被莎矣　上曰不待卿言欲使卿監董其役卿言如此甚好矣文源曰黨牧堂當為　御齋室東軒當為　香大廳內衙當為典　祀廳其他吏校廳亦新造精灑仍為　祭官房其餘則似當毀之矣文源曰領役牌將以本府將校使之好矣而此輩本無經歷所見似不如京校不可以專當看役別看役及諸般役所牌將以京將校中幹事者各擇一人使之指揮鄉校則鄉校之不憚勤勞當事樂赴似或勝於京校矣　上曰好矣

七月十六日　都監堂上水原前府使李祖源入　侍時　上教祖源曰聞同副之言則龍仁縣令頗不生疎於堪輿之術云果何如祖源曰渠於堪輿豈不生疎乎　上曰水原新定處似必曾見矣祖源曰臣待罪本府時累次登見勢果是天作雖以莊昧之地亦可知其為大地臣祭之曾見與否臣亦不知而今番新定後見臣祭書則以為太平萬世從此可占云渠亦似已見矣　上曰須即作書於龍仁使之明日即往水原同為看審以來可也祖源曰臣祭與地師朴大良同往利川似難遽明日上來矣　上曰朴大良既已上來則使之同往看審甚好使所伯即為分付龍仁縣令而在處與朴大良同為同來後仍令來待可也

七月十九日　摠護使都監堂上入　侍時　上曰火巢定界同非目下講定之事而要亦不遠移民一事最為閔念何以則為好耶摠護使金煜曰　聖念雖以許多民家之一時撤毀有所持難聞民人輩還以撤移為之大幸云蓋其隶屬之心固所當然而舍價之自朝家特令分給者恰為三四倍故渠輩方感恩無地云寧有一毫掊克之瑞乎且火巢定界今若以一時移民之難而姑許其徐徐撤移則　園之後若或有留在火巢之內則莫重　肅敬之地豈容使民戶雜處乎都監堂上李文源曰自是古來云云之地故民人輩恒以早晚間撤移為慮今雖一齊撤移各自樂赴別無騷動之弊云矣　上曰民家之不得不移徙者必令等定於火巢之外俾無更移之弊期有奠居之樂好矣　上曰新邑既已定基木石等節果已鳩聚云耶都監堂上鄭民始曰姑未及詳聞矣煜曰聞新定邑基即是自古名稱之地而本名則磕洞也前朝有名臣居其洞者　太宗以法駕親臨而錫其洞名曰八達洞蓋取其四通八達之義也雖無文跡之顯著者人至今記誦不已則可知其非虛語矣且況山抱而水廻合置雄鎮又以三南大路之故邑民之生計大勝於舊邑云誠為可幸矣

七月二十一日入　侍時　上曰龍仁縣令進前李祖源進伏　上曰隨所見實陳可也祖源曰臣承　命往審水原置標處則蓋其來勢綿遠磅礴氣脈清重敦厚五星相生八方拱護青龍華蓋白虎雲興辰巽巳丙日月輔弼乾亥坎癸玄武句陳到頭入首不緩不急陰含陽坦無偏無倚三分三合堂局周密古人所謂登穴宛然成一乾坤者正指此也以理氣言之庚兌行龍辛起脫癸艮剝換而艮以向丁此龍向之合於山澤通氣也坐癸而坤流歸午此生水之符於水火不相射也以案對言之則丁兌也珠體均圓雙峯明秀對珠向空自成兌之本象此一定不易之正案也理氣形勢盡美盡善無一

欠缺此真德萬年之葬基臣無容吏議矣　上曰朴大良所見亦如何大良曰臣承　命往審水原置標處則蓋其來龍綿遠之玄宗而逶迤五星得位勢磅礴而相傳穿帳而中出氣脉清貴起巒乳垂穴星尊嚴後高前坦陰陽之相受明白四厚中平天輪之掌形伶俐八方疊疊擁護勢如雲從三門重重關鎖形同牙交丗艮相連以通山澤之氣坎离交媾遂成既濟之美辛兌入艮丁向得宜源流歸午癸坐合格圖珠在前秀峯雙應則取其中間空處立向此是古方不易之正法龍穴砂水盡善盡美此真萬萬世無疆之葬基也　上曰穴淺之法宜淺而不宜深寧古氣下過不可上過比若水在罟上火在罟下然後水可溫也若火在於罟之上炎氣無以下達或使當淺而深則是何異於火在於罟之上也揆以理勢決不可深用不但營造十尺爲過丈圭十尺亦過矣且丁字閣稍右之計亦甚好朴大良下去後並以此意傳于都監堂上爾亦着檢便宜爲之可也　上曰石物初欲以營峯所産定用矣今焉浮出於江華者雖緣事勢之不得已而舡運之際事有不可度者如或有一舡格致傷之事則豈不悶慮乎此予所以慮念不弛于中者也　命李祉源朴大良先退　上教都承旨李祖源曰龍仁縣令則似難盡言其私相酬酢之語果如何祖源曰渠亦讚不容口矣　上曰言有隨衆之言有由中之言朴大良所言亦何如祖源曰朴大良所言亦無異同矣

八月初六日次對入　侍時　上曰俄見奉朝賀趙曮以舊園所局勢砂水之節節違格屢屢陳達可見外議之僉同矣左議政李在協曰果是輿論之所同然矣　上曰予之積年結轖者庶幾自此無憾而　封標處雖是萬口交稱之地地中之理無以詳知則亦安得無憧憧之念乎右議政蔡濟恭曰　封標處不但有古人秘訣而已雖使三尺之童見之舉皆一辭贊揚伏聞遐外無知之類亦皆蹈舞云此可見民情之同然矣　上曰千餘戶移民之際恐或有一夫愁怨之歎是予所以憂念不已者也在協曰移民一事既是邑民葬之樂樂所願則必當喜悅之不暇豈有一毫愁怨之端乎且況厚給其價加給許多錢貨者乎濟恭曰厚給本價已是　特恩別給錢貨俾爲搬移之費者實是振古所無之澤也民人葬園當感祝而已豈有怨言乎　上曰地中生物大是吉兆云果然否在協曰生物之現於火處素稱十分吉地矣　上曰聞　封標處有三蛙不離　穴前云誠可異也濟恭曰生物中生蛙尤稱極好矣　上曰精誠所到金石可透予雖不肖夙宵洞屬者惟在於此其聞經紀已有年所庶幾神明之默祐矣在協曰　聖孝出天有此感應實爲欣幸矣

八月初七日都監堂上入　侍時　上曰工役方至何境耶都監堂上李文源曰泑脫大段處幾皆補築而其餘若干脫落處如欲盡補工役無限故姑置之　丁字閣基址今已開拓而材木當以水路運來其遲速姑難預度階砌石亦當輸來若一時齊到則車子似不足故關于三營門使卽加數下送則七輛先爲下來漢車亦爲定送云然則似無不足之慮矣　上曰民戶移去者幾何文源曰今已移去者爲三百餘戶矣　上曰本邑人心何如文源曰　朝家連下曠絶之　澤故無

識愚氓反生癡騃之心矣　上曰向聞齋郎言則舊　園守護軍輩初欲隨往近或有不願之人云其中頭目八人使之移送而田畓家舍比前優給以悅渠輩之心為好卿其深量善為措置也

九月初二日　園所都監堂上入　侍時　上曰卿等緣何上來耶金履素曰臣等有不得不　稟定事昨日酉時量離發上來矣　上曰卿等各陳所言可也履素曰　甕家昨纔始役而　封標外先為開拓則浮土積累者掘地一尺而尚有浮土故臣實疑怪欲試浮土淺深自　封標東邊距一間許穿入一穴深至二尺而猶未見真土欲為經　稟後停當矣　上曰當初占得此地非但古人云云亦無異於親見故斷自予衷矣今玆浮土之出亦是天也第盡掘浮土限得真土更定穴深何如民始曰　聖教誠然雖掘地深尺得真土然後始可定　穴深矣民始曰臣等俱無意見與錦城尉朴明源同為下去相議為之似好矣　上曰年老之人有難復往且意見有何勝於卿等乎民始曰地理眼目猶賢於臣等矣　上曰錦城尉入侍錦城尉朴明源進伏　上曰卿聞都監堂上所陳之言能復往　園所凡事相與議定否明源曰臣亦無它意見而今於莫重之事安得不往審乎　上曰卿等卽為下去爛商相議從好為之也

同日入　侍時　上曰一提學入侍一提學金鍾秀進伏　上曰聞金履成不稟而欲私往　園所云卿其聞之否鍾秀曰俄見履成履成以為方欲下去云矣　上曰　園所事體何等莫重則以前啣承旨無上敎而豈可私往乎鍾秀曰　聖敎誠至當矣　上曰聞方下去云故予欲召見而送之矣　上曰前承旨金履成入侍履成進伏　上敎履成曰不稟私往殊涉如何故使之入侍矣履成曰臣非不知私往之為未安而第愚衷所激有此錯料矣臣意則天作之地必有真穴其間辭說實莫曉也湖中居李廷弼為名人術業精明素有名稱今行欲偕往矣　上曰今夜之內可到　園所耶履成曰似可到達矣　上曰驛馬二匹擇給事分付畿營

九月初四日入　侍時　上以　園所封進土色下示諸臣諸臣奉覽訖齊聲奏曰土性若是柔膩又若是細滑而色又帶黃可謂十分美好矣　上曰此土色昨夕封進時以白紙賁來經夜置之而小無濕意於紙面其乾淨亦可知也且盡去浮土之後得此真土而此是浮土之下真土之上交際處土色也捴護使金煜曰纔去浮土使得此土若又稍深則其色必尤好矣判府事徐命善曰如許土品可謂稀罕實為　宗社無疆之福矣右議政蔡濟恭曰土性柔膩若餠末以手摩之又極粘滑實是十分恰好之土誠不勝慶幸矣　上曰捴護使下去過開金井而復命好矣李在簡曰臣以禮堂當同往矣金鍾秀曰臣亦方帶雲觀提調之任亦當下去矣　上曰然則同往看審為好而雲觀提調則明日復命可也

九月初五日入　侍時　上曰今日得此真　穴可謂　天之指使甚幸甚幸矣判府事徐命善曰若初無是事則今得真穴亦不可必矣此亦可謂　天之所使而以今言之在初騷動濫屬無妨矣右議政蔡濟恭曰　天作之地豈無真穴於其間聞蔡潤銓言則以為挨左然後可得真土云矣今則其

言果驗矣命善曰成夢龍李命求所為極為駭痛不可無罪矣濟恭曰命求之言臣聞甚憤痛其罪不可尋常處之矣

上曰究厥愚濫之罪則萬萬痛惡幸賴　天佑神助今則都無事實為萬幸矣濟恭曰　聖心若撓動於此等說則豈可得用真穴而今幸　天誘　聖衷聖心牢定衆論亦皆歸一誠為天幸矣　上曰朱南述之術亦精明云承旨今行亦聞朱南述之前言否閔台燁曰聞之矣　上曰都監之當初逐送亦不是異事而今可恨也

同日觀象監提調金鍾秀入　侍時　上曰　穴處及土色果如何鍾秀曰山形局勢可謂盡善而盡美土色土性亦極美好雖以　穴處言之挨左云而不至太左無異當中殆若天慳而地秘有待於今日者然此莫非　聖孝所感神明垂佑之致也吾東方無疆之休實基於此臣等蹈舞欽忭之忱當如何至於日昨騷動之時　聖心少不撓焉竟得真土　大　聖人應機處事可謂卓越誠不勝欽仰之至矣

九月初九日八　侍時　上教都承旨金載瓚曰昨夜摠護使許別諭婦亦見之乎載瓚曰未得見之矣　上命持入別諭草本　領永判府事李性源等訖　上曰摠護使於分金不無偏惑於地師兩言之處故以寧淺不宜深之意有所下諭矣性源等曰　聖教至當矣　上教載瓚曰卿於今日下往閑所以別諭中餘意詳細言及於摠護使好矣

九月初十日巳方內閣入　侍時　上曰以開金井擇日事昨有　下教蓋慮其十一日之於十七日之間恐淺地氣故也判府事徐命善曰今番　聖心若未牢定則真穴誠難得用而今幸　聖心堅定乃主挨左之詳誠為欽仰矣

九月十八日摠護使金煜入　侍則　上曰誠為萬幸矣以土色言之去益愈好矣煜曰土色漸漸極好四尺後土色比之二尺尤好而至於地平後土色則五色俱備而正黃之色最多不待地師之言而其為極吉可知矣黃色土之正色也似此土色誠不易得矣當初數日騷動之後得此極吉土色故都監堂郎欣忭慶幸不須更論而下至役夫之賤而莫不歡喜踴躍一時騷動亦出於一團誠心惟其有此騷動也故得此吉地誠非偶然矣　上曰假珠向空而向空之外又有特立之峯野色不見云果然乎煜曰果如　聖教矣青龍有四白虎有三皆出於元身重重回抱此既骨肉龍虎非比他作龍虎之好矣　上曰透風無一方可入之處云果然耶煜曰凡山之欠缺處即有透風入來之患而即今　園所則前後左右無所欠缺實無風入之處矣　上曰泰山為岳亦不無透風入來之處而今於廣野之中其無風入之處者誠異矣

上曰青龍邊見巖處或有等土以陣之意云所見果何如煜曰自　穴觀之所見端秀元無不好之理臣因眼昏實不見其巖色青龍邊所見處即禿城山也有餘里行龍作此禿城素稱名山而又泥所見不為險惡則不必補等而陣之矣

上曰青龍有巖又異於白虎矣煜曰以方位言則所謂龍之峯以水口言則即所謂捍門華表俱為極吉矣　上曰萬幸萬幸煜曰莫重之地　封標之外金履成東穿西鑿萬萬駭然不可無論罪矣　上曰今日予欲以好顏接見後日諸大臣登對時更奏好矣

九月十九日都廳李益運入　侍時　上曰　園陵工役今至何境益運曰下外　梓宮後即始等灰之役臣之離營時覆釜形幾乎盡成矣　上曰退　壙何以為之乎益運曰聞都監堂上鄭民始之言則若預為退　壙不無跋沁之慮臨時為之恐合事宜云矣　上曰石役垂訖否益運曰石役雖浩大亦不日可畢屏風石文武石羊馬石已造成矣　上曰文武石不已大乎益運曰不大矣　上曰形局挫其安穩石物不必務大矣益運曰臣雖昧物觀體勢石物之大不足慮矣臣於再昨日馳詣直上　園所則上自都監堂郎下至工匠負役以臣初來爭示土色而五色玲瓏先奪人眼諦視之則只有黃紫二色而光彩絢爛如雲蒸蔚此不可以土言之矣　上曰向日照之則色如泥金矣　上曰丁字閣丹青已為之乎益運曰丹青幾已告成矣　上曰　碑閣尚未成乎益運曰亦已垂成矣　上曰浮階已撤去乎益運曰將撤去矣　上曰民家毀撤後墻壁瓦礫未及修掃云果然乎益運曰雖未及盡為修掃而餘存者無幾矣　上曰下外　梓宮日天氣甚清和矣益運曰果為良吉矣　上曰外　梓宮色極好耶益運曰光瞳精緻前所未有矣　上曰欽可鑑乎益運曰毛髮皆可數矣　上曰道路何如益運曰自　園所至果川境道路善為修治矣　上曰諸般公役率皆順成誠萬幸矣益運曰誠如　聖教矣　上曰以石品言之殆近來所無而刻法亦似精妙矣益運曰刻役幾完方治滿石而石品亦極佳矣　上曰如玉乎益運曰比之江華石品不啻相萬而色潤理細如錦緞似此石品臣所初見若論其鐫刻之妙則　陵寢石物臣亦嘗奉覽而若是神化曾未之覩矣　上曰都監堂郎命勿為守直果不為之乎益運曰下外　梓宮後堂郎不敢少離矣　上曰工役之告竣幾為三分二乎益運曰雖無一事之告竣統而言之則過於三分二矣

九月二十二日閣臣入　侍時　上教鄭民始曰工役今至何境乎民始曰庶無未及期之慮矣　上曰何日當下去耶民始曰明間欲下往矣　上曰占得真　穴由卿騷動卿之功勞可謂不少耶民始曰　吉地載卜真　穴又得此莫非　聖孝攸感　神明默佑而然也至於臣之妄率之罪尚切惶隕矣　上曰卿於伊時猝然上來之故予果驚動今若以此謂之徑先則猶或可也而至於外此咎責何足云云也卿於莫重大事寧欲無端騷動而然耶

十月初七日　上詣退　壙東邊　命都廳都監郎廳各一人及別看役丁遍察等開退　壙四隅布帳　詳覽土色訖教曰從前土色之取見者多不過一撗一函故猶未料純黃紫金色之如是奇異矣摠護使蔡濟恭等曰形局之為無上吉地猶屬術家之論而目見土色之純吉曾是所未覩所未聞　宗社無疆之慶實基於此下情歡忭何可盡　達令朝大霧漫蔽之中推此　隧道閣之內曾無一點霧氣且於寒朝冷夜風氣栗烈之時入此　閣中則溫如燠室使人忘寒祥光所聚吉氣所鍾於此可見尤宜不勝萬忭幸乎　上曰閭卿等稱美之言予心亦多幸　上自　篤家內　出坐隧道閣南簷階上　命大臣以下諸臣進前各以所見指點以奏　上曰四珠之形為布城所隔耶何不入矚耶金復素

曰前面布帳正當珠形矣　上命宣傳官一員持紅令旗擺撤珠形前布城俄已四箇珠形歷歷呈露正對　隧道閣南面正中而兩峯向空之案又分明可見矣　上曰今當奉審主峯年老大臣及不嫺步儀之人落後可也仍　步上　駕家後逸　陵主山中峯移時　周審轉向主峯最高處去園上頗遠坐立俱不見而猶勞　玉趾都監堂上等仰　請暫御步輿　上曰將欲轉尋後北山脉及局勢予則雖不覺疲而卿等言甚懇當從之矣還　乘步輿從主峯而　下遠出山脊至後北入首處　降輿平坐　上曰相地官輩隨來予鄭民始曰朴大良朱南述蔡潤銓金養直皆待令矣　上命四人進前各陳所見大畧與所陳山論同金養直以手雜指近處岡巒所對極甚糢糊承旨欲亦退　上曰無用是為

衙士輩例套然矣復　乘步輿　還到　園所相望處　降輿還　丁字閣西邊　小次

十月初八日子時　上復以步輿　詣　園所碑閣前　步詣　駕家內後所久不　還次蔡濟恭曰夜已過半風寒甚緊臣等雖甚無狀誼當盡心董役伏願　還齋殿焉　上曰雖還齋殿心焉憧憧不如親自董役矣昨朝聞卿言雖值霧氣時　駕家明淨無一點霧氣云聞卿之奏予懷尤有所難抑嘗伏聞乙卯正月二十一日亦有霧氣云矣昨日之霧如此豈非異常之事乎濟恭曰伏承　下教益切惶感之下懷矣昨朝之霧殆所罕有而環　陵道闊十數步之內晴明倍常如此稀異之事前所未有矣下情倍切欣幸而及覩　悲疾過郎血淚隨下之時則寸心如割同措從令以後只伏乞

寬抑忍勉上慰　慈心下　副聖情而已矣　上曰卿言如是縷縷豈不欲體念殫中之哀只有哭泣可洩今而後則洩哀無地使予將何以慰懷乎　上曰捴護使達夜董役衰氣可悶姑為退憩好矣濟恭曰賤軀何可恤乎見今曉色已動玉體恐益添損還　御齋殿千萬至祝　上曰為便卿心予當還入齋殿卿亦退出私次可也仍　步出作門外　乘步輿還齋殿

同日丑時　上復以步輿詣　園所碑閣前　步詣　駕家內捴護使蔡濟恭進曰又此　親勞玉趾不念曉寒之易以觸胃下懷萬萬煎迫矣　上曰雖在齋殿既無交睫之望故更此來詣蓋役欲伸予懷而卿之至今不為小退為之慮念役夫達夜勤勞果為頻饋禦寒之資予都監堂上鄭民始曰連

為饋之矣　上曰石物安排等節可及於安　園奠予民始曰安　園奠例待工役之告竣似當在於十七日間矣象設凡具無一未及之慮而碑閣則虛其一面以待表石奉來竪立後始可完役矣　上曰然矣　園所都監賞典當於今日為之耶民始曰考之前例似當在安　園奠後矣濟恭又力請　還御齋殿　上不即允可寅時　步出作門外　乘步輿還齋殿

同日　上回駕詣水原　行宮　命京畿監司徐有防水原府使趙心泰率本府民人入　侍　上命戶曹判書徐有隣與京畿監司出立階上傳布　下教於民人曰自予臨御今過十年無一惠澤及於爾民心常愧怛況今　還奉之禮國家莫重之大事也寡人結轖之寤心也他不暇顧盡予情禮還

徒爾居勞苦爾身以爾等妻子之心縱不重遷而憚勞予念爾民何嘗宿食少弛今幸　大禮克完終事伸誠追惟庚辰往事予懷一倍難抑予又臨宿是地召見是民是地是民即予　松楸桑梓之人也雖於尋常動駕之時尚有蠲恤之擧以副望幸之心況以予顧恤爾輩之心何恩可惜何施可慳方以給復幾年停還幾許章甫設科武士試射等畧千条令欲於還宮後別下綸音爾等先為知悉爾等既進身於咫尺之前如有苦瘼疾疢或訴冤伸冤者一一陳之予將聽納而諒施也民人等齊聲曰蠢蠢小民雖無省覺居生此地仰覩　還　奉禮成區區下忱不勝欣忭　園所後事凡幾日月而軍人則尊給雇價店幕則申禁徵求一夫一婦無不被覆燾之　恩至於還徙之民偏蒙加倍之　惠澤令方結搆屋宇堙塞窓戶各安其居各專其業曾無失所之患擧懷樂生之心豈有斁瘼之可達寃鬱之可陳者乎　上曰水原民人惠恤綸音還宮後當書下營邑相議揭板于行宮仍布坊曲俾各知悉可也

十月十七日　園所都監堂郎入　侍時　上曰卿等效勞可謂徃牒所無　大禮克完見方復命予心喜幸何可勝言以故昨日特遣史官勞問行役矣今復素曰其間數三朔日吉辰良工役順成莫非　聖考攸慮天祐神助而然也我東方億萬年之休實基於此至於臣等之得免僨事亦　王靈所暨而已有何效勞之可言乎

承傳

七月十一日　傳曰　園所還奉迁諏僉謀設都監擧行

同日八　侍時時原仕大臣禮曹堂上覩衆監繕工監提調　園所進去奉審事　擡前定奪

七月十二日以三大臣以下初着審狀　啓　傳曰覩此卿等狀啓措語懇企之餘萬萬幸甚癸坐之原已爻　穆陵儀軌既分明載錄其時諸臣大臣之議皆歸一矣今又相等尤可幸也設都監一時為緊再次三次着審雖當依例為之而都監則待抵護使復命即為擧行堂上中李文源還為下去過三着審後上来鄭民始則與抵護使上来以為措劃之地明日則再着審為之大臣只徐判府事進去京都監堂上中鄭昌順以觀衆監提調無進再明日則三着審為之大臣則李

判府事進去禮堂明日進去觀衆監提調仍留過再明日三省當後同為復命事知悉同副承旨金復成素知風水既命同往今日復命事卿等分付事回諭于着山進去大臣自明日着山之行皆令自持假只給馬如是申飭之後勿論上司政院下屬若有一毫跼蹜弊民邑之端難免重勘況水原果川等邑以今事勢何責支應此意卿等知悉嚴飭地方官把者直自地方官處斷仍即報營以為轉聞之地然而區不以聞現發於摘奸自道伯施以通命之律以此更為嚴飭俾民邑咸知朝家軫念之意事一體回諭于大臣

同日　傳曰今日山地着審後承旨與大臣招集地方父老依昨日遵教先以安心樂生之意申申曉諭雖於移徙民户自朝家當有別般軫念之道并以此意申諭着山後形止狀聞

先為上送慰諭緣由辦次狀聞事承旨知悉

七月十三日八　侍時明日再次着審再明日三次着審進去大臣禮堂觀衆監提調除朝辭退去事　牖前下教

七月十五日　傳曰本府地方定用　園陵之後以民舍之撤移多數為本府民為之憧憧夙夜不弛于心益民心歡悅然後予心不但小弛亦可以仰酬庚辰年　駐宿時字恤之德意與言及此何事可憎已以十萬金劃給本府俾補移民移邑之費每邨遵中已有示意更當別下傳教而目下第一先務無出於定邑基定基亦須一依民願今見該府使狀本邑基占定於八達山下而局勢大開可合雄鎮然其民情以壞地之直接廣州一用等兩面不無趨趄之意云信宿則劃屬水原其或靳持平即以此意令畿伯知委該府使依民願移定邑基於八達山下仍以一用等兩面劃付本府着山進去大臣禮堂如未回還與府使眼同招致父老曉諭傳教自今益念安生樂業之道事史須慰諭形止狀聞事進去大臣知悉本府事體自有府重而廣民之獘亦不可無一視之擧一用等兩面之民以雖山城百餘里必當咸頒移劃而如是之際兩面軍政釐改等獘瘼將盡責於廣民此則亦已有商量者道伯營筵時當有措處亦即預先知委於廣尹領令曉諭此擧雖出於為府重而以為水民為廣民之心將此兩得之策曉燭中申道伯守令體悉事亦為分付

同日　傳曰水原民户今當撤移軫念之擧當無所不至無論重囚輕囚一併放釋限移邑勿為囚禁其中死囚即令地方官草草抄啓目報營後與意見狀聞本府民回事被配者亦勿論罪之輕重并即放送事分付配所道臣仍將此意曉諭民間事下諭于畿伯及本府使

七月十六日八　侍時　傳曰封標處　穴前民户撤移者家主役姓名及家舍間數別為後錄狀聞其餘撤移民户亦為從速列錄並與給價數又狀聞田土給價之數亦為後錄狀聞事下諭于畿伯及本府使處

同日　傳曰此時畿邑豈或一毫跼蹜都監許多卜定并皆除之皆令給價則況上貢之蔘率或循例收用年年例進貢生蔘每聞多在沿邑沿邑亦皆近於水尔今年貢蔘特為停減年前則實心之未究稱誌即脫落令今則當即稍遠如有相混之弊是道伯之責也並令知悉勿令事令廟堂嚴飭行會

日昨仍都監堂上遣奏假家空石雖不得不分定云而假家

則依　陵寢例令該廳儲置米會減而先給價後追排使小
民無所干與事一體嚴飭
同日　傳曰　園所新定處龍帖及玉峰外設有久遠民塚皆
係不見之地相距稍遠云切勿舉論事令　園所都監知悉
仍又下諭于畿伯使即知委地方官
七月十八日以水原府使狀　啓封標處撤移民戶給價事
傳曰　穴前至近處入接與稍遠處自別已給本價外加給
五千兩而本價亦比他民別為優給至於十間內外之類疫
歲可知比本價二三四倍分等量宜加給其中洪允升家聞
是　穴前當中處云自本府相當役名陞差
七月二十日以水原府使狀　啓封標處撤移民戶給價事
傳曰狀辭見悉此外次次給價移送處又當為幾戶耶　穴
前及龍帖近處田畓事都監堂上八　侍時已以勿令未熟前
輕先刈給觀望臨時為之為教更思優給禾利土價趁即從
使決給俾無後軍單貽弊之端而封前近處樹木之可合長
養者空閑地外民戶籬內亦為從便給價事卿須知悉舉行
八月初二日　傳曰　園所新　奉處距京程遠稍遠火巢內
人家毀撤之後幅員濶大守護之方不可不按例磨鍊　園
軍元定名數外不可不加倍充定而位復磨鍊之除如有曠
肘之弊雖不以守護軍稱名以山直或他名色別定名數仍
為除役似好以此意畿伯及地方官與　園所堂上相議傳
當後論理狀聞各　陵寢火巢內雖無人家居接之例此時
一戶遷徙為難定洞口地界後並除　陵幸時劉住處其外
閑曠地則勿以火巢內為拘時存民戶勿毀設有遷徙之民
元家舍則與守護軍責貰亦無不可此意知悉從便措劃事
下諭令都監所用及邑治所用私養山材木斫取處別為
給價已有成命而聞畿伯吉班戶多不欲受云朝令之下豈
敢若是斯速分給後形止狀聞事一體下諭
八月初四日　傳曰八達山主人即近士李運恒家亦有累代
墳墓而聞新邑鄉校定於運恒家墳山階節下至近之地不
過為十餘步云今番監造官之見漏追聞猶以為疑惜今若
并舍其山地是豈令其家之本意乎如有可令處鄉校更卜
他基否則令本道從優招致主人按例厚給山價仍觀其人
才識之如何狀聞事下諭于圻伯及本府使處
九月初二日有　旨已交置標處必有其處而今番栽穴既在
旧處則已交置標似在稍上處所謂依腦以上凡眼亦皆以
為似無結穴處云而雲觀置簿及本府邑誌皆以置標載錄
則必有可考之蹟外面雖難摸索如或從依佈指點處推尋
似有可得之道此亦不可不留意即今封標處毋論上下東
西結穴處亦為詳審而浮土姑未快去開金井雖未如例為
之初三日申酉時初八日卯午時為吉云先自明日就　封
標處畧加開視亦未為不可前來旨令成不待下教與方
外地師之裁穴有名稱者直欲下去云俄已下送龍仁縣令
李趾源亦欲下去云果已進去耶卿等依此知悉看審後形
止陸續狀聞
同日有　旨俄下有旨果已見之耶形局既如此寧有結穴不
實之理予百爾思之疑信交中莫適所從浮土開掘勿拘深
廣而真土土性見後即以少許同封上送狀啓使令成及地

師果已下去耶今日之事真所謂有進無退須知此意必以好消息狀啓

九月初四日有　旨開土幾許為之而真土亦果畧開着色耶予雖昧於時輿經營大事宜無素有採訪而泛渭于中者乎五色土之說姑勿論且以已試屢驗者之見聞言之浮土之除拓雖至尋丈元無關係至於土色若黑若白未必多讓於純黃從古名墓亦多有可證未知去浮土幾許後真土形體始完出乎須即詳細狀聞且以點穴言之稍上處予則以為終涉艱慎俄見都尉所錄上者亦不無動於低處土色之論說携貳未免有捨舊覓新之意固出於誰愼誰愼亦有用處此何等莫重莫大之事宜必如是耶已交置標及尹說恒處安知非即今點穴外稍下之稍下處而直是民家鱗接乎此亦不可不更加詳審亦須知悉率去地師中李建鶴不但承旨金履成稱之如禮判諸人亦莫不稱之以大風水多有已驗之奇徵云切勿外待俾盡所見卿等亦必識心叩其所存一一詳細狀聞

同日有　旨除却多少說話卿等之紛聒一則曰土色二則曰土性昨夜則猶以燭下之故不得分明見之待天明開封更見色則黃且赤性則柔且潤自不覺喜欲起舞及示大臣諸臣也昨見者元無異辭而今見者右皆交口讚賀此土色此土性曰以不愜者卿等豈或失其情而然乎不在多言開金井日子欲進定於初八日摠護使以下今已除辭朝下送予心之如此亦天也卿等欲抗天乎卿等知悉以待摠護使一行下去而土色則　穴處為上左邊亦然乳頭為次腦上則大不及以如許好土色曰以不足者果何意思乎雖以大臣諸臣言言之莫不以卿等事大駭之卿等試思之往古来今焉有因土色出雜議之時況土色如是極好者乎今日則去浮土之後觀勢善為而挨東挨西待摠護使下去決定事并即知悉且以地師言之李命求所為萬萬無嚴渠焉敢以無形未然之說肆發於咫尺之地乎今方投来親問投之絶島一以存國綱一以息邪議以此一款聚會地官嚴明分付俾知一分懲畏至於承旨金履成當初下送意謂有一分裨益而隨衆擾攘莫重封　標處東鑿西穿而初無一言袖手傍觀寧有如許道理龍仁縣令李社源雖曰蔭官當此之時豈為身計而乃如是却步乎此亦駭然地方官及直閣果倅等既在役所目見無於前之舉亦無皂白今從大臣之論斥焉可免乎所慨然者都尉之亦未免退縮以此有旨領示諸人仍又嚴飭於地師等處

同日　傳曰李命求所為萬萬痛惡名雖相地官即局方不識東西之類日前召問時敢以無形無嚴之說肆發於咫尺之地昨今畿伯押来保授而決不可止此即令該曹照律定配事過後當令配所道嚴刑懲勵以此意分付

同日　穴東距十一尺許土色頗勝着品上送事狀　啓　傳曰此狀啓持来各站撥將卒令畿營為先從厚施賞事下諭于畿伯

同日藥房入診摠護使左右相都監堂上入　侍時　傳曰今見真土封進土性柔膩細滑色亦帶黃極為美好自此予心不但萬幸今從示大臣諸臣莫不交口讚賀其在重事軆解

羣惑之道開金井欲為進定於旬前摠護使及禮堂觀象監
提調即為除辭朝進去使之董役事分付　園所都監
同日有　旨卿等與金履成李社源右邊土色開視後錄由馳
啓矣土色如是恰好則李社源之隨衆雌黃莫曉委折此後
更勿煩啓
同日有　旨卿等其間果已得抵耶筵教俱在入侍承宣錄送
卿等須即推見知悉舉行開都府招致咸興地師云此人術
業年前業已聞之第叩其所存其言頗有理亦即使之看審
而卿等具意見別服論理狀聞目下第一急務無出於尊事
體三字各人有見雖宜採聽至於屑越處不可不留意裁抑
并須知悉無論李社源李延齡咸興地師各陳所見卿其裁
擇仍與都府相議指一以聞作　瓮家當在何日既有前下
擇日雖自初七日辰時為之亦可及之耶卿與都監諸堂商
議狀聞開金井欲以初八日為之則裁　穴封標處及　穴
前去淨土似當如例先為今果何以為之耶　標內淨土尺
深則唇前高處亦當等分補土耶亦以舉行後形止狀聞
九月初五日　傳曰前察訪朴大良之精詳曾所知之今番事
所見之明透可嘉渠又能知分特為付實軍職仍令留在者
後至於成夢龍愚濛之罪固非一端特以使役頗久前此着
山之行亦多效勞姑且參酌留置則猶不知嚴畏日前入來
時二字參對萬萬無狀有後見節又不十分盡心渠之免重
罪足矣摠護使知悉以此傳教捉入夢龍分付後即為遞送
而仍令保授於地方官更待處分
同日有　旨土色如是恰好萬幸萬幸封標亦當移設稍左處
擇日雖次下送自餘在奉命別軍職口傳
九月初五日　傳曰錦城尉開金井後上來老人專須食治令
本官別饋補胃之劑前承旨金履成上送事分付
九月初八日有　旨今此別諭一度下送卿等各具意見論理
狀聞
別諭形局陰陽相為表裏不可偏廢然就二者而論其輕重則
形局體也本也陰陽用也末也豈可捨體而求用棄本而摽
末乎　園所體勢以蟠龍夭珠成形局若不失對珠之義而
無合分金之法則固盡美而善矣若拘於分金而閃失珠案
則違天成之形局失窩主之情義雖盡得羅經之妙用亦何
益哉況取案之法不必局於當案之正中無就左右而推移
用之且每方位上各有五字若珠之中央不合於分金吉度
則就珠之左右角吉字所值處當趨避消納若珠小而只值
一字又不合吉度則寧棄分金不可失的案大抵分金之法
至微至妙今人鮮能曉解況百二十千支三百六十度數亦
豈能一一相合苟然則何可過信杳茫難見之理致失分明
易見之珠也此不可不十分致敬而致審處又以穴深言之
今得真土天也以色以性即無對極品若欲讀數莫可形容
且其來脈不甚廣而至穴處始為融結豐滿過穴處又復斂
束但開淨土則穴形自露是鸚子抱黃之象也只就真土之
量內中心而扦穴則上下左右亮無可疑最是淺深難得其
宜雖以七尺許為準已有定約而臨時進止要令適中而已
若或未到七尺而有黃色欲淺之意則便當即止蓋黃處不
可穿過故耳未得其中寧淺毋深一扦一穿常存此心寸寸

過下切勿信手放意又成色性愈深而愈堅愈堅而愈黃則雖過七尺亦自無妨凡此兩條說話想不待予言已有講定者見今開金井吉日在即憧憧之中呼燭申諭卿等宜須諦悉

九月二十日以前承旨金履成譴削　傳旨　傳曰此人之鄉閭已自當初罷散中不稟徑往其全昧事體不一而足況此舉措尤萬萬駭怪究其心決知出於竭心而盡力飭已施爻此傳旨特為分揀

十月十一日　諭水原父老等綸音　王若曰是府花山鍾靈有自其象則盤龍夭珠其地則千里一迸議定　園寢遂舉遷　奉之禮是府即予　松楸之鄉爾等是鄉之民也予之視爾等如視家人裕其食足其產俾知安生樂業之方庶可以盡予責寬予思矧自卜移之初貽勞於爾等者抑云鉅矣每一念至厦擾何安行到新治周覽營始屋閭掄此阡陌綺錯儼然成一大都會爾等之積費勤苦亦足推想尋常蹕路猶施恩澤況是鄉是民乎　園所附近面里及從居民人給復十年新還上蕩減需保米分數亦許蕩減餘捧代錢通一邑面里給復一年舊還餉景久三年条蕩減需保米亦許分數蕩減餘捧代錢父老之再嗟　溫幸羽旄者朝官年七十以上士庶年八十以上入加資境內儒武俟來春展者之行欲設科試取校屬之久勤除遷亦許每都政注擬今茲之命豈但為爾等爾等知予撫摩之苦心至誠一力心力共護園寢永世毋替

箋啓

七月十一日書　啓　判府事徐命善領敦寧洪樂性判府事李福源李在協左議政李性源右議政蔡濟恭錦城尉朴明源觀象監提調金鍾秀禮曹判書李在簡繕工監提調李文源

臣等除　朝辭進詣　園所與本　園別檢張錫胤叅奉洪就榮相地官前察訪李命求前忠壯將成夢龍幼學金養直眼同奉審則李命求以為來龍太緩　穴敞正星龍亦淺小初非大吉之地內堂又無橫帶之水以遠水為配是為偏山偏水此為可欠成夢龍以為砂勢極美後龍丁脈乙入首卯坐內得申水亥破以龍向言之則申水不合木山亥破亦不吉曾者以壬破言之水不見三丈之意也乾戌破者不審詳看之致而今則亥方鑿沼而貯水更無水去之意亥破分明云金養直以為山水以理氣相濟為美而右旋辛戌襲行之

龍以坤起峯坤下未来午轉丁未乙辰入首內甲坐而外卯
坐坤申辛酉得水交破法無可論而山與水各行可謂偏山
偏水局未成形不可謂真結交破尤不宜於木山云是白簪

傳曰知道

七月十二日狀　啓　同副承旨　金慶成

臣以水原主山置標處看審事奉　命下往是白如可行到
果川縣伏奉　傳教內　傳曰今日山地看審後水旨與大
臣招集地方父老依昨日　這教先以安心樂生之意申申
曉諭雖於二三民戶自　朝家當有別般輸念之道并以此
意申諭者山後形止狀聞先為上送觧諭緣由鱗次狀聞事
大臣水旨知悉事教是乎等以仍為馳往水原府與大臣都
監堂上諸地師謀為眼同看審為白有如乎諸地師所見段

大臣今方馳　啓臣不煩陳為白乎於地方父老處曉諭一
款待舉行鱗次　登聞緣由并以馳　啓

同日狀　啓　同副承旨　金慶成

本府父老處曉諭等節待舉行鱗次　登聞之意纔已馳
啓為白在果臣與諸大臣聚會本府父老吏校等三百五十
餘人手舉收軒以　傳教內辭意一一曉諭是白乎則民人
等舉皆攅手須臾以為　朝家之輸念至於此極仍居者安
堵居生移去者慕侯　處分是如是白乎等以緣由馳　啓

同日狀　啓　領議政金堉左議政李時白兵曹判書趙絅吏曹判書金壽恒大司憲閔維重大司諫李端夏掌令李翊漢正言李世龍持平李世最

臣等今日曉頭除辭　朝辛地師申時量来到水原府仍詣
主山　國葬置標處詳細看審則前審訪李命求以為来龍
屈曲之玄節節生氣蟄頭蕭然成體單矣單丑之下一節良
脉分明乘生氣而龍虎砂水莫不合吉可謂十全福慶之地
也或謂午破或謂丙破者詳細看審則辛由於點穴之差高
差低也差高點穴則丙破分明取低點穴則午破分明大抵
穴作窩處取低為可矣坐之真的不待辨而自明矣云前忠
壯將成夢龍以為自主星乾亥垂頭單矣單丑剥換艮入首
之節良丑為山澤之配極吉案山則對珠而空分明無疑午
破亦分明是謂水火不相射格水勢則自亥方發源乾方有
井轉酉申而来此皆生旺之方極吉極吉十全大地云副司
勇全養直以為左旋龍乾單作主乾小下亥轉矣来丑換艮
入首宛然而前有艮峯而洞為空內有小坡其形如珠以矣
為坐以丁為向則珠可為領下之珠空可為對空之空右得
乾水左得乙水又有申水破於午方水法無一小差龍四重
而局三重控抱作局穴處無點風之可入結穴之處帶褲帶
箇穴單宛然来龍之勢歷七百里而護龍之水皆聚於後為
玄武入首可謂與天地同悠久極吉之大地云矣今此山地
自古稱大吉之地而三地師之言極口讚揚無一異辭誠不
勝萬萬喜幸之至臣等待明朝更為奉審後復　命計料為
白乎旀形止為先馳　啓

同日狀　啓　領議政金堉左議政李時白兵曹判書趙絅吏曹判書金壽恒大司憲閔維重大司諫李端夏掌令李翊漢正言李世龍持平李世最

臣等敬依　聖教與奉　命參看招集本府邑底居父老及
校吏幸合三百五十餘人以　下教內辭緣曉之以安生樂
業史以雖有移徙之民自　朝家當有別般輸念之舉一一
面布緣由馳　啓

七月十三日入　侍時抵護使金煜所　啓　園所今已完定於水原水原移邑在所不已蓋新占處在邑治後百餘步之內既定　園所之後邑治移設不可少緩而見今吉朔不遠工役方急一邊移邑一邊始役然後可以及時擧行矣臣等非不知　聖念以移邑移民每加難慎而神明默佑風水先叶　園所新占既在此地此實　國家莫大之幸也至於民邑撤移之擧有不可顧況今邑役則劃給財力民戶則優賞其價自　朝家輸恤若是其至到今移設尤無所留難者令本道劃即擧行本邑既已移設則鄕校亦當一體移建以此意并即分付何如　上曰依為之又所　啓本邑今將移設而後坪橋前路即是巡審大路而既出於淡脉下至近之地邑治來官路又在於外白庫恐人情瞰之處此二路不可不即為防塞使地方官從民願移出他處之意亦為分付何如

上曰依為之

同日入　侍時京畿監司徐有防所　啓水原移邑時體木之不得不取用者已以來峽所在者有所定奪而但自炭而江自江而海程道絶遠運致甚難臣意則安帖點距水原海路不過數帆風往來之地而目今所容入假令體木二百介其中樑為二十株株為一百八十株云矣數又既不太過運致又為便近本道所在松木勿論風落自枯限此數許給而亦令地方官債船取用似好故敢此仰　達矣　上曰依為之

七月十四日狀　啓判府事徐命善都監堂上李文源觀象監提調鄭昌順禮曹參判俞彦鎬

臣等除辭　朝當日申時量馳到水原府則　園所都監堂上李文源依　下敎留待故與相地官金養直同詣山上先審穴處仍登主峯次徧珠星所對處遍覽形局然後使金養直更為詳細詳陳所見則以為前已屢次審則別無異同說話而山川形面愈出愈奇青龍以左宮司木之神宛然回抱三重四重皆不失木星本體白虎以右宮司金之神對金正形不失兩方正氣玄武垂頭朱雀對形而主穴以中宮五土之神以世民帶金體而開口此可謂五氣全備龍有山澤通氣之理乳下坦處俱稱俱茵如此奇異之穴實為初見故坐向則斷然以癸坐丁向為古今矣臣等素昧堪輿之說而雖以凡眼之勢知其見者言之龍虎則重巒環抱朝對則羅列拱揖逝者而有氣嫺美而有情昨日者審諸臣天作有待之奏蓋知其的確之論也至於乳下坦處對珠向空之穴既有古人先獲之言參以地師汤合之說實是不易之論也此地之自古稱道已過屢百年玆若神慳鬼秘以待今日者莫非我　聖上至誠達孝之所孚感而　宗社億萬年無疆之福實基於此臣等伏不勝歡欣慶忭之忱臣昌順臣文源臣鼎修始為仍留待明日三者審洩後　命計料臣命善明日先為復路緣由並以馳　啓

七月十五日狀　啓判府事李在觀象監提調鄭昌順都監堂上李文源禮曹參判俞彦鎬

臣在愉　園所新占處三者審次辛相地官前金知成夢龍依　侍敎除　朝辭當日午時量馳到水原府則觀象監提調臣鄭昌順　園所都監堂上臣李文源禮曹參判臣俞彦鎬修留待本邑乙仍于與相地官金養直同詣山上自主峯至穴處詳細奉審對案主星來龍石脈遍詣審察是白如乎主山之氣脈雄渾對峙之峯巒環抱龍飛鳳舞若相拱揖雖臣

等瞽昧之愚見亦可知福慶之吉地仍使相地官等泛鉄尋穴各陳所見則金養直設前後陳　啓已盡所蘊形局之愈出愈奇龍脈之三重四重儘是天作之地更無別見可以復陳是如是白遣成夢龍則以為屢次看審龍穴局勢前所陳達之外亦無異同之見而前在三珠今始更尋則尤為奇妙空向有情環衛有勢忝以水法無一不合癸坐丁向實為明的更無他所見之可以陳達者是如為白卧乎所今以臣等及諸地師所見言之自古稱道之地允為有待於今日臣等誠不勝為　宗社忭幸之至臣等明日將為復　命而看審形止先為馳　啓

問曰山論金剛面水者

右龍發足于東轉入水鄉南馳數百里則此是旺水大幹也到雉嶽山脫殼幻面平地渡峽庚兌盤旋突起主峯庚兌既是水龍沐浴則其在主峯之前已含孕育之意矣特相生之美哉自主峰乾落轉亥一變為癸再變為丑三變為艮穴後丑艮之配緊束無比而且訣云旺水過艮真土方能結穴非此之謂歟艮下丁向一為山澤之配一為律呂之生亦所謂第一格也穴雖窩體而右暈傾瀉左暈端厚窩中挨左即取捨虛實之妙穴中消水之例也既有前人定論則當以對珠向空作為證案而泛鐵左右案輒不正惟當中挨左處不失內外二向安金之除雖或有上下左右之論而所爭不過尺寸此則似當以土色辨之矣坐穴中回顧則主星端拱在次即癸之祿存水之帝旺只此一格已足以占萬世無疆之休況此主星含得金氣抽出水脉宛轉曲動子母相生屢百里

右旋蜷身於入首之際以作左旋正局者無非極貴之格苟有地理豈無其應乎龍虎則左右陰坂均均疊疊交鎖穴口不見流神之去四方之山不高不低面面有情至於生旺方葱鬱之氣天太乙文明之象非筆舌所可盡述水勢則此是隱龍之體故內堂得水不嫌其小而惟其大結之地故外堂則隨龍大川都會于主峯之後非龍隨水水自隨龍力量之大於此可見大抵局勢至固至密不見其為大而訣云將有大結之地則先開大明堂於其外今此後坪及細藍坪之開野可謂證左矣

九月初四日亥時狀　啓　捴護使金堉禮曹判書李在簡觀察使蔡彭孚監試御史鍾秀

臣等辰時量自京離發戌時量纔到本府日已昏黑而　封標處奉審不可遲滯是白遣今日自都監封進是白在東邊土色看審又為一時為急是白乎等以齊進　園所舉火詳察則土色與土性果為光潤細膩與　園所堂即一辭稱歎不勝歡幸是白如乎待天明更為看審後條列狀　聞計料為白乎旀緣由為先馳　啓

九月初五日丑時狀　啓　捴護使金堉

節該咸興地師言頗有理卿其栽擇裁　穴補土舉行後形止狀聞事有　旨初四日亥時量臣在　園所祇受為白有如乎　旨教之承宣錄送者段即為　頒示諸臣為白乎旀咸興地師段今方招見如有意見明日臣等看審時率往計料為白乎旀李社源李廷弼段置亦於明日同為看審後使之各陳意見與都尉相議狀　聞計料為白乎旀作　駕家雖於初七日辰時始役是白良置可無未及之慮是白乎等

以擬以初七日舉行為白乎旀開金井既已進定於初八日故去浮土等節令方如例為之為白乎旀唇前補土一款亦一從形便舉行後狀　聞計料為白乎旀緣由馳　啓

九月初七日辰時狀　啓　祇謝使金煜　提調金履素　卿民始李文源　禮曹判書李在簡

當日辰時臣等與錦城尉朴明源率諸地師更為着審反覆商確以癸坐丁向裁定正　穴後依例　封標把守圍排地師蔡潤銓朱南述山論成別單謹此封進為白乎旀　筮家仍為始役為白遣緣由馳　啓

園所都監別單

司勇蔡潤銓以為臣承　命往審于水原　園所則蓋其來龍辭樓起伏步步拽以壯勢屈曲活動節節傳以生氣出於帳入於帳自生氣勢之尊嚴圓而曲曲而圓五作金水之清貴主星特立體似鶴立穴密端雅形同仙坐脉絡腦頭以凝艮山之氣乳垂脳前遂成允澤之象水路迸旋脉何湊於石龍勢順轉氣必聚於左龍虎襯抱收拾內堂之氣羣峰競秀并呈外照之祥生水歸元格成辛壬之局圓珠在前乃作入懷之案龍穴砂水盡善盡美誠萬世無疆之基云

司勇朱南述以為臣承　命往審于水原　園所則蓋其龍勢之壯麗格局之奇異圖畫不得以盡記而自大峽傳受之脉論之則壬穿成狀辛氣一線稍聳武曲體蜂腰鶴膝節節分明水星長遠之中前遇艮土乃是後龍之貴格金星戴土天馬優蹇此又無上大地之格而以亥落脉壬水成胎翻作癸脉之長左轉丑一艮三節之完氣上應天市之垣局作配南極之壽星此所謂在天成象在地成形者也艮頭分成左右兩乳而右乳則稍小不成體而反作左乳之助左乳則圓而敦厚凝結艮土之精神是實不易之穴而着其穴處則陽受而坦穴處明白且以砂星論之則巽辛交應故文高照天屏特秀此是艮龍之貴格也以水格論之則生方水神來應旺坐歸之於午方三珠之點點山水之性情實合盤龍之形實為萬世無疆之基云

九月初九日未時狀　啓　祇謝使金煜　錦城尉朴明源

節該　別諭一度下送卿等論理狀聞事有　旨當日卯時量臣等在　園所祇受為白有如乎臣等伏承　別諭諄複之　敎誠不勝欽誦警惕之至是白乎旀地家所以重分金者蓋以消納移湊人力參造之妙實在於此耳而以今地師之固執豈能有透古人之妙用者哉然而至敬至重之地主案向作之時有不敢全廢是法是白乎等以諸地師相與屢屢詳察爛熳講確按輪圖之方位援古書之法例略窩避空趨吉之意而大壑之珠雙峯之空自入於正中之向此非諸地師人力之所幹移實是天作之向坐不期合而合者臣等之懽賀忭祝曷有其極是白乎旀至於　神穴深淺既承前後　慈敎今又承此　別諭丁寧明白不啻如耳提而面命雖以臣等愚迷亦能領會　辭旨誼當兢兢惕惕念慥慥者意申飭地師使之一穿之際無或放過一寸之間更加審察寧失於淺無過於深庶不至仰貽　聖慮是白乎所緣由馳　啓

九月十九日入　侍時領議政金煜所　啓臣於今番承　命進詣　園所之後聞金履成駁妄之舉不可不請罪矣　封

標事體何等嚴重而不待經　稟標外東西任自穿視此雖出於勤勤之致而舉措之可駭前所未有　國體所關不可尋常論責前承旨金履成並施削職之典都監堂上之不能據理禁止亦不可無警都監諸堂上一依從重推考何如
上曰依為之

十月初七日　園所都監即廳以捴護使意　啓曰　園所火巢四標今當定界令禮曹與都監堂上京畿監司眼同擧行何如　傳曰允

十月十五日戌時狀　啓（提調金履素　郎廳李文源）園所火巢臣等與地方官水原府使趙心泰眼同看審為白有如乎自主峰花山北至草山乃是主峰後托則不可不以此定界東自城隍峴從山脊而下至安寧里西自鴛峴從山脊而下至舊巢峴從山脊而下至石串隅俱是腦後望見處乙仍于以此定界而步數合為一萬二千五百四十步零是白乎所坡子段或從山底或從山腰隨其形便參量開拓之意分付于地方官使即擧行為白乎弥洪範山禿山山城陽山三處段以外火巢定山直各別禁養事亦為申飭為白遣緣由馳　啓

十月十七日入　侍時都監堂上李文源所　啓新　園所不可不設置造泡寺依他　陵園例帖加與勸善預為出給然後可以營作敢此仰達矣　上曰依為之

여 백

顯隆園儀軌 二

時日
禮儀
財用
廩料
賞典
雜條

여 백

目錄

時日
禮儀
財用
廩料
賞典
雜条

時日

定說

七月十三日着審大臣以下八　侍時　上曰明日再明日兩次着審後則都監始役一時為惡而擇日亦當用吉日矣擇日官招入問之可也觀象監提調金鍾秀鄭昌順等招入日官池景喆等問之對曰擇日會議十六日為吉矣

七月十六日摠護使金煜錦城尉朴明源觀象監提調金鍾秀禮曹判書李在簡禮曹參議李義綱　園所都監堂上金履素鄭民始遷　園都監堂上徐有隣入　侍時煜曰臣等来會實聽令方推擇吉日而十月晦前念間終無吉日十一月初二日為吉云故臣等方以此為求　對稟定之許而先有八　侍之　命故臣等入来矣　上曰為問此事使之入侍

十月則多有掣碍之端十一月則已為隆寒此豈不悶甚乎
煜曰十一月雖屆深冬而初二日則去十月念晦間為日無
多似不至甚寒矣且十一月則无吉於十月云矣　上曰十
一月最為吉朔云此亦有不期然而然以此日擇定好矣
上曰出　玄宮無擇定日子只曰隨時此雖已例如此云而
事甚如何矣煜曰　聖教誠然矣雖以私家言之出柩則無
定日子者蓋欲其從便隨時俾無拘碍之端故也　上敎明
源曰以十一月推擇卿意則以為何如明源曰開日官言十
一月三應同衆　本命得勢格是極貴朔為最吉云矣　上
曰然則卿等退去以此日擇入可也
同日摠設使錦城尉觀象監提調禮曹判書　園所都監堂上
遷　園都監堂上入　侍時　上曰開金井日子以十月擇

吉好矣民始曰若以十月為之則必多窘速之慮矣　上曰
日官筆招入詳問可也擇日官金喜慶地日領池景詰等招
入　上命民始詳問喜慶等喜慶等曰十月初三日十三日
俱為開金井吉日而下外　梓宮則初八日為最吉矣　上
曰外　梓宮陪進則擇定日子下外　梓宮則無擇日而只
隨時何也喜慶等曰前例如此矣　上曰下外　梓宮與陪
進軒重大異而下外　梓宮則無擇日陪進則有擇日終不
成說此後則下外　梓宮吉日別為推擇可也　上曰方外
擇日人宋哥術業人物果如何民始曰俄者見之則年近七
十人頗老實而術業則未可知矣　上曰果有他吉日云而
諸日官之言亦如何民始曰十月內更無他日云錦城尉之
言臣亦聞之而宋哥與諸日官之言皆以為方書之所無云

既聞之後何可不更為推擇乎　上曰既是方書所無則必
有前例之可考者矣
七月二十二日都監堂上入　侍時工曹判書鄭昌順曰臣聞
園所狀　啓到院驚惶而入來矣　上曰此則所失尊在　園
所都監都監既不知委奏時官何能知時待令守然至於狀
啓則大為張大以請罪該監亦是矣昌順曰事係重大狀
聞之舉無足怪矣嘉奏時官初無所關於觀象監而渠輩自
作一應舉行誠駭然矣　上曰大抵二十六日吉於二十
二日云今則事勢既如此更以二十六日為定好矣
九月初一日入　侍時　上曰上梓或值運石之日則恐有欠
精之慮使之退定於初三日矣判府事徐命善曰雖以初三
日為之工役似當有裕矣　上曰上梓文下反下一日之一

字以三字加畫事言于都監堂上可也
九月初九日入　侍時　上敎禮曹判書鄭昌順曰擇日事未
免誤着十一日外　梓宮陪進十七日下外　梓宮云而予
意則習儀時似有掣碍之歎卿意如何昌順曰　聖敎誠然
矣　上曰更令日官擇日草記好矣

比初一日有勝無捐令都監觀工役與事孰兩日中從便為之事即令營校騎撥以此傳教傳于本都監

九月初一日有　吉卿以作　笼家吉日推擇事馳啓矣吉時則申時先立東柱為吉云以此舉行事回諭作　笼家初三日太遠以舊　園所事役觀之以未鍊正材木猶於一二日內為之況已治待者乎此意知悉令京都監更擇可合日子數日下送自本都監量宜為之

同日有　吉卿以　丁字閣上梁文正本中年月下日字變通事馳啓矣朝廷已有下教於京都監者卿等從便添劃

九月初二日有　吉卿等以　丁字閣上梁吉時推擇事馳啓矣昨日卿等以上梁吉時狀請推擇而問于日官草記待回下知委之際勞致遲滯直以申時為之之意回諭矣觀此狀

承傳

七月十七日口傳　下教曰今番擇日固好而閣巷間如有善為擇日者明日都監堂上依今日例來會殯廳更議

七月二十二日有　吉今見卿等狀辭該監事當查處而更問於日官今日申酉時為吉云而二十六日大體大吉以此日退定為好今日內如欲為之則以日影令地師推測定時而猶不若十六日之大勝於今日以此知悉此事當知悉

八月初九日有　吉遵　園吉日更為推擇於十月初七日初役是以趙朝守作　笼家開金井擇日雖皆進定此則二堂上上來時已有遵教勿以啓下擇日為拘進退間一依遵教從便為之退後論理狀聞

八月三十日　傳曰上梁日子初一日初三日為吉而初三日

啓政院事萬萬駭然回諭中頭辭上梁二字誤以作　笼家書送致有此狀請如許承宣不可尋常處之況昨於下諭之時以承旨之出跳縷提飭則在焉敢若是無忌當該承旨等為先削職令該府拿問嚴處雖以京都監言之既下諭旨則即當枚舉通知而何無一言孑孑遽使外京都監堂上在京人徒重推考卿等以此知悉

九月初四日作　笼家九月初七日開金井初八日進定事有

吉有三物各載

九月初五日有　吉初七日辰時為吉以此日時封　標仍作　笼家事下諭于　園所都監抱護使處令則開金井日子依當初所定為之永好初八十一間相議決定後狀聞事一體下諭

奏啓

七月十五日禮曹　啓曰遷　園日守擇吉以十六日爲之應
恭諸臣來會擧行可也事　命下矣摠護使及都監堂上觀
象監提調本曹堂上明日待閤門來會宜聽擧諸日官同誠
推擇而拘忌年甲自　內書下既有前例耶　啓　傳曰雖
不書下日官自當知之矣

七月十七日摠護使無觀象監領事臣金煜錦城尉臣朴明源
觀象監提調臣金鍾秀遷　園都監堂上臣徐有隣李在簡
園所都監堂上臣金履素鄭民始禮曹參議臣李義絅　啓曰
今此遷　園時各項吉日推擇以入事　命下矣臣等來會
賓廳招致觀象監諸日官等詳細會議則來十一月即吉朔
六故使之精擇別單書入之意敢　啓　傳曰知道

園所擇日別單

左旋乾峯乾下爻轉癸丑轉艮八首癸丑丁向兩分金坤
乙申得水午破
景慕宮乙卯生忌土日
洪運戊辰木忌金年月日時小利
正運辛未土運治庫宮
始役七月二十日甲辰辰時先始東方
斬草破土同月二十六日庚戌巳時先破東方
祠后土同日晡頭先行
作　瓮家八月十二日乙丑卯時
取土吉方甲庚方
開金井十月初三日乙卯午時

同月十三日乙丑巳時
穴深十尺用營造尺
外　梓宮陪進十月初二日甲寅辰時
同月十二日甲子卯時
下外　梓宮十月初八日庚申辰時
同月十八日庚午午時
成殯　大擧到　園所後隨時忌艮巽方
園所啓　攢宮十一月初二日甲申卯時先啓西方
進發同日啓　攢宮後隨時
下　玄宮十一月初二日甲申巳時
祭主不伏方巳午未地
的呼壬辰

正冲甲寅
同冲庚寅以上下　玄宮時少避
卯上古方西壬地
周堂在外不計
年己酉上　木命聚貴
造命　月丙子水　聖人登廣殿
日甲申水　坐小得勢
時乙巳木　天地德合
蓋山喜道
都天轉運
活祿馬貴
八小驛馬

平分陰陽
兩德同聚
丁奇入中
鳳凰干
金鷄鳴
玉犬吠

丁字閣擇日別單
開基七月二十二日丙午卯時先始東方
定礎八月二十六日己卯卯時先定東礎
立柱上樑九月初一日甲申辰時先立東柱
遷　閣擇日別單
告后土祭

告事由祭十月十三日乙丗曉頭行
移　安祭同日同時
作　龍家同日午時
破舊　園十月二十二日甲戌巳時先破西方
出　玄宮破舊　園後隨日時
發靭破舊　園事畢後隨時
成殯　大擧到　丁字閣後隨時
啓　攢宮同月二十八日庚辰酉刻時先啓西方
　同月二十九日辛巳辰時
　同月三十日壬午子時
發靭同日隨時
周堂在外不計

停喪忌方艮巽方
七月二十二日辰時狀　啓提調金履素　民始李文源　鄭
今日卯時乃是　丁字閣開基日時也自昨夕罄舘諸具而
觀象監奏時官無來待之事竟夜推尋至于今朝而終無形
影各項擇日既已頒布該監自當依例待令再昨始役之時
亦既奏時則今日闕待事未前有殊極驚駭既無奏時官則
莫重開基之役決不敢苟然擧行乙仍于吉時已過不得開
基旅敢具由馳　啓為白去乎即今該曹更擇吉日時意連
下送亦令該監奏時官前期下送為白乎旀該監提調從重
推考臣等亦有不能預先撿飭之失惶恐待罪緣由馳　啓
同日遷　園都監即廳以都提調意　啓曰即伏見　園所都
監狀　啓啓下者今日　丁字閣開基以奏時官之不為待
令不得始役至有改擇日之擧臣不勝萬萬驚懍之至禮曹
則不得詳細文移於都監都監則不能越即捧甘於雲觀雲
觀則不為先期整待於　園所致使莫重莫大之役未免停
退日子事未前有不可置而無警禮曹堂上兩都監堂上觀
象監提調一並從重推考此莫非臣不善董飭之罪臣則惶
恐待罪之意啓　啓　傳曰知道卿則勿待罪
同日夜時狀　啓聯名上同
節該今日申酉時為吉云而二十六日大體大吉以此日定
定為好事有　吉當日二更量臣等在　園所祗受為白有
如乎日昏已久夜色向深以意推度將至戌亥之交越今日
酉時開基勢不能及謹當更待二十六日吉時　須下擧行
詳料為白乎旀緣由馳　啓

丁字閣改擇日
開基七月二十六日辰時先始東方
定礎八月二十六日卯時先定東礎
立柱上樑九月初一日辰時先立東柱
七月二十八日都監堂上鄭民始時　啓開金井在於今十月
初三日而作　龍家擇日乃是八月十二日其間日字太遠
令該曹以九月望念間更為推擇何如　上曰依為之
八月初二日遷　園都監即廳以都提調意　啓曰遷　園吉
日推擇　啓下之後退開方外不無甲乙之論云故臣金煜
與觀象監提調臣金鍾秀臣鄭昌順都監堂上臣徐有隣臣
李在簡來會都監招致方外士人進士宋重亮幼學姜必濟
金永曄與日官池日賓金喜慶池京喆迭條卞析反覆論難

則金永暉曰初二日即伏斷日他慈可制伏斷則不可用矣日官等曰此日果為伏斷而時用通書曰葬埋不忌不可以大要所云反忌通書所不忌之日矣永暉曰只見天機大要有所云云時用通書未及見矣姜必濟曰伏斷日百事皆忌通書雖曰不忌造命訣曰埋葬營井尤為忌二說矛盾何必用此日乎日官曰造命訣三字或見於方書而別成冊子者未之見耳是何人所撰而虛本乎常叔乎必濟曰只見勝書冊而撰書人亦不知矣宋重虎曰伏斷日時用通書既曰埋葬不忌雖以協書言之安葬日多足伏斷而初二日亦然矣永暉曰大要曰地陽日忌安葬十一月甲日即地陽日矣日官曰地陽日通書只忌斬草破土開金井制法三奇祿馬貴同到又值成日則不避矣必濟重虎曰果不以此拘於葬日矣永暉曰此亦只見大要所論而言之矣必濟曰乙之羊刃在甲而甲又為乙之劫財矣日官曰乙之羊刃辰也甲則只為劫財不為羊刃矣必濟曰陽順數陰逆數乙為陰木則甲豈不為乙之羊刃乎日官曰祿前一位為羊刃山前一位為羊刃逆數而以乙逢甲為羊刃元無此法此見於何書乎必濟曰在造命訣矣重虎曰此則諸日官之言是矣逆數之說未可曉也必濟曰卯木起胞於申則申是劫慈矣日官曰此非葬擇之所着而設如外論所忌甲申則納音屬水卯木為絕處逢生此為吉格初已詳論而定者也必濟曰納音之水何能排木之絕處耶日官曰表天綱五行反生不能敗絕例曰木絕於申而甲申則不絕此是當下逢生謂之以納音水不能排木之說甚是無稽矣必濟曰五行反生之例當下逢生之論日官之言誠然矣必濟又曰支卯未三合劫居申則申是劫慈矣日官曰此有化慈為權之法以已酉納音土制甲申納音水以祿馬貴化之則方書所謂制以納音化以吉星者此也必濟曰已酉土祟制甲申水而太歲之土被克於時之已巳木則有何餘力而能克水乎日官曰化慈為權最為上格時之木不能作梗矣必濟曰卯與申為吭嗔慈矣日官曰此是諸慈中最輕者故安葬摠忌元無擇論矣必濟曰既以慈為名則何獨於葬事不拘乎日官曰凡擇日之法雖大吉元無無慈之日故有三凶四吉之法況安葬制命摠忌外他門户所屬之慈又安可傍引為葬家所忌乎重亮曰大凡日家千百其說而人見各異難以大同然古人用法大體既好則小疵不拘今此丙子月甲申日雖有伏斷等小慈而合於祿貴三奇三德等諸吉星遍考數月之內無勝於此日者云矣臣等既聞其彼此辨難之語且見其援證諸方書則日官之言皆有所據明白可攷方外之說多是無稽輒皆自屈甲乙參差之論從此歸一誠為萬幸而姜必濟之拗執偏見倡為異說金永暉之全昧古方妄論大事萬萬可駭 國體所在不可不重勘姜必濟金永暉並令攸司照律嚴處何如 傳曰允荀有所懷豈可以方外咨且嚅嚅乎朝家亦當嘉其無隱而渠既無的見又不廣考妄論大事惟意無難亦有關於國綱況斷謄冊之作為徵信無異於向來之金暉揆以重其事曉羣惑之道不可仍置勘處事依草記施行天機大要時用通書等冊猶可執以為說至於星曜躔次之說周天度數今古迥殊則假令方書中在此干支位次者今當

移在他千叉不待數家言可以理推此所以爲方推擇之主格局也此後更或以奇文法有雖黃之論卿等切勿傾信而撓屈可也

八月初三日祠曹　啓曰因選　園都監草記妄必濟金永暐等既無的見又不廣致妄論大事雖意無難亦有關於國綱重其事體聲惑之道不可仍置依草記勘處事　命下矣取考律文則大明律衙士妄言条有曰凡陰陽術士妄言者杖一百註爲条有曰報上不以實者杖八十徒二年名例有曰二罪俱發以重者論妄必濟金永暐等依此律次杖八十妄必濟忠清道洪州牧金永暐黃海道載寧郡並定配所即爲押送之意取　啓　傳曰知道因有妄言之罪與不以實差間亦與金暐之陳疏有異只以妄言律勘處可也

八月初九日摠護使綿城尉入　侍時摠護使金煜所　啓臣於擇日事窃不勝區區悃悃者玆敢率諸堂請　對矣十一月初二日推擇　啓下之後退聞方外多有異同之論臣等日前聚會方外人及諸日官于都監使之和興辨論則方外人語多無脗合辭窮故妄論大事之罪草記請勘矣今則揭帖之論雖得歸一而第此莫重莫大之事既有當初雖黃之說則以此日仍爲定行終有所萬萬惶悶者丙申年雖勘金暐妄言之罪而日子則延後改擇矣臣意則更加斟酌商確改爲推擇實合愼重之道矣　上曰十一月初二日外又有可合吉日乎明源曰十月初七日果是吉日而當初不得擇入者蓋若以初七日爲定則各　園日子勢將以八月推擇啓　園之先期二朔既無可考之例故初不敢以此日推

八矣莫重日子既有改成之論則較諸各　園日子之差先二朔性重大異依大臣前奏改爲擇入恐不可已矣煜曰今則改爲推擇無容更議而十月初七日既是吉日則各　園日子不必以八月之差先爲拘臣等述與都監諸臣聚會日官更爲相商以此日改擇以入何如　上曰事勢既如此吉日在十月則各　園日子雖前期二朔當以安　園吉日爲所重各　園則以八月推擇安　園則以十月推擇可也

同日摠護使無觀象監領事臣金貴榮監提調臣金鍾秀都監堂上臣徐有隣臣李仁溥臣鄭昌順禮曹參判臣閔鍾顯參議臣李義駿等　啓曰選　園各項吉日改推擇事　延恩殿下矣臣等齊會廳招致觀象監諸日官等詳細會議使之精擇後別單書入之意敢　啓　傳曰知道

園所擇日別單

左旋乾峯乾下爻轉於來丹轉艮入首癸坐丁向（丙子分金坤丙午）

乙巳得水午破

景慕宮乙卯生忌土日

洪運戊辰本忌金年月日時小利

正運辛未土運泊長生宮

始從七月二十日甲辰辰時先破東方

斬草破土同月二十六日庚戌巳時先破東方

祠后土同日曉頭先行

仰　麗家八月二十九日壬午卯時

取土吉方丙壬方

開金井九月十一日甲午卯時

穴深十尺用營造尺
外　梓宮陪進九月十七日庚子卯時
下外　梓宮同月二十日癸卯卯時
成　殯　大舉到　園所後隨時忌巽乾艮方
園所啓　攢宮十月初七日己未申時先啓西方
進發同日啓　攢宮後隨時
下　玄宮十月初七日己未亥時
祭主不伏方申酉戌方
的呼丙戌
正冲巳丑以上下　玄宮時少避
取土吉方甲庚方
周堂在外不計

造命年己酉土
月乙亥火
日己未火
時乙亥火
　通天竅走馬六壬
木命得局聚實
貴人登天門
蓋山黃道
三元紫白
丁奇到中
都天轉運
兩干不雜

七君下臨
活祿馬貴
真太陰到坐
尊帝二星

遷　園改擇日別單
告后土祭
先告事由八月初九日壬戌隨時先行
移　安祭同日同時
作　筵家同日申時
破舊　園同月十二日乙丑卯時先啓東方
出　玄宮十月初二日甲寅辰時
發引破舊　園事畢後後隨時

成　殯　大舉到　丁字閣後隨時
啓　攢宮同月初四日丙辰申時先啓西方
發引同日隨時
周堂在外不計
傳喪忌方乾巽艮方
八月初十日捴護使觀象監提調都監堂上禮曹堂上　啓曰
曰　園所都監狀　啓作　筵家外　梓宮陪進下外　梓
宮吉日時依　下教令日官改推擇原單子中付標書入之
意敢　啓　傳曰知道
擇日
作　筵家九月初三日丙戌辰時
外　梓宮陪進九月十一日甲午卯時

下　外梓宮同月十七日庚子午時

八月初十日巳時狀　啓　提調金履素鄭民始

擇日雖皆進定勿以啓下為拘從便為之後狀聞事有　旨當日寅時量臣等在　園所祇受為白有如乎遷　園吉日已為進定以今料量土木之役小浮石所石役似可及期是白乎矣大浮石所石役其間浮出數少連加董飭而處所不便石品堅剛以此功役遲滯誠甚渴悶是白乎旀几千使役誼當依　慈教從便奉行計料為白乎矣作　筦家開金井日予自當依推擇吉日舉行而前擇日則日限不足今不可擬議今番擇日開金井吉日期限適宜依此舉行是白乎乃開金井前期四五日作　筦家是白良置足以周旋而吉日乃在十餘日前且作　筦家前期四五日自當修治地平是白如乎自地平日至開金井其間日子似為太速開金井後四五日則可以奉　安外　梓宮而推擇日子其間為十日亦似太速是白乎乃日子則有不敢從便舉行何以為之為白乎喻緣由馳　啓

八月三十日亥時狀　啓　開詞金履素鄭民始李文源

初三日此初一日有勝照損事　傳教是置有亦諒依　聖教以初三日進定舉行計料是白乎矣無吉時　頒下之事令該曹推擇吉時即速下送為白乎旀作　筦家在於來月初三日是白乎等以今日為始封標　宂處去浮土除草根緣由并以馳　啓

九月初一日巳時狀　啓　聽名上同

丁字閣上樑吉時推擇下送之由已為馳　啓為白有在果上樑日子既已退定於初三日是白乎則上樑文正本中年月下日子宜有疑通之道而事係莫重不敢擅便何以為之是白乎乙喻緣由馳　啓

同日酉時狀　啓　聽名上同

節該作　筦家初三日太速令京都監更擇可合日下送事有　旨當日申時量臣等在　園所祇受為白有如乎作　筦家段待京都監更為擇日下送舉行計料為白乎旀　丁字閣上樑當以初三日為之而吉時不為　頒下乙仍于臣等昨日以令該曹推擇下送之意馳　啓為白有加尼有　旨中作　筦家吉時則　頒下而　丁字閣上樑吉時始無　頒下之事令該曹即速推擇周夜下送為白只為緣由馳　啓

九月初四日遷　園都監即廳以提調意　啓曰開金井吉日欲為進定於初八日事　命下矣開金井吉日若進定於初八日則作　筦家吉日亦當進定故即令日官推擇則今月初五日初六日俱有拘忌前擇日已知委初七日辰時外無他進定之日云以此日時預備以待臨時舉行之意更為分付何如　傳曰允

九月初五日午時狀　啓　掘壙使金毅

節該初七日辰時封　標作　筦家開金井日子初八十一間決定狀聞事有　旨當日寅時量臣在　園所祇受為白有如乎封　標及作　筦家吉日時諒依有　旨內辭意舉行為白乎旀開金井日子亦依當初　頒下十一日卯時舉行計料為白遣緣由馳　啓

九月初十日遷　園都監　啓曰外　梓宮陪進吉日下外
梓宮吉日　發靷習儀吉日更為推擇事　命下矣即今日
宮推擇則外　梓宮陪進九月十六日辰時下外　梓宮同
月十八日卯時　發靷習儀同月二十日卯時為吉云以此
日時擧行自　園上詣　香大廳習儀自　丁字閣上　園
習儀當以九月二十日　啓下依前擇日一體擧行何如
傳曰允
各採行日及事役日時
七月二十日辰時始役
辰時封　標
七月二十二日鶚峰浮石始役
七月二十六日曉頭祠后土
辰時　丁字閣開基
巳時斬草破土
唇毬補土
八月十五日　碑閣開基
八月二十六日卯時　丁字閣　碑閣安礎
八月二十七日大中小三珠完築被沙
八月二十八日小浮石所石物畢浮撤還內役
八月三十日　魂遊石運入
封標近處去浮土除草根
九月初二日至初三日文石正地臺石滿石運入
九月初三日申時　丁字閣　碑閣立柱上樑
九月初四日　丁字閣　碑閣掛椽
九月初五日大浮石所畢浮除卜
九月初六日　丁字閣蓋瓦始役
九月初七日辰時改　封標　瓮家始役
丁字閣畢蓋瓦
碑閣蓋瓦始役
體大石物畢輸入
九月初八日　瓮家畢役
隧道閣始役
碑閣畢蓋瓦
大浮石所畢浮撤還內役
九月十一日卯時開金井
隧道閣畢役
丁字閣仰壁塗墜
九月十二日　水剌間守僕房立柱上樑
大小浮石所石物盡輸入
丁字閣傍壁塗墜築中防
九月十三日屛風下磚石基址杵築始役
魂遊石鍊石始役
水剌間守僕房蓋瓦始役
主筆以下植木
九月十四日　丁字閣椽上丹青始役
水剌間守僕房畢蓋瓦
屛風下磚石基址築灰始役
九月十五日　丁字閣椽上塗灰

屏風下磚石基址畢杵築

九月十六日　碑閣梯上塗灰

穿　壙始役

屏風下磚石始役

壙中四面畢鍊正築地灰

九月十七日外　梓宮到　園所奉　安隧道閘

外　梓宮下隅板　誌石奉安香大廳

九月十八日卯時下外　梓宮橫壹板排設築灰

正地壹石排設始役

外　梓宮結裹物種燒火

九月十九日曲墻基址杵築始役

金井機撤去

覆釜形完築

九月二十二日　丁字閣丹青畢役撤浮機　碑閣丹青始役

屏風下磚石畢排設

九月二十四日　碑閣丹青畢役撤浮機

曲墻基址畢杵築設地壹石

九月二十六日正地壹石畢排鋪

面屏風石隅屏風石次第排設

半月成　墳次築土始役

九月二十九日　丁字閣月臺簷階畢役方甎排鋪

屏風石畢排設滿石排設始役

十月初一日曲墻地臺階石畢排置曲墻始役

滿石畢排置

引石排設始役

十月初三日　引石畢排置

半月成　墳完築並草蓋覆始役

香路築階鋪磚

丁字閣方甎畢排鋪後塗褙

碑閣簷畢役

禁川橋石築

半月　墳並草畢役

大次　齋室　香大廳典祀廳畢修改

十月初四日辰時退　壙金井排設穿　壙始役

半月形瓦簷裝石排設始役

退　壙穿　壙始役

正隅板審量合縫仍始加茶

誌石擯四坐埋安

攢宮排設

十月初五日立拘捧機設轆轤

正隅板三度加茶

丁字閣畢鋪陳氈簾掛懸

十月初六日申時　大輦到　園所成　殯仍為加茶

正隅板五度畢加茶

十月初七日加茶

申時行遣　奠啓　攢宮

酉時奉　靈輦上　園

亥時下　玄宮封閉仍為隔灰杵築

退　壙內石函排設
十月初八日去拘捧機轆轤金井機
前面石物始役
大紅箭門撤去永排紅箭門竪立
編結木圍排把予撤去
前面正地臺石畢排置
十月初九日前面屏風石排置
十月初十日前面滿石排置
十月十一日前面引石排置
隧道閣撤去
虎石羊石排置
瓦簷裳石入排始役

十月十二日　園上莎草畢盖覆後撤毀篹家
十月十三日　丁字閣退　壙排設及　隧道閣材木燒火
瓦簷裳石畢入排
魂遊石文石馬石排設
曲墻內波莎
十月十四日望臺高望柱石竪立
武石長明燈排設
坐向石埋安
十月十五日被莎畢役
禁川橋內修掃
火巢定界
十月十六日安　園奠設行

禮儀
延說

己酉七月十六日摠護使錦城尉觀象監提調禮曹判書參議
都監堂上入　侍時　上曰今因言端有所下教者矣今番
遷　奉之禮在予心必欲靡不用極事事無憾而　園所今
幸卜吉　園獅亦將改議故先使卿等知之須與諸文任考
閣字議以待成命好矣柳義養之向來疏請雖有詢問之擧
而終近無稽之說故不敢遽議事遂寢焉蓋宋朝陵獅旣是
永祐祐字與祐字義雖各異字實相近故肇有此請卿等想
為記有矣摠護使金熤曰柳義養之疏臣果忘未記得今於
遷　奉之時改　進新定之獅則節文充備情禮允叶　聖
教之下不勝欣幸矣　上敎都承旨金載瓚曰以此傳于諸

文任俾令預擇其可合字殥可也

八月初六日奉　朝賀趙暾八　侍時暾曰遷　園大禮今已完定誠是我東方無疆之福也舊　園所局勢砂水節節遠格大為地家所忌閭巷間隱憂積有年所矣者都尉陳疏廷議如一吉地有待而　禮日不遠其為慶幸何可勝遠　上曰年前柳義養疏請改議　園殥大抵與宋朝陵殥近似故也卿意以為如何暾曰今番遷　奉之時更為議定實為允矣矣

九月二十六日八　侍時　上曰銘旌書寫吉日不遠當書以梓宮乎　梓宮乎摠護使蔡濟恭曰　攢室既稱　攢宮銘旌亦以　梓宮書之乎　上曰書以　梓宮可也

十月初七日辰時　上至齋室具縗服　乘輿上　園所至紅箭門布帳外　步詣　丁字閣內奉審　攢宮　出就拜位哭移時不止摠護使蔡濟恭曰俄伏奉朝　上食行禮姑待之　命故方待　駕臨今則正時太過矣　上遂止哭復詣攢宮由東邊捲素帳　入奉審　玄宮行朝　上食（如儀）（監察行後）（詣都）　上奉審　山上午時出　就位陪從官及隨駕官未及就位矣　上曰茶禮正時已屆催促成班可也承旨洪仁浩曰曾經春桂坊中無實職人皆路　祭祭班後經詣　園下以為參班之地故敢　達矣　上曰俾令入參可也　行書茶禮訖　上曰百官使之擡退待晡哭時來待事分付可也

十月初七日巳時行朝　上食（如儀）

同日午時行晝茶禮（如儀）

同日申時行晡哭啓　殯奠書上字無行夕　上食（如儀）　上曰五度加茶之光十分明潤書上字今當為之矣　上進詣攢宮摠護使都監堂郎　長生殿都提調提調書寫官錦城尉朴明源隨詣　攢宮以泥金書上字於　梓宮上陽板　上曰泥金光彩例用薑汁都監堂上出去取來薑汁小許也都監堂上徐有隣承　命奉進　上下教別看役丁遏峯拌薑汁于金字畫上又以土火爐盛炭火遠遠照乾訖　上曰金字果已安于柒上乎領議政李在協曰十分精好無欠矣摠護使　長生殿提調降復位　上出就板位俯伏哭止哭行夕　上食（如儀）　上俯伏哭止哭仍行夕　奠　上仍詣丁字閣西邊　小次終日無所進　御藥院都提調李性源累進　小次帳前警咳請進　水剌及茶飲　上終不許啓殯時至　上出就板位行啓　殯奠（如儀）　上俯伏哭過數時而不止時原任大臣以下諸臣環伏板位之下涕泣罔措領敦寧洪樂性前進泣奏曰　殿下之任情過哀審審若此昨日拜辭　慈宮之際伏想以節抑之意仰奏而今又如此以　殿下順志之孝獨不念經情過毀非所以仰慰　慈心乎諸大臣疾聲哀懇摠護使蔡濟恭右議政金鍾秀曰啓　殯奠禮已成結褭節次及啓　攢節次當費時刻如是之際正時已過　殿下何不念及於此乎　上良久悲咽乃止哭　上詣　殯宮內立于　攢宮東邊禮曹判書鄭昌順讀笏記結褭執事卞世義丁遇參李禮輔鄭如淵宗戚執事金箕性洪守榮檢校直閣鄭東浚摠護使都監堂郎以下進詣　攢宮內行結褭（如儀）訖摠護使以下降復位遷　奠時至行禮（如儀）

上曰　梓宮上　園所時陳列已於未暮前為之而果皆依禮文無差錯乎都監堂郎看審以奏鄭民始徐遣修等出去看審後還奏曰已依例陳列矣金鍾秀入自東階詣　攢宮前北向跪進　啓　攢宮如例進撤　攢宮內侍撤銘旌素扇蓋及趺奉持前行還　園都監堂郎引方相氏至退　壙上以戈擊　壙內四隅周回三次擊曲墻外四隅亦如之而出左議政蔡濟恭奉　梓宮官陞輴（輴次見遷殿儀註）　上攀踊哀痛觸地氣衝上　隨輴至　丁字閣南邊一傍命設俯伏階上性源即奉淡薑茶和蘇合元五九以進高聲請進　御上進御未及半鍾　上以手捽却曰膽塞氣短苟無下咽之望其止之性源曰然則　進御清心丸為宜矣仍以薑茶和清心丸一九奉進　上纔進數呷　教曰此時服藥情理難堪卿等勿復更勸也仍踊哭隨　輴詣　隧道閣文武百官成班哭從奉　輴軍入及　園上役夫扈衛將士皆哭助哀　龍輴至　隧道閣左議政李　梓宮官別看役侍衛別監奉引　梓宮安于退壙上防木上　壙上已先設大轜轝次設別造轜轝（轜轝制樣並見園陵儀註）　上奉審金井機四旁　出乾　隧道閣外布帳外露坐連飭禁漏隨告漏籌又　命承旨閣臣等曰夜中正時最為審愼萬一有一毫差錯豈成說乎卿等輪回往禁漏詳細看審右相方帶雲觀提舉躬詣詳報可也少頃禁漏官以下　玄宮前一刻入奏　上詣　篤家內傳　玉帛訖北向立執事者各奉　玉帛函以次跪授近侍近侍南面跪進　上受之近侍對舉傳于領議政李在協領議政跪受入跪奠于退壙之西　上踊哭移時不止大臣以下以正時將至迭請止哭纔纔哀乞一無　下答大臣及都監諸堂曰當此至重至敬之事聚精舉行而後庶可無未盡之端而自　上過哀至於如此臣等焦遑之極罔知所措何以能盡誠舉行乎　上止哭還就布帳外露　坐禁漏官以下　玄宮正時入奏內外都監堂上及都廳三物所郎廳贈　玉帛案褥席執事時原任大臣宗戚執事別看役在　篤家內侍外官員無得入參宗戚執事去素錦褙鮮結果別看役及侍衛別監以大轜轝及別造轜轝奉　梓宮安于退壙內輸奉之上（下玄宮時參次捴護使以下退伏哭盡哀再拜　上叩三物所郎廳贈玉帛案褥席執事時原任大臣參進前諸閣臣左右環擁遵節　腑氣衝且時原任大臣等進前請侍力請止哭而　上一不下答愈益哀痛　長生殿提調李文源以支機木皆質　梓宮下隅而助舉別看役丁還奉鄭東仁還　園都監別看役卞世義引回籠索準限奉入撤去外　梓宮內所設瓦木隅木等諸件捴護使以下又為退伏初階外哭盡哀再拜在位者皆哭盡哀再拜　上尚未止哭氣候益昏級挾侍左右扶掖僅行再拜禮時原任大臣等泣奏曰　大禮利成　聖懷當如何而　虞祭正時已至臣等又犯萬死之罪雖未承發落敢請奉還小次矣仍進前扶侍還　小次百官始行進名奉　慰訖都監提調及　長生殿提調率其屬取外　梓宮下隅板合之其合縫處周回以苫塗細布領議政李在協執義朴聖泰並監　封標　玄宮門三物所郎廳李廷恢以厚紙膠貼下隅板正中執義書臣謹封右議政金鍾秀覆土九鉌都監堂郎率作工先用油灰填補左右墻灰如例（詳見三物所日記）　行謝后土祭於東邊曲墻下儀

燒火諸具並於相城內庚地焚之

十月初七日夜時　親行　虞祭於　丁字閣（如儀）撤禮饌大祝奉　紙牓横安於腰輿都監堂上及本　園官承旨李集斗同爲陪進埋安於曲牆內東邊望墓高後　上祇送于　丁字閣東階下　上曰承旨一人無史一人仍留　瓮家內以待可也時原任大臣進前請還　御齋殿　上步出紅箭門作門外　乘步輿　還齋殿

十月初八日寅時　上具絻服　乘步輿詣　碑閣前　降輿詣　隧道閣　行辭　園禮俯伏哭再拜訖　上於帨　下教曰今晚之後更無洩哀之地予懷何以堪抑予仍　進審瓮家內　還就　碑閣前　乘步輿　上曰右副承旨李集斗仍留　園所以待半月形地平及退壙等灰一階奉審後

承傳

己酉七月二十五日　傳曰出　玄宮後自朝夕　奠上食晝茶禮至遣　奠祭品並以自內措備該司則　上食外各　奠晝茶禮只以書下品數待令事分付進排之出於各貢者令戶惠廳廣鍊先會減後進排扱例務從優厚事分付外此令番都監所用物種之不得不取用貢人市民並依此爲之事分付戶惠廳

八月初八日　傳曰　園陵更議事已有詢問者使之明日來會

同日　傳曰政官牌招開政明日應參諸臣中如有在外未肅拜人許通與未差代今日政差出待下批牌招察任

同日　傳曰新定　園陵自新　園所稱陵事分付該曹

八月初十日　傳曰今番還　園時　靈巒所過名山大川設
祭處　祭文纔已親捧部字內則侍從堂上人為獻官堂下
侍從為大祝水原光教山及花山令　園所都監堂上為獻
官都廳為大祝事分付
九月二十九日　傳曰五禮儀則雖以筆與載錄其時則駕轎
之制未出故也　先朝丁丑　下教既如是丁寧以此　下
教謄下禮曹載之都監儀軌及禮曹謄錄仍書補編受　教
張事分付
同日　傳曰初一日詣　園所初四日隨　擧過原後還宮以
此分付
十月初二日　傳曰外辦已數時尚不得出宮仰慰　慈心為
慰下　玄宮時則臨則一也到江頭還為入來翌朝出宮初

奏啓
七月二十六日曉頭行祠后土斬草破土之由馳　啓啓本見事例
八月初九日政府西壁錦閣堂上六曹參判以上三司長官來
會賓廳　永祐園園號改題以入之意故　啓　傳曰知道
園號　顯隆　泰隆　德隆　落點　顯隆
同日八　侍時京畿監司徐有防所　啓還　園時　大擧所
過處名山大川祭享部字內則祭官與祭物自京司舉行京
畿地方祭物亦自京司進排而只祭官及諸具自畿營磨鍊
矣考見前後謄錄則祭物則自京出來祭官則自外差定擧
財窘連每多有生梗之弊亶意今番則祭物亦自畿邑一體
進排　香祝則依常時山川節祭例自　香室出送畿營則
差祭守令臨時來受臣營陪往過行恐合事宜故敢此仰

建矣　上曰依為之使之各別虔誠過行事申飭可也

九月初三日　丁字閣立柱上梁依禮文行　祭之由馳啓（啓本見贊典）

九月二十八日八　侍時捴護使蔡濟恭所啓　王帛褥席既有自新　園所措備之　教　發引時不為陳列褥席執事俱在　園所勿令上來祭班何如　上曰依為之

寢移卜虔告創功永藉神力

九月初三日　丁字閣上梁儀

其日設帳幕於階上南向設上梁文案於帳幕之內南向設香爐香盒並燭於其前（皆有案）設都監堂上以下位於帳幕之前庭中異位重行北向設贊禮引儀位於階下西向上梁時至執事鋪淨席設米酒果如常謁者引都監堂上以下俱以白布團領入就拜位引儀唱再拜都監堂上以下皆再拜諸執事詣盥洗位盥手各就位謁者引獻官詣盥洗位盥手詣尊所西向立引詣　香案前跪三上　香執爵獻爵奠爵俯伏興少退跪在位者皆跪展上梁文官對展上梁文於案上讀上梁文官讀上梁文訖獻官俯伏興平身謁者引獻官降復位在位者皆俯伏興平身引儀唱再拜獻官以下在位者

儀註

七月二十六日祠后土祭儀

贊引引諸執事入就拜位諸執事皆四拜諸執事詣盥洗位各就位謁者引獻官入就位謁者進請行事獻官四拜行初獻禮謁者引獻官詣盥洗位謁者引獻官詣尊所引詣　神位前引降復位行亞獻禮謁者引獻官詣尊所引詣　神位前引降復位行終獻禮謁者引獻官詣尊所引詣　神位前引降復位四拜獻官四拜撤籩豆四拜獻官四拜望燎謁者引獻官詣望燎位可燎謁者進禮畢謁者引獻官出贊引引諸執事具復拜位諸執事皆四拜諸執事以下出

祝文

名山吉兆千載一值神師是證　列祖攸擬天作有待　園

皆再拜興平身引儀取上梁文陞置梁上引儀唱禮畢執事撤饌謁者引都監堂上以下出

上梁文

伏以吉崗改卜　保佑自天靈閣告成經營不日　玄隧再奠丹楹一新恭惟　思悼綏德敦慶弘仁景祉莊獻　世子邸下挺日月　姿貫天人學　成顏肅穆得居尊履正之儀　霽度淵洪有積厚流長之象攝庶政於　貳極祇承　寧王　格昌運於萬齡篤生　聖子天上之　真遊寢遠域中之普痛猶纏衿我　聖明之　光臨備極典禮之　隆奉　徽稱　象　德登冊寶而　揄揚縟儀　藏裡貢牲幣而　崇報惟　茲東原之　仙寢每勞　北宸之　孝思密邇城闉雖便時　節之　展省頻昂岡麓或欠體勢之聳安　精誠孔昭耿夙

夜而如結事體至重緜歲月而廉遑一疏幸契於　淵衷大訐爰定於水邑龍盤鳳翥自古稱福地明堂鬼護神呵至今有祥光寶氣詢謨允協奚止堪輿家贊嘆摽識昭傳已經祖宗朝擬議　鶴駕暫駐感不偶於昔年虎丘久虛若有待於今日方治兹原之　象設先建　丁閣之鞏飛瀑見和仰　睿懷之休愴金粟營　宅瞻　寶構之奐輪鴻霤雲而列掻山增縹緲之勢俯迥野而開牖庭延明堃之光於乎　聖孝之出天允矣　寢廟之得地恤民隱而敦　恵錐遷如歸捐帑儲而助工有贏無詘謳歌　遺澤共般倕而效誠肹蠁新庥奉　邁笠而　迓祉恭陳善頌以侑修禩兕郎偉拋禩東花嶽傍連舞鳳峯擺外朝朝宿瑞日日光山氣共玲瓏兕郎偉拋禩西瀉溟萬里接坤倪源流威大無終極願我　宗杼景命齊兕郎偉拋禩南川長野遠與天參圓明一攏驪珠似宛在中央手可探兕郎偉拋禩北清漢終南望隱約三輔由來壯　本朝萬年　新祀增　祥詠兕郎偉拋禩上松栢新栽日長壯原廟功成　王孝彰洋洋　陟降垂靈眖兕郎偉拋禩下歲歲　明誠薦玉觴稽首祠官祈祝長百靈擁衛幽宮安伏願　上禩之後丹扈長新樸棫彌肇既安且吉俾熾而昌丞芬昭格於四時　本支蕃衍於百世

十月初六日光教山祭儀

謁者引大祝諸執事入就位諸執事皆再拜諸執事詣盥洗位各就位謁者引獻官入就拜位獻官再拜行酌獻禮謁者引獻官詣盥洗位引詣尊所引詣神位前引降復位獻官再拜撤籩豆望燎謁者引獻官詣望燎位可燎謁者進禮畢謁者引獻官出謁者引大祝諸執事俱復拜位皆再拜謁者引大祝以下出

祝文

廼卜吉崗光教為宗龍翥鳳舞千里一蓬神監人願永衛

玄封

同日花山祭儀 與光教山祭儀同

祝文

天作花山大地福龍龍盤奚垛元氣重重何天之龍卜兹新

圜拱徹錄麻維葛子孫

同日下　玄宮儀

攝相禮進當　靈座前俯伏跪啓請陞輦俯伏興退內侍奉香爐香盒授執事者置於香亭大祝奉　紙牓猶安於輦捧詣吉惟官攝相禮贊請降輦陞座俯伏興大祝奉　紙牓猶安於　靈座香爐香盒置於　靈座前如儀吉伏陳於吉惟宮門外左右攝相禮進當　梓宮前俯伏跪贊請陞　輔卽玄宮俯伏興忠義衛奉銘旌前導左議政卽幷　梓宮官等捧梓宮從輪輦上陞　輔攝相禮導　梓宮捧安者以罥障　梓宮輦士捧　輔左回北首將卽　玄宮宮人皆哭　梓宮至隧道閣宮人先退左通禮詣小次前跪啓請出次哭從　殿下出次哭從纖扇侍衛如常儀左右通禮前導至奉辭位宗親文武百官皆哭從至奉辭位　輔至　隧道閣左通禮啓請入小次導　殿下入小次左議政卽幷　梓宮官等以輪輦捧　梓宮內侍覆以素錦褚從輪輦上進安於　埏　壙散輪上去素錦褚奉

審解畢用轆轤（如梓宮外）安於壙內輪轤上內侍去棺衣執事者一人捧拭梓宮之巾以進右議政盥手捧巾進拭梓宮乃覆以棺衣三重（初綵廣織三紅廣織）取銘旌置於其上左通禮詣小次前跪啓請出次　殿下出次左右通禮導就奉辭位左議政帥昇梓宮官等奉入梓宮先以副本三置於外（一擡置壙北二就置中東西向又用副本二以其半置壙輪轤之向北縱置於事西西當副本之南故置軸本於北壙輪轤之北端去石各一尺四寸此爲大寸圍轤置其南而著兩鐵釘其釘小頭長四寸上下各貫一寸外剖銳其剖而著兩鐵釘釘細腰如初簟兩用者二周周鐵釘二通置於左右晉軸上下以紅絲爲環而中貫軸本之又以小本九四分置於兩轤軸上下以紅絲爲環而中貫軸本之自梓宮南端又各數人而之梓宮復副本內等本上等正堅等長五尺廣尺四寸厚一尺二寸底版下擬振擊釘以固棺事訖副本小藏本二等底版下擬振擊釘以固棺事訖副本小藏本於外）梓宮內北首左通禮跪啓請跪俯伏哭宗親文武百官同（贊儀亦唱）右議政帥百官入就位北向立左通禮啓請跪　殿下跪俸　玉帛官各捧　玉帛函以次跪授近侍近侍傳捧以次跪進　殿下以次受之（近侍料擧傳于領議政領議政以次跪受入跪傳於退）壙之西左右通設褥　殿下還就奉辭位　園陵都監提調帥其所屬以輔妥版妥畫妥梱於　梓宮兩旁（內侍以漆本置梓宮上）撤去輪轤及轤轤左通禮啓請跪俯伏哭　殿下跪俯伏哭盡哀宗親文武百官同（贊儀亦唱）左通禮啓請止哭興再拜興平身　殿下止哭興再拜興平身宗親文武百官同（贊儀亦唱）奉辭訖左右通禮導　殿下還小次引儀分引宗親文武百官語小次前序立跪班首進名奉慰訖引出　園陵都監提調及長生殿提調帥其屬取外　梓宮正下隅板合之其合縫處周回以漆塗細布領議政及司憲府執義並盥　封標（玄宮門都監郎廳持擎執事官員名書誌于標下隅板正中書姓名）右議政覆土（每三物加一物至不可加乃止）九鉼　園陵都監帥作工先用油灰填補左右墻灰（假下隅板則減）正墻南距三尺橫置隔板等灰如三墻補等半釜形南面灰（每一物加一釜至不可加乃止）捧明器入退　墻（墻各以次置其中）各以次遂使陳之使有行列以石灰（以和水）隨空次填塞之下磁誌（埋於墓中南面）除地於　玄宮之左觀象監官祠后土如初　大擧及輀之屬於栢城內庾地焚之其通人臣用者不焚

同日謝后土祭儀

贊引引諸執事入就拜位諸執事皆四拜諸執事詣盥洗位各就位謁者引獻官入就位謁者進詣行事獻官四拜行初獻禮謁者引獻官詣盥洗位謁者引獻官詣尊所引詣　神位前引降復位行亞獻禮謁者引獻官詣尊所引詣　神位前引降復位行終獻禮謁者引獻官詣尊所引詣　神位前引降復位四拜獻官四拜撤籩豆四拜獻官四拜望燎謁者引獻官詣望燎位可燎謁者進禮畢謁者引獻官出贊引引諸執事其復拜位諸執事皆四拜諸執事以下出

祝文

幸古吉原厚蒙神惠庸申報謝永賴佑啓

同日虞祭儀

其日內侍設　靈座於　靈帳宮內近北南向大祝奉　紙牓匱安於　靈座執禮設　殿下位於帷門外近東北向設

亞獻官終獻官位於版位之後稍東北向西上執禮位於東階下近北北向贊者謁者贊引在南差退宗親文武百官位於外庭之東西供毎等異位重行北向相對為首（宗親別設位如常）監察位二於文武班後北向設外位宗親文武百官獻官諸執事於紅門外如常內侍整拂　靈幄典祀官　園司各帥其屬入奠　祝版於　靈座之左（坫有陳幣篚於樽所設香爐香盒並燭於　靈座前次設禮饌樽罍如式（見序例）設瓚盤一於樽所設爵洗於東階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有架）盥在洗東加勺篚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篚則又有坫）亞終獻洗又於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盥在洗東加勺篚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篚則又有坫）設諸執事盥洗於亞終獻洗東南北向執樽罍篚冪者位於樽罍篚冪之後前三刻宗親文武百官獻官諸執事就門外位前一刻執禮帥贊者謁者贊引先入庭重行北向西上再拜訖就位贊引引監察典祀官及大祝祝史齋郎入就前庭重行北向西上執禮曰再拜贊者唱（凡執禮有辭贊者傳唱後倣此）監察及典祀官以下皆再拜贊引引監察及典祀官就位引諸執事詣盥洗位盥帨訖各就位引儀分引宗親文武百官入就位謁者引亞獻官終獻官入就位大祝陞自東階詣　靈座前開匱奉出祇版設於座執事者詣爵洗位洗瓚拭瓚洗爵拭爵置於篚奉詣樽所置於坫上典祀官　園司進胙訖左通禮詣　齋殿前跪啓請行廣禮　殿下盥洗以出贊禮導　殿下入就位（通贊侍從入徹扇傳衛於門外）執禮曰哭贊禮跪啓請跪俯伏哭　殿下俯伏哭亞獻官以下在位者同（贊者亦唱）執禮曰止哭贊禮啓請止哭興再拜興平身　殿下止哭興再拜興平身亞獻官以下在位者同（贊者亦唱先拜者不拜）執禮曰行奠幣禮贊禮導　殿下陞自東階（近侍從陞）詣樽所西向立執樽者舉冪酌泔近侍一人酌罍巵一人以瓚受罍巵贊禮導　殿下入詣　靈座前北向立啓請跪　殿下跪亞獻官以下在位者同（贊者亦唱）近侍一人奉香盒一人奉香爐跪進贊禮啓請三上　香　殿下三上香近侍奠爐于案近侍以瓚跪進贊禮啓請執瓚灌地訖以瓚授近侍近侍受以授大祝置於尊所近侍以幣篚跪進贊禮啓請執幣獻幣　殿下執幣授近侍奠于　靈座前（凡進香進瓚進幣皆在東西向奠爵受瓚奠幣皆在西東向進爵奠爵準此）贊禮啓請俯伏興平身　殿下俯伏興平身亞獻官以下在位者同（贊者亦唱）贊禮導　殿下出戶降復位執禮禮贊禮導　殿下陞自東階詣樽所西向立執尊者舉冪酌泔一人酌罍巵一人以爵受酒贊禮導　殿下入詣　靈座前北向立啓請跪　殿下跪亞獻官以下在位者同（贊者亦唱）近侍以爵跪進贊禮啓請執爵獻爵　殿下執爵獻爵以爵授近侍奠于　靈座前贊禮啓請俯伏興少退北向跪　殿下俯伏興少退北向跪大祝進　靈座之左西向跪讀　祝文訖俯伏興退贊禮啓請俯伏興平身　殿下俯伏興平身亞獻官以下在位者同（贊者亦唱）贊禮導　殿下出戶降復位執禮曰行亞獻禮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北向立盥手帨手訖謁者引亞獻官陞自東階詣樽所西向立執樽者舉冪酌盎齊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亞獻官入詣　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爵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

者奠于　靈座前謁者贊俯伏興平身引亞獻官出戶降復位執禮曰行終獻禮謁者引終獻官行禮並如亞獻儀訖引降復位執禮曰哭贊禮啓請跪俯伏哭　殿下跪俯伏哭盡哀亞獻官以下在位者同贊者唱執禮曰止哭贊禮啓請止哭興再拜興平身　殿下止哭興再拜興平身亦獻官以下在位者同贊者唱大祝奉　紙牓安於匱執禮曰贊禮導　殿下詣望燎位贊禮導　殿下詣望燎位北向立執禮帥贊者詣望燎位西向立執禮曰可燎大祝奉　祝幣燎於坎執禮曰啓禮畢贊禮跪啓禮畢贊者唱導　殿下還　齋殿謁者引亞獻官終獻官出引儀分引宗親文武百官出贊引引監察及典祀官以下俱復拜位執禮曰再拜監察以下皆再拜贊引以次引出執禮帥贊者謁者贊引就拜位再拜而出　典祀官　園司各帥其屬撤禮饌大祝奉　紙牓置安於　腰舉都監堂上及本　園官陪進埋　安於曲墻內引儀分引宗親文武百官詣　齋殿前序立跪班首進名奉慰訖以次引出

祝文

大事克襄一廣奠儀禮終舉緬望皇靡逮

十月十六日安　園奠儀

伏覆土既畢賛者設獻官（出園門使位於丁字閣東南西向設執事者位於獻官之後稍南（設位訖先往酒執事位後東南隨地之宜臨時獻官詣執事盥手入跪賛者謁者賛引位於執事東南北向監察位於其後北向　園司設　靈座於　丁字閣內近北南向典祀官　園司各帥其屬入奠　祝文於　靈座之左（有坫）設香爐香盒並燭於　靈座前次設禮饌設尊於戶外之左置盥三於樽所賛者謁者賛引先入庭北向西上再拜訖就位賛引引監察及典祀官大祝祝史齊即入庭重行北向西上賛者唱鞠躬再拜興平身監察及典祀官以下皆再拜賛引引監察及典祀官各就位謁者引獻官入就位賛者唱跪俯伏哭獻官跪俯伏哭賛者唱止哭興再拜興平身獻官止哭興再拜興平身謁者引獻官陞自東階詣樽所西向立執樽者酌酒執事者以盞受酒謁者引獻官入詣　靈座前北向立賛跪執事者一人奉香盒一人奉香爐謁者贊三上　香獻官三上　香執事者奠爐于案（奉香爐者在東奉盒者在西俱北向奠訖各退北立）執事者以盞授獻官獻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　靈座前（靈座前三盞）謁者贊俯伏興少退北向跪獻官俯伏興少退北向跪大祝進

靈座之左西向跪讀　祝文訖謁者贊俯伏興平身引獻官出戶降復位賛者唱跪俯伏哭獻官跪俯伏哭盡哀賛者唱止哭興再拜興平身獻官止哭興再拜興平身謁者引獻官出賛引引監察及典祀官以下俱復拜位賛者唱鞠躬再拜興平身監察及典祀官以下皆再拜訖賛引以次引出謁者贊者贊引就拜位再拜而出典祀官　園司各帥其屬撤禮饌大祝奉　祝文燎於坎

祝文

龍盤珠丘萬年之宅象設告完替奠明酌

財用

邊說

十月十七日都監堂即入　待時鄭民始曰有略干用餘者而齋室以仍舊貫終父完固從後改建恐非可已之事故餘錢五千兩捧授於本官材木鐵炭圖排設家所入隨時添貿置　齋室門外成件記以來付之戶曹以待需用何如　上曰姑付戶曹可也

承傳

七月二十九日　傳曰今番都監用民力之事皆以儲置米會減事因擧條下批而見今舊穀已罄新穀未出民邑之未蒙實效可知勿論錢穀從民願令道伯徙復地方官從長措處事即令廟堂行會

八月初九日　傳曰今番　園役不欲貽弊卽予昔心日今都監許多輸入之物亦係時急昨於堂上擧條雖不得不許施今聞畿伯吉畿邑異於他道昨謂宜馬絕無雖有之不過略干匹云如是之際不但民反受困以略干匹何以當萬牧之役予意則自昨欲為下敎而未果除非木石之不得不車運者外皆以貰馬或雇丁取用則以此較彼必當事半功倍又況厚價之下亦當樂赴之不已近日役民之資輒以儲置

米為說毅掬蔴穀民豈願受且今年穀稍登為慮嗣歲之需方令廟堂講究儲穀之策昨於賀穀事草記事纔有措劃之批今反尼泄於不願受之民可謂公私無當今以內帑錢二千緡為先下送於　園所都監使即專用於在貴之需外此不足之數令忠廳以代錢即為從便輸送即此可知予辛勤之苦心在必孚給工亦速訖以副予日夕憧憧之意事令該都監知悉仍令廟堂嚴飭本府如是處分之後民需樂從如是而又或一有始蘉則為用此分憂之臣或俾領惕念凡有蘉端隨即與都監堂上相議抹正事一體嚴飭 壯勇營知穀官張光郁書來

九月十七日　傳曰　陵幸時用民力處儲置米會減出於先大王為小民若保如傷之　　盛德中一事然而一時　時恩近政常典自下舉行每不免有名而無實饑穀之捄然饑民之捄然職由於稍久而生奸每經一行未嘗不為之悶然恐遠例述之道常年幸行心尚若此況是　園是役乎　園役所需多取諸宮中內廳財力之移劃者亦令給代又況自經費所出又況所減不如所入乎又況年穀稍熟在小民衆惠穀不如錢乎由前由後不問於有司已有次定于中者今番　園役及奉　舉行展拜行出於民邑不以經費會減者無論已給未給似必始末報該廳及今下教庶可及之一衍勿用經費令廟堂區劃別般錢貨於畿營使之隨即準償內無損於經費外有益於民邑此可謂一分盡吾誠之一端以此知悉傷念舉行

奏啓

七月十四日入　侍時都監堂上鄭民始昨　啓本都監昨用生葛卜定有獎自都監貿用厄瓠亦為煽用正鐵剛鐵戶曹及各軍門取用之外不足之數卜定於海西沿炭及已造成鐵物依例取用於各軍門各項假家欲為方便推移務從者約至於本后造成假家不可不分定於畿邑各隨秋木及煽造時入柴木取用於本邑私養山何如　上曰依為之必皆厚給其價以體予本意卿等知悉仍以此意令廟堂嚴飭行會於兩道道臣可也

七月十六日入　侍時捄護使金煜昨　啓今此兩都監事役極為浩大物力區劃不可不依丙申年例取用而考見謄錄則內以諸司外以營鬮無論錢穀布木零瑣分排今若依此

例取用則遠道有轉輸之弊戎司有湊合之歎事面及洮尚艱今番則京司遠道之財力不敷處一并置之取用於有裕軍門恐合事宜水原府移邑移民時所入物力以均廳錢十萬兩劃給之意頃伏承 遵教而一萬兩前已下送一萬兩有自內帑出給之 命餘數八萬兩則令該廳輸送于該邑俾為及時經紀之地何如 上曰依為之

七月二十三日入 侍時有司堂上徐有隣所 啓 園所都監區劃各軍門米糸自京運送水陸俱難且京倉米之下送外邑亦不便當議者或以為依頃日惠廳例以大同全船劃送自軍門還報惠廳似好云或以為本府所在軍餉米先為取用自軍門待秋成貿入似好云或以為以代錢磨鍊輸送似好云恐不可無指一 稟定之舉故敢此仰達矣 上曰

七月二十八日入 侍時都監堂上鄭民始所 啓各軍門卜馬遠地立待有弊今番則除減凡干使役以水原府雇馬收用而雇價則以會付穀會減之意分付何如 上曰依為之又所 啓車牛喂養草外方則例以本邑結所進排矣今番亦令該邑結所進排而以儲置米會減之意分付何如 上曰依為之又所 啓 園所句當補土處極其浩大所入物力將不知為幾許都監請得財力以距京稍遠之故曾前部監之各項物種捧用於京司者遠外貢應為弊不少不得已取用者皆自都監貿用此費倍蓰不無不足之慮而補土物力又自都監專當則將未免狼狽各處補土物力不可不別為區劃以為支用之地御營廳錢限五千兩劃給以為取用於補土之地何如 上曰依為之

徙復 園所都監更為草記稟處可也

七月二十五日備邊司 啓曰 園所都監區劃各軍門米糸運送事依 下教徙復 園所都監則以為今番賑廳米既以全船來納故雖有麻芿者不得不都捧分給於匹募輩而本府餉米乃是還穀比大同尤遜還米之給料非所可論惟是以錢代給稍從優例以每石五兩代送則探問物情似或頗受為辭矣每石五兩既是軍門貿米之例而 園所都監所報又如此各軍門區劃米每石五兩以錢代送事 分付 園所都監及各軍門何如 傳曰允

七月二十七日入 侍時摠護使金煜所 啓 園所所用木物輸運等事有不得不民丁使役處以本府所在儲置量宜給價事似便宜故敢此仰達矣 上曰依為之

八月初七日入 侍時都監堂上事文源所 啓各項物種運入之數將至萬餘駄浮石所載炭生葛等物匹募粮米雇價逐日往來之數亦不知為幾許以水原數十匹雇馬萬無運入之望各軍門卜馬既不得借用只責本邑與重大事恐致狼狽臣等之意則附近各邑有雇馬處毋論多少從其時存之數分排使用駄價各其邑依例會減之意分付畿營何如 上曰依為之各邑雇馬所無邑不必勒定以貽使徵民間之弊此意申飭畿營可也

八月初十日辰時次 啓 （衆論合復素卿 無他事之源）

傳教一度及錢二千兩當日即時量臣等在 園所祗受為白有如干惟戒 聖上誠深奉 先念切憂民大役伊始度輸勞弊之滋甚轉輸相續或慮在酬之不副特發內帑之財

俾助貢需又　下十行之綸另除民弊臣等謹當與本府府使相誠厚其崖價一從民願仰體前後之　飭教庶無民邑之弊端今方惕念奉行詴料為白乎旀緣由馳　啓

八月二十六日入　侍時都監堂上鄭民始所　啓元分定賑廳米二百餘石戶曹米三百餘石今將輸来需用而運致極難兩處餘米并移送宣惠廳以代錢捄用則事涉兩便故敢此仰達矣　上曰依為之

八月二十七日入　侍時都監堂上鄭民始所　啓元分定統營木十五同移送還　團都監矣因兩都監並為裁闕該營加送十五同既已上来之後還送亦有弊本都監物力頗有不足之慮而內都監亦甚尚艱云統營加送木十五同仍為捧上五同則移送內都監十同則自本都監取用何如　上

米布秩

內　下錢二千兩

親恤廳米一千六百石

訓鍊都監正木十同

錢一千兩

禁衛營米一千五百石

正木十五同

錢二千兩

御營廳米一千五百石

正木十五同

錢一萬五千七百兩

戶

曹米一千一百石

正木七十同

兵　曹正木五十同 代錢
平安監營正木三十同 四同代錢
兵營正木二十五同
全羅監營正木十三同 二同代錢
慶尚監營正木二十同
統　營正木三十同內 十五同加請得
以上来五千七百石內 四千九百四十石 南都水軍防踏副送 五十同送 園都防踏副送 二百二十八同本軍監取用 一千五百同送 園都防踏別送 一萬九千二百同本軍監取用
木二百七十八同內 四百七十同送 園都防踏副送 一千五百同送 園都防踏別送 一萬九千二百同本軍監取用
錢二萬七百兩內 一百兩內補 五十兩土所用
御營廳錢五千兩

廩料

承傳

己酉七月十五日　傳曰　園所往來無論堂郎及別使星史隷工匠別給粮餼監纛事分付戶曹驛卒各幾營各別量給粮資事申飭該道

七月十六日　傳曰今番都監凡事必欲優厚此意諸臣豈不知之本都監負役工匠以至助役軍粮料工錢並以最多例磨鍊分給事分付

七月二十日　傳曰兩都監負役工匠料布別給点心米事纔有下敎而　園所都監則程道之遠　寧陵遷　奉時外既無可據之例而其時則料布雖無加磨鍊之事而本　園此役何拘常例工匠赴役之類路資依負役例自都監別為計給此意即令知委　園所都監俾祭革知此受去事分付

七月二十日海州磚石浮出及船運時無論校吏工匠沙格粮米與船價倍給指路護送監色各給粮料安眠島體木二株十定處亦依海西例舉行三處木石畢運後效勞校吏後錄狀聞事　傳敎 傳敎浮石条

七月二十二日　傳曰今番外都監京畔將負役之遠地使役極為悶念何拘常例点心米則大小此則量之粮餼價每朔量宜加給以示別般軫念之意　園所設都監後立攬將史卒及監舉行校卒及水原果川狀啓持来校吏並區別日子分秩修正御覽成冊畢役後令廳伯具狀啓登聞事令廟堂行會

奏啓

七月十六日　園所都監即廳以捴護使意　啓曰　園所始役之後堂上即廳監造官及諸負役供饋等節依丙申年例令宣惠廳戶曹磨鍊題給事分付何如　傳曰允

七月二十一日入　侍時都監堂上徐有隣所　啓今番內外都監匠料以最厚例舉行事　命下矣取考各年謄錄則無多寡之不同其勢不得不一從前例為之故敢此仰　達矣

上曰依為之今番使役豈可膠守前例雖與春夏有無無論工匠負役別給点心米以示別加軫念之意可也

每朔上下式例

堂上都廳郎廳監造官分差官柴軍刀尺汲水軍因　逓禀
以募軍例各三名給代（堂上都廳以下粮米雜物自戶忠廳請此米減）
相地官使唤軍合二名以火丁例定給
別者役使唤軍各一名以火丁例定給
教導官使唤軍一名以火丁例定給
詳士使唤軍二名以火丁例定給
柴軍各一名以募軍例定給
京者役牌將使唤軍各一名以火丁例定給
輸名所京牌將捕校各米九斗木三疋捕卒各米六斗木二
疋（逓後下米依粮不載戶忠廳）
鄉者役牌將每三人使唤軍一名以火丁例定給（粮米雜物自戶忠廳）

（唐球詳見木閘）
都廳書吏書寫庫直使唤軍各一名以募軍例定給
火丁二名定給
各所書吏書負使唤軍每所各一名以募軍例定給
火丁每所各一名定給
京都監書吏各米九斗木二疋
使令各米六斗木一疋
闕內待令書吏米六斗木一疋
使令米六斗木一疋
米布庫使唤軍二名以火丁例定給
雜物庫使唤軍二名以火丁例定給
都廳書吏刀尺一名以募軍例定給

庫直使令刀尺一名以募軍例定給
相地官別者役京者役牌將各雜價錢五兩都廳及各所書
吏書寫書負庫直使令各雜價錢一兩五戔因　傳教加
上下
都廳及各所有料書吏書寫書負各米六斗木一疋
庫直各米六斗木一疋
庫間直米六斗木二疋
文書直二名各米六斗
使令各米六斗
都廳及各所書吏書寫書負庫直庫間直使令分差負役等
出　園所為始各雜價米六斗木一疋加下
各所還首匹人在京時待令料米每日二升式給

募軍每名米九斗木三疋
匠人每名米九斗木一疋
肉助役每名米六斗木二疋
募助役每名米九斗木三疋
火丁卜直每名米六斗木二疋
舡卓匠每名米九斗木三疋
造泥軍每名米九斗木三疋
引鉦軍每名米九斗木三疋
漢卓夫每名米九斗
軍卓夫每名米九斗木三疋
養牛軍每名米九斗木三疋
卓夫色掌每名米九斗木三疋

畫員畫匠每人米九斗木一疋
捧貼軍每名米六斗木二疋
卓牛每隻每日粥田米三升太三升
木手每名募助役一名定給
石手每名肉助役募助役各一名定給
治匠每名募助役二名肉助役一名定給
凡匠人別沙土匠舡卓匠造泥軍引鉦軍外各肉助役一名
定給
匠人每十五名火丁一名每三十名卜直一名定給
募軍每十五名火丁一名每三十名卜直一名无數內定給

賞典

承傳

己酉八月十八日以江華留守狀　啓本府碑石今載船輸納
于　園陵都監後效勞校吏後錄馳　啓事　傳曰淨碑監
官朴應梓金慶發本營將校陞差仍以木布各別施賞色吏
金源祐李忠國米布各別施賞領運差使員龍津萬户俞漢
奈今日政差出後浦魚使望筒勿施仍為陞差口傳下批除
朝辭赴任監官朴世豹金鍊鋒本營將校陞差仍以木布各
別施賞色吏金百祿米布各別從厚施賞依此書下分等施
賞後後錄狀聞事曲諭
八月二十三日以忠清水使狀　啓猥木運納後船更無事還
泊藍色姓名開錄事　傳曰利運穩便已可幸莫重所用品

亦合用云領來監官及色吏令水使各別從厚施賞捄當窠
捄例陞遷後狀聞事回諭

八月二十六日有　旨卿以　　丁字洲　碑閣定礎同時舉行
事啟啓矣定礎之如期為之捄可幸也石手及運石率夫令
都監先為施賞石所將吏率赤為分等先為施賞後狀聞

八月二十七日以原春監司狀　啓長杜木領納將校色吏等
後錄啟　啓事　傳曰令審　聞後欲令一民一丁成被恩
賞況　大擧木物事體自前領納效勞將校并令後曺帖加
令自內成給令政院與有旨同均下送色吏令道伯捄例各
別厚賞後毂文狀聞仍此恩之木物重致之除其勞不啻不
但本道為然無論石物木物船運時船人運泊地方後令各
其地方當年身役或遷上中將為勸成事令廟堂行會船運
地方道守臣處舉行形止狀聞

八月二十八日有　旨初一日上梁時以內下米穀木用後分
給工匠木手及該將校吏率施賞亦依定礎時例為之

九月初一日有　旨卿以校吏匠率分等施賞毂文啟啓矣石
工之當初取便雖經可嘆亦由於未諳石理之故況許多石
物越期涉出以至　城礎石而無事穩運果革亦可謂了功
遵首為先帖加成給其餘石工軆日子多寡自本都監分等
別給錢木事回諭令劑功過相半檜石監造官領運校吏等
勤謹并分袂事一軆回諭

九月初二日有　旨卿等以校吏將率分等施賞事啟啓矣昨
日書下有旨時以在院承宣之不了了照檢成送屢有申飭
而俄者擇日事誤傳不但駭然此回諭中有功亦以了功書
送節節可駭既有拿處之命令該府此意添問目取招此意
知悉

九月初四日以京畿監司上色貢來水原將校等依　下教施
賞事狀　啓　傳曰　刱標處好品上色先持來水原將校
全福和宜可施賞而已助泥萬戶地窠令該曹口傳擬入待
下批待開門辭朝以示誠善記勞之意各站撿將率本營調
內貢來將率等捄例各別施賞舉行形止後錄狀聞事分付

九月初五日以京畿監司上色貢來將校依　下教施賞事狀
啓　傳曰上色貢來卿營將校之效勞甚多帖加成給事回
諭

同日　傳曰別撿將率之往來每每頒二時上色持來不踰一
時狀營別撿校率依畿營校率例令戶曹各別施賞後草記

同日　傳曰別撿將率之往來每每頒二時上色持來不啻猶
有賞典況長待之船人乎承旨上色持來時待令船人令
戶曹米布優給後并與領率人知名草記前後待令之頻令
畿伯別捧成冊事畢後錄狀聞以為論賞之地日氣漸寒
宜速旋身之所令聞奉命承宣之言江邊待令船人所謂毂
家極其不實云前此將教之意果安在哉該監司推考日今
日遣給土室并給藁蓆療飢之需仍令廟堂待明朝發遣即
厭摘奸草記因此聞之各道私船之往來畿邑境內者庶有
執捉用餘當即放至於自各道執捉上送則決無其例曾有
切勿上送之將教則諸道或有執捉起送之處又或有分張
執捉之處云向來備局行會何等申明則如是不為遵行果
何委折即令廟堂嚴飭監司使之首實狀聞後該道伯草記

請罪設有上送處即令罪去事一般星火嚴飭

九月十六日有　旨申心上色貴來營投遞將承傳持來驗事
各別施賞事下諭于畿伯　有旨戴　有物希

九月十七日有　旨穿　擴上色貴來扣地官令本監為先好
察按例差定後事記　有旨戴　有物希

九月二十九日以水原府使狀　啓　傳曰水原新邑營建時
經營莅飭將校實奉事實乞推動勞最著六品外職內察
調用移邑都廳前府使折衝曾命捧防禦使待察陞遷內策
應前武無李光進行官及內衙監董前虞候金輔明浮石監
董前主簿李泰恢五衛將作察令該曹今日內口傳擬入容
舍監董前郡守曹翰振日守離淺居在本地方五衛將亦令
作察今日內口傳擬入鄉校監董前營將申進亦在本地方
遍地待察除授移邑外策應前察訪李文煜行宮及內衙外監
出身徐正祐燔瓦前武無徐宅修并加資次次收用行宮及
內衙有役牌將副司果朴昌興閑良安道亨容舍有役牌將
副司果林俊昌鄉校有役鄉所李宗範牌將出身李根郁浮
石有役牌將副司果洪允祐文世俊燔瓦牌將副司果朴致
寬黃仁郁爐冶牌將前萬戶李渭折衝金仁哲軍器庫有役
牌將嘉善朴震兆并賞加今日下批與官教成送有旨下諭
于本府使亦為下諭于畿伯

十月十三日　傳曰當資為從一品將降為正憲矣念乃父昇
是任豈令復有前階工曹判書李文源判義禁令日政擬入

同日　傳曰園所都監捴護使判中樞府事金煜議政府左
議政蔡濟恭鞍具馬一匹面給提調吏曹判書金履素行副
司直鄭民始加資工曹判書李文源別有傳教都廳即廳副
司果徐邁修俞漢謨加資沈晉賢日淺勿論即廳司僕僉正
李廷忱副司果吳在文金鎣徐直修掌樂僉正鄭來恢并準
職除授時無實職人今日政先為調用龍仁縣令李趾源其
言皆有其勞為最亦為準職除授今日政先除府使京即廳
兵曹正即俞漢人陞敦寧道官副司正吕駿永司饗奉事申
文顯副司勇金相儼司宰直長宋欽書別工作extra工監役李
瑞亨并陞六而本都監陞六人守令除講出六詞訟六朔勿
拘分長興庫直長金奭行陞六嬪尼所有役兀著別提宦孝
閔相當外職待察除授　捧宮燕寢主官右議政金鍾秀
熟馬一匹面給封閉官司憲府執義朴聖泰已論實勿論京
畿監司徐有防半熟馬一匹賜給　園所排設差使員水原
府使趙心泰大虎皮一令賜給雜務差使員陽城縣監魏光
翼兒馬一匹賜給地師副司果朴大良自初精約守令除授
副司勇朱南述其言奇中直除六品察副司勇金養直蔡潤
銓今日政先除初仕前忠北將成夢龍屢捐效勞實加本監
相地官朴仁素已除無教授兒馬一匹賜給京別有役前僉
使丁遇奉石物工役之精緻在古亦罕不可以守令承傳而
止將為加資前縣監沈寬鎮前僉使鄭道弘加資擲別有役
嘉善金泰瑞浮石所效勞無比加資善地遞將今日政作察
調用嘉善李元榮折衝金之澤遞將待察調用各所無有役
水原中軍柳瀚青特陞資憲三物所京有役牌將蔡山僉使
鄭來仁宣沙浦僉使今日政作察除授鄉牌將折衝洪命淵
遞將待察除授造成所京有役牌將李貴男鄉牌將千捴金

為九教錬官白光郁大浮石所挿牌將嘉善通寛玉軍官金義澤并邊將除授結所次知水原禪將前都事安宗厚加資將校黃致郁等三人賞加　園所守直水原挿所初學金燾自初守直連為達夜徹宵參奉除授將校安允福加資令本官挿將官中超等陞差後狀聞三物所京牌將嘉善金命淑挿牌將別號士李昌興旗牌官李湘濟造成所挿牌將別號士朴炳國軍官李光欽爐冶所京牌將嘉義金德尚大浮石所京牌將衙朴震戔柳惠根挿牌將嘉善羅致儉教錬官金光麗哨官李京五軍官洪元柱補士所京牌將教錬官柳孝源挿牌將哨官金致祥等八人小浮石所挿牌將教錬官崔致驥等四人并加資輸石所京牌將別武士卓連為挿牌將別號士嚴述武等四人擔運領後部將捕校李長都并帖加成給金壽亨上弦弓一張賜給卓連京牌將教錬官鄭悖恒朴泰根為前李明洽并賞加石工之近百日晝夜使役如許勞苦前所未聞依別單判下施賞其餘訓士醫官參時官錬事員役工匠等令該曹來布考例從厚施賞

同日　傳曰庚辰溢　辛時陪從武士生存者只是三人亦無職者一人五衛將除授時帶五衛將內禁將二人相當職除授

同日　園所前別檢依例陞六事　下教

同日　傳曰令番內外都監賞典當收用而許多出六之人若待區處令各都政應出六何以區處外此許多積薪之類何以甄復乎如初仕窠之參奉監役外無論直長參事權作主簿窠典設別檢則權作參上窠　園所別檢則權作蔭令窠參奉亦依此為之諸窠并待陞遷遷作本窠事分付銓曹

十月十四日　傳曰令番賞典雖無毀事無待豐受事才有依例下教而此則揣京都監各設也捄護使之鞍具馬地方官之虎皮豈係於豐受并即各為面給事分付

十月十七日　傳曰待都監堂上復命論賞已有定教令番園役時　表石陰記草圖書寫寫石蒲石方位書寫及并前　崇慕宮　手筆　研文模寫供有效勞前郎守曹允亨加資

奏啓

八月二十七日巳時狀　啓提調金履素李文源

卽該定礎石手卓夫石所將吏卒施賞事有　旨二十六日爰時量臣等在　園所祇受為白有如乎誼依有　旨內辭意石手卓夫將吏卒等處分等施賞是白遣數爻開錄于後為白乎弥緣由馳　啓

後

領役部將五人各米三斗

書吏三人各米三斗

庫直二名各米二斗

使令二名各米二斗

石手五十一名各米三斗

車夫三十一名各米二斗

八月二十八日戌時狀　啓（提調金履素）

御敎　內下米錢木施賞依定礎時例為之事有　旨當日戌時量𠆢在　園所祇受為白有如乎謹依有　旨內辭意舉行許料為白乎旀緣由馳　啓

八月三十日亥時狀　啓（提調金履素鄭民始李文源）

軍人優給作價校吏匠卒別為施賞事追後擧行之由已有　馳　啓為白有在果軍人元數外卜直七十一名合一千七十一名段比常時作價加數以給是白遣校吏匠卒段置分等施賞數爻開錄于後為白乎旀緣由馳　啓

後

別着役二人各米三斗

着役牌將一人米三斗

領役部將五人各米三斗

書吏四人各米三斗

庫直二名各米二斗

使令三名各米二斗

石手六十名各米三斗

九月初一日亥時狀　啓（提調李文源）

御敎石物趁期浮出　堤邊石築事穩便　邊首帖加成給輸石監造官校吏幷分揀事有　旨當日申時量𠆢在　園所祇受為白有如乎謹依有　旨內辭意石工等許日分等事後兼久者二十三名各米一疋之次三十七名各錢一兩施賞為白遣緣由馳　啓

九月初二日酉時狀　啓（提調李文源）

御敎承宣之不了了曲諭中有功以了功書送事有　旨當日申時量𠆢在　園所祇受為白遣緣由馳　啓

九月初三日申時狀　啓（提調金履素鄭民始李文源）

當日申時　丁字閣立柱上樑為白遣依禮文行　祭後上樑文奉安于樑上　砰閣上樑同時擧行為白有如乎　內下米錢木用後分給工匠木手及故掌校吏卒為白乎旀施賞亦依定礎時例為之是白遣開錄于後緣由幷以馳　啓

後

着役牌將一人米三斗

領役部將二人各米三斗

書吏四人各米三斗

庫直一名米二斗

使令三名各米二斗

木手六十九名各米三斗

雕刻匠十七名各米三斗

木粧匠九名各米三斗

大引鉅匠十五名各米三斗

小引鉅匠八名各米三斗

岐鉅匠四名各米三斗

長鉅匠二名各米三斗

機械匠二名各米三斗

九月初六日戶曹　啓曰　傳曰今番狀啓往來時船人之等待貽弊不些役軍猶有賞典況長待之船人乎再昨日出色

持來時待令船人令戶曹米布優給後并與領率人知名單
記事　命下矣土色持來時待令船人金喜得木二疋布一
疋從厚磨鍊題給領率人姓名問于露梁鎮別將韓弘賢處
則都沙工金介之云矣敢　啓　傳曰知道既有米布優給
之命則只給布不給米何也船人必非一名只以一名賞給
何也該曹之不造土室已極疎忽則今此賞典何如是做錯
卿之兄弟於船人何如是太不顧念所當問備而本事屬於
同處姑且參酌其日待令船人何如是太不顧念所當問備而本事屬於
同處姑且參酌其日待令船人施賞都沙工則令幾倍依營校施賞毅文即令題給後狀
聞該鎮別將亦令禁衛營優給賞格可也
同日戶曹　啓曰　傳曰別撥將卒之往來每每論之時土色
持來不論一時狀聞別撥將卒依幾營校卒例令戶曹各別
施賞後草記事　命下矣捻飭將校吕宗周等五人各木二
疋米三斗馬軍吳興德等三十名各木三疋步軍李彦弼等
十二名各木二疋布一疋合木二同二十四疋布十二疋米
一石從厚磨鍊題給之意敢　啓　傳曰知道
九月初七日戶曹　啓曰土色持來時待令船人施賞草記
批旨內知道既有米布優給之命則只給布不給米何也船
人必非一名只以一名賞給何也該曹之不造土室已極疎
忽則今此賞典何如是做錯卿之兄弟於船人何如是太不
顧念所當問備而本事屬於同處姑且參酌其日待令船人
無論百名千名待城門開即為施賞事　命下矣伊日待令
船人施賞事　下教之後詳問於露梁鎮則船人一名以軽
快船渡涉云故只以金喜得一名磨鍊待令二字非止於渡
涉一人庶或歸惡而未及省察至於米條又失照管不得同
施莫重賞典致有此節節顚錯誠不勝萬萬惶恐金喜得已
題給布木外加給米三斗其餘待令各船沙工金點福等三
十五名各木一疋米二斗合木三十五疋米四石十三斗題
給之意敢　啓　傳曰知道
同日禁衛營　啓曰依　傳教本營所管露梁鎮別將韓弘賢
處木三疋布二疋優給賞格之意敢　啓　傳曰知道
十月十二日書　啓十一度修正上送之由馳　啓
圍所都監別單
捴護使議政府領議政金　煥　己酉七月十一日　啓下
議政府左議政蔡濟恭　己酉九月二十七日　啓下
判付　鞍具馬一匹面給

提調吏曹判書金履素　己酉七月十一日　啓下
行副司直鄭民始　己酉七月十一日至　啓下
工曹判書李文源　己酉七月十一日至　啓下
判付　加資
都廳副司　果徐邁修　己酉七月十一日至　啓下
判付　加資
副司　果沈晉賢　己酉七月十一日至　啓下
判付　日淺勿論
副司　果俞漢謨　己酉七月十五日至　啓下
判付　加資
郎廳司僕寺僉正李廷恢　己酉七月十一日至　啓下

龍仁縣令李社源 己酉九月初四日到任 丙子七日瓜 滿下
判 準職
付
其官皆符其勞為最準職除
授令日政先除府使
副司果吳在文 己酉七月下旬初七日至 滿下
副司果金 鎣 己酉七月下旬初七日至 滿下
副司果徐直修 己酉七月下旬初七日至 滿下
掌樂院僉正鄭來悌 己酉七月下旬初七日至 滿下
判 準職時無實職入今日政先
付
為調用
京即厭兵曹正郎俞漢人 己酉七月下旬初七日至 滿下
判 陞叙
付

監造官副司果呂駿永 己酉七月十五日以遷 內都監
監造官捉差下月初七日至
副司憲府奉事申文顯 己酉七月十五日以遷 內都監
監造官捉差下月初七日至
副司勇金相儼 己酉七月下旬初七日至 滿下
司宰監直長宋欽書 己酉七月十五日以遷 內都監
監造官捉差下月初七日至
別工作錄事監役李端亨 己酉七月下旬初七日至
判 并陞六而本都監陞六人守
付
令除講出六則訟六朔勿拘
分長興庫直長金奕行 己酉七月下旬初七日至
判 陞六
付
嬪尼所尼著別提崔孝閔 己酉七月下旬初七日至 燕大淨在前看役
判 相當外職待窠調用
付
園所都監別單

丁字閣上梁文製述官行判中樞府事李福源
書寫官行判中樞府事徐命善
判 熟馬一匹賜給
付
園所都監別單
役
捧官官義禁府右議政金鍾秀
判 熟馬一匹兩給
付
封閉官司憲府執義朴聖泰
判 已論賞勿論
付
園所都監別單
京畿監司徐有防
判 半熟馬一匹賜給
付

園內排設差使員水原府使趙心泰
判 大虎皮一令賜給
付
雜務差使員陽城縣監魏光翼
判 兒馬一匹賜給
付
園所都監別單
相地官觀象監兼教授朴仁素
判 已除兼教授兒馬一匹賜給
付
方外地師副司果朴大良
判 自初精約守令除授
付
副司勇金養直
判 今日政先除初仕
付
副司勇朱南述

判付 言多奇中直除六品窠

副司 勇蔡潤銓

判付 今日政先除初仕

前忠壯 將成夢龍 添書以下

判付 屢朋效勞賞加

園所都監別單

京別着後 折衝前縣令沈寬鎭 八月十一日以十月初七日至 浮石所着役

判付 加資

嘉善前僉使丁遇泰 七月十五日以十月初七日至 浮石所着役

判付 石物工役之精敏在古亦罕 不可以守令例得而止特爲 加資

嘉義前僉使鄭道弘 八月初七日以十月初七日至 浦上所着役

判付 加資

鄕別着後嘉善敎鍊官金泰瑞 浮石所着役

判付 浮石所效勞無比加資善地

遣將今日政作窠調用

嘉善旗牌官李元榮 造成所着役

折衝敎鍊官金之澤 已上七月二十日以十月初七日至 羅役着役

判付 遣將待窠調用

各所無着役水原中軍柳爾胄 七月二十日以十月初七日至

判付 特陞資憲

園所都監別單

三物所京着後嘉善前僉使金命淑

判付 賞加

正憲蘇山僉使鄭來仁 已上七月十九日以十月初七日至

判付 宣沙浦僉使今日政作窠除授

鄕領後牌將折衝敎鍊官洪命洞 七月二十日以十月初七日至

判付 遣將待窠除授

加定別號士李昌興

旗牌官李翊濟 已上八月初二日以十月初七日至

判付 賞加

造成所京着後御營廳敎鍊官李貴男 七月十九日以十月初七日至

鄕領後牌將千 捴金鳥九

敎鍊官白光郁 已上七月二十日以十月初七日至

加定別號士朴鳳國

討捕軍官李光鉉 已上八月初二日以十月初七日至

判付 并遣將除授

嬬治所京着後嘉義廣梁僉使金德尙 七月十七日以十月初七日至

大浮石所京着後禁衛營敎鍊官柳忠根 添書以下

朴震戌 八月十五日以十月初七日至

判付 并賞加

鄕領後牌將嘉善封捕軍官趙宅玉

防營軍官金義澤 已上七月二十日以十月初七日至

判付 并遣將除授

加定嘉善旗牌官羅致儉

教錬官金光麗
哨官李京五
衙防營官洪元柱 已上八月初二日以十月初七日至
付劄 并賞加
補士所京着後訓錬都監教錬官柳孝逵 七月十九日以十月初七日至
鄉領後牌將哨 官金致祥
哨 官嚴重武
教錬官崔道義
哨 官崔孝純 已上七月二十日以十月初七日至
加定哨 官全行一
防營軍官黃承洛
旗牌官洪允祥

哨 官黃啓清 已上八月初二日以十月初七日至
付劄 并賞加
小浮石所鄉領後牌將教錬官崔致驥
防營軍官金以兌 已上七月二十日以十月初七日至
加定旗牌官尹龍大
哨 官崔時福 已上八月初二日以十月初七日至
付劄 賞加
輸石所京着後禁衛營別武士卓運萬 八月初十日以十月初七日至
鄉領後牌將別 驍士嚴述武
哨 官金重彬 已上七月二十日以十月初七日至
加定旗牌官安仁文
哨 官卓碩福 已上八月初二日以十月初七日至

付劄 帖加成給
卓運領後牌將折衝訓錬都監教錬官郭恃恒
禁衛營教錬官朴泰根
嘉善御營廳鍮前李明洽
付劄 賞加
搭運領後御將嘉善左邊捕校李長郁
付劄 帖加成給
捕卒趙奉伊等二名
付劄 本壹疋布壹疋
右邊捕校金壽宇
右劄 上弦弓壹張
捕卒李聖麟等二名 已上八月二十二日以此月十二日至

付劄 本壹疋布壹疋
結所次知水原牌將前都事安宗厚 七月二十日以十月初七日至
付劄 加資
將校黃致郁
宋德水
林茂昌 已上七月二十日以十月初七日至
付劄 賞加
園所守直水原別監金熹
付劄 自初守直連為違夜禮窺參
奉除授
將校安允禧 已上七月二十日以十月初七日至
付劄 加資令本官鄉將官中超等

園所都監別單

註

腎

咨 時

園所都監別單

錄

都廳 書

付判 陞差後狀聞

士李忠憲

李命權

尹昌胶

貞雀行奉 己上七月二十日以十月初七日至

官朴萬億 七月二十三日以十月初七日至

付判 高品付料

事宋載琦 七月十二日以同月十九日至

付判 本布考例施賞

史尹學洙

金振聲

韓錫麟

申翰周

鄭得元

金萬成

金 暎

白興允

金孟聃

付判 本布考例施賞共中最效勞

一人依京都監例帖加成給

書 隅金麗潭

庫 直金庚嚇

使 金弘基

令南斗星

朴壽聃

金春福

金世起

姜道興

梁貴龍

劉尚春

京都監書吏韓繼興 雀興得 己上七月十二日以十月初七日至

金聲夏

朴東臣

使 令羅三順

尹得大 己上七月十九日以十月初七日至

關內待令書吏金夏昌

使令朴春大 己上七月十二日以十月初七日至

三物所書吏全景祿

付判 元賞外帖加成給

李鎮杓

庫 直李弘遠

使令李昌福 洪國臣 己上七月十二日以十月初七日至

造成所書吏李敏秀

文時大

盖世先

金景義

庫 直徐得楓

使 令柳得春

崔寬得

李春大 已上七月十二日以十月初七日至

嬪冶所書 吏薛守範

金喜燁

庫 直徐重暾

使 令卓興大 已上七月十二日以十月初七日至

大浮石所書 史金馨麗

金世煜

金昌浹

庫 直姜完興

使 令林遇春

權碩宅

張錫柱 已上七月十二日以十月初七日至

補土所書 史申益文

朱景輝

庫 直金正元

使 令李命大

崔國聖 已上七月十二日以十月初七日至

小浮石所書 史李家新

白龍瑞

庫 直金時郁

使 令李夢弼

姜臣卜 已上七月十二日以十月初七日至

輸石所書 史黃志連

庫 直韓景潤

使 令金守良 已上七月十二日以十月初七日至

別工作書 員張南翼

金振玉

庫 直卞昌瀛

使 令金一得 已上七月十二日以十月初七日至

分長興庫書 員朴玉溪

庫 直李鶴齡

使 令林承龍 已上七月十二日以十月初七日至

燔尾所書 員尹弘贇

庫 直庾世昌

使 令張順金 已上七月十二日以十月初七日至

別付 已上木布考例施賞

園所待令水原色 史金善覺

金善渭

安天福

金義英

宋命郁

羅萬倫

洪允一

徐有章
判付 已上令織營各米叁斗木貳疋
疋施賞

使　令鄭京大
軍　士鄭判同
林才得
金允金
金先洽
姜仁福
林仁詰 已上七月二十日次十日初七日受
判付 已上令織營各木壹疋布壹疋

園所都監別單
三物所涉土匠都邊首庀世雲實役七十六日
涉　土　匠孫大同 判付 已帖加米伍斗木貳疋
等二名實役四十八日 判付 各米叁斗木貳疋布壹疋
木　手宋尚福實役七十六日 判付 帖加
造成所木　手韓天錫 判付 等十名實役六十五日 韓天錫帖加其餘各木貳疋
布壹疋
爐冶所冶　匠具繼襄 判付 等二名實役七十日 具繼襄帖加餘依右例

大浮石所冶
別工作木　匠金次來等二名實役六十九日
手金德良等三名實役六十五日
已上一等 判付 各木貳疋布壹疋
三物所木　涉　土　手金日成實役六十五日
匠劉興世等五名實役三十六日
手崔興福等三十名實役五十六日
造成所木　蓋　匠金英乭等五名實役三十五日
泥　匠具判同等六名實役四十日
雕　刻　匠孫守仁 判付 具判同帖加等二名實役六十六日
爐冶所冶　匠李時雲等二名實役六十日
大浮石所冶　匠沈順得等三名實役六十七日

味　匠周宗臣等十四名實役三十日
刻　判付 帖加成給
小浮石所冶　手徐仁範等六名實役二十六日
別工作木　匠鄭大義等三名實役六十二日
手崔太倫等二名實役四十日
小　木　匠安守嚴等三名實役六十三日
雕　刻　匠金鎭成實役五十八日
已上二等
造成所木　手朴春根等十名實役三十日
蓋　匠金福伊等十名實役三十日
泥　匠趙聖喜等二十名實役十七日
雕　刻　匠曹宗彬等十三名實役三十日

木鞋　匠鄭興尚等七名實役三十日
假莟　匠李世豊等十名實役十九日
貫子　匠李同伊等二名實役十一日
鞍子　匠徐道輝等二名實役十四日
車　匠李順得實役六日
機械　匠朴啓東等二名實役五十日
蘆簟　匠朴福才等六名實役二十二日
畫　貢朴仁壽等三人實役二十日
　僧尚謙等二十名實役十九日
爐冶所冶　匠李五福等七名實役四十二日
造　匠鄭仁金等五名實役四十六日
朴排　匠金興澤等二名實役三十日

鎖鑰　匠崔鍾得實役二十六日
鏡　匠金光天實役二十六日
大浮石所盡　貢許　礪實役三十日
冶　匠韓福得等十二名實役四十九日
咏　匠崔致成等三十四名實役三十八日
刻　手劉廷天等六名實役二十四日
泥　匠庇同伊等三名實役十二日
補土所涉　匠金福良等七名實役三十六日
小浮石所冶　匠韓先得等四名實役五十二日
輸石所車　匠薛大得等四名實役四十三日
船　匠判好石等三名實役四十四日
別工作木　手辛世福等七名實役三十日

小木　匠金德才等三名實役三十日
雕刻　匠鄭光彦等二名實役四十五日
真莟　匠金尚輝等三名實役四十五日
假莟　匠金千得實役二十七日
磨造　匠金世興等二名實役四十五日
雨傘　匠李望注伊等二名實役四十六日
冶　匠朴震哲實役五十日
造　匠朴道行實役四十六日
鎖鑰　匠朴大興實役四十六日
穿穴　匠朴京孫實役四十六日
朴排　匠朴得伊實役四十六日
　匠金京文實役四十六日

木鞋　匠李太輝實役四十六日
鞍子　匠金忠鉉實役二十八日
屏風　匠鄭重嫌實役二十八日
分長興庫間　匠金昌彬等三名實役四十八日
皮　匠李先得等二名實役三十九日
婚尼所尼　匠金錫喜等十五名實役五十二日
　已上三等判付并考例施賞
廚所都監別單
大浮石所石　手金大輝居永部
　判付已帖加從自願免賤
　鄭有福居東部
　判付從自願免賤

崔得大 居南部
朴光得 居北部
禹龍海 居東部
龍成揮 居東部
金仲世 居西部
辛小春 居松部
金允光 居西部
趙世柱 居西部

崔尚福 居西部
金億南 居中部
高卜男 居西部
崔汲 居中部
咸尚緯 居東部
朴卜尚 居東部
宋道恒 居西部
李戊味 居西部
金重鎰 居東部
申道源 居東部
柳大得 居南部
金得大 居東部

李興卜 居南部
李云才 居北部
鄭卜金 居中部
李得才 居南部
吳天得 居北部
柳保漢 居南部
金介老味 居南部
安得奉 居南部 已上三十名實役七十六日
已上一等 已上各米五斗木貳疋布貳疋
黃卜才 居南部
黃天才 居南部

金世昌 居西部
李貴建 居東部
白龍瑞 居西部
金聖大 居西部
朴卜順 居東部
鄭頌之 居東部
金成才 居西部
李貴同 居南部
金重揮 居南部
朴卜得 居東部
金尚玉 居東部
林善得 居南部

李得世 居北部
李惠周 居北部
吳奉天 居東部
李昌恒 居東部
吳聖得 居東部
金廷云 居東部
姜得漢 居南部
尹龍卜 居南部
申成卜 居南部
金光益 居西部
金德器 居北部
林萬興 居西部

朴卜尼 居西部
方正太 居中部
卓興萬 居北部已上二十九名實役七十四日
金義廷 居松都
卓毛獨 居松都
池岳發 居松都
金光世 居松都
丁 樞 居松都
林允根 居松都
吳金夢 居松都
金再得 居松都
尹足今金 居松都

李二男 居西部已上十名實役七十日
金卜良 居中部
朴三同 居楊州
金貴才 居抱川
金已成 居永平
金夢金 居南部
朴春興 居北部已上六名實役六十五日
金聖鎮 居南部實役六十三日
方順得 居中部
朴尚吉 居中部
金季福 居中部
金順彬 居清州

卓大老味 居松部
金尚教 居松都
李士千 居松都
宋大老味 居松都
河順起 居松都
徐卧老味 居松都
林小男 居長湍
韓子平 居長湍
林非甘 居楊州
崔卜太 居楊州
朴千福 居鎮川
金能說 居鎮川已上十六名實役五十七日

李士興居西部
金尼伊居南部
鄭今老味居南部
李一銀金居清州
李貴金居中部
韓愍煜居江華
崔景得居江華
卞永才居江華已上八名實役五十一日
已上二等付到
已上各米四斗木二疋布二
疋外方面人令各其邑依此
擧行後令道臣狀聞每
道每邑邊首一人并帖加成

給

金聖得居江華
高鐵金居西部
李卜器居江華
金卜龍居北部
李云金居藍浦
朴尼伊居海州
金太濟居海州
韓卜起居海州
李成得居海州
文千三居海州
文千義居海州

曹海尚居海州
安貴尼居東部
崔有立里居西部
金時大居中部
朴貴福居西部
朴福大居楊州
朴枝茂居東部
金八奉居北部
金莫男居松部
金光味居松部
金仁味居松部
金仁集居松部
廬聖鎖居松部

宋順奉居松部
崔啓宗居松部
高卜才居松部
咸同伊居松部
池毛獨居松部
盧次尼居松部
崔興世居西部
白孝福居松部
尹時文居藍浦
金次奉居南部已上三十三名實役四十七日
宋順伊居北部
權守大居南部

崔聖大居東部
元斗奉居東部
洪世得居南部
池升萬居忠州
金士奉居南部
金宗瑞居尼城
金德輝居尼城
李永得居清州
李太平居沃川
魯卜先居中部
李真行居東部
金厓金居北部

趙夢良居松部已上十五名實役四十三日
崔尚云居江華
李器燁居江華
車若鼎居江華
金德萬居江華
卞順才居江華已上五名實役四十二日
李得奉居西部
徐聖孫居南部
金聖卜居西部
金尚緯居中部
尹大興居北部
金喜得居西部已上六名實役三十九日

已上三等付列已上各米三斗木二疋布一疋外方匠人依右例舉行各道各邑匠人邊首之已入於一二等已蒙帖加者外如有邊首名色一體帖加令 圖所部監區別行關各道仍以姓名書送政院以為捧得告之地

小浮石所石手韓時雄居東部付列帖加從自願免賤
金尚得居中部
沈延得居西部

都完石居東部
金重喆居中部
方順恭居南部
金成漢居中部
沈聖玉居西部
沈興孫居西部
姜世福居西部
車仁大居北部
金順山居西部
宋福男居西部
趙光先居中部
金景光居東部

高大寬 居西部
高道寬 居西部
高仁寬 居西部
朴汝卓里 居楊州
姜二金 居西部已上二十名實役七十四日
已上一等 判付 正自各邑施賞及邊首帖加
事依大浮石例施行
金二起 居楊州
金命福 居北部
宋得相 居中部
朴枝蕃 居東部
趙二得 居北部
朴萬濟 居中部
金長金 居北部
趙廷三 居北部
金道一 居東部
李福先 居南部已上十名實役七十四日
朴漢鶚 居西部
閔恭述 居東部
金得男 居西部
金命山 居東部
吳詮同 居中部
金占福 居扶威已上六名實役七十一日

金尚祿 居西部
李一尚 居南部
申雲來 居西部
李命得 居中部已上四名實役六十一日
已上二等 判付 正自各邑施賞及邊首帖加
依右例
甲五同 居南部
徐雲成 居西部
金仁福 居西部
金成福 居西部
朴龍得 居西部
安福得 居東部
吳成大 居中部
李奉世 居西部已上八名實役六十一日
池成大 居安山
崔時同 居安城
安太運 居明山
金二取 居安城
申德鎖 居龍仁
金弘燁 居西部
李金夢 居西部
金松茂 居水原
金漢草 居水原

金千福 居東部已上十名實役五十八日
崔福金 居江華
南甲彬 居江華已上二名實役五十二日
金太明 居宣川
孫資柱 居海州
全聖樞 居海州
金海奉 居海州已上四名實役三十七日
姜百元 居義州
劉景得 居義州已上二名實役二十六日
判付 已上各米二斗木二疋布一疋自各邑施賞及邊首陪加依右例

朴七金 居果川
金重玉 居果川已上二名實役三十二日
判付 已上各米二斗木一疋布一疋
崔興三 居南部
崔貴得 居中部
金千才 居安峽
林福才 居中部
崔興宅 居東部
鄭壽大 居東部
金得寬 居楊州已上七名實役十日
已上三等判付已上各米二斗木一疋

雜条

筵說

乙酉八月十八日入侍時 上曰果川水原宿所所用器皿當自內下分付該邑使之依此擧行仍爲藏置以爲永久仍用之地可也今番行幸時雖一釜一鎡不欲取用於民間使之貽弊畿伯以此知悉至於新園所所用器皿分付外都監想爲造成以爲進排而用後則園官主管永作本園祭享時所用之器可也京畿監司徐有防曰並依下敎當分付矣

十月初七日行晝茶禮後命承史都厭二人進前敎曰新園所成殯奠以後餕餘亦爲分饋上山軍山役軍人及園所都監所屬而奉置矣近自殯官侍衛

諸臣至于相地官別看役布城環衛軍丁分饋俾無一人或漏可也　上親自看檢分　命別軍職李儒敬等分排遍饋

承　傳

七月二十日　傳曰遷　奉時各項所用緞品已有措置者當內下別單書入事分付都監堂上

七月二十一日　傳曰今番兩都監所用之出於貢市人者進排物種皆令先給價後取用外方舉行之進排於都監者及治道造橋假家植炬車馬并勿拘前例先給價事嚴飭諸道俾卽申諭列邑勿以例飭看過期有實效亦令該廳知悉擧行近日夙宵一念惟在京外民獎之無或有一毫侵及軍門卜馬軍事日前都監堂上之按例筵奏雖不得不許之只限京江勿許待令於外都監而更思此亦渠輩憂役無料軍依戶曹例令各該軍門給價給粮有料軍亦量宜題給以示爲本　園不欲勞用軍民之意以此卽爲分付京外都監

八月初四日有　旨　園所雖一夫一丁欲有沾益期無傷損卿等庶幾諦悉近聞年穀頗熟粒米狼戾以時令之稍早民多食稻闕滯幾殊而起云本都監役夫雇丁安知無是博施固未能名係都監之類庶可周活今以立效濟衆丹一封賚傳于卿等此藥雖不載於古方試之似勝於油溺付之都廳隨聞分給負役校卒中可以救治者亦卽分給緊用二三九歇用一半凡爲可卿等知悉

八月十五日以京畿監司狀　啓刷馬作隊差使員良才察訪崔大奎罪狀令攸司亟處事　傳曰差使員何罪契人何罪以如許不實不敬率之類稱以貰馬依揀驅送名之曰作隊云者其可成說乎事旣筵稟則經還又駭然都監之不爲請罪可謂失之太寬以此以彼莫非卿不善擧行之致卿事萬駭然爲先從重推考差使員勿論事回諭

八月十七日有　旨外　梓宮奉詣後肇士軍丁令　園所都監待其入去酒與粥間卽爲分饋事仍令三堂上知悉監饋

十月初九日　傳曰忍抑前發步步回皤此時廓然莫逮之痛卿等想默認　園上工役今日幾許爲之拯護使何日復命諸堂上之誠勤不待予言而益加恪勤以體此意事傳于園所都監拯護使以下　宣傳官柳春源書寫

饋酒緣由馳　啓

十月初九日午時狀　啓　捴護使蔡濟恭

臣　在　園所伏奉宣　傳官柳春源賫來　傳敎一字一涕下情益不勝掩抑工役平明董飭屛風石今方排置是白遣臣之復　命當待　園上畢役方可發程姑未敢以的在何日仰對益加恪勤之　敎臣謹當與諸堂上日夕顧提計料是白乎旀緣由馳　啓

奏啓

八月初五日辰時狀　啓　捴調金履素鄭民始李文源

立效濟衆丹七百九貴來事有　旨卯時量臣等在　園所祗受爲白有如乎惟我　聖上方今大衆祗役時或慮一夫取害之患珍劑　特頒　德音波布卽以有　旨辭意知委各所一一曉諭於負役匠募等處如有罹滯之病者這這來告都廳受去九藥趁卽療治以爲咸被　恩念之地爲白乎旀緣由馳　啓

九月十七日戌時狀　啓　捴調李文源

外　梓宮擧士軍饋酒事有　旨酉時量臣在　園所祗受爲白有如乎謹依有　旨內辭意擧士軍丁處布諭　聖敎一併饋粥是白遣陪来各差備將校負役及工匠亦爲一體

여 백

顯隆園儀軌 三

三物條
造成條
爐冶條
浮石條
補土條
輸石條

儀軌
闕甘

여 백



目錄

三物条
造成条
爐冶条
浮石条
補土条
輸石条
儀軌
關甘

都廳 三物条 造成条 爐冶条 浮石条 補土条 輸石条

三物条

筵說

己酉七月二十七日三大臣都監堂上入　侍時摠護使金煜曰斬草破土之役日吉順成今則旣已始事伏想　愴慕如新而土色純吉裁　穴之議亦爲歸一下情不勝多幸矣　上曰挨左之計僉議詢同云是爲萬年今之地師豈有及於古人者耶一從古人文書則十分穩當矣

七月二十八日入　侍時　上曰稍上稍下之制不可不詳審矣都監堂上鄭民始曰謹當相議各別審愼擧行矣

八月二十八日　園所都監堂上入　侍時　上曰屛風石內限滿石以三物灰封築自是前例而新　園所虛左之制旣

以合　園爲定則不可不存他日之慮今番屛風石內勿爲灰築以真土塡實以爲後日改封築之地　壙中三面灰尺數則以禮器尺用之　穴深則以周尺用之可也

九月初九日入　侍時　上曰穿　壙及下外　梓室五日之內可以訖役乎判府事李性源曰恐無不及之慮矣　上曰然則開金井略略爲之穿　壙則臨時爲之俾無地氣漏泄之弊好矣都承旨金載瓚曰摠護使開金井後當還　朝乎　上曰下外　梓室後使之復路知申禮判卽爲復命可也

九月十六日入　侍時　上命招入相地官朴仁素仍　教曰穿　壙既爲四尺則所餘者當爲三尺此爲周尺四尺乎營造尺四尺乎仁素曰爲營造四尺矣　上曰頃日筵中已有下敎者大抵　穴深之法寧淺毋深營造七尺代以周尺十尺用之之意曾有筵敎則都監堂上豈有用營造之理也爾或錯認以營造耶爾則終始看役獨無雜詰令賫土色而來予庸嘉之特爲分付該監以爾差實好窠爾其知悉仍　敎右副承旨洪仁浩曰天文學無敎授一窠爲先加設以朴仁素差下此後都政遷轉時時任敎授姑置之朴仁素先爲區處事分付觀象監　上曰都廳進前還　園都監都廳李益運進伏　上曰明日侍衛漏發行必爲趁早入去以　穴深之言更爲言及於都監堂上仍留宿再明日下外　梓室後仍爲上來好矣既爲穿　壙則恐洩地氣若庇覆外　壙則必無洩氣之慮以此意言于摠護使

十月初七日　上詣　橫宮奉審　玄宮後　上曰五度加烝辰時果已爲之耶摠護使蔡濟恭曰辰時盡五度加烝而下隅板竹尖所用處以炭末與烝塗填後用烝布合縫更加一番烝光則瀅然照影烝布之色與板烝同矣　上親審訖　敎曰果如卿言矣行　朝上食訖　上仍詣　篕家內　周審制度　敎都監堂上金履素等曰　隧道閣　篕家制度比諸舊　園所亦復大勝矣都監堂上鄭民始曰材木等物皆從外邑貿用稍異於京司而然矣

承　傳

七月二十二日　穴深營造十尺始無論土圭十尺亦太過宜淺不宜深勿令上過事有　旨有旨載謄在傳

七月二十六日有　旨斬破土及　丁字閣開基皆已爲之斬破土則只若干開基依筵敎去浮土始不始後乎鵲峰則大小浮石所令皆并設于江華浮石姑觀一兩日卽令遂來仍卽合力於鵲峰爲當狀請之除使費日子自都廳觀勢便宜爲之形止從後狀聞所憧憧者卽運石一事鵲峰雖曰稍近距　封標爲數十里間有溝塍車路不適宜小小石物外如魂遊石等體大石物治石仍於浮石所爲之待十月閒程路堅凍運致然後可無多少弊端事勢便好則何拘前例有無卿等知悉此意商量措處

八月二十八日　壙中三面灰尺數則以禮尺用之穴深則以
周尺用之事　下敎（侍敎裁浮石金）
九月十一日有　吉卿以取土後復命日字不敢擅便事馳啓
矣開金井始役後後卿與禮判先為上來地平土色捴護使上
來時持來
九月十六日土色愈好　穴深以六尺為定仍始鍊正之役事
狀　啓　傳曰見卿書啓穿　壙後中心土色土性黃赤堅
膩倍勝於開金井時其為萬幸豈可以文字形諭乎卿則上
來事下諭于錦城尉賞來當校遣將承傳持來捴軍各別施
賞事亦為下諭于叡伯
同日有　吉卿等以穿　壙土色監封上送事馳啓矣觀此狀
辭及封送土性漸益黏膩土色尤為明黃似此土品莫不曰
初見此開金井日又倍勝萬幸萬幸賞來相地官令本監為
先好窠拔例差定後草記摠護使待再明下外　梓宮後親
自監視　封標仍卽上來

七月十六日入　侍時都監堂上金履素所　啓　園所所用
石灰例當取用於金川矣以全石五百石卽為輸納之意分
付何如　上曰依為之
七月二十日巳時狀　啓（捴護使金監提調金履素郎廳
文源禮曹判書李在簡）
當日卯時量新　園所有審處臣等與錦城尉朴明源擧諸
地師更加審察反覆商確以癸坐丁向裁定正　穴後依例
封標把子圍排底時仰為始役為白遣本都監提調以下仍
留者役為白乎旀臣嫌與禮堂今方復路緣由並以馳　啓
同日入　侍時遣　園都監堂上徐有隣所　啓　棺衣數文
各年前例各有不同今番則何以為之乎　上曰出　玄宮
後結裹前　棺衣及結裹後　棺衣以一件用之　壙中三

重　棺衣並自內造用見揀臨時自都監內入緞品亦當自內從便爲之又所　啓素錦褚制度旣有丙午己例令番亦依此擧行乎　上曰依爲之

七月二十六日行祠后土斬草破土之由馳　啓（啓本見禮儀）

同日亥時狀　啓（提調金俊素郎廳始李文源）

節該斬破土依違敎姑不始役乎浮石除卜商量措處事有旨當日戌時董役等在　園所祇受爲白有如乎　丁字閣開基之由前已馳　啓爲白有在果斬破土後　封標近處則只爲畧干破土姑不始役　穴前段木根之盤屈者今方拔出亦不去浮土唇聽及左右耕鑿處連爲補土爲白乎旀

大浮石所設於鵾峯小浮石所設於鵾峯近處如岐山爲白如乎大浮石所設多付役軍連日開土今始露出大石以尺量磨鍊則　魂遊石一坐屛風石所入滿石十二箇中可倫折半之數而不足之數尚爲三分之二是白如乎臣民始昨日出往看審則石脉似爲不小而雜石上積浮土旁被姑不得石脉所在處斲石間土去其擁蔽然後可知其有無乙仍于各別嚴督使之並力掘開而姑無快得石脉之報其在愼重之道江華浮石有不敢遽然撤罷目前斃關江華府所浮石子使之姑勿舡運是白遣待鵾峯石子之如數浮出以爲狀　請之地是白加尼伏奉有　旨謹當待鵾峯得石之報一邊撤還江華浮石所一邊狀　聞許料是白乎旀運石一款自鵾峯先爲罷治待秋水土堅後運入正鍊果合便宜謹依有　旨內辭緣擧行許料爲白乎旀緣由馳　啓

七月二十八日入　侍時都監堂上鄭民始所　啓三物所所入細沙例用露梁細沙矣令字內軍門限三百石收取堅實封裹卽爲舡運下送之地何如　上曰依爲之

八月初六日木物輸運之費尚不受去事有　旨浮石斧載

八月二十六日入　侍時都監堂上鄭民始所　啓從前　陵寢用虛右虛左之制則例有十字石列書龍脉坐向埋置而皆於同　原獎　陵之時埋此於所虛之地以爲他日之標識也今番旣是合　園之制若用丁字石則勢將埋置於封築之內事涉如何敢此仰達矣　上曰今番旣設合　園之制置標石別無可論矣

九月初七日　瓮家始役之由馳　啓（啓本見事實）

九月初八日巳時狀　啓（提調使金埈提調金俊素郎廳始李文源）

瓮家始役之由昨已馳　啓爲白有在果今日畢蓋覆後隧道閣始役爲白乎旀　碑閣畢蓋瓦爲白遣大浮石所所浮石子今已除卜該所郎廳徐直修舉匠手等撤還內役緣由幷以馳　啓

同日入　侍時還　園都監堂上徐有隣所　啓新　園所陪進下隅板隅五度着叅　本廢提調郎廳例爲前期五六日出往與　園所都監堂上開拆奉審後　隧道習儀矣今番則何以爲之乎　上曰　園所堂上都廳一員監董擧行可也

九月初九日未時狀　啓（聯名上同）

隧道閣始役之由昨已馳　啓爲白有在果今日畢役爲白遣　丁字閣仰壁塗壁爲白乎旀緣由馳　啓

九月初十日狀　啓（都承旨金載瓚）

臣以 園所開金井時取土事當日申時進詣 園所是白
如乎取考都監謄錄則開金井後地平取土承旨奉還而今
則穿 壙之役當在於十六日臣則仍爲留在待地平後取
土復 命爲白乎乙喻日字旣爲違延有不敢擅便留在玆
以馳 啓

九月十一日卯時狀 啓 捴護使金煜提調金履素鄭民始李文源禮曹判書李任閒

當日卯時開金井爲白乎旀緣由馳 啓

同日巳時狀 啓 聽名上同

當日卯時開金井之由纔已馳 啓爲白有在果金井正中
先去浮土一尺後穿至五寸許則土性細膩黏堅土色純黃
明潤是白乎等以中心土入帒監封 御覽次三物所郎廳
李祉源賫持上送爲白乎旀取土處段姑爲填實以白木甲
帳一浮蓋覆 封標又以六油芚加覆使之守直爲白遣緣
由馳 啓

九月十六日辰時狀 啓 捴護使金煜提調金履素鄭民始李文源

開金井後土色已爲封進爲白有在果自今日仍始穿 壙
之役是白遣屛風下磚石次第排鋪爲白乎旀緣由馳 啓

同日巳時狀 啓 聽名上同

穿 壙始役之由纔已馳 啓爲白有在果穿 壙至四尺
許則土性漸益黏膩土色尤爲明黃是白乎等以入戚橫子
監封相地官朴仁素賫持上送爲白乎旀緣由馳 啓

同日酉時狀 啓 聽名上同

穿 壙至五尺八寸許則土性益復黏潤土色愈好純黃之
中紋含五色斑爛有金沙之光實不勝萬萬多幸是白乎所
諸地師之論皆以爲觀此土色限以周尺九尺則淺淺適中
是如爲白遣臣等之見亦皆如此 穴淺以周尺九尺爲定
仍始鍊正之役是白遣土色入帒監封而依 下敎臣煜復
命日賫持上去訖料爲白乎旀緣由馳 啓

同日酉時狀 啓 聽名上同

壙中四面畢鍊正後等地灰始役爲白乎旀 碑閣梯上塗
灰爲白遣緣由馳 啓

同日戌時狀 啓 聽名上同

壙中地灰依例準三寸今已畢等爲白乎旀緣由馳 啓

九月十七日辰時狀 啓 聽名上同

節該土色賫來相地官本監好窠差定捴護使親監封 標
上來事有 旨卯時量臣等在 園所祇受爲白有如乎臣
煜謹依有 旨內辭意十八日下外 梓宮時奉審擧行後
復 命計料爲白乎旀緣由馳 啓

同日酉時狀 啓 捴護使金煜提調金履素鄭民始李文源遷 園都監提調尹壕

當日酉時量外 梓宮無事到 園所奉 安于 隧道閣
解結裹詳細奉審則內外茶色少無頃處是白乎等以還爲
結裹各別守直爲白乎旀緣由馳 啓

同日戌時狀 啓 捴護使金煜提調金履素鄭民始李文源

園所 誌石及外 梓宮下隅板當日酉時量還 園都監都
廳郎廳李益運三房郎廳李命杰 長生殿郎廳徐敎修陪
詣 園所是白乎等以臣等眼同解封裹奉審後仍爲奉
安于 香大廳別定郎廳使之守直爲白乎旀緣由馳 啓

九月十八日卯時狀 啓 聽名上同

外　梓宮奉　安隧道閘之由昨已馳　啓為白有在果當日卯時移　安壙上解裹奉審後仍為下　壙為白乎旀緣由馳　啓

同日辰時狀　啓聯名上同

外　梓宮下　壙之由纔已馳　啓為白有在果橫臺板排設後仍等三面旁灰為白遣臣嬰今方復路緣由馳　啓

同日午時狀　啓提調金履素　郎廳民始孝文源

下外　梓宮後結裹所入物種使三物所郎廳李廷恢屏潔處燒火是白遣別單書八緣由馳　啓

園所都監別單

外　梓宮結裹所入

白木綿甲袱一件

白紬襦袱一件

白正布甲所五艮衣

油芚八浮

紙　柩衣一件

熟麻髢多繪三艮衣

熟麻束捲二艮衣以上燒火

輪臺板一部

紅氈十五立以上還為持入

橫臺板三部結裹所入

白木紬甲袱三件

油芚十二浮

草席十五立

小索三艮衣

熟麻三甲所三艮衣以上燒火

同日酉時狀　啓聯名上同

壙中三面旁灰杵等之由纔已馳　啓為白有在果當日酉時量已為畢等為白遣橫臺上面等灰仍為始役為白乎旀緣由馳　啓

同日亥時狀　啓聯名上同

橫臺板上面等灰之由纔已馳　啓為白有在果當日亥時量限金井畢等天灰為白遣緣由馳　啓

九月十九日辰時狀　啓聯名上同

天灰畢等之由昨已馳　啓為白有在果金井機撤去後覆釜形完等屏風下磚石鱗次排設為白遣曲墻基址杵等始役為白乎旀緣由馳　啓

九月二十六日半月成　墳次等土始役之由馳　啓啓本見浮石条

十月初一日半月形畢役之由馳　啓啓本見浮石条

十月初三日半月成　墳完等鍊正莎草蓋覆之由馳　啓啓本見浮石条

同日申時狀　啓聯名上同

半月　墳莎草始役之由纔已馳　啓為白有在果當日畢蓋覆為白遣曲墻畢等後蓋尾為白乎旀緣由馳　啓

十月初四日辰時狀　啓聯名上同

當日辰時量退　壙金井排設仍為穿　壙始役為白乎旀半月形尾簷裳石方始排設為白遣　丁字閣　橫宮已為排設為白乎等以緣由馳　啓

同日酉時狀　啓（聽上回名）

退　壙金井排設後穿　壙之由纔已馳　啓為白有在果

當日申時量畢後仍為鍊正是白乎弥假隅板開折奉審則

外　梓宮內乾淨無欠乙仍于奉進正隅板審量合縫後仍

始加灰為白遣假隅板還為入排依例懸紙帳而別為遞設

堅封為白乎弥　誌石横四坐並盛石函埋　安於　魂遊

下磚石下後仍設下磚石為白乎等以緣由馳　啓

十月初五日申時狀　啓（提調金履素）

退　壙內畢鍊正後立拘捧機設轆轤正隅板為先三度加

灰為白遣　丁字閣　欑宮排設後畢鋪陳拜位廳氈簾掛

懸是白乎弥提調臣鄭民始李文源以光教山花山獻官進

去　祭所緣由馳　啓

十月初六日申時狀　啓（提調金履素鄭民始李文源）

正隅板三度加灰之由昨已馳　啓為白有在果今日準五

度加灰畢後緣由馳　啓

同日申時狀　啓（掘護使恭濟恭提調金履素鄭民始李文源遷園都監提調徐有隣郎清朝）

大擧奉安　丁字閣成　殯緣由纔已馳　啓為白有在果斛

結裹奉審後仍為加灰為白乎弥緣由馳　啓

十月初七日辰時狀　啓（聽上回名）

當日加灰緣由馳　啓

同日下　玄宮時前後舉行之隨事續　啓乃是前例而

今番　親詣行事不為　啓聞故應行條件為憑日後依

二字而開錄凡為六條

當日申時先行　還奠仍為啓　欑宮為白乎弥下　玄

宮正時亥時而奉　靈擧上　園一節例為隨時擧行是

白乎等以酉正一刻奉上　園上詐料為白遣上　園習

儀囙　傳教不為擧行緣由并以云云

當日酉正一刻奉　靈擧上　園緣由云云

當日亥時下　玄宮為白乎弥緣由云云

當日亥時　玄宮封閉仍為隔灰杵築為白乎弥緣由云

云

正　壙前面灰隔連為杵築十三次已過横堂板為白乎

等以退　壙內各樣石函排設始役為白遣緣由云云

退　壙內石函畢安排後以水灰填隙又以三物灰杵築

與正　壙下旁灰均齊後通共築灰為白乎等以緣由云

云

十月初八日未時狀　啓（掘護使恭濟恭提調鄭民始）

退　壙內三物灰杵築連為薹役當日未時量限金井而止

撤去拘捧機轆轤及金井機後仍為加築天灰與正　壙均

齊而前面石物令方始役為白遣　丁字閣大紅箭門撤去

後永排紅箭門亦為竪立為白乎弥提調臣金履素李文源

本職　肅拜次進去緣由馳　啓

同日酉時狀　啓

編結木及圍排把子撤去緣由馳　啓（啓本見啓字石条）

十月十二日酉時狀　啓（提調金履素鄭民始李文源）

墳上莎草畢蓋覆後撤毀　龍家為白遣　魂遊石連致

園上而姑未及排設為白乎弥書　啓十一度修正上送而

大小浮石所石手段謹依前下有　吉并為列名懸錄居住

及實役日子緣由并以馳　啓

十月十三日退　壙排設及　瓮家　隧道閣材木燒火別單

開錄馳　啓（啓本見浮石条）

園所都監別單

覆　壙白木甲帳一浮

退　壙所排白木揮帳一浮

覆　壙進獻六油芚一浮

壙中前面所排進獻六油芚一浮

外　梓宮揮帳及横廈上所覆進獻六油芚一浮二張

正　壙三面所排油芚三浮

金井機左右前後所排白紋席地衣四浮

退　壙下排白紋席地衣一浮

上排別紋席紫的緣地衣一浮

小方木五箇芯白紋席白木纓子洗二巨里具

金井機一部

大隔板一立洗二巨里具

鉊正木六箇

散輪木三十箇

熟麻大束洗二巨里裹白紵布三疋

成結板二立

撐支木四箇

三物函一部

提燈八部

紙帳一部紅鄉絲三甲所二巨里具

白綿紬十尺

雪綿子十兩

簷橋一部

瓮家柱木十八株

道里木十八株

春掾大竹七十六箇

間椽中竹三十八箇

掾横結鍊正真木三百二十三箇

蓋覆草芚一百二十七蕃

進獻六油芚一浮

柱横結中竹五十一箇

風遮草芚二十六蕃

左右窓所掩進獻六油芚二浮

白木仰帳二浮

白木揮帳二浮

中正鐵懸索紅鄉絲三甲所一巨里

大防木四箇

大來往板四立

小來往板二立

束菱里四箇

隧道閣柱木六株

捜木三株

從捜木三株

道里木十五株

臺工木九箇
童子柱木五箇
臺椽木六十四箇
長椽木六十四箇
蓋覆草苞三十七番
六油苞十二浮
編飛乃六十束
左右風遮草苞十二番
白木揮帳二浮
下排白紋席大地衣一浮
啞巫一部
硯匣一部

砚石一面
黄筆一柄
真墨一丁
燕尾釜二箇
三尾釜二箇
小小鉢一箇
鉢正従古木三十箇
永簪白木帳一浮
拘捧機柱木四株
榻木二株
通里木二株
回榻木二株箭木迭具

半月　墳編結柱木三株
横結木六株
鉢正真長木三十九箇
大杜把子二浮
網席十二立
白木面帳一浮
別轆轤機板木二株
童子柱木四箇
回榻木二株箭木迭具
中防木二箇
白細布編結迭四巨里
覆　壙大網席一立

十月十五日酉時狀　啓提調金履素鄭民始李文源
彼旅之役今已了畢禁川橋内盡為修補是白遣封　圍制度段　園上圍徑三十二尺周回一百尺前面高十一尺五寸後面高十尺五寸左右高十一尺緣由馳　啓

宜寬敞而不宜障蔽左邊則為地軸方因地形營建勿邊千
破水路恐合事宜矣　上曰齋室則當用禦牧軒乎矩　丁
字閣當為幾許民始曰禦牧軒之當為齋室殆若有待尤為
奇矣相去似為三百步矣　上曰無已太近乎有隣曰矩
丁字閣為三百步矩　園上已稍間矣民始曰水泉內衙本
不精緻而其外公廨則或可為　香大廳或可為典祀廳矣
上曰予之情理只在頻頻展省而閣閣既移之後則隨駕百官
之露處在昕當念可存之公廨不必撤去以為諸臣入接處
好矣
七月十五日看審大臣都監堂上漢城判尹入　侍時　上曰
聞日官言則十一月无吉於十月云擇日如在十一月則
丁字閣始役當在何間都監堂上鄭民始曰　丁字閣始役

造成条
　遷說
己酉七月十三日看山大臣以下入　侍時戶曹判書徐有隣
曰監造官差出後可以鳩合材木凡石而海西磚石則如例
船運關東材木亦令流下嬪尼則自本州經紀似好矣　上
曰運石運木無或船奴民邑不斂曰設有些少弊端固不可
恤況此本石輸納之舉便是該道應行之例矣　上曰　丁
字閣當建處矩　園昕當本處相去幾何都監堂上鄭民始
曰姑未定基而　丁字閣若近於　園昕則內案對珠未得
露其真而臣意稍低稍遠處建閣似好矣　上曰穴星既低
平　丁字閣若當中則案對雖不遮隔堂氣恐欠通暢勢將
左右挾推移而右邊則乾泉古水申方生氣發源湊堂之處
開金井後為之云矣　上曰金吾慶以為　丁字閣與私家
之床石同開金井前不必始役云此則無稽之說也　丁字
閣豈同於床石乎　丁字閣例隨地形不拘　陵上坐向開
金井前始役少無昕妨矣民始曰封標內則吉日前不敢始
役而封標以外則例無昕拘矣
七月十六日　上曰前例不必盡用盖金吾慶以為　丁字閣
始同私家床石穿　壙開金井之前不宜先設　丁字閣此
則不當然矣都監堂上量宜為之可也　遷說載時日
七月二十七日三大臣　還園都監堂上入　侍時摠護使金
煜曰　丁字閣開基稍挾於白帝邊故明堂之圓暈則因自
如而或以為挾右四五間則為好云惟在　上裁矣　上曰
對案珠形不蔽圓暈之體則　丁字閣之或差右幾許或差

左幾許惟當從便為之矣

八月二十四日時原任大臣入　侍時　上曰　丁字閣上梁文今已正書耶判府事徐命善曰自今日欲為正書而下疋緞長為三十餘尺如欲盈幅而書之則字排必稍大柯以為之乎　上曰稍大書之尤似好矣命善曰千文上乾陰年獅亦當書之耶　上曰以上之幾年書之可也　上曰草圖書已為書出耶命善曰使曹允亨書之矣　上曰上梁文李判府誠善撰矣命善等曰臣等即為稱兄而果善撰矣右議政奈濟恭曰李判府事素嫺四六文字而今番所撰又激唐儻之體且無衰老之氣矣　上教李福源曰卿於此等文字所撰多矣福源曰臣猥紆文任故前後果有所撰之文矣

十月初七日　上詣　横宮由東邊門捲素帳　入奉審　玄宮訖　領謂都監堂上金履素等曰　横宮制度比舊圍所較敞較精　丁字閣造成無一罅欠卿等之勞實為多感矣履素等惶恐不敢仰　對　上曰　丁閣之例比他　陵寢雖不過多而精緻則無餘蘊矣總護使奈濟恭曰然矣

承傳

七月二十日安眠貴體本二抹卜定處亦依海西例舉行三處木石單運後効勞校吏後錄狀聞事有　旨（有旨戴浮石海西例捐造監已別給程糧）

七月二十二日以　丁字閣不得開基事狀　啓二十六日退定事有　旨（有旨戴時日）

同日　丁字閣開基果已始役而稍右之制極為穩當事有　旨（有旨戴浮石）

同日有　旨卿以前備物件即令各所措備事馳啓矣　神御平床則上粧着真茶風穴着三疎箭則假茶共餘床卓假茶中真黑茶為之而阿架床制度勿為貿大令前看役丁遷奉出本為之朱簫令尚方造送本都監

七月二十九日　傳曰今番　園所移奉時宿所只是果川果川聞有墻垣亦設布帳云帛網依近例除之事分付幾間宿所站及畫傳站皆是官舍　園所宿所站已慮民邑之弊公廨多不毁撤各邑假家依　先朝下教一并除之事一體分付

八月初四日有　旨卿等以齋室材木以他公廨材木更建事馳啓矣齋室修補材木不必用新邑基公廨可合材木只就近留廨宇中推移取用

八月初五日有　旨卿等以齋室材木以吏廳材木取用事馳啓矣隱若軒則既有樂攸軒雖狹小足可為小次至於新邑官舍當為往來時宿所之地新研材木難保其遲期且開吏廳頗敞而移建足以此材木全數用之云此出給本府使

卽移建

八月初六日木物輸運之費尚不受去事有　旨有旨浮石条有旨載時日

八月三十日上探日分初三日比初一日有勝無損事有　旨有旨載時日

七月十四日入　侍時行戶曹判書徐有隣所　啓　園所丁字閣所用木物船運時不可無領運之人各津別將中令均廳各別擇差下送何如　上曰依為之

七月十七日入　侍時都監堂上鄭民始所　啓　丁字閣材木皆以萬里倉所在者用之而至於探木二株萬無自京求得之路勢不得不取用於安峴舊矣自都監知委忠清水使處使之即為研取因夜上送于都監之意分付何如　上曰依為之船格等優給糧資船價從便賃船上送事分付可也

七月十九日入　侍時都監堂上徐有隣所　啓　梓宮奉安處所舊　園所則以　香大廳新　園所則以　丁字閣中火處所則以果川縣館舍擧行許料而取考辛亥前例則都

監堂上道路看審事出去時別遣該掌吏廳使之奉審形使
以來矣今番亦依此為之何如　上曰堂上李在簡既以禮
曹堂上進去使之看審以來可也
七月二十日入　侍時遷　園都監堂上徐有隣昕　啓　靈
座諸具辛友有移用之例今番則何以為之乎　上曰一依
辛友并例為之可也
七月二十二日以葵時官不待　丁字閣不得開基之由馳
啓　啓本見時日
同日夜時狀　啓　提調金履素　鄭民始李文源
節該床卓令別看役出見據事有　旨當日夜時量臣等在
園昕祇受為白有如乎床卓來簉着恭及制造等事謹依有
旨內辭緣舉行計料為白乎旀緣由馳　啓

七月二十六日辰時狀　啓　提調金履素　鄭民始李文源
當日辰時　丁字閣開基緣由馳　啓
七月二十八日入　侍時都監堂上鄭民始昕　啓假齋室及
內人假家勿為造備事既承　下教矣守　殿官處昕以公
廨中堆移用之何如　上曰依為之內人到洞以遞送假家
自可無論守　殿官外三寺官及水刺間　祭物熟設昕以
公廨中卿其商量分定大小假家并除之事嚴飭繼營可也
又昕　啓　丁字閣四面設布帳依近例舉行事分付各營
門何如　上曰待兵曹草記分定可也又昕　啓取考辛友
謄錄則洞口內外紅箭門及三門大紅箭門并設矣今番則
何以為之乎敢此仰達矣　上曰此是浮文不過一日暫設
者常時昕立外並勿為可也又昕　啓運沙運土之役甚多
各軍門運沙車予限二十輛借用而各該軍門即為出送于
都監何如　上曰依為之又昕　啓　攢宮半床昕排褥席
及　靈座昕排床席自舊　園昕移用勿為新造事既承
下教矣以此知委於遷　園都監何如　上曰依為之又昕
啓　大擧假家儀仗假家近例俱不造作只設油遮日及雨
備矣依此舉行之意分付該司而假家則勿為待令之意亦
為分付京畿監司處何如　上曰依為之又昕　啓　丁字
閣三門　攢宮排設處紅綃帳以蓋　園昕　攢宮昕排設
移用事既承　下教矣以此知委遷　園都監何如　上曰
依為之事畢後淨處燒火可也
八月初二日入　侍時　園昕都監堂上鄭民始昕　啓各
陵寢　水剌間守僕房例為設置於　丁字閣之左右而
園昕　丁字閣建置於稍右處今若以　水剌間守僕房分
左右造成則守僕房正當　穴前內明堂中央昕見甚為礙
眼而不敢自下擅便敢達矣　上曰然則守僕房并為造成
於　丁字閣之右可也又昕　啓各　陵寢紅箭門亦無一
定之制多因其地勢而設置　園昕紅箭門若從　園上正
向而設立則當設於內者龍砂角之內處地甚不便若從
丁字閣前面而設立則又偏近一邊不得正當　園上正向
諸議不一未得決定何以為之乎　上曰既無定制從昕見
相議為之可也
八月初四日平時狀　啓　提調金履素　鄭民始李文源
始役後形止前已馳　啓為白有在果　穴前補土段今日
至員土實等幾為三分之一是白遣　丁字閣基址今方修

治材木所載船再昨日先運始為到泊乙仍于體木四十株
先為輸入而待其来泊鱗次輸入計料是白遣浮石所段除
治雜石之故實役遲緩浮出石子僅為八九堀連為嚴督是
白遣　香大廳段定以內衙幾盡修補方始上役是白乎旀
齋室段定以隱岩軒而頻有傾仄處乙仍于欲為修補次略
干毀折則棟柱太半中續椳樑亦多朽腐栗以年久座子廣
経重修衆支而補葺飾外面而已大體材木無一可用今若
仍以補葺則非但工役之反多難使實無永久完固之望不
得已毀撤以他公廨所毀材木即其地更建計料為白乎旀
緣由馳　啓

八月初五日巳時狀　啓　縣名上同

節該齋室材木只就姑留中所用事有　旨同日巳時量臣
等在　園所祗受為白有如乎本府公廨各處一并看審則
材木之稍成樣間架之稍可用者講武堂為最吏廳為次其
餘則俱是矮狹短棟不成貌樣傾仄不堪不可不仍留者
或有年久破傷者今則齋室不得不改建而講武堂則自本
邑已為撤去可合取用者只有吏廳乙仍于與該府使相議
以今所見齋室材木取用吏廳之外都監則更無他推移之
道本府則講武堂既已撤去又得安帖盖體木而掾椳等材
亦多鳩聚於境內者推移變通綽綽有裕且隱岩軒材木雖
無全用者而截斷揀擇亦足補用於新建之時是白乎等以
已以隱岩軒吏廳相掇取用之意停當始役是白乎旀今若
不用吏廳材木則姑留公廨中實無僅可者而自此亦無覓
得他材木之道都監事勢既如此而本府則推移充補不患
不足乙仍于不得已以本府吏廳材木取用計料為白乎旀
緣由馳　啓

同日入　侍時遣　園都監堂上徐有隣旀　啓新　園所
丁字閣　神御平床褥席緞品當依　園旀都監堂上定奪
書入而　外排室下所鋪褥席既因辛亥以後已例不為入
用日前旀下緞品移用於　神御平床褥席何如　上曰依
為之

八月初六日巳時狀　啓　縣名上同

節該吏廳材木出給事有　旨同日辰時量臣等在　園所
祗受為白有如乎吏廳材木段誠依有　旨內辭緣出給本
府是白遣齋室段既無他材木推移之道勢不得改建是白
乎等以仍其舊撰補葺修改計料為白乎旀緣由馳　啓

同日申時狀　啓　縣名上同

安帖畓卜定　丁字閣旀用掾木二株差使員唐津縣監南
愼五領来今日辰時量無獘到泊於水原鳴浦是白乎等以
今方運入計料為白乎旀緣由馳　啓

八月十五日入　侍時遣　園都監堂上徐有隣旀　啓　欑
宮奉安處外壁有細木周裹之節今番則何以為之乎　上
曰當此冬節壁帳置之以牧丹屏為之可也又旀　啓新
園旀　丁字閣所用卓排衣依　下敎祉後　園所都監出
見採內入以為奉出匠役造成排設之地而此後修改時依
例以紅紬擧行事分付何如　上曰依為之

同日材木未收入尚為毀百株而車子不足事後遲滯之由馳
啓　啓本見補土条

八月二十六日八　侍時都監堂上鄭民始所　啓諸處假紅箭門係是文具今番一並勿設只以永排紅箭門舉行事向仗承　下敎而更為看審則永排紅箭門間架狹窄不得奉進　大擧而大紅箭門則間架濶大不可仍作永排矣洞口內外及左右夾紅箭門則勿為設置而大紅箭門永排紅箭門不可不各設敢此仰達矣　上曰依為之又所　啓外梓宮櫬安處所貯物不別造假家奉安於　香大廳何如　上曰依為之

八月三十日　丁字閣上樑謹依　聖敎以初三日退定擧行之由馳　啓（啓本見前日）

九月初三日　丁字閣立柱上樑依禮文行祭後上樑文奉安于樑上　碑閣上樑同時擧行之意馳　啓（啓本見賞典）

九月初四日午時狀　啓（聯名上同）

當日　丁字閣　碑閣卦椽為白乎旀緣由馳　啓

九月初六日午時狀　啓（摠護使金煜提調金俊素鄭民始李文源）

事役形止昨已馳　啓為白有在果當日　丁字閣蓋瓦始役為白乎旀體大石物昨日運入之毅長明燈一坐　碑加簷石一箇龍墨石一箇是白乎旀緣由馳　啓

九月初七日未時狀　啓（聯名上同）

當日　丁字閣畢蓋瓦後　碑閣蓋瓦始役是白遣　魂遊下碑石二疋龍墨下碑石二疋昨日運入體大石子今旣盡輸為白有如乎緣由馳　啓

九月十二日午時收　啓（聯名上同）

丁字閣倚壁塗墁後等中防是白遣　水剌間守僕房立柱上樑為白乎旀大小浮石所各揀石子今已畢輸入是白乎等以車運次知三軍門將校各一人及擔運次知左右捕廳部將各一人軍士各二名并為酹送是白乎旀緣由馳　啓

九月十三日　水剌間守僕房方始蓋瓦之由馳　啓（啓本見浮石条）

九月十四日　水剌間守僕房畢蓋瓦　丁字閣毋青始役之由馳　啓（啓本見浮石条）

九月十五日巳時狀　啓（聯名上同）

丁字閣樑上塗灰為白遣屑風下碑石基址今已畢等為白乎旀緣由馳　啓

九月十六日　碑閣樑上塗灰之由馳　啓（啓本見三物条）

九月十七日　誌石及外　梓宮下關奴奉安於　香大廳別守直之由馳　啓（啓本見三物条）

九月十九日八　侍時摠護使金煜所　啓辛亥儀軌中　吉帷宮不為排設事定奪故　梓宮上　山陵時　紙牖移安於　丁字閣內來還而　梓宮上山　陵後更為奉安於御間當中今番亦依辛亥前例奉行何如　上曰依為之

九月二十二日酉時狀　啓（提調金俊素李文源）

丁字閣毋青畢役後撤去浮堦　碑閣毋青仍為始役為白遣屑風下碑石畢排置正地塗石排設始役為白乎旀二提調臣鄭民始內閣問　安進呈次昨日上去緣由馳　啓

九月二十四日申時狀　啓（聯名上同）

碑閣毋青畢役後撤去浮堦為白遣曲墻基址畢杵等地墁石始役為白乎旀緣由馳　啓

九月二十九日　丁字閣月臺舊堦畢役後方氈排鋪之由馳

啓（啓本見淨石条）

十月初三日　丁字閣內外方氈單排鋪仍為塗褙　大次及齋室　香大廳併為一新修改典祀廳亦已修補今纔單設之由馳　啓（啓本見淨石条）

十月初四日　丁字閣　攢宮已為排設之由馳　啓（啓本見二物条）

十月初五日　丁字閣　攢宮排設後單鋪陳拜位廳亂簾掛懸之由馳　啓（啓本見二物条）

十月初六日申時狀　啓（趙設度紫綿慕提調金履素郎氏祀事文祿遣　園郎張提調徐有清郎昌順）

當日申時　大祭無事到　園所　丁字閣仍為成　殿為白平旅緣由馳　啓

十月十三日午時狀　啓（提調金履素郎氏祀事文祿）

丁字閣退　壙排設及　貧家隧道閣材木窠草芟之屬盡為燒火為白遣別單開錄緣由馳　啓

園所都監別單

白綾白紋五十二張半付地衣一浮

退獻六油芚一番

藍紬綾別紋席七張半付地衣一浮

紫的綾彩花三張付地衣一浮

下帶平床一坐

紫的綾彩花二張付地衣一浮

龍卵一箇

奉心二箇　彩花席及纓子具

田南首平床一坐

竹簟一部

移用回南首上層平床一坐

上排竹簟一部

移用多紅大緞綾彩花席一浮

鴉青三升九幅帳一件

上地防四箇

下地防四箇

柱木四箇

四面障子十二度　圓塚赤貼加莫金具

塗褙所入上品擣鍊紙三卷十二張

蓋兒一箇　四面上下赤貼具

白細正布覆巾一件　八幅各長七尺

白鼎紬甲覆巾一件　八幅各長七尺

白鼎紬四面甲揮帳四浮　各四十四幅長七尺三寸

白鼎紬甲帳一浮　十七幅長十八尺六寸

盡屏及墊假地防七箇

來往板二立

馬本二箇

散輪本十二箇

拜位廳所排白紋二十張付地衣一浮

左右簷階所排白紋九張半付地衣二浮

玉燈懸索紅絨絛一艮衣

大擧下排白紋二十五張付地衣一浮

肩擧下排白紋二十張付地衣一浮

腰彩擧下排白紋六張付地衣四浮
香亭子下排白紋六張付地衣二浮
誌石外槓二部
紅紬三幅褓四件
橫結紅鄉絲小索四艮衣
下排白紋四張付地衣一浮

爐冶条

承傳

己酉八月十八日有 旨卿以鐵物令訓鍊都監禁衛營御營
廳加毁輸送事馳啓矣依状請施行
九月二十一日有 旨卿等以訓鍊都監禁衛營御營廳炭各
六百石輸送事馳啓矣依状請施行

奏啓

七月十四日正鐵強鐵戶曹及各軍門取用之外不足之數分
定於海西冶炭及已造成鐵物依例取用於各軍門事出擧
條 擧條見
附用
八月十七日戌時状 啓 提調金俊
素手文原
大小浮石昕各處工役極為浩大鐵物倍入元劃正鐵今幾
盡用而逐日昕下亦既影然以今餘存之鐵許多匠手萬無
分排繼給之路御營廳三千斤訓鍊都監禁衛營各二千斤
卽令各該營門加毁輸送何如為白乎乙喻緣由馳 啓
八月十八日酉時状 啓 提調金俊
素手文原
節該鐵物加毁依状請施行事有 旨當日申時量臣等在
園昕祇受為白遣緣由馳 啓

九月二十日午時狀　啓　提調金履素　民始李文源　鄭

大小浮石所治石之役訖工姑遠而分定與貿得之炭今幾盡用逐日所下無以繼用不可不急速變通訓鍊都監禁衛營御營廳炭各六百石加數分定冈夜輸送以為需用之地何如為白乎乙喻緣由馳　啓

浮石条

遞說

巳酉七月十三日看山大臣以下入　侍時　上曰昨遞中已有不以天下儉其親之說蓋以固所自盡之心推以廣不用極之道除非勞民力頻經費者外則務欲極盡其美小仲終事之誠故莎埵石及屏風石皆欲為之耳丙申封　園時不但永陵因舊制即仰遵古事大抵舊　園石物之新設雖不敢擬議今則既遞　奉當盡誠如例為之矣此　遞教使都監知之可也敘曰　聖人達孝欲伸於此等處臣等敢不對揚萬一乎　上曰衆設之役已有分付於丁遇恭處石材則本州鷲峰及山城外聞有可合浮出者云而石品若不合則南陽江華等處石材方合於欄干屏風石之用至於浮出運来之勞有不可計矣判府事徐命善等曰石材所用何等重大則些少姑辭何可頻乎

七月十五日看審大臣都監堂上漢城判尹入　侍時　上教都監堂上鄭民始曰衆設石于似聞鷲峰所産可以合用云不必浮出於江華矣民始曰鷲峰石品雖未詳知而　覩遊石則必取理正不蘊者鷲峰似無可合於此者矣　上曰既是産石之地若能漸採而善磨則豈無可合者也民始曰他石物雖可合用而至於　覩遊石則治石後石面慮有白紋恐不如艾石云矣　上曰下送石工史為看審然後沁石浮出與否可以次之矣民始曰石工俄已起送明間似當回還矣民始曰　長陵是合　陵之制故石物長廣與　陵之制大異今番石物長廣　稟旨然後可以始役矣　上曰地形廣狹果何如民始曰　穴勢敦重豐厚而結氣緊故地不廣矣　上曰日後看審時尺量地形之廣狹以為次定可也

七月十七日　園所都監堂上前水原府使李祖源入　侍時都監堂上鄭民始曰鷲峰所送石工俄已還来浮石處凡四處而耳耳為私家之採用　覩遊石涉埵石姑無論其他石物無一可用者云今則大浮石所勢將治送於江華之外無他道矣　上曰自初持難者為慮船路事勢如此亦無奈何矣民始曰船路自江華至水原初不甚遠又不經大洋船路則無慮矣　上曰大浮石所亦當送一前廳矣民始曰徐直修勤實可送矣

七月十九日抱謁使都監堂上入　侍時　上教都監堂上鄭民始曰鷲峰石品果何如云耶民始曰鷲峰石材連為浮用

今則餘者無幾云故昨日不得不以浮出於江岸仰稟爲定矣　上曰雖緣事勢之不得不然使之浮石於江岸而葬於浮出之時轉輸之際不無貽弊之歎是可悶也摠護使金煜曰工役中石役最大　朝家莫重莫大之事豈可以些少貽弊不可不取用處民弊有不暇念以此豈可過煩　聖念乎　上曰江岸水路既遠且險又值風高浮石運石之際若或有役夫船格等致傷之事則豈不萬萬悶慮乎舊　長陵遷　奉時象設多有移設者故予意則初欲依此例爲之矣舊設體揔甚小不合更設故不得已今將新備矣都監堂上李文源曰雖欲移設文武石羊馬石等諸般石物體揔比國制甚小今當遷　奉之時何可仍舊用之乎民始曰　聖意雖出於輸念民弊而然今若移用舊設則勢將車運而其間程遠殆爲一百六十餘里比諸浮石之弊反有加焉　上曰江岸浮石船將以何船載之乎民始曰將賃船載之矣　上曰賃船之際優給厚價好矣

七月二十八日入　侍時　上曰工役今至何境乎都監堂上鄭民始曰本物始未到泊故見今企待矣　上曰石物事誠幸矣民始曰此莫非　聖孝攸感神人告祐而然矣

八月初七日都監堂上入　侍時　上曰今則日字甚急工役能無犁耕之慮耶予於都監事晝夜憧憧矣都監堂上李文源曰其中石役尤爲緊急石子今若浮出而運入則其他工役似無未及之慮矣　上曰今當雕散耶文源曰然矣

八月二十六日都監堂上入　侍特　上曰　圖所工役今至何境耶都監堂上鄭民始曰諸凡工役別無未及之慮葬石葉落後始可種之矣

十月初七日　上諸　圖上將行奉審　丁字閣東邊設假家遮帟帳奉置　魂遊石已爲磨正者　上步諸　親自摩視　上顧謂隨後之諸大臣曰鶯峰石品何遽不若江岸之石乎此地有此石材豈非天耶諸大臣曰　聖教至當矣石品果是稀覯者也仍　諸　院家內來遊　周視屏風石別石滿石一一　指教曰此石材皆是此地所産豈非幸耶石物起畫手法何如曾使丁遇奉往審　長陵石物制度使之一一依倣矣未知果然否鄭民始曰　長陵石物臣等亦嘗奉審而今此石物起畫少無未及雖使崔天若爲之恐難加此矣

沁都石物事才有下教而本道何異　園所所用海州磚石浮出及船運時無論校吏工匠沙汰糧料與船價校例倍給仍令公役會減裝載及發船日子遲泊形止狀聞沿路過境形止亦令各該道臣狀聞指路護送監色別給糧料事令廟堂即為行會海伯處沁都運此事一體行會安眠島體木二株卜定處亦依海西例舉行事亦即分付三處木石並運後效勞校吏後錄狀聞事分付來吹及畿色卜定模杠木運致依此例為之事亦為分付

同日以江華留守狀　啓　園所都監即瞻石物浮出事下來眼同監董次雖營事　傳曰備局行會中眼同董役云者指大體檢察也何必雖營往留以貽民弊此意知悉即為還營工匠則以公穀厚給糧料運致時沙汰則船價粮料校例厚給而都監負役工匠革貽弊之端亦須嚴禁事回諭水原之鶯峰花山等處遣別者役石工懸賞浮取姑未知毀又幾許浮出石物自可減毀此乃船運時弊端也莫重之事民弊何拘而予之憧憧一念惟一夫之受困況大洋船運乎今則水原石物浮出毀又令浮石時即瞻徙復都監詳細傳當然後船運事一體回諭此回諭一通亦令京都監謄送　園所都監校吏給糧裝發送泊形止狀聞依備局行會舉行事一體回諭沁留處

七月二十二日有　旨卿以鶯峰石子浮出事馳啓矣卿等以鶯峰江華石物參半取用事昨日未時封發狀啓矣觀此狀辭鶯峰石材之合用不出昕料當初石工之瞞告者極為痛駭而浮出之役不可一時少遲昨曉以匠手及器械別為下

七月二十日有　旨沁都石物浮出輸運事昨於卿等登遣時已有下教為昕重豈顧民弊而船路運致一事以此憧憧不已卿等亦當知予意鶯峰石根更加詳審如或可用則沁石雖浮當勿運設令堅固船運致利泊自今至利泊之前無非為民用心之時卿等更念此意另飭石工鶯峰石一邊浮出如不合出給本官用於移邑昕用亦無不可如可合沁都浮石置之事不待狀啓回下即為分付該昕而　魂逍石及他餘石物鶯峰與沁都分力浮出亦或為除弊之一道于卿等另加商量無論全毀浮出分力浮出與可用不可用論理狀聞

同日　傳曰今番都監工役不欲一毫貽弊諸臣庶幾諦予意

送使之一邊浮出一邊往言於卿寺矣其間果已始役耶鷲峰石雖有白絲紋已有　陵役取用之例況　顯廟朝亦有詳載儀軌者至於今番以近處石物用於本　闕尤豈不稀貴乎石材長廣若果合用則　魂遊石亦以鷲峰石用之屏風石起盡絲紋尤好石材如又裕餘此亦以鷲峰石中用之如階石涉墓石等物更於近處求覓則豈有不覓之理寸次知其不可覓然後江華石物量宜輸運而　魂遊石當用與否即為決定後一邊狀啓一邊知委沁都浮石所事回諭令日日氣晴好　丁字閣閘基果已始役而稍右之制極為穩當且聞裁穴處封標亦甚穩當都監事事事若意此後惟是穴深一事為極緊之端日前詳言於金春直等昨因茲事不得不別遣一人卿寺想必承聞營造十尺始無論土生十尺

亦太過卿寺須益念宜淺不宜深寧下過勿令上過之義慎之又慎預加審定

七月二十六日浮石始覩一兩日即令還來仍即令力於鷲峰事有　肯有三物令

七月二十七日有　肯卿寺以鷲峰石子先為龍沼待秋上堅後運入詩料事恥啓矣屏風石所入石物中植鷲直竪者石品雖不及屏風石似可合用雖以長廣尺度言之不必一遵長陵之制以石材多小定間架闊狹令別差役知此意從便為之事分付

八月初六日有　肯今聞　龍家　陵道閣材木雪馬浮階寺木物取用於私養山之後元價本所下與輸入之費都監及本邑分當上下而民人苹多日寺待尚不受去云極可訝惑也此意下諭于都監及本府誠有是也嚴飭分給俾無遺漏之弊畢分給形止令本府狀聞事一體下諭海西碑石之到泊不即輸入貽弊不些云前此儲置求會減之教通諭此寺力役則何如是遲滯民恣至有此入撤此已未安運沙代馬既用民牛則當此搬移之時貿用則可也名雖借用無異空使此亦未安一時過去別生之目見陳達如此此外民弊可以推知是豈拔例差遣之本意乎雖以道伯言之遣臣所陳達之事如是昧然致煩飭教為在乎再任之效姑以貢成之意并勿問後加惕念

八月初七日碑石陸運之費初不持來以致稽滯事狀　啓傳曰海西碑石輸入之需該道之不為備送者殊非時令拔例加給之本意當該道臣推考仍自京都監枚舉此傳教辦

意論理嚴飭行會該道

八月初八日有　肯卿寺以材木輸運及石物浮出事恥啓矣石物幾許浮出已浮未浮已運未運數爻假令畢役當在何日間以今料量狀啓　墳形圓徑尺寸加廣或有壓近莎城此意知悉此外多有下教事當言於三堂上下去時矣卓子則勿拘京中事勢已令加數下送黃馬亦令作隊下送卿寺以此知悉

八月十六日有　肯今日始考各　陵石物制度數爻多有參差大體則同至於屏風欄干石　寧陵以後皆　命勿用昭儉之　聖德非不仰認而辛亥遷　陵既有仍舊用之之已例似因舊　長陵石物用屏風石故耳今番欲效盡誠之意且擾遷　陵時仍用之例屏風石及龍蕎案石雖用之欄干

石則祛之此蓋為遵 受教不敢如式也此後 陵役萬一不識予本意之如此謬引今番之例用屏風欄干毛簷蒙石等物則是自予違越 受教也屏風石所闕各種石物切勿更用以此傳教詳載戶禮曺謄錄仍又揭板於長生殿東正庫新 園設 合園之制 穴前後石物排設處甚狹窄今茲考出之舉曺為是耳屏風石外石物一遵 光陵制度以魂遊石一坐長明燈一坐望柱石一雙文武石各一雙羊馬虎石各一雙磨鍊排設事令 園所都監知悉如是磨鍊則排設之際務宜稍前并須知悉

同日有 旨卿等以浮石毁爻開錄事馳啓矣俄下有 旨卿等見之耶近日所憧憧者因石物排設之有毁爻制度腦後涉土之或有一毫近手也然以毁日神思涔然不得措辭下諭矣今日始收拾點檢則 光陵石物已例甚便好羊馬虎石各用一雙則排設之際可免狹窄乎至於毛簷蒙石之令番特用曺為觀美無窮盡誠而尺毁稍減事有申飭於別着役丁過泰者果依此減尺量浮出乎若或拘於用毛簷蒙石而腦後涉土有不得不少拓之嫌其可成說乎況毛簷蒙石即各 陵罕有之例且今始不盡毁浮出雖勿用亦無不可果無把腦之嫌則當仍置卿等與石所進去二堂上爛議各陳意見指一論理狀聞

八月十八日有 旨卿以與二提調徃復相議意見相合別無各自陳列事馳啓矣依狀請施行

八月二十一日有 旨毛簷礎石異於地墁石封 園後排設亦好以鶯峰石用之如岐山石物則不必用之此意知悉舉行

八月二十二日有 旨卿等以浮石毁爻開錄馳啓矣 魂遊下碑石依補編 受教勿用全石乎如未浮出依此從便為之

九月十一日有 旨今番 園役最勞者石工今聞都廳上来後所參近日連為夜役云渠輩亦人耳豈不矜矜雖堪半月形所用欄干屏風石毛簷蒙石外人物石皆述安 園負時以次排設若此則非役當過来月念前後其間足可恢恢為之此有旨祗受後勿為夜役石工等来頭賞典別單全毁列名書入各其名下懸錄實役日子及居住地方事下諭京都廳上来勿以摘奸逢點苦容過去揀一分放意弛心益加不懈以副予調攝中憧憧之念

十月十一日有 旨自再昨初寒若此石役今至幾許何當告完石工等處晝必煖酒以飼夜亦煮粥以饋毋或一匹一募之呵寒堂即別有役牌將負役工匠等本府裨校吏鄉使役人等名下懸錄日子卿等復命前雖明日修啓事

十月十七日 傳曰鶯峰石物之用於 園役始非人力所及今番以後以私用浮出若或如前狼藉則不但有違 先朝為主家禁護之受 教嚴飭地方官別定看護之人除非國用毋得浮出道伯亦於春秋奉審之行別遣褊裨摘奸後有無頃狀聞浮石處主家墳塋異於他家而聞石役後所見雜亂云亦令地方官士石則拂除以預備石物浮置許令取用於新邑公廨因此而又聞之主家人自始役日無日不等待無異盈董云新邑鄉校用處李運恒猶有酬其勞之舉況誠

勤於董役如許其家人收用亦好令該曹問名初仕見窠後日政卽為調用事分付

為者審以來如果合用沁石浮取置之若用沁石則轉運之時嚴飭利涉船格與本府給粮料之意一體分付可也

七月十七日都監堂上追後入　侍時都監堂上鄭民始昕啓石物浮出次本都監卽厳令方發送于江華府而事役浩多期日緊急凡百舉行若無本府之協力董飭則實有狼狽生事之慮申飭該府前守眼同舉行隨事協助以為速期浮出之地何如　上曰依為之本　園工役事體自別浮出及轉運之除匠手船格等令該府優給粮料事令廟堂行會可也

七月二十日入　侍時遞　園都監堂上徐有隣昕啓　服玩及　明樂器辛亥丙申兩年前例多寡不同今番則何以為之乎　上曰　明光　服玩本　園儀軌雖不載錄伊時

卷啓

七月十五日入　侍時都監堂上鄭民始昕　啓考見舊　園昕儀軌則石函中有　內下函一坐此則不必改備以舊函仍用似好故敢此仰　達矣　上曰依為之又昕　啓舊園上石物非但無可移用者計其程途日子勿論水陸運價有未及之慮勢不可不新浮以用凡干石物欲為取用於本邑鶯峰而至於　魂遊石自當以江華戈石取用若自都監發遣則厳匠手浮取則為蜂不些且昕浮不過一坐石令該府留守別定中軍監董使本府匠手浮出直為輸納本都監以為入用之地何如　上曰依為之鶯峰事　封標處不遠云而石品又可堪用是為可幸但　魂遊石浮取勢將依卿昕奏用沁都石物而鶯峰石物之合用與否景令送匠手卽

有別措奉　安者今不必新造以此措移歲而　魂遊石長明燈下從便前期奉藏可也

同日申時狀　啓提調金履素　民始昕　書吏文漢卿

卽該鶯峰石如或可用則沁石幷勿運諭理狀　聞事有旨當日申時堂臣等在　園昕祇受為白有如乎臣等下來後鶯峰石子有無詳細摠問則本府校吏吉內多以為大小石物盡數採取與否雖未詳知而石面之露出者數亦不些是如與日前京石子回告之言頗相逕庭乙仍于發遣該昕監造官及訓士將校使之摠問土面詳細看審後明日來告之意申飭以送是白有加乙仍于此　下敎若是諄復敎是白如乎鶯峰石子如可足用是白去乙雖不能全數浮出而如可以分半取用是如是白去等江華石子量宜減數移取於

鷲峰之意狀　聞擧行許料爲白乎旀緣由馳　啓

七月二十一日未時狀　啓　聯名上同

鷲峰石子有審事設造該昕監造官許士將校待其回告論理狀　聞之由昨已馳　啓爲白有在果卽者監造官以下回告內鷲峰石子摠聞土面許細者審則一塊大石露出地外者長爲十尺許廣爲四間許而去其麤遣則可用廣爲二間許厚爲二十尺許而間有罅隙石根則斷折毁八許狠脉盤據而地中昕在之多少石品之與露出者不異與否姑未能的知是白遣此外則或有石塊之散在者而皆是斫斫之餘俱不合用或有石尖之略露者而地中昕在之大小麤細亦未可預料是如爲白卧乎昕聞其昕告叅以意見則大浮石昕昕入盡毁浮出姑未可擬議而雖略干揀用是白良置毁殆過折半是白置昨日有　旨中既有不待狀　聞回下卽爲擧行之　命敎是白乎等以今方星火知委於江華府昕去浮石昕卽廳處　魂遊石及屛風石昕入石子僉使之自其處浮出爲白遣鷲峰段別定卽廳今方浮出許料爲白乎旀當初京石手之以全無昕用瞞告者殊極痛駭事過後各別懲治許料爲白遣自昨日始役而雨勢注下至今日尚未開霽土地泥濘役事未免不貲極爲悚惶緣由幷以馳　啓

七月二十二日酉時狀　啓　聯名上同

節該石材長廣若合用則以鷲峰石用之階石涉陡石求覓近處穴深宜淺不宜深事有　旨當日申時量臣等在　閤昕祗受爲白有如乎鷲峰石子浮出之意昨已馳　啓爲白沁都浮出之力水路船運之弊省費省勞亦當不些是白乎昕大石物昕用中　魂遊石段鷲峰石子旣有白絲紋不能純潔今番看審時昕見亦如此則決不可以此取用屛風石段容入石子其毁最多而此則當用一般石品決不可叅錯以用是白如乎鷲峰石子之多毁拯得與否旣未的知如或不足更爲浮出於江華則必致悤朝不及之患其在慎重之道次不敢爲姑試之計　魂遊石屛風石段依前浮取於江華府文武石羊馬甫石望柱長明燈及曲嶐等處階石段浮出於鷲峰是白如可或有石子不足之患通乎浮取於江華亦無昕妨此又是各隊石物則兩處石品雖或少有異同是白良置取考辛亥儀軌亦有叅用新舊石之例今此石品之少有異同似不如大段未安如是分排則江華浮石當減之乎等以別定監造官申文纔監董浮出次今日晩頭出送之除別看役丁過秦來傳旨手及兇械別爲下送方欲始役云乙仍于仍令該監造官出去量役而旣有一塊大石先以　魂遊石見揀浮出後以爲看審取舍之地次則浮出屛風石昕入而一邊別定看役將校搜聞土面尋出石脉若果如毁合用則大浮石昕入全毁浮出於鷲峰而江華浮石昕段狀聞存啓許料是白加尼今又伏奉　下敎姑待毁日詳審石品之合用與否卽爲陳　聞許料爲白乎旀　丁字閣不得開基之由朝已狀　聞待罪是白乎旀　穴深一事臣等旣伏奉　遣敎昨夕又伏奉　傳敎今方日與諸地卽商量合宜之道謹當待開金井時十分詳愼俾爲得中之地許料爲白如乎臣等方在待勤中宜不敢狀　聞是白乎矣事係有少有異同似不如大段未安如是分排則江華浮石當減之

昔祇受形止不敢泯默敢此封　啓尤不勝惶悚緣由并以
馳　啓
七月二十六日大浮石所設於鷲峰小浮石所設於鷲峰近處
如岐山之由馳　啓（啓本見三物条）
七月二十七日酉時狀　啓（提調企復素李文源）
節該屛風石中橫駕直竪者雖不及屛風石似可合用事有
昔當日申時量臣等在　園所祇受為白有如乎橫直石品
與間架濶狹從便為之事謹以有　昔內辭意一一分付於
別看役丁遇恭處為白乎於本都監提調臣鄭民始今日上
京之路委進鷲峰浮石所更審形止後即為通及之意相議
發行是白加尼即見所報則又得一大石面以今所見屛風
石及各樣石物並與無慮是如為白卧乎所莫重莫大之役
浮運之使近事力之省減誠萬萬多幸是白乎等以江華浮
石段即為撤罷率匠手因夜還来使之垂力浮出於鷲峰事
為先發關知委於江華府及該所即應處為白遣緣由馳
啓
八月初四日除治雜石故實役遲緩浮出石子僅為八九塊迎
為嚴督之由馳　啓（啓本見遣成条）
八月初七日辰時狀　啓（提調企復素鄭民始）
節該木物砲輸之貢尚未受去海州碑石不即輸入貽弊不
些運沙用牛無異空使此外民弊可知事有　昔當日寅時
量臣等在　園所祇受為白卧乎所臣等供以無似素乏才
識而猥當莫重之事上不能仰體　聖意下不能詳察庶務
不善舉行多貽民弊至於民怨之叅徹　宗聰莫非臣等不
職之罪誠不勝萬萬惶恐是白有如乎私養山材木價本所
下輸入之貲都監及本邑互相分給則必有淆雜之弊先自
本邑一併都下而都監當給之數別為開錄自本邑追後受
去之意相議傳當是白乎等以民人聚等待之弊未及探察
是白加尼今方嚴飭本府即為一一分給為白乎於海西碑
石段先運千餘立来到而都監車子十九輛許多木石之輸
入尚恐不及期限本府雇馬三十匹逐日運沙亦無餘暇叅
不喻都監卜定之物例自各其處輸納而海西碑石卸下後
陸運之費公穀會減雖無役此本邑儲置需用浩多邑中應
下亦多不足云他道駄價之又令督當力有不贍乙仍于運
来船度則即為還送領来差員姑為留待徃復本道推移駄
價以為輸入後自該道會減之地以此差員未免留滯是白
置即今差員與本府府使相議從便輸入後即為還歸為白
乎於運沙段令本府雇馬三十匹運来而雇馬之數不能如
數責立不足之代雇牛以充云卽為嚴飭此後則俾不得借
用民牛為白遣臣等段置另加惕念舉行詳料緣由馳　啓
八月初八日　砲遊石今日無事浮出各項石物今方嚴督浮
出之由馳　啓（啓本見補土条）
八月初九日申時狀　啓（聯名上同）
海州卜定碑石四千立差使員龍媒僉使黃重錫來里僉使
魚夏淵所已萬戶尹興商等分載領来自今月初四日至今
日辰次畢運無弊到泊於水原府鴻浦是白乎等以輸入之
道與本府府使相議區處後使之下去為白乎於緣由記
啓

同日回時狀　啓、聯名上同

節該石物浮未浮運未運畢役當在何日狀聞事下送事
有　旨當日已時量臣等在　園所祇受為白有如　下大小
浮石所石物已浮出未浮出數又開錄于後為白在　畢役
期限小浮石所段雖未可的知是白乎乃以今料量今月內
似可畢浮来月內亦是正錬是白乎矣大浮石所段　日日督
餙而謂以浮出之甚難是如即今所浮未及五六分　之一今
月內盡數浮出猶未可知正錬工役又非時日可期　之事則
訖工之限姑未可預料車子數少　丁字閣材木輸運尚未
及半未暇他役是白如可再昨日分出平車九輛作　為并車
五輛輸石次出送浮石所姑未及入来而浮石輸石　之役既
雖且巨又在數十里之外工役之急緩不得日日照　檢另加

董餙而每事不能逐限挫為渴悶姑觀逐日浮出之數隣次
狀　聞詐料為白遣車子貰馬姑未知幾輛幾匹之當来而
日今事役之遲速專係於車馬之多少若得優數下来則誠
甚多幸是白如乎緣由馳　啓

後
大浮石所
魂遊石一坐
鼓石四坐
望柱石二坐
滿石二箇
隅屏風石二箇
面屏風石七箇

引石七箇
正地臺石三箇
馬石一坐
已上已浮出二十九箇
魂遊下碑石二坐
長明燈一坐
滿石十箇
隅屏風石十箇
面屏風石五箇
引石五箇
碑加簷石一箇
龍臺石一坐

下碑石一坐
望臺高二箇
幽石四箇
正地臺石九箇
瓦簷衆石三十六箇
文石二坐
武石二坐
馬石三箇
帛石四箇
羊石四箇
已上未浮出一百二箇
小浮石所

圓柱石十四箇
方柱石四箇
曲墻隅石二箇
下碑石五箇
橋石四箇
毛老壘二箇
山神床石一坐
粧點石三箇
階石一百二十箇
月壘石七十箇
已上已浮出二百二十五箇
紅箭門柱礎石二箇

下碑石四十三箇
月壘石二百三十箇
拜位橋石十三箇
曲墻地壘及初階等石合一百五十箇
座次石四箇
板位石八箇
古冀石二十八箇
已上未浮出四百七十八箇

八月十二日申時狀　啓（提調佥僉事鄭民始李文添）
江華卜定碑石二千立差使員龍津萬户俞漢宗領運到泊於塢浦是白乎等以即為輸入計料為白乎旀緣由馳　啓
八月十五日申時狀　啓（提調佥僉事鄭素李文添）

事役形止前已馳　啓為白有在果石子浮出萬分急迫故二提調臣鄭民始另加董飭次再昨日進去鴈峰浮石所是白乎旀　丁字閣基址連為作等　碑閣亦為開基材木輸運已過三分之二而所餘木段不多日內畢輸入計料為白遣　穴前補土之役幾至畢役而　腦後及　穴左右砂以下被莎今為過半是白遣已輸入石子段圓柱礎十箇階砌石二十九箇是白乎等以隨入治鋪緣由馳　啓
八月十六日午風下碑石次第排鋪之由馳　啓（啓本見上同）
八月十七日辰時狀　啓（啓本見上同）
節該石物依　先陵制度各陳意見措一論理狀聞事有旨當日寅時量臣等在　園所祇受為白有如乎石物排設毀文諺依有　旨內辭意舉行而瓦簷蒙石事段臣等與石

所進去提調往復爛商後狀　聞計料為白乎旀緣由馳啓
同日戌時狀　啓（啓本見上同）
瓦簷蒙石往復爛商後延後狀　聞之由朝已馳　啓為白有在果地平之或犯　腦莎石物之捕減尺度二提調臣鄭民始既伏承　遣教別有役丁遇奉又奉　下教而来傳乙仍于相議磨鍊　園上圓往比　長陵尺量減三尺定為三十二尺屏風石所入各樣石子長廣亦減四五寸以此制度自圓往一面至　腦下尺量則比前料量別無加長而決免開拓　腦莎之慮是白乎等以石物浮出分方依此舉行為白遣瓦簷蒙石段尺數比地壘石差小而安於下碑石之上則以瓦簷之排設無尺度之加拓依例並用實為便好是白

乎孫羊馬帶石各減一竅則曲墻內排設亦無狹窄之慮臣等與二提調往復相議意見相合別無各自陳列是白乎所緣由馳啓

八月二十二日辰時狀啓 提調鄭民悅

節該瓦簷磚石以鶯峰石用之事有旨當日卯時量臣在鶯峰浮石所祇受為白有如乎浮石之役連為董督晝夜倥工瓦簷所入外屏風石各採石子未及浮出者為十餘箇而今則石脉露出施工稍勞限以三四日可以盡數浮出是白乎等以一遍中釘除卜一遍次次輸入為白乎孫瓦簷蒙石段謹依有旨內辭緣鱗次浮出於鶯峰以為入用之地計料為白遣緣馳啓

同日申時狀啓 提調金慎素李文源

石役形止前已馳啓為白有如乎石子名色毀文並為後錄呈啓是白加尼連輸之際照檢名色則小浮石所浮神門橋石及魯橋石誤以拜位橋石載錄乙仍于更為釐正登聞是白乎矣臣等昧然之失誠不勝惶恐是白乎孫方柱石段正手革不知碑閣間架初以四箇磨鍊故更加二箇浮出是白遣今十六日以後大小浮石卑連搬輸之數合為一百八十二塊是白乎所石子之已浮與未浮毀文開錄于後為白乎孫緣由馳啓

後

大浮石所

碑籠臺石一坐

下碑石一坐

文石二坐

武石二坐

面屏風石一箇

隅屏風石四箇

帶石一箇

正地臺石一箇

瓦簷蒙石七箇

引石四箇

滿石四箇

已上已浮出二十六箇

覲遊下碑石一坐

長明燈一坐

加簷石一坐

望臺高二箇

碑加簷石一箇

馬石一箇

正地臺石四箇

瓦簷蒙石二十三箇

滿石二箇

已上未浮出四十箇

小浮石所

方柱石一箇

瘞坎石四箇

板位石八箇

下磚石二十七箇
古莫石五箇
月臺石一百四十四箇
曲牆地臺及初階等石合六十五箇
神門橋石一箇
層橋石十二箇
已上已浮出二百六十七箇
下磚石五箇
古莫石十九箇
月臺石三十七箇
曲牆地臺及初階等石合八十五箇
已上未浮出一百四十六箇

八月二十三日未時狀 聯名上同
即該 砚遊下磚石勿用全石事有 旨當日辰時量臣等在 園所祇受為白有如乎 砚遊下磚石謹依補編 受教勿用全石以二坐磨缺而一坐則已為浮出是白遣一坐則今方浮出是白乎旀今日辰時為始兩勢注下有碍於補土車運搪輸心役誠不勝渴悶是白乎等以緣由馳 啓
八月二十六日卯時狀 啓 聯名上同
當日卯時 丁字閣定礎為白遣 碑閣定礎亦為向時舉行為白乎旀緣由馳 啓
同日十字石置標無論事出擧余 擧余見三物余
八月二十七日午時狀 啓 聯名上同
石役形止前已馳 啓為白有如乎令則大小浮石之役幾為畢大浮石之未浮者只是 砚遊下磚石一坐瓦簷蒙石三十一箇是白遣小浮石之未浮者不過古莫月臺階石等合二十九箇而已自二十二日以後車運搪輸之數大小合為一百四十一塊是白乎旀 砚遊石則今二十九日運入計料為白遣大中小三珠並為完竣昨已秩涉為白乎等以緣由馳 啓
八月二十八日小浮石未浮餘數昨今畢浮後該所監造官金相儼率匠手撤還內役事馳 啓 啓本見輸石条
九月初五日已時狀 啓 捴題使金煜提調金履素郎民伯李文源
事役形止已為馳 啓為白有在果當日 丁字閣月臺階石次第排鋪為白乎旀鶯峰大浮石之役已為畢浮而該所卽廳徐直修仍留董飭除卜是白遣自初二日至初三日體
大石運入之數文石二坐正地臺石二箇滿石二箇是白乎等以緣由馳 啓
同日八 侍時還 園都監堂上尹壐所 啓臣於八直時聞年老守僕輩之言且聞其時有役卽廳李鎭翼所侍則當洗朔長霖之時四方石工來赴者不知其數卽廳諭以莫重國役不可如是煩多且工人自有定數給糧者汝輩則無繼糧之路斯速退去云爾則石工輩咎以各自裹糧而來不必貽憂於 朝家云云渠仍使其中善手者摸寫 孝陵石人石物一依其鐫刻故本 園石物果亞於 孝陵而奇巧勝於各 陵所排云人心大可見故敢此仰 達矣 上曰埋置後別為標識以置分付可也
九月初八日大浮石所所浮石子令已除卜該所卽廳徐直修

率匠手撒還內役之由馳　啓（啓本見三物条）

九月十二日巳時狀　啓（提調金復素卿民伯李文源）

節該人物石安　園葬時以次排設勿為夜役石工等未頭別單列名書入益加不辭事有　旨當日辰時量匠等在園時祇受為白乎旀夜役停止之　命重出於恤念之　聖意教是白如乎當依有　旨內辭意擧行是白乎矣石品之剛韌倍常匠手之庸拙居多雖酌量排設之前後分定工役之次第而日暮漸短事功未半另加董督因夜鍊正是白良置猶有窃述之慮今若一切停止則恭以事竢實無及期之望誼當分番使役俾得以時休息以為咸被　聖恩之地為白乎旀来頭別單謹依　聖教擧行為白乎旀匠等段置益加警惕着念奉行計料緣由幷以馳　啓

九月十三日巳時狀　啓（掘謹使金煜提調金復素卿民伯李文源）

事役形止昨巳馳　啓為白有在果　魂遊石已始磨正是白遣屛風下碑石基址今日始役為白乎旀　水剌間守僕房方始盖尾緣由馳　啓

九月十四日巳時狀　啓（聯名上同）

屛風下碑石基址始役之由昨巳馳　啓為白有在果今日限三尺畢役後仍為灰等為白遣　水剌間守僕房畢盖尾丁字閣卅肯始役為白乎旀緣由馳　啓

九月十五日屛風下碑石基址今巳畢等之由馳　啓（啓本見造成条）

九月十六日屛風下碑石次第排鋪之由馳　啓（啓本見三物条）

九月十八日屛風下碑石畢排置正地塵石始排設之由馳　啓（啓本見造成条）

同日八　侍時摠護使金煜所　啓　長陵坐向卽間方因下敎引石刻間方童子石刻正方戴在儀軌矣今番則既無童子石間方位刻子引石正方位則刻寸滿石似合事宜而稟定後可以擧行故仰　達矣　上曰依為之

九月十九日屛風下碑石瓣次排設曲墻基址杆等始役之由馳　啓（啓本見三物条）

九月二十四日曲墻基址畢杆等地塵石始役之由馳　啓（啓本見造成条）

九月二十六日酉時狀　啓（提調金復素卿民伯李文源）

半月形正地塵石排鋪後面屛風石隅屛風石次第排設為白遣半月成　墳次等土始役為白乎旀緣由馳　啓

九月二十九日未時狀　啓（聯名上同）

半月形屛風石排設後滿石排置始役為白遣　丁字閣月塵簷階畢役後方甎排鋪為白乎旀緣由馳　啓

十月初一日申時狀　啓（聯名上同）

曲墻地塵階石畢排置後曲墻始役為白遣半月形滿石畢排置後引石排設始役為白乎旀緣由馳　啓

十月初三日午時狀　啓（聯名上同）

半月形引石畢排置後半月成　墳完等鍊正莎草盖覆方為始役為白乎旀自　穴前平地至　丁字閣後連為被莎為白乎旀　丁字閣內外方甎畢排鋪仍為塗褙月塵下香路等階鋪磚為白乎旀　碑閣簷階畢役禁川橋石等亦為畢役為白乎旀　大次齋室　香大廳並為一新修改典祀廳亦已修補今緻畢役為白遣自主峰以下內龍甫左右

並已種木而外龍帊素山諸處亦為鱗次種植許料為白乎
旀緣由馳　啓

同日曲墻畢築後改瓦之由馳　啓（啓本見三物条）

十月初四日半月形瓦簷棠石方始排鋪之由馳　啓（啓本見三物条）

同日　誌石攢四坐並盛石幽埋安　覩遊下碑石下後仍設
下碑石之由馳　啓（啓本見三物条）

十月初八日酉時狀　啓（想讀使叅濟恭提調鄭民始）

退　墳上前面石物始役之由緣已馳　啓為白有在果編
結本及圍排鋪把手撤去後正地臺石三箇畢排置為白遣
因日暮依例姑為停役緣由馳　啓

十月初九日酉時狀　啓（想讀使叅濟恭提調金慶素鄭民始李文郁）

前面屛風石盡為排置限屛風石實土後姑為停止為白遣
石物段仍為夜役緣由馳　啓

十月初十日酉時狀　啓（聯名上同）

前面滿石五箇畢排置引石仍為夜役入排許料為白乎旀
緣由馳　啓

十月十一日酉時狀　啓（聯名上同）

今日引石畢排設後　隧道閉撤去仍為　墳上封築而被
涉段因日暮待明朝始役許料為白乎旀帊石羊石并為排
置為白遣瓦簷棠石亦為鱗次入排緣由馳　啓

十月十二日巳時狀　啓（聯名上同）

即該石役今至何境工匠晝宿以酒夜饋以粥使役人名下
懸錄日子修啓事有　旨當日辰時量臣等在　園所祗受
為白有如乎瓦簷棠石一兩日內可以畢排錄正　覩遊石
文石馬石已為訖功是白遣武石長明燈及盖石望臺高
碑加簷石雕琢之役今已過半三四日內似可告完而日氣
猝寒不能刻期極為悶迫今方速為董督為白乎旀石工處
銅酒饋粥等謹依有　旨內辦意着實擧行俾無呵寒之弊
別單亦即修正呈　聞許料緣由馳　啓

十月十三日酉時狀　啓（提調金慶素鄭民始李文郁）

瓦簷棠石今日畢排設　覩遊石文石馬石亦為排設為白
遣曲墻內被涉草為白乎旀武石運致　園上而因日暮姑
未及排設緣由馳　啓

十月十四日酉時狀　啓（聯名上同）

望臺高排置後望柱石竪立武石長明燈一體排設坐向石
埋安於　覩遊石左邊為白如乎今則石役告完被涉及各
處修掃連加董飭明日內期於畢役安　園奠十六日曉頭
設行許料緣由馳　啓

補土条

筵說

己酉七月十三日省山大臣以下入　侍時　上曰丁方柒山以珠成格珠之為物以圓潔明澄為貴若種木成林則易致隱晦但被莎草常使光顯易見似好卿等預為知悉趕當分付於　園官矣

同日入　侍時　上曰治山之道順其勢而已補土之必務萬大予以為如何矣況此山地　穴處乳下開窩妙在陰陽相傳開土之際乳頭勿為穿鑿　穴唇餘氣宛轉生動若過為補土則易失天成之巧因本形被莎然後為好知悉舉行可也

七月十五日省山大臣都監堂上漢城判尹入　侍時　上曰珠之形體以瑩澈明朗為貴種樹則易致陰翳對珠之上如有樹木則不如被莎之為愈矣都監堂上鄭民始曰珠上有四五株樹此則不必去之臣曾見　定和陵青龍砂砂端融結處亦如珠形上有松樹圃密成林以此推之數株之樹不足為陰翳矣　上曰吏為看審從長為之可也

承傳

八月十七日有　旨補土之役幾許為之而案對三珠中大珠因民家之在珠下不無曾前用土之事此前稍低問于地師不可不加築鋪莎草小二珠亦然加築尺數擇地師相議停當後始役形止狀聞

九月二十日別論　園所植木所用橡實一百十四斗分入八石下送冬植春植間便宜為之播種處別為標識事都監堂上知悉

八月初八日申時狀　啓（提調金礪素鄭民始）

事役形止前已馳　啓為白有在果　穴前補土之役連日董督今既過半腦後以上除草處及　穴左右砂以下自明日為始被莎詐料為白乎旀材木段已輸入者九十七株未輸入尚為數百株而以數十輛車子一日不過一番往來材木畢輸查無其期簪階柱礎等石子又將輸入而車子不足事役遲滯誠甚悶悶是白乎旀大淨石兩　魂遊石今日無事淨出萬萬多幸是白遣各項石物今方嚴督淨出為白乎旀緣由馳　啓

八月初十日都監堂上李文源所　啓九月望後節候可以種木而局內可種之處極為陷大如非衆力一二年內無以畢種臣意則本府與安山陽城廣州南陽果川振威龍仁等附近邑合力種之然後移種之木自有廣覓之道董邑大小自某至某分麓定給使之種木令秋未盡種則明春種之明春未盡種則明秋種之庶可畢種種木時各邑擇送勤幹監色掄餘種之守令亦為間間親審仰無怠慢之弊春秋耆審時如有枯損之處則該邑分掌監色從重科治之意分付畿營預為知委於各該邑使之及期舉行運木與種木軍量給粮米恐合事宜敢此仰達矣　上曰依為之

八月十八日申時狀　啓（提調金礪素鄭民始李文源）

三珠加等形止狀聞事有　旨十八日辰時量臣等在　園所祇受為白有如乎　穴星補土今已畢役腦後及左右砂以下亦幾被莎是白乎旀案山補土則最初始役完畢已久是白遣主龍東邊沙汰一處內青龍沙汰二處內白虎沙汰

七月十七日都監堂上退後入　侍時都監堂上鄭民始所啓　園上所用莎草自當取用慕華館莎草而雖徑略磨鍊只用於　園上近處其數將為萬餘張限一萬五千張令遷　園都監臨期貿取以為船運下送之地何如　上曰依為之

七月二十八日都監堂上鄭民始所　啓慕華館莎草限一萬五千張浮出船運下送之意前已　稟定矣若欲臨時下送而水路凍氷則易致狼狽必於十月初使之即為下送莎草之浮出日字許久必多枯損　園上所入則決不可以此取用此則限二千張臨時浮出以各軍門及司僕寺卜馬駄送之意并為知委於遷　園都監何如　上曰依為之更思軍門卜馬使用既多令司僕寺卜馬中別為給價駄運可也

三處外白虎舊路穿鑿一處亦已次第畢役是白遣主脈西邊大路穿鑿二處及此餘小小泧脫處鱗次補土被泧計料是白乎旀三珠中北邊之珠最被居民之破鑿多失本體居中大珠與南邊小珠亦有被損處故臣等方議補築而事體重大不敢自下擅便登　筵陳達後擧行計料是白加尼伏奉　聖敎臣等更率諸地師往審三珠爛商後舊樣長廣尺數與當為補築尺數開錄于後自明日始役為白乎旀緣由馳　啓（後啓見下錄石条）

八月二十七日大中小三珠並為完築昨已被泧之由馳　啓（啓本見泧石条）

九月初七日　文禧廟　奠酌禮入　侍時遣　園都監堂上尹弼商　啓泧草事與戶工判有所酬酢矣自　列聖朝以後每當如此之時浮出慕華館泧草者蓋出於茶薗漆沮魚之　聖意也大抵慕華館地方甚狹浮泧處不多年年各陵陵役時每用此泧舊浮處新生之泧根不廣盤葉不盛茂今當浮送水原之役決不能盡浮所當浮之數矣且　健元陵上只用此泧而幷風石以下全用他泧則今此水原所產之泧草比諸慕華館別無優劣臣愚死罪窃以為大聖人立法必為萬世美範故敢此仰達矣　上曰卿言好矣自京都監往復　園所都監慕華館泧草浮出張數更為量定浮用可也又所　啓伏聞退後所浮泧草將以馬匹輸運云百餘里馬運之時根土必盡落方隅必致傷似不及車運之穩置板上根土方隅必無傷落之理故敢此仰達矣　上曰此亦往復從便為之可也

九月十三日酉時狀　啓（捕盜使金嘉稷調金慶素鄭民始李文源）

主峰以下內龍虎自今日為始植木緣由馳　啓

九月二十日未時狀　啓（提調金慶素鄭民始李文源）

園所局內補土之由前已馳　啓為白有在果来龍補土五處內青龍補土二處中青龍補土一處內白虎補土五處中白虎補土三處外白虎補土一處內案山補土二處外案山補土二處合二十一處並為被泧今已畢役緣由馳　啓

同日申時狀　啓（聯名上同）

別諭二十日午時量臣等在　園所祗受為白有如乎謹依傳敎內辭意當擧行為白乎矣冬寒在卽不若待春播種是白乎等以沉水經日以制生虫之患埋置向陽處待解凍種植計料為白乎旀緣由馳　啓

輸石条

承　傳

己酉七月二十六日小石物外體大石物治石仍於浮石所為之待程路堅凍運致事有　旨（有三物条旨載）

八月二十八日無春秋金風頗来傳　傳敎曰　砲遊石明日當輸運云聞穩卽然後幢幢之心庶可小弛今方別運史官待此意卿等亦須惕念期於利便運致後軍人優給雇價其餘校吏卒別為施賞之意令　園所堂上知悉

八月三十日　傳曰　砲遊石今日當運致豈勝幢幢況上探在明凡事无為致精運致穩稳形止卽令甕營星火探問砲遊石外體大石物未運致者為幾許此後以穩運形止陸續狀聞事亦令甕營卽為傳發知委都監

九月初一日有　旨卿以　魂遊石外體大石物運致事馳啓矣體大石物之一凾運致此心憧憧始欲鬢白　魂遊石則事體自別不可不除卜後輸入鍊正而其他未運石物中體大者鍊正後輸入未知如何事勢如難便則每輸入時堂上或本府使中出往各別看撿俾無一毫踈忽之弊　魂遊下磚石兩庀猶體大下鋪之石長廣大小亦無所閑自全庀改為兩庀猶出於恤民弊之　聖德則況本　園事役之必欲無弊卿等亦必量知既用合　園之制則亦宜用深量下磚石令凾用四庀分庀後從便分運未必不為省力之一端亦未知如何卿等知此意便宜決定從後具意見狀聞

九月初一日功過相準輸石監造官領運校吏等勘罪并分揀事有　旨有　旨有　旨

槐遊石領運離發之由朝已馳　啓為白有在果當日酉時量　槐遊石無事運八　園所為白乎旀許多軍人中無一名致傷者誠萬萬多幸緣由先為馳　啓為白乎旀雇軍之從厚給價該掌校吏亟率別為施賞段追于舉行後即為陳聞計料并以馳　啓

同日夜時狀　啓（聯名上同）

都該體大石物未運致者為幾許此後穩運形止陸續狀聞事亦令譏審即為傳說知委都監事　傳教是白有亦體大石物中未輸運者正地塹石二箇滿石三箇長明燈一坐文石二坐　槐遊下磚石二坐龍塹石一坐是白如乎待其運八麟次狀　聞計料為白乎旀緣由馳　啓

同日夜時狀　啓（聯名上同）

都該體大石物除卜輸八而堂上或本府使中出往各別看檢下磚石用四尺從便分運省力事有　旨當日申時量臣在　園所祇受為白有在果石物鍊正後輸八則恐或有致傷之慮乙仍于只為除卜輸八實由於此是白乎所目今未輸八體大石物未滿十箇叙不喻論其輕重與正地塹石無所加焉俱是大車所可載不必為慮是白乎矣有　旨內辭意若是諄復排日運八之除臣等與本府府使互相往來另加檢飭計料為白乎旀　槐遊下磚石二尺各長五尺九寸廣四尺五寸高為一尺三寸是白乎所亦與正地塹石廣雖大而厚稍薄其為運輸之道別無所難不必分作四尺依前以二尺磨鍊似為合宜是白如乎提調臣金履素鄭民始有稟達事緣已上京不得聯陳為白乎旀正地塹石二箇滿石一箇今日輸八為白乎等以並只緣由馳　啓

九月初五日自初二日至初三日體大石運八之數文石二坐正地塹石二箇滿石二箇之由馳　啓（啓本見浮石条）

九月初六日體大石物昨日運入之數長明燈一坐　碑加舊石一箇龍塹石一箇之由馳　啓（啓本見造成条）

九月初七日　槐遊下磚石二尺龍塹石二箇昨日運入體大石子令既盡輸之由馳　啓（啓本見造成条）

九月十二日大小浮石所各揀石子令日畢輸入車運次知三軍門將校各一人擔運次知左右捕廳部將各一人軍士各二名解送之由馳　啓（啓本見造成条）

附儀軌

己酉十月初九日　園都監儀軌別單　傳曰令畜儀軌務從纖悉自遵既至儀節及各項造成制度尺數以至來歷意義無不一一備載事令京鄉都監知悉

同日　傳曰令當各都監儀軌致精務詳之意才有判下作事日而堂上委出勿拘前例京都監則戶曹判書徐有隣次堂上都廳李晚秀李益運分掌親自編纂外都監則行副司直鄭民始次堂上郎廳則未知誰某之可合令主管堂上差定二三人就議摠護使草記啓下皆令來月內畢修正入啓因又筆抄後考之式送于內閣載之日省錄

十月十七日　園所都監郎廳以摠護使意　啓曰本都監儀軌郎廳令主管堂上分定二三人就議摠護使草記啓

下事　命下矣工曹正郎吳在文　英陵令金鑿差下使之察任何如

同日　圍所都監儀軌事目別單

本部監儀軌修正時應行諸事磨鍊後錄為白去乎依此施行何如　依所啓施行為良如敎

一處所乙良恵民署良中設句為白齊

一儀軌修正時堂上行副司直鄭民始都廳行副司直俞淡談徐邁修仍為檢察為白齊

一儀軌次知郎廳工曹正郎吳在文　英陵令金鑿泉下使之察任為白齊

一堂上都廳郎廳乙良依前例儀軌事單間除本司仕上直凡公會勿參差　叅安徐為白齊

一堂上郎廳印信各一顆仍為行用為白齊

一儀軌四件內一件　奎章閣其餘三件春秋館江華府史庫禮曹等處依例令上為白齊

一　奎章閣件則草注紙令上件則搶注紙而行用紙地筆墨乙良令各該司進排為白齊

一　奎章閣件書寫寫字官一人書員一人令戶兵曹給料米書寫四人書吏三人庫直一名使令二名以有料布衙門捉來使役為白齊

一守直軍士四名令各該曹定送為白齊

一未盡条件乙良追後磨鍊為白齊

十二月二十七日　圍所都監儀軌廳郎廳以摠護使意啓曰本都監儀軌四件中　奎章閣所上　御覽件令繕寫修正分作二冊粧潢以入而其餘春秋館禮曹江華史庫件待畢修正并為分上之意敢　啓

關甘

籍工監牒呈本監監役李端亨本都監別工作令矣為有置相考施行事　牒呈

長興庫牒呈本庫直長金英行本都監分長興庫分矣為有置相考施行事　牒呈

兎署牒呈本署別提崔孝閔本都監牒兎所分差為有置相考施行事　牒呈

右甘為本都監都廳謄錄所付書吏尹學朱申翰周金萬城及有頃代書吏金振聲韓碩麟鄭得元金碩白興允金孟珊書寫金麗潭庫直金庚赫金弘基使令宣惠廳兵曹各二名戶曹司僕寺掌樂院平市署各一名左右捕盜軍士各一名守直軍士四名京都監書吏韓縱興朴東臣金聲夏使令戶曹

軍器寺各一名各其司掌吏都使令即刻領付為於錄事一
人計士二人亦為定送事
右甘為本都監會同坐起明日早朝吏曹良中為之帀出令為
有置郎廳監造官分差官進不進舉案郎為昏呈為於遮帳
鋪陳待令舉行而文書所用楮注紙一卷白紙三卷厚白紙
二卷白休紙五介堂上都廳印信各一顆硃朱紅一斤馬鬃
五兩印朱器物子各二箇座目大粉板粉牌各一面紙帘次
厚油紙一張儀軌假衣次監試落幅紙二度闈帖字各一箇
謄末三件狀　啓所用揀鍊紙二卷油紙二卷草席十立紅
小索五艮衣狀　啓板十部黃筆二十柄真墨一同堂上都
廳文書房點火木爐炭依定例進排為於廂間二間茶毋間
一間下人入接假家三間及軍士守直假家一間圍排把子
亦為排設而依蔡所用方席各每案息各二件陶東海所羅
方文里各一箇尾帝二柄揩子具鎖鑰三部柳箕二部紫硯
硯匣具三面當刻內進排事吏曹　戶曹　禮曹　工曹　兵曹　刑曹　掌隸院　校書館　內資寺　內贍寺　司僕寺　義盈庫　觀象監　典圖署　濟用監　其人　京畿監營了移文　圍所始役及　封標在二十日而本都監
堂上郎廳以下十九日出去為去乎同夫馬依例整待事
右甘為本都監負役工匠不時使役晝夜擧行故犯夜勿禁帖
從略成給依此勿禁事　訓鍊都監　禁衛營　左右捕廳　兵曹了移文　圍所始役之後別設擺撥事草記是在果能走
驛卒四名分立於京都監及敦義門城門下鑰後相應傳致
事
京畿監司牒呈今此新　圍所因　傳教別設撥所六站而每
站各立撥將一人馬五匹是乎等以同撥所後錄牒報事　手決
付到
自　圍所站至上柳川站二十七里
自上柳川站至彌勒堂站十五里
自彌勒堂站至軍布川站十三里
自軍布川站至果川站十五里
自果川站至銅雀站十五里
自銅雀站至京營站十五里
京畿監營了移文各站撥馬因　傳教撤罷云本都監事役尚
未了卑時急狀　啓無以傳督步撥軍量宜分排立把事
京畿監司牒呈郎到關內節該時急狀　啓傳旨次步撥軍量
宜排立亦為有等以　圍所站新邑站沙斤站果川邑站京
營站五站良中各將一人卒二名分排使之舉行事　手決到付
京畿監營了移文今十六日曉頭宿　圍奠過行仍為復　命
計料為去乎夫馬依例待令事
水原府了移文新古　圍所外白虎後坪官路到關即為防塞
而外青龍大路即為修治以通行路為於內白虎近處及越
邊望見處人民墳塚段　圍所未始役前即令遷移事
禮曹京畿監營了移文　圍所火巢定界事草記蒙　允為有
如乎本都監使役了卑似在不日到關即為出來以為眼同
擧行事　京畿觀察使　禮曹堂上　京畿監司　水原府出來
右甘為今十五日　圍所火巢定界是如乎地方官眼同擧行
為於量尺等屬亦為待令事　水原府
水原府了移文　圍所火巢定界後狀　啓是如乎狀草後錄

行移相考施行事 後錄見狀啓 右事實
禮曹牒呈節 啓下教令此還 園時各項擇日後錄牒報事 手決到付擇日見時日
禮曹牒呈節 啓下教曹箚子令此還 園時下 去宮吉日時以來十一月初二日巳時推擇 啓下矣 虞祭吉時間于日官則同日未時為吉云以此時設行事及 園所斬草破土令七月二十六日巳時祠后土 祭同日晩頭設行事 啓下矣 祭物祭官等事令各該司及京畿監營舉行事及議政府舉百官宗親府儀賓府忠勲府敦寧府及京畿監司進 香事 啓 傳曰依所啓施行事 啓下為有置 啓下內辭意奉審施行事 手決持甘吏曹義禁營
右甘為 園所斬草破土令二十六日巳時祠后土 祭同日晩頭設行是如乎祭官依例差送事 吏曹
禮曹牒呈節 啓下教令此還 園教是時 丁宇閣開基日子改付標 啓下為有置後錄牒報事 手決到付擇日見時日
禮曹牒呈節 啓下教曹 啓曰作 筦家擇日以九月望間更為推擇事 啓下矣即令日官推擇則來九月十七日庚子卯時為吉云以此日時原箚子中改付標以入之意 啓下為有置 啓下內辭意奉審施行事 手決到付擇日見時日
禮曹牒呈節 啓下教令此還 園時擇日改推擇 啓下為有置同各揀擇日後錄牒報事 手決到付擇日見時日
禮曹牒呈節 啓下教因 園所都監狀 啓作 筦家外梓宮陪進下外 梓宮吉日時更為推擇 啓下為有置後錄牒報事 手決到付擇日見時日

禮曹牒呈節 啓下教曹箚子令此還 園教是時發鞘習儀只一度事 命下矣習儀吉日令日官推擇則來九月十八日為吉云依前例百官除良諸執事人員令同日早朝以白布冒領烏紗帽黑角帶自還 園都監排設處至興仁門西行禮為白乎矣各項儀節一一肄習事知委擧行何如 啓依所啓施行曹箚子令此還 園教是時 園所自 園上詣 香大厲習儀及新 園所自 丁宇閣上 園習儀吉日令日官推擇則來九月二十日為吉云以此日知委擧行為白乎矣處所乙良都監良中設幕次諸執事令以白布圍領行禮何如 啓依所啓施行事 啓下為有置 啓下內辭意奉審施行之由牒報事 手決到付
還 園都監來關節 啓下教還
禮曹牒呈節 啓下教本都監 啓辭內作 筦家初三日太遠令京都監更擇可合日字數日下送自都監畫宜為之事 命下矣作 筦家吉日令日官推擇則令九月初七日辰時同月初八日卯時為吉云以此日時知委于 園所都監之意敢 啓 傳曰知道毋論初三日初七日初八日令本都監商量事勢從便為之事分付教是置 傳教內

辭意奉審施行事 手決到付

遷 園都監来關節 啓下教本都監 啓辭內外 梓宮陪進吉日下外 梓宮吉日 鼓鞘習儀吉日更為推擇事命下矣即令日官推擇則外 梓宮陪進九月十六日辰時下外 梓宮同月十八日卯時 鼓鞘習儀同月二十日卯時為吉云以此日時擧行自 園上詣 香大厲習儀自丁字閣上 園習儀曾以九月二十日 啓下矣依前擇日一體擧行何如 傳曰允亦教是置草記內辭緣及 傳教內辭意奉審施行事 手決到付 右時日 禮曹牒呈節 啓下教曹 啓辭令此遷 園時 丁字閣上 擇文令藝文館製進書寫等事亦令 園所都監擧行何如 傳曰允事 啓下緣由牒報事 手決到付

吏曹牒呈今月二十六日行祠后土 祭時祭官磨鍊後錄為去乎相考施行事

獻官 觀象監正李非德
典祀官漢大祝奉常主簿李顯采
齋郎 觀象監教授田永熙
祝史 觀象監教授朴興素
贊者 觀象監僉正崔宇玉
謁者 觀象監判官皮景厚

禮曹牒呈節 啓下教曹單子令此遷 園時各項祭奠依辛亥年例祭酌磨鍊為白去乎 祭物祭官 祝床卓 祭器排設等事令各該司依例擧行為白乎矣亦令都監檢飭知委事 啓下為有置各項 祭奠後錄為去乎相考施行事

手決到付

丁字閣上擇祭
先教山祭
花山祭
謝后土祭
廣祭
安 園奠

遷 園都監来關因貴都監 啓辭 丁字閣上擇文書寫等節自樊都監擧行是如乎該所郎廳前期入送以為陪去上擇文之地事 手決到付

京畿監司牒呈新 園所洞口外大紅箭門竪立事丁五十名地方官擧行一款分辨中 扶下教是遷以都監募軍擧行之意且有 遷教教是乎等以緣由牒報事 手決到付 洞口外大紅箭門竪立事丁五十名地方官擧行 遷教

禮曹牒呈節 啓下教是乎等以 園時 靈擧時過名山大川侍從祭處祭文才已親撰部字內則侍從堂上人為獻官堂下侍從為大祝水原光教山及花山令 園所都監堂上為獻官都廳為大祝事 傳教教是置受 香等節自都監臨時擧行緣由牒報事 手決施

吏曹牒呈今此遷 園時各差備官內 傳教都監都廳郎廳監造官分差官中填差後錄牒報為去乎相考施行事 手決到付

紙 牓書寫官行副司直尹師國
開封官無封閉官執 義朴聖泰
拭 梓宮 官右 議政金鍾秀

拭　梓宮執巾者司宰直長宋欽書
拭　梓宮執水者副司勇朴秀亨
紙牓出納及告啓贈大祝副司果李濟萬
舁　梓宮官別軍職李堯憲
宣傳官李光益
捧贈玉官直閣李晩秀
舉案者副司果李廷恢
掌樂僉正鄭東愉
褥席執事副司勇金相儼
捧贈帛官副司果徐邁修
舉案者副司果吳在文
副司果金　鑿

褥席執事司饔奉事申文顯
箱差備官尚衣僉正李恒演
座子帕卓差備官副司果李昌會
捧衣函及銘旌執事濟用直長李始源
羽葆捧持官假監役宋載緯
吏曺睬呈因禮曺啓下單子新圜所各項祭祭官磨鍊
後錄為大小相考施行事
丁字閣上樑祭
獻官行副司直金履素
讀上樑文官副司果徐邁修
展上樑文官掌樂僉正鄭東愉
副司果李廷恢

祝　史副司果吳在文
齋　郎副司果金　鑿
賚　者副司正呂駿永
謁　者副司勇金相儼
光教山祭
獻　官行副司直鄭民始
大　祝副司果徐邁修
祝　史副司果李廷恢
齋　郎副司果吳在文
花山祭
獻　官行副司直李文源
大　祝副司果俞漢謨

祝　史掌樂僉正鄭東愉
齋　郎副司果金　鑿
謝后土祭
獻　官副司果吳在文
典祀官無大祝奉常奉事李錫心
祝　史長興直長金泰行
齋　郎禮賓奉事曹允植
賚　者尼署別提崔孝閔
謁　者恩覃敎授朴仁素
虞祭
亞　獻官領議政李在協
終　獻官左議政蔡濟恭

贊　禮禮曹判書鄭昌順
典　祀　官奉常　正徐郁修
園　令　司別　檢張錫胤
執　事　禮直　閤李晚秀
　　　　博修　撰李白運
大　祝　祝奉章閣待教金祖淳
　　　　史校　理徐配修
齋　郎　郎校　理李遇濟
盥洗　位　位禮曹正郎延東憲
酌　洗　位禮曹正郎趙慶逵
亞終獻盥洗位工曹正郎白慶楷
贊　者引　儀崔　瑽
謁　者引　儀尹之潮
　　引　贊儀中大夫
贊　者引　儀李孝達
　　引　贊儀李英考
祭　官　監監　察南景義
　　監　察崔吉憲

安園填

獻　官行副司直鄭民始
典　祀　官奉常判官沈　鉉
園　令　司　令洪就榮
大　祝副　司　果徐邁修

祝　　史工曹正郎吳在文
齋　　郎掌樂僉正鄭東協
執　事　者長興主簿宋欽書
謁　　者　參陵令申文顯
祭　　官監　察宋東胤

京畿監司牒呈光教山及花山　祭物鋪陳床卓器皿等物分
定本府各別精備使之進排緣由牒報事　手決　刻付
京畿監司牒呈令此　園所所用行步席事孽職向來營　建
時有往復都監從便舉行事伏蒙　題教是如乎自　丁字
閣上　園時當以肩舉奉陪自何處至何處用行步席足乙
喻用與不用尺量數又指的題送以為舉行事　手決自丁字閣以有舉
本陪則待步席亦自丁字閣月梁至隧道閣前面排設依此尺量磨鍊則以木尺為四百五十尺以此舉行

錢七千兩今二十日早朝及良輸送都監其餘則鱗次輸送事

眼恤廳米一千六百石
錢一千兩
正木十五同
御營廳米一千五百石
錢一萬五千七百兩
正木七十同
平安監營正木三十同
全羅監營正木十三同
統營正木十五同

訓鍊都監正木十同
禁衛營米一千五百石
錢二千兩
正木十五同
戶曹米一千一百石
兵曹正木五十同
兵營正木二十五同
慶尚監營正木二十同

戶曹了移文 圍所所用真草苐四百浮以好品廣大者各別

擇送事

遷 圍都監來關本都監所用米木錢一依丙申年例木四十五同米七百四十石錢一千五百十兩以京衙門所在即為劃送以為取用之地事 于次戶曹米七百四十石全羅監營木三十五同訓鍊都監錢一千兩御營廳米一千五百石錢一萬五千七百兩正木七十同平安監營正木三十同兵營正木二十五同慶尚監營正木二十同統營正木十五同

五軍門戶曹京畿監營了移文本都監所用網具空石杻把子取用於各軍門戎營之意 遵禀定奪後施以分定為去乎到即輸送事

訓鍊都監三百立
御營廳五百立
摠戎廳一千立
京畿監營七十立

禁衛營五百立
守禦廳一千立
戶曹一千立
杻把子四百浮

半月 境所入杻把子二浮各長十四尺廣二十尺均役廳來關節到付移文內節該本都監所用沙草價錢六百六十兩以本廳錢下送水原条中摸用次輸送遷 圍都監亦關是置有亦樂廳劇給水原条錢中六百六十兩依移文輸送于遷 圍都監為去乎戶曹都監還報水原以為營廳之地事 于次到付

右甘為 圍所內補土所用積心木價一百十二兩三錢並以出給為去乎招致民人一一分給事 水原京畿監司關是本都監所用網具空石分定各邑後修城時上送事 于次到付

網具空石七千立內

廣州一千立
驪州一千立
坡州七百立
交河四百立
陰竹五百立
杻把子四百浮
利川三十浮
楊州五十浮
抱川二十浮
積城二十浮
高陽二十浮
坡州四十浮
長湍三十浮

高陽四百立
楊州一十立
楸根一千立

砥平二十浮
永平二十浮
漣川二十浮
交河二十浮
陰竹三十浮
驪州三十浮
豐德三十浮

竹山二十浮
半月　增編結扭把子二浮龍仁

忠清監司牒呈節到付備邊司關內乙用良　園陵都監所入空石七萬立分定各邑及數文成冊修正上送事（手次此是移邑所用依成冊捧上之意知委本廳）

忠州七千文　洪州五千文
清州四千文　公州二千五百立
清風一千七百立　禮山一千立
堤川扵山各二千五百立　連山大興各五百文
鴻山林川韓山舒川沔川瑞山牙山恩津各二千二百立
扶餘石城保寧結城定山德山唐津平澤沙陽新昌丹陽
永春藍浦泰安庇仁海美各一千六百文

黃海監司牒呈即因備邊司關　園陵都監所入空石四萬文內分定各邑使之星火輸納於水原船所為矣扵分定都成冊修正上送事（手次此是移邑所用依成冊捧上之意知委本廳）

筏津四千立　康陵三千立
海州延安白川各七千立　金川平山各六千立
備邊司丁移文京倉米穀之輸米果有樊蹟故欲為從便捜用之道而以今番賑廳米全船來納者觀之良置間多麤劣者勢難點退不得不都捧正募軍給料矣乘以米多捆然而本府軍餉米乃是還穀是如乎大同米之捧為者猶不能受則還米之給料尤非可論惟是以錢代給捧從優例似或穏受乙仍于御營廳區劃米段已以每石五兩式依該營所額使之代錢以送是如乎禁衛營區劃米段置一依御營廳例代錢以送則事甚便當旋以回移為去乎到即區處以為講用之地事

禁衛營來關節到付移文內節該本都監分定米中一千石先為輸送亦為有等以米一百四十石以本色前已輸送是遣餘米八百六十石依備局草記每石價錢五兩式合四千三百兩以錢代送為去乎相考捧上後即為回移以為恐考之地事（手次捧上到付）

御營廳來關本都監分定米每石五兩式以錢代納事自備局草記蒙　允為有置依移文米一千石價錢五千兩先為輸送為去乎相考捧上事（手次捧上到付）

備邊司來關令番　園陵都監及水原移邑時所用空石依定奪分排下定於湖西海西沿邑及湖南初境沿邑而分定空石船運到泊浦口後待　園陵都監指揮舉行之意行會各道矣即開各邑空石到泊浦口而點入水原為邑之地價責出於各邑頃來藍色云若然則船運藍色何以辦陳運之物貴乎捧以事而大有違於當初行會之意故如是關為去乎分定空石隨其到泊浦口自本府別定卿色捧留海倉放用於　園陵都監役事或用於本府移邑移民時事一從　園陵都監知委舉行為乎矣陳運之費則以本府儲置米或會付穀中會減上下事發關錢營為有置自都監一體知悉分付本邑陳運價勿責於各其船運藍色處事（手次依關辭知委本道之意）

广虐了移文本都監木石輸運之役萬分時急數十輛車子萬無輸入之道故以雪馬擔運並力輸來而前日出送熟麻八

百十餘斤實無分排遠送之勞兹以移文卜定熟麻中限一千斤為先出送及時入用之地事

御營廳了移文以補土物力之不足本營錢五千兩移文取用事　遷栗定等矣補土役繁用處時急同錢五千兩到關即為出送以為繼用之地事

遷　國都監來關本都監兩營　大舉軍以下各差備伴等料米原缺則數甚夥然故禁御兩營分排是在肯部監木輸去米各五百石姑留以待往復之意緣已知委是在果即關忠廳米中亦有所餘者云此則仍留該廳以為本都監取用之資是遣其代則兩營米中許數撥用實為京外俱便之道故兹以移文為去乎循諒事勢依此許施為旀旨　國兩所用空石自京萬無盡數辦得之路而忠清道藍浦縣所納空石一千六百立來到京中故自此捧上後書目題送為有置肯都監分定之數似無不足之慮而輸致等錚亦不無嫌端依此數仍為取用為去乎相考施行事　手決本都監當用數為語多米余則實無加送之道是如乎旀旨施之意細悉

廣州南陽安山振威龍仁陽城水原丁移文本都監夜役所用炬子勿論松枝水隨束隨納俾無間斷停役之弊為乎矣廣州四千柄水原四千柄南陽二千五百柄陽城三千柄安山二千柄振威二千柄龍仁二千五百柄分定而炬子換輸運之價從當自都監準數區處惕念舉行事

兵曹牒呈曹中本儲之物然如前無異新木而不以一同來納更無推移之道本色輸送萬無其勢以錢代納之外實無他道事　手決事勢如此而旀施行

統營丁移文本營分定木十五同上來後劃送之意移文遷

國都監矣該都監不待本都監劃送直關本營經先取用有此營來之擧事當遂送而本都監木儲枵然以上來木十五同仍為取用之意　遷栗定等後仍即捧上事

宣惠廳牒忽廳戶曹丁移文元分定賑廳米二百餘石戶曹米三百餘石運致極難兩處餘米並移送宣惠廳以代錢撥用事　遷栗定等矣戶曹餘米三百六十石賑廳餘米二百三十七石並只輸送貴廳之意知委而有置同米每石代錢六兩式到即輸送以為繼用事

右甘為大小浮石兩石之役極為浩多夜役所用三兩黃燭五百隻內帝三百塊進排事　義禁府

遷　國都監了移文節到付關據莎草七千張浮出價及六千張出浦貿價典船價磨鍊矣不無補寃之弊故貿價每貿二隻船價每張四分定給貿價不足為三十兩船價不足為六十兩是遣圖里木以為　國兩雜木庄审研伐輸運價為三百九十兩依此數加磨鍊以送事關是置有亦貿價典船價合不足錢九十兩兹以輸送而圖里木段自是貢物進排之物則當自戶曹推移區處非本都監所知事

遷　國都監了移文統營木加請得十五同內五同事當輸送而本都監木儲枵然錢五百兩代送事

廣州南陽安山振威龍仁陽城丁移文都監所納炬子一依各邑所報松炬一柄價三分柱炬一柄價二分式自都監上下為去乎到關即為輸去而貿價以會減之意移文惠廳是如乎即報惠廳以為會減之地事

廣州松炬三千柄每柄三分式杜炬一千柄每柄二分式合
錢一百兩
安山松炬二千柄每柄三分式六十兩
南陽松炬二千五百柄每柄三分式七十五兩
振威松炬九百十八柄每柄三分式杜炬九百五十七柄每
柄二分式合錢四十六兩六戔八分
陽城小炬一千柄每柄一分式松炬一千六百柄每柄三分
式杜炬四百柄每柄二分式合錢六十六兩
龍仁松炬二十一百七十二柄每柄三分式桶炬一百十柄
杜炬七十柄每柄二分式合錢六十八兩七戔六分
水原府使隊呈本都監兩用　冗家　丁字閣以下撥械雜木
與炬子各採雜物價一千八十七兩三戔三分物種輸運在

價一千四百二十七兩六戔一分是如乎依數上下事手次雜物
領則自都監上下是遣價以
貼貿會成之意移文忠淸事
水原府了移文　齋室修補次錢五千兩及補土用餘錢三百
四十二兩五戔六分輸送為去乎相考休置事
戶曹了移文　同兩　齋室改建次本都監用餘錢及各採雜
物修成冊以送貴曹事　筵需定奪為有置同成冊並以修
送事
錢文五千兩水原府遣校
夢同伊等鐵物一千五百四斤
強鐵十三斤　削刀二十七箇
刃加乃五十八箇　鎚子四十三箇
小時郎五箇　平鉢十五箇

斧子五箇
串光伊六箇
炭一百八十九石
杜把子一百三十浮
空石一百八十立
熟麻三百七十斤
熟麻中束造二十四艮衣
真苧二十四浮
體木一百四株
椽木一百十箇
長薄板八立
厚正板四立

廣光伊二十一箇
大引椎一箇
石灰一百二十四石
炬子二百六十柄
綢瓦一百箇
熟麻大束造十一艮衣
加乃杖夫三箇
槽桶二十六部
柱道里木三十箇
樸械雜木九十箇
土莫雜木三百九十箇
木把槽一部

圓椹古木一箇　礪石二百四十立
假家柱道里椽木並一千三百十七箇
一尺釘十八箇　二尺釘三箇
九寸釘一百四十箇　七寸釘九十箇
六寸釘一百四十箇　五寸釘一百十箇
四寸五分釘四十五箇　大匠勿釘二箇
丁字金二箇　道里連鐵四箇
大甘佐非一箇　大女瓦三百二十張
常女防草二百七十張　大夫防草一百十二張
大女防草一百十九張　常夫防草二百張
耳防瓠三十二張　中防瓠一百五十張
常女瓦四百十張　常大夫瓦一千二百五十張

半防艇三訥六百五十張　雜傢十九箇
龍頭十五箇　　此首二箇
此首二箇　　烟家二箇
驚頭一箇已上俱遞換　　大女瓦三百五十張
大夫瓦九百張　　常女防草六百張
常夫防草一百五十張　　常夫瓦四百張
犬瓦桶二箇　　常女瓦桶二箇
大夫瓦桶四箇　　防草板五箇
道乃桶三箇　　做家材木一百二十二箇
草苫三十五浮　　大搪桶六部
小竹八十箇已上在汀州
户曹了移文本都監都廳所用各採物揀實入典用還之類區
別數文移文爲去乎依例會減事　右出刀
宣惠廳户曹了移文本都監一行出去　圖所爲去乎同粮料
依後錄磨鍊輸送事
堂上三員奴子各二名馬各一匹
都廳二員
郎廳五員
監造官四員
分差官三員
觀象監相地官一員
方外地帥四員以上奴子各一名馬各一匹
京別看役三人
鄉別看役三人

京看役牌將七人
鄉看役牌將十三人
訃士三人
救療官一員
奏時官一員
右甘爲本都監堂郎以下負役工匠出　圖時盤纏依例磨鍊
輸送事户曹
户曹除呈書都監甘結據抱謨使堂郎以下相地官別看役及
負役工匠出　圖所時盤纏依例磨鍊輸送事別付
抱謨使一員往來二日每日錢一兩粮米三升民魚一尾石
魚一箇甘醬二合艮醬一合鹽一合真油二夕
提調三員每員一日錢七戔粮米三升民魚一尾石魚一箇
甘醬二合艮醬一合鹽一合真油二夕
都廳郎廳監造官分差官合十四員每員一日錢五戔粮米
三升民魚一尾石魚一箇甘醬二合艮醬一合鹽一合真
油二夕
相地官救療官別看役合十人每人一日錢四戔粮米三升
民魚一尾石魚一箇甘醬二合艮醬一合鹽一合真油二
夕
訃士書吏合二十七人每人一日錢三戔粮米二升民魚一
尾石魚一箇甘醬二合鹽一合
書員書員合五人每人一日錢二戔粮米二升石魚一箇甘
醬二合鹽一合
庫直十一名每名一日錢二戔粮米二升石魚一箇甘醬一

合鹽一合
使令軍士工匠合三百三十七名每名一日錢二戔粮米二
升石魚一箇鹽一合
宣惠廳來關堂郎以下粮米及奴馬料依謄錄磨鍊以水原所
在儲置米中極擇精白者定色吏輸納事 子次到付
堂上三員粮米每日三升奴子各二名粮米每日二升騎馬
各一匹粥田米每日二升太三升
都廳二員郎廳六員監造官四員分差官三員相地官五員
粮米每日三升奴子各一名粮米每日二升騎馬各一匹
粥田米每日二升太三升
救療官一員參時官一員計士三人京別着役三人鄉別着
役三人京着役牌將七人鄉着役哨將十三人粮米每日
三升
戶曹牒呈都監堂郎以下諸員役饌物依例磨鍊後錄輸送事
子次到付
堂上三員每朔饌物民魚六尾石首魚三束甘醬九升良醬
六升鹽六升饌油六合
都廳二員郎廳六員監造官四員分差官三員每朔饌物民
魚三尾石首魚三束甘醬六升良醬三升鹽三升饌油六
合
相地官五人救療官一人參時官一人計士三人每朔饌物
民魚三尾石首魚三束甘醬六升鹽三升饌油六合 相地官處
京別着役三人鄉別着役三人京着役牌將七人鄉着役牌
將十三人每朔饌物石首魚三束甘醬六升鹽三升

兵曹了移文 園所京都監軍士二名自出 園所日為始料
布依例磨鍊上下事
兵曹了移文本都監分差錄事一人料米在京時瓮上下政院
待令書吏一人軍士一名朔布自會同日為始十月十七日
至依例磨鍊上下事
兵曹了移文本都監在京時都廳及各所使役軍士自會同日
出 園所朔布依後錄磨鍊上下事
都廳軍士四名 三物所軍士二名
造成所軍士二名 爐冶所軍士二名
大浮石所軍士二名 補土所軍士二名
小浮石所軍士二名 輸石所軍士二名
別工作軍士一名 分長興庫軍士一名

燔尾所軍士一名
江華府了移文 現進石屏風石給浮出於本府他石子浮出
於水原醬峯事已為狀 聞是置浮石郎廳別着役書吏及
匠募等料布依本都監磨鍊自貴府計給則從當報送事
右康料
京畿監營開城府江華府水清黃海原春監營了移文本都監
使役石手施賞每道每邑邊首一人姓名狀 聞後書送政
院以為捧待古帖加事別單 判下教是置 教旨內辭意
後錄移文為去乎一一奉審施賞後各其邑邊首一人姓名
星火狀 聞事後錄見別單
戶曹了移文本都監賞典別單中各樣匠手之居在外邑者抄出
書送同賞典自貴曹須給事後錄見別單
右賞典

京畿監營了移文　園所所用木物輸来等事之有民丁使役處以本府儲置量宜給價各軍門卜馬遠地立待有弊以水原府雇馬取用而雇馬以會付穀會減車牛喂養草外方則例以本邑結所進排而以儲置米會減事　遄稟定奪矣該府良中知委施行事

京畿監司牒呈浦邊雜物運入次京倒馬一百五十匹別定差負本營將校使之領去為去乎運入之時随即捧上俾無留刻遲滯之患以為陸續輸入之地為貰役自都監依他例上下事（下次原本知委施行事不待而而施行事是喻事理如此事是如為事）　右雜条

禁衛營御營廳了移文正月所用蠟龍紗衣自都監令方措備而鐵方里則猝難造作禁衛營二隻御營廳三隻用遄次星火出送事

黃海監營了移文三物所所用石灰所重自別而全川灰素有名稱五百石另防糟造每石以十五斗作石別定差負星火上送之意知委該郡事

京畿監營了移文令二十日　園所裁　穴處　封標時所用扭把子三浮藁索三十把大陶東海一箇大唐磁碗一箇鍾光伊斧子各五箇知委本府使之待令事

右甘為　園所　封標時所用鍊正松木一箇長二尺方二寸鍊正小真木五箇長二尺五寸十一箇各長七尺草席三立狀油紙各二張細繩三十把進排事（別五作分長藁厚）

長生殿了移文　瓮家所排大来往扳二立大横交扳一立依例輸送為子矣令番段　瓮家圖徑稍大各別以丈長者極擇輸送俾無不足生梗之弊事

禁衛營了移文三物所所入細沙例用露梁細沙矣令字内軍門限三百石堅實封裹舡運下送事　遄稟定奪為有置別定將校冈夜輸納事

遷　園都監了移文　瓮家内所排紅紗方坐燭籠二隻　陵道閣左右所排屏風依例造作輸送之地事

遷　園都監来關依關辭知委本都監二房則以為取考辛亥謄録則方坐燭籠二隻素屏風二坐畫屏風四坐結裹出付濟用監貢人處出送舊　園所所排各處次次推移進用後發覇教是時首先出給於該貢人處使即星火先運於路祭畫停各處及到新　園進用諸處一一進排亦為有置令番段置依此擧行事（手決到付）

京畿監營了移文　壙中油灰正捣所用大木把搶一部地方官良中知委進排事

遷　園都監来關　瓮家令十一日及良造作是如乎邊首宋尚卜即為拔来使役後還下送事奉承　傳教為有置尚卜外　瓮家制度他無認惠木手故物件令方治鍊而不得始役以待上来是如乎各別申飭催促上送事

京畿監營了移文外　梓宮出見擇事木都監郎廳上去為去乎郎廳一台所騎馬一匹步從具書史一人並上送一名時騎馬各一匹令十七日晚頭立把待令事

黃海監司牒呈依關辭　園所所用石灰五百石差使負白峙會使張友仝領送緣由事（手決付）

長生殿了移文本都監郎廳上去與本殿郎廳眼同外　梓宮外長廣高出見擇以来後以補編所載營造尺尺度則長為

七尺九寸廣為三尺六寸五分高為三尺五寸一分是乎所本都監郎廳上去出見樣前自本殿書送尺數者長七尺八寸三分廣三尺五寸四分高三尺四寸七分而前後見樣較其尺數則今番受來見樣長加七分廣加一寸一分高加四分是如乎兩度尺樣何如是相左是喻其間尺數不一之由詳細回示以為憑考之地事

長生殿來關見樣尺度相左事　本殿當初造成時所用尺即是自前行用之尺而以營造尺較詳則其所相左理所固然是如乎長廣高見樣及行用尺度並以畫形以送以此相考事（手決知由見三物所事）

遷　園都監來關令此發朝教是時　梓宮進駐　園所啓殯與遷　奠時　梓宮拭巾白苧一疋並具拭　梓宮官洗手大也手巾並其持是遣工曹濟用監尚衣院官員躬親進排為旀洗手水段令地方官待令事移文饋營是在果　梓宮上　園下　玄宮教是時拭　梓宮事貴都監三物所專掌次知而拭巾綿紬六尺並令濟用監待令于三物所事捧甘是如乎到關即為回移以為憑考之地事（手決知委禀向）

戶曹了移文令此外　梓宮正　梓宮下　玄宮教是時奉安泛以堅固白細布作褊用之計料為去乎貴曹所在布中以尺長并細望四者二十六疋即刻輸送事　右三物所

忠清水營了移文椵木二株萬無自京求得之路勢不得不取用於安眠為之意　遣稟是置同椵木二株必以長三十尺廣二尺五寸者別擇斫伐依　傳教舡格等優給糧資從便賃舡定差負回夜上送事

京畿監司牒呈本都監所用各樣假家分定各邑後修成冊上送事（手決還考次到付）

看役假家三間（在開二間廣州一間）

三物所假家二十二間（陽城十三間安城九間）

造成所假家二十二間（龍仁十五間安城七間陽智五間）

爐冶所假家九間（安山七間振威一間廣州一間）

大浮石所假家四十五間（龍仁十五間水原十八間廣州十五間）

鸞峯大浮石所假家五十九間（水原六十間南陽十五間通津九間）

如岐山小浮石所假家四十八間（在開三間廣州三間竹山八間）

（城開十五間竹山五間水原八間）

別工作假家十間（城振）

燔瓦所假家四間（稍開）

京畿監營了移文取考謄錄則　丁字閣所排廬篳編結匝俱在高陽郡是如乎廬篳匠十名定色吏及期待令是遣下玄宮教是時左右列立松明炬差使員擔當是如為有置令亦依此知委舉行事

京畿監司牒呈即到關內乙用良　園所洞口大紅箭門　丁字閣　齋室以下土役時細折椽草葉索分付地方官使之進排高陽廬篳匠亦令及期起送是遣盡僧段發關分付于廣州楊州兩邑為去乎捄考施行事（手決各別嚴飭督促無遺及之緊事）

三軍門了移文運沙運土之役甚多各軍門運沙車子限二十輛借用事　遣稟蒙　允為有置訓局七輛禁衛營七輛御營廳六輛并駕牛到關即時出送以為使用之地事

水原府了移文　丁字閣地正之役萬分時急以本府所在雇馬限三十匹別定將校自明日運沙以為来納後雇價受去之意知委事

遷　園都監了移文　丁字閣三門　掤宮排設紅紬帳以舊園所　掤宮所排移用事院承　遷教以此知委及時待令事漢江津別將牒呈體木三百二十六株及大椽木一百七十六株合五百二株十一隻舡分載別將親率領来無弊到泊後本府將校李元榮處照數逢授緣由牒報事

忠清水使牒呈節到付　啓下關據監關內乙用良　丁字閣所用搆木二株各長三十尺廣二尺四寸各別擇斫差使員唐津縣監處逢授上送事

慶尚監營了移文　園所所用大鑄火爐鑄成次權爐匠二名永川英陽等邑良中定邑吏同夜起送事知委施行事

尚衣院牒呈　園所　丁字閣北　神門朱簾一浮本院次知造作進排是白置朱簾見樣以壯紙詳細成出上送以為及期擧行之地事

長生殿来關節到付關內節該取考謄錄則　掤宮制度從梓宮長廣各加二尺造成　梓宮高下尺數詳細細移亦關是置有亦內外　梓宮尺數並為詳細後錄回移事

內　梓宮外上廣二尺三寸二分下廣二尺三分上高二尺三寸一分下高二尺一寸一分長六尺七寸三分

新外　梓宮外廣三尺五寸四分高三尺四寸七分上下同長七尺八寸三分

遷　園都監来關取考辛亥謄錄則遷　陵教是時陪往　贈玉　贈帛正件翼扇下　梓宮時　壙中埋安乙仍于不入於　殯殿是如乎在前則奉安於　齋室及　香大廳是置令番段置依謄錄淨潔家舍預為排設為旀　靈座諸具並以舊　陵所排者移用於中路　宿所及新　陵　靈幄殿是如亦載謄錄令番遷　園教是時依前例次次移用事各該房良中申明知委後回移事

京畿監司牒呈節到付甘內　丁字閣以下各處塗褙所用熟糊次鼎一坐方古里二十箇大所羅閣東海木瓢子各三箇用遷次進排膠末隨所入燒木十五自乃依謄錄進排亦為有卧乎所日前所報是在丙申謄錄北朱冊子中塗褙時所用雜物盡數抹下教是乎矣令此雜物既是用遷者則與永進排有異是遣且膠末等不入此中並只依甘內辭意發關

地方官使之待令是在果本營與該邑俱是外方此後凡有進排之物大則發關於本營小則踏印小紙直為取用於本府俾無中間輸傳閪失之弊事

守禦廳捴戒廳京畿監營了移文　丁字閣　碑閣丹青時使役畫僧守禦廳七名捴戒廳八名藥營七名依謄錄定邑吏領付　園所俾無未及生事之弊事

遷　園都監来關　丁字閣上樑時一堂上獻官都廳讀上樑文等節依辛亥年例為之事引儀一人進去祭需依近例以米酒果自都監措備事　下教教是置　下教內辭意本當施行事

遷　園都監来關節到付關內節該自　丁字閣上　園習儀時　肩擧輪擧遷　園都監一房整待擧行破　殯陞輔節

次通禮院專掌舉行九月二十日及良依例等待舉行事關
是置有亦此是內都監舉行之事是如乎依此舉行事(手決到付)

遷　園都監來關令此竹緞馬吉函儀仗青紫繡鞍馬仗馬鋪
筵容入假家依　筵稟以油遮日舉行為乎矣同閒數段依
後錄排設後各其名色書付摽紙俾無臨時紛拏之弊事(手決知委該所)

竹緞馬八匹　函儀仗(同入長廣十間)
吉儀仗(三間)　青紫繡鞍馬十六匹
仗馬六匹(同入八間)　鋪筵二閒(以上長廣同)

戶曹了移文　丁字閣所排玉燈一坐　擯宮上所覆竹簟假
次匝所用黃州朱土二斗並以貴曹所在依謄錄及期輸送事

遷　園都監了移文　發靷教是時　梓宮陪進日　大擧馬
木所排扱子依貴移自別工作造成長橫杠尺數出見樣以
送為旀馬木大小輪擧諸具退　塡習儀時假輪堂扱貴都
監專掌造備擧行是遣　發靷時　丁字閣所排紅紗方燭
籠四坐自貴都監造送是如為有置依此擧行為旀　碑閣
造成次　碑見樣亦為出送之地事

遷　園都監了移文節到付關內節該貴都監陪來　贈玉帛
正件蓁扇奉　安於　齋室及　香大廳為旀　靈座諸具
並以移用新　園事關是置有亦　玉帛蓁扇奉　安慶所
以不毀公廨中鄉廳等待是在果　擯宮內外諸具及　殿
內所排諸具之新備移用間區別修成冊以送之意前有所
移文矣回移內初不提及莫重擧行未免眩晦　靈座　擯
宮內外所排及　殿內所排諸具各種一一開錄各其物種
下書填新備或移用是如修成冊一件即為輸送于禮都監
以為憑考擧行之地是遣亦為知委於各該司俾無未及生
事之弊事(梓宮奉安于丁字閣時玉帛蓁扇奉安于丁字閣內)

京畿監司牒呈節到付關內乙用良南陽等四邑松明炬一依
知委各別進排之意嚴飭分付為旀畫師僧來月初八日及
良領付事亦為一體嚴飭事(手決到付京畿監司牒呈節到付關內乙用良南陽等四邑松明炬一依知委各別進排之意嚴飭分付為旀畫師僧來月初八日及良領付事亦為一體嚴飭事)

遷　園都監來關　丁字閣上摽文既已今九月初三日退定
上摽文中初一日之一字當以初三日填書一字上加二劃
以為三字為乎矣書寫官在遠本都監堂上中擧行事　下
教教是置　下教內辭意奉審擧行後形止狀　關事(手決到付)

慶尚監司牒呈永川英陽等邑所在擡爐匠二名同夜起送事
(手決來現到付)

遷　園都監來關　神御平床褥所入匹緞既自本都監受出
故仍自此處欲為造送計料為去乎同長廣出見樣堅封以
送為旀所入內拱架裹等物色品亦為詳錄回移以為擧行
之地事(手決考例回移)

長生殿了移文節到付關內節該外　梓宮擯安慶所高柱廣
濶精潔造作為旀下隅板橫量板隅木松竹木實預差輪擧
等各樣木物積置假家段置精潔造作為旀提調以下都廳
郎廳入接慶所以付近閤舍捉待事關是置有亦外　梓宮
擯安慶所以　香大廳等待是遣下隅板橫量板隅木各樣
木物積置慶所段置亦以　香大廳修掃等待是在果堂郎

依幕段依謄錄自各其司舉行是置捐考施行事 外 梓宮奉安于隧道閣誌石下隔板橫置板松竹木香香大駕鹵簿木物積置於紅箭門內東邊油遮日下

尚衣院牒呈 丁字閣北 神門朱簴一浮編結及繪依本都監甘結已為造作舉行是乎所所入帳貼木圓環菊花童具鴨項釘例自本都監舉行是如乎依例等待俾無臨時紛紜之弊事 手次知委各該所

京畿監營關移文本都監大鑄火爐造成次陶鑵所入白土三斗星火捺送事道內安城郡良中知委施行事

遷 園都監來關節到付關內節該 靈寢諸具 靈座 攢宮諸具移用各種一一開錄修成冊出送事關是置有亦令審則只 靈座排設是遣 靈寢因 旨教不為舉行是旀移用物種段依移文成冊修送事 手次成冊 捧上別付

靈座諸具

方交倚一坐 內別工作 彩花席地衣一浮 長奠席

草綠採紋緞座子一坐 彩花席下排一件 席長奠

倚子一坐 尚衣院 彩花席上排一件 席長奠

滿項骨高欄平床一坐 內別工作 四面床一坐

黑粧緞滿項巾一件 八面床一坐 內別工作

揮帳一件 尚衣院 三門紅綃帳三浮 尚衣院

草綠採紋緞褥一件 尚衣院 牧丹四貼屛風一坐 尚衣院

交倚覆蓋紫的方紬袱一件 尚衣院

攢宮諸具

白紬甲素幄一件 滿花地衣一浮 長奠席

白紬甲素帳一件 玉燈一坐 內別工作

黑三升仰帳一件 濟用監 鐵鉤 內別工作

草綠採紋緞褥一件 尚衣院 紅索 尚衣院

彩花席上排一件 長奠席 函一坐 內別工作

隧道閣所排方燈四坐 四貼牧丹屛風七坐 二房

遷 園都監來關節到付關內節該 丁字閣前面月臺上輪舉排設何以舉行是乎乙喻斯速出來舉行事關是置有亦令審段輪舉不為磨鍊奉安時亦依 下教舉行計料事 手次別付

遷 園都監了移文節到付關內節該移用屛風七坐廣為尺間架雖有大小之別連接取用則可以排設將以 丁字閣移用次分排是乎所 隧道閣且設屛風則又有牧丹屛四坐行路移用者次次移用是遣上項七坐段移用於 丁字閣則別無新造之舉事甚便當亦關是置有亦日前貴都監移文移用物種後錄成冊中只有 隧道閣所用牧丹屛七坐懸錄是遣 丁字閣所排段本無懸錄故勢不得已臨急造作計料矣關辭如此則不必更為新造依關辭 隧道閣所用則以行路移用屛風四坐取用是旀 丁字閣所用七坐段依貴都監知委移用為定為去乎亦自貴都監申明知委於各該房俾無臨時窘速之弊事

遷 園都監來關 園所所用豆錫香爐一坐香盒一坐燭臺一雙剪燭器一雙剪子一雙正鐵火鉗一箇合六種分盛兩攢 內下教是故自弊都監更為封裹合盛架子俾將曹漢亂處逢授使之陪往為去乎到即照數領納善為藏置形止即為回移以為憑考之地事 依數捧留後回移

京畿監司牒呈即到遷　園都監關內舉士軍依接處以匠募假家為之事　造票而當此冬寒許多匠募之依接處雖一日有難出給是如　園所都監關文來到自本營區處舉行之外無他道知此舉行亦為有如乎今此舉士軍依接與炊飯處不過是十餘間容接之地是乎所自都監推移不甚為難而令若分定各邑使之造作則其所為數不可勝言乙仍于玆以牒報為去乎矣商事勢各項假家中以稍遠稍欵者限十餘間推移出給本府俾除畿邑一分獘端之地事

五軍門戶曹黃海監營了移文本都監所用正鐵強鐵各軍門

戶曹取用不足之數卜定於海西是造石炭及已造成鐵物取用於各軍門事　造票定奪為有置鐵物段用送次卽為輸送是造鐵炭段出　園所役況伊輸送以為雜用之地事

訓鍊都監正鐵五千斤　炭一千一百石

禁衛營正鐵五百斤　炭一十石

御營廳正鐵三百斤　炭一千石內一百石移送江華浮石所

守禦廳正鐵一百斤　炭一百五十石移送江華浮石所

摠戎廳正鐵一百斤　炭二百五十石內五十石移送江華浮石所

戶曹正鐵八千斤　強鐵四百斤

炭九百石

黃海監營正鐵一萬三千斤　強鐵五千斤

石甘為本都監所用已造成鐵物取用於各軍門事　造票定奪矣三軍門各刃加乃二十五箇廣廣伊十五箇串廣伊十五箇平鉢十箇水夢同伊一箇小夢同伊十箇召乙矣四十箇大排地乃二箇中排地乃一箇用遂次進排事

黃海監司牒呈本道卜定正鐵一萬三千斤強鐵五千斤內正鐵六千七百八十斤強鐵二千五百十五斤段分定於黃州等邑使之各別拯擇同夜直納為乎旀其餘正鐵六千二百二十斤強鐵二千四百八十五斤段自本營收捧陸續上送計料為乎旀分定都成卿為先修正上送事

黃州定安谷山瓮山載寧瑞興各正鐵七百八十斤強鐵二百八十斤新溪白川遂安各正鐵六百斤強鐵二百二十斤兔山正鐵三百斤強鐵二百七十斤自本邑直納

海州安岳信川長淵各正鐵七百八十斤強鐵二百八十斤文化長連各正鐵六百斤強鐵二百二十斤康翎花津松禾各正鐵三百斤強鐵一百七十五斤殷栗豐川各正鐵五百斤強鐵二百斤自本營收捧上送次

石甘為鑞染所用釜子有異於行用釜鼎卽為造排事

三軍門了移文大小浮石及其他工役極為浩大鐵物給入元劃正鐵令幾盡用御營廳正鐵三千斤訓鍊都監禁衛營正鐵各二千斤卽令各該營門加數輸送事扶請蒙　允為有

置到即輸送以為及時入用事

三軍門了移文本都監分定與賀得之炭令幾盡用訓鍊都監禁衛營御營廳炭各六百石加數因夜輸送事狀請蒙　允為有置郎為輸送事

三軍門了移文本都監事段今幾訖工加分定炭中訓鍊都監二百二十石禁衛營一百五十石御營廳一百五十八石待吏圖輸送事　石據各条

江華府了移文石物浮出次本都監郎廳今方發送之意　遞票定奪為有罕貪役匠手等容入假家即為造給所浮石物船運一款待知委裝載事

江華府了移文　禑遞石以下石物浮出於水原闕峰是遣江華浮石段即為撤罷之由令方狀　開是在果該所郎廳同夜遂来事自本府知委為旅所用鐵炭亦令輸送　園所事

壯勇營了移文本營軍士石手崔得大起送都監事

江華留守牒呈依關辭煤音為浮石所用餘鐵炭定監色後録領送緣由事　數幷次依上

正鐵五百九十介　　破鐵頭鐵幷六十介

炭二百二石　　刃加乃四箇

廣伊十二箇　　平加三箇

水多同伊一箇　　鎌子十四箇

平斧子十二箇　　松烟一封

擔桶四部

黃海監司牒呈　園所所用磚石一千五百六十立裝發之由已為牒報為有在果餘數磚石二千四百四十立今皆浮出分載於十七船復差使員所已萬户尹興商處領付上送事　手次依牒首拂上

江華留守牒呈　園所所用磚石二千張盡數浮出後裝載十二船復別定龍津萬户俞漢宗各別申飭使之領付上送事　手次依牒首拂上

遞　園都監了移文　贈玉　贈帛函與　誌石函出見摠出送事

石甘為浮石之役在山脊海邊兩下輒為停役事是聞迎宇兵所着破油衫各一百件用遞次是大出送為旅各摠石物輸運上山叮若不等窺紕畏則恐有致傷之慮是如乎破摠帳各二十浮牛毛氈二十浮即為輸送事　戶曹　訓鍊都監　御營廳

遞　園都監来關　碑石　贈玉帛函與　誌石函出見摠出送是在果

石函見摠段如未傳當故不得成送待出見摠即為出送計料事　手次付關

平陽寺牒呈節到付關據強礪石十五塊中礪石十塊捧甘外加數下送為旅定日礪石則董元日前捧甘之數三十九塊亦為盡數馱送是在果書員庫直段自前元無等待之例飭除良京都監各處進排亦甚浩多不得定送事　手次捧上到付果石品質同異不可高下如多寡之時五六箇數內外段數等物例無論多寡生硬之弊事

遞　園都監了移文加箔籠壘石穿確之役萬分晴急　碑石長廣出見摠以送事

遞　園都監来關今十七日　誌石陪進是如乎到　園所後奉　安奠所鋪陳等節着實整待俾無臨時窘急之地事　手次付到

右浮石条

京畿監營了移文　園所龍甫近處起墾處當先播穀猜實稷種限穀十石輸送事

遷　園都監了移文　園上所用莎草酌量廣鍊雖減之又減不及萬張則實有不足之慮是如乎慕華館莎草一萬張精擇浮出陸續輸送事乎段待石物畢輸即當上送價錢自均應推移輸送之意移文計料事

京畿監營了移文　園所局內種木處極為浩大水原安山陽城廣州南陽果川振威龍仁等附近邑合力種植事　延禧宮是置雜木定監色陸續栽種事

禮曹了移文　園所植木不可過時可合移種之木自昔曹各陵　園墓所分數磨鍊採送使之種植事

復曹牒呈依關辭先以徒近　陵園墓可合種木分定為乎於

同分定負數後錄牒報事　手狀到付

健元陵　貞陵　獻陵　宣陵　靖陵　溫陵　穆陵　恭陵　穆陵　徽陵　崇陵　明陵　莫陵　懿陵　慈陵　元陵　弘陵　已上各三十負　顯陵　敬陵　昌陵　恭陵　孝陵　康陵　順懷墓　昭顯墓　愍懷墓　已上各一負

廣州府了移文　園所局內雜木種植之外亦當移種花木本府城內外蹲踞扯鴿之屬限三十吋採送則雇價助賞當自都監上下事　右補土条

三軍門戶曹了移文本都監材木與各掌石物輸運之役最為時急是如乎大車平車具駕牛因夜輸送事

戶曹牒呈節到付移文擬訓局大車一輛漢車十三輛駕牛三十六匹流伊輸送事　手狀到付

禁衛營來關節到付移文擬平車一輛駕牛二匹輸送事　手狀到付

訓鍊都監來關節到付移文擬平車四輛駕牛八匹輸送事　手狀到付

御營廳來關節到付移文擬平車一輛駕牛二匹輸送事　手狀到付

三軍門戶曹了移文本都監木石輸運之役萬分時急前求車子猶患不足戶曹車子六輛禁御兩營車子各一輛今日內因夜出送事

三軍門了移文新造車子十輛并駕牛出送事有所停當的尚無消息事甚訝惑目今木石輸運之役萬分時急以數十輛車子未免停役同新造車子十輛并駕牛即為出送事

御營廳來關節到付移文擬平車一輛并駕牛出送事　手狀到付

戶曹牒呈節到付移文擬漢車二輛并駕牛為先出送事　手狀到付

禁衛營來關節到付移文擬平車一輛并駕牛出送事　手狀到付

京畿監司牒呈即接水原府使所報則石物輸運車牛喂養草一依都監知委每匹每日五束式進排亦為有卧乎所令此一件之每日五束終涉過多雖未知都監定式之如何而每日救草豈一束夜二束足可喂養飲不喻自是前例以此分付後即為題送以為舉行事　手狀

右廿為本都監石材運入之役萬分時急勢將京擔軍扒來捕校各一人捕卒各二名撿飭扒出後領來事令方扒　聞是置待　判下擔軍各二百名星火扒出各持擔機具等即使

校卒領率下送事 左捕盜右
三軍門了移文本都監運石之役極為浩多以如干車子實無
及期輸入之道勢將以搪軍輸來是如乎搪撥各四部以最
長捷扛完實者同夜出送事
戶曹牒呈節劍付移文擬新造漢車四輛并駕牛出送事 手決劍付
三軍門了移文本都監卓運之役極為浩大今以各該營所送
如干牛隻為無及期運入之勢是如乎三軍門大車各一輛
同夜造作體大健實牛各二十隻星火以送事
遷 園都監來關武石輸運時役軍致命人自 園所都監厚給埋葵之需又令賑廳
給埋葵之需又令賑廳另施恤典事 傳教教是置恤典續布二疋錢三兩上下即
需已為題給是喻從厚磨鍊即為題給為旀恤典舉行事移
為出給後形止回移事 手決依關辭舉行之意回移
文賑廳致死人姓名居住亦即回移事 手決已為題給埋葵之需姓名居住錄送
三軍門了移文今番輸石之役極為浩大以如干車子無以使
用訓局車夫張恭得金福起禁營中夫金成彬御廳車夫金
一泰等俱以無料待年軍晝夜勤苦洽滿兩朔莫重石物無
斡輸運其為效勞誠甚不些宜有叅例收用之道勿拘第次
待策陞資以為酬勞之地事
戶曹了移文本都監使役漢車付役日子及牛隻數文區別移
文為去乎依例會減事 右輸石所
遷 園都監來關令此遷 園教是時行路各樣 祭享所用
各種自 舊園所及蠶島 畫停所至果川一並自京造作
取用是在果 園所及新邑 畫停所所用木器四中不可
不自貴都監造作進排者後錄移文為去乎分付別工作使
之造作進排事 手決如妻該所
水原新邑 祭享時所用 奉常寺
大案板一坐 小案板二坐
餠丫一箇 大隅板三坐
大斗升各一箇 小斗升各一箇
洪道箇二箇 書板剪板各一箇
油盖也大中小十箇 木罌乃一箇
架子三部 槓子具鎖鑰一坐
木火爐一箇
遷 園都監來關 傳曰 大擧肩舉為木軍事曾有下敎而
今聞各十名有不足之慮云今雖加數磨鍊運入之除為弊
麵浮只機一箇
園所 祭享時所用 內贍寺奉常寺
大案板一坐 小案板二坐
餠丫一箇 大隅板三坐
大斗升各一箇 小斗升各一箇
洪道箇二箇 書板剪板各一箇
油盖也大中小十箇 木罌乃一箇
架子三部 槓子具鎖鑰一坐
木光明臺二箇 木火爐一箇
麵浮只機一箇 以上三司依此數各各進排自初六日以初七日至仍用次
遷 園都監來關 傳曰 大擧肩舉為木軍事曾有下敎而
今聞各十名有不足之慮云今雖加數磨鍊運入之除為弊

自如依　陵幸時各站上下路馬堂例畫俜所宿所新　園所沙斤替運所預為造置事分付亦　傳教教是置　園所所用　大舉馬木二箇　有舉馬木二箇式體大堅實造作待令事　手決如委旋所

遷　園都監来關　大舉有舉馬木以各二箇造作待令事前日移文矣二箇似有不實之慮更為移文為去乎各四箇措備待令之意知委施行事　手決如委旋所　右別工作条

遷　園都監来關節到付關內辛亥年　香大廳以下諸處舖以白紋席白木檀舖陳載錄而至於　御齋室則舖陳元不載錄遷　園都監　御齋室以何様舖陳造排是喻貴都監舉行之節即為回移事關是置有亦稟之後回移事　後因受園都監　起稟以別紋青檀造排

遷　園都監来關節到付關內　腰舉下排地衣輪舉草席各揉兩備貴都監分庫造作進排事關是置有亦輪舉草席各揉兩備自本都監分庫造作舉行是遣至於腰杉舉下排地衣等節貴都監分庫造作舉行事　右分長興庫条

水原府乙移文本都監所用瓦甎燔造次計士匠等下送為去乎燔造處所從便定給此木價與斫伐駄運之僧都監下去後即為區處事　右燔瓦条

右甘為本都監儀軌廳書吏尹學洙鄭得元白興允庫直朴敏恒使令卢曹宣惠廳各一名守直軍士四名捕盜軍士二名定送為旀惠民署良中設局是如乎堂上即廳坐起房屛風地衣遞日揮帳登每案息方席砂茶甫兒大貼喘口書案硯石硯匣筆墨白休紙燈油爐炭濕埃燒木紙俻次厚油紙膠

末柮木印朱馬鬣等物進排事　卢曹廳長興庫　兵曹工曹宣惠濟用監義盈庫　典設司平市署禮賓寺　司宰監司贍寺　左右捕廳衙將所　盤砂器契　炭契　其人　地衣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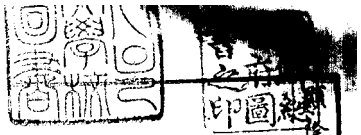
卢曹兵曹了移文本都監儀軌修正時寫字官一人畫員一人書寫四人書吏三人庫直一名使令二名守直軍士四名事目　啓下為有置同料布依例上下事

右甘為儀軌粧緞所入　奎章閣件上下卷每卷稍貼次玉色青染紙一張豆錫邊鐵召伊起畫圓環排目廣頭朴乙釘前花童具分上件三件每卷衣次紅染布各長二尺稍貼次白休紙二斤邊鐵圓環排目朴乙釘臈末五升稍朱紅進排事　卢曹濟用監　長興庫　繕工監禮賓寺　司贍寺　右儀軌

顯隆園儀軌 四

三物所　輸石所
造成所　別工作
爐治所　分長與庫
大浮石所　燔尾所
補土所
小浮石所

여 백



目錄

三物所
造成所
爐冶所
大浮石所
補土所
小浮石所
輸石所
別工作
分長興庫
燔瓦所

三物所

郎　廳司僕寺僉正 李廷恢
　　龍仁縣令 李社源

京　着　役金命淑 壯勇營知穀官
　　鄭東仁 蓂山僉使

鄉領役牌將 洪命淵

加定 李昌興

李翊濟 以上水原將校

書吏 全景祿 工曹

李鎭杓 漢城府

庫直 李弘遠 軍資監

使令 李昌祿等二名 軍資監衙將所

守直軍士二名 在京時給

己酉七月十五日會同十九日出 園所二十日始役

稟目狀

本所文書所用黃筆真墨各二硯石一白休紙二斤謄錄假衣次落幅紙一張紙帊次厚油紙一張膠末一斤文書所盛柳筒柳葉各一守直軍二名在京時給依謄錄造排定逐事各該司捧甘何如(手決依施)

本所郎廳時無實職依幕所用白紋席叁每方席案息各一件進排事各該司捧甘何如(手決依施)

本所三物假家十一間治木假家十一間分定邑良中依謄錄卽令舉行是遣所用揩子一部具鎖鑰書板二書案二硯匣二光明盞一別工作捧甘何如(手決依施)

兗家內所排紅紗方坐燭籠二隻 隧道閣左右所排屏風例自遷、園都監造作輸送為乎於 兗家所排大衆往板二立大橫交板一立 長生殿輸送為有置今番段 兗家比前稍大衆往板橫交板以丈長件各別極擇輸送事移文

長生殿遷 園都監何如(手決依施)

兗家 隧道閣造成時本所以二名木手使役為默依謄錄造成所木手二名別工作木手二名邑矩匣一脾穿穴舡匣一名移來使役何如(手決依施)

承考內申謄錄則郎廳入接假家二閒改修補所入窓戶次厚白紙六張溫突所排破油芚十浮是乎所當此節省之時不可一遵謄錄而畧量容入厚白紙三張破油芚二浮捧甘水用何如(手決依施)

園所裁 穴處 封標時立標次小椽於木一箇內外圍裹次鍊正小真木九箇真長木十二箇杜把三浮葉索三十把鍾光伊斧子各一刃加乃一地方宮依例待令為乎於內裹次壯紙二張壯油紙二張內外封書匠誼封次白紙三張內裹次草席三立細繩三十把初覆次唐大沙鉢再覆次陶大東海各一郎廳書吏進去時所騎馬匹并以待令進排事移文

畿營捧甘各該司何如(手決依施)

承考內申謄錄則 兗家 隧道閣蓋覆風遮所入草芚一百四十番灰假家所排半月 墳所入網席五十立依謄錄兩倉良中捧甘承用為乎矣今番段 兗家例度比前稍大其容入之數未能的知所入草芚使訃士實入次優數待令為乎於穿 壙後例以白木甲帳進獻油芚蓋覆是乎矣穿壙日字適值冬節不無冷氣透入之慮今以網席加覆其上

似好是如子網席一立依金井撥長廣尺數各別教厚精緻
進排事預先捧甘何如 依次施
本所所用穀草空石生葛索及扭三台三十部扭安台二十
部扭木幕五十柄轂俑一百件等物或自都廳上下或自京
司及地方官進排是如乎令番何處取用是白喻指一區劃
何如 依次施 上下 并都
本所待令涉士匠邊首一名木手邊首一名自僧同日丞始役
前日料布給依例上下何如 依次施
取考丙申謄錄則正 梓宮奉入 玄宮教是時所用黑茶唖
亦一部精造待令事分付別工作何如 依次施
一部不為載錄是乎乃此是不可不措備之物黑茶唖亦
冤家 隧道閣正 壙是 壙內外排設所入及灰三物等應
八各揀物種依丙申謄錄各該司良中捧甘何如 并捧 依次施 而入 追後 更舂 唐鍊
取考謄錄則 隧道閣內下排地排及 壙中油灰正搗所用
大木把搶一部地方官進排是乎矣令番段地排則分辦成
冊中 抹下乙仍于當以都廳空石代用是遣大木把搶一
部以新件進排事移文議營何如 依次施
本所文書所用前上下紙地筆墨已盡無餘白休紙一介黃筆
二柄真墨一丁捧甘取用何如 依次施
外 梓宮正 梓宮下 玄宮教是時奉 安所入六七件布
限二十疋輸送事移文戶曹是乎於轆轤姑未知舉行與否
而諸具則措備待令何如 依次施
取考謄錄則外 梓宮出見樣時本所郎廳與 長生殿郎廳
眼同出見樣為有置令十九日本所郎廳進去為去乎以此
移文 長生殿為於見樣所入壯油紙半張捧甘取用為乎
於郎廳一負所騎馬一匹具步從書吏一人莎土匠一名所
騎馬各一匹令十七日曉頭立把待令事移文議營何如 依次施
外 梓宮下 玄宮安扯教是時所用假 梓宮壬申年因
傳教減除之後代以白木甲俑六件各盛細沙排置於橫座
上為有置依前例舉行而同甲俑六件每件所入白木十七
尺式自都廳依例上下何如 依次施
安金井撥後穿正 壙中心二尺許監色土一塊裹壯油紙各
一張入盛於白布甲俑都廳書匠謹封摠護使著咿本所郎
廳賫持上去時本所書吏領持為乎於穿五尺許監色土一
塊封裹著咿等節一如初次例而入盛於白布甲俑承政院承旨
賫持上去時該院使令領持為有置令番段置依謄錄舉行
事捧甘為乎於郎廳相地官所騎卜馬各一匹及書吏使令
所騎馬各一匹引路羅將步從日傘差備等依前例今十一
日曉頭立把待令事移文議營為乎於三次監色土封進時
擔持次白木各五尺式自都廳依例上下何如 依次施
今此外 梓宮正 梓宮上 圍教是時 隧道閣前面綱結
廣尺量則長為八十四尺廣為三十五尺是乎所綱結所入
杻把子二十四浮筠洗隨所入自都廳上下為乎於抹木隨
所入別工作捧甘何如 依次施

己酉七月十九日捴護使以下各所部廳監造官地師　封標
始役事下直出来水原府
七月二十日平明捴護使領議政金煜提調知敦寧金履素行
副司直鄭民始行副司直李文源都廳司僕寺正俞漢謨副
司果徐邁修本所郎廳副司果李廷恢錦城尉朴明源禮曹
判書李在簡地師副司勇金養直前察知成夢龍前察訪朴
大良前察訪李命求相地官觀象監教授朴仁素齊會主山
及覆商礲左旋乾峯乾下支轉癸来丑轉艮八首癸坐丁向
丙午
分金乾乙申得水午破裁　穴奏時官奏辰時立標中心木
相地官
書望向
裹以壯紙油紙以細繩封結都廳書吏謹封捴護使

今十八日外　梓宮下　玄宮教是時時刻差早不可無明燭
之擧是如乎黃燭段自都廳磨鍊上下是乎於大木燭臺三
雙精造待令事分付別工作何如　依乎次施
永考謄錄則下　玄宮教是時捴　梓宮所用香醞藥合水及
右議政盥手諸具　長生殿次知擧行為乎於進　哀冊贈
玉帛時領議政盥手諸具奉常寺次知擧行是如乎令番段
置依例待令事各該司預先捧甘何如　依乎次施
永禹擧行節次笏記正書所用楮注紙三張捧甘永用何如　依乎次施
本所實入文書謄錄出草次白休紙二斤中草次白紙二卷謄
錄正書次厚白紙二卷黃筆二柄真墨二丁依謄錄捧甘永
用何如　依乎次施

着啣初覆大唐磁碗再覆陶器鍊正小真木九箇草席三立
內圍小索封結又以鍊正真長木十二箇扭把子三浮外圍
藁索封結向前都廳書吏謹封捴護使着啣以油紙裹覆本
官鄉所及將校守直捴護使上去
七月二十六日曉頭先行祠后土祭捴護使領議政金煜提調
知敦寧金履素行副司直鄭民始行副司直李文源永旨金
履成都廳司僕寺正俞漢謨副司果徐邁修本所郎廳副司
果李廷恢地師前僉知成夢龍副司勇金養直前察訪朴大
良前察訪李命求相地官觀象監教授朴仁素齊會裁　穴
處　封標奉審奏時官奏巳時莎土匝等率役夫先破東方
仍為斬草破土扳木根始停捴護使永旨上去
八月三十日平明都監提調都廳本所郎廳齊會裁　穴處

封標奉審後撤　封標外圍扳木根去浮土　瓮家基址鍊
正日募姑停
九月初一日平明都監提調都廳本所郎廳齊會裁　穴處去
浮土未及鍊正有　稟達事提調金履素鄭民始率地師上
去
九月初四日捴護使都監提調都廳本所郎廳錦城尉朴明源
禮曹判書李在簡觀象監提調吏曹判書金鍾秀永旨金履
成還　圍都監都廳李晩秀龍仁縣令李社源果川縣監尹
行任地師金養直成夢龍朴大良相地官朴仁素齊會裁
穴處去浮土
九月初五日捴護使領議政金煜提調金履素鄭民始李文源
都廳俞漢謨徐邁修本所郎廳李廷恢李社源錦城尉朴明

源禮曹判書李在簡觀察監提調金鍾秀永昌金履成遷
園都監都廳李晩秀果川縣監尹行任地師金養直朴大良
朱南述蔡潤銓相地官朴仁素齊會裁　穴處更加商確挨
左　封標之意停當後　罔家基址鍊正日募姑停
九月初六日平明捴護使以下齊會裁　穴處本審後　罔家
基址鍊正
九月初七日平明捴護使領議政金煜提調金履素鄭氏始李
文源都廳俞漢謨徐邁修本所郎廳李廷恢李社源錦城尉
朴明源禮曹判書李在簡遷　園都監都廳李晩秀果川縣
監尹行任地師金養直朴大良朱南述蔡潤銓相地官朴仁
素齊會裁　穴處更加商確奏時官奏取時立標封裹匠誼
封等節如初同時作　罔家鑿柱穴十八處立柱木十八柱
先立東柱（各長九尺內八地二尺丈夫一尺實十二尺）排掛道里十七株（各長九尺兩端穿孔各一門前道里一株（各長十九尺兩端穿孔各一尺實十七尺）舂掾竹十九箇（竹四箇熟麻索合束下端如撑足形各掛柱木丈夫十八處一箇門前道里正中丈夫上掛各長三十一尺）舂掾上頭合處以麻索結之舂掾每間鍊正真木十七層次次橫結（注葛結之）間掾竹二箇式合結每間二箇式掛結日募姑停
九月初八日平明捴護使都監提調都廳本所郎廳齊會　園
上奉審　罔家以草苫一百二十七浮蓋覆舂掾合湊處以
進獻六油苫一番裁作弁形蒙覆其上以葛索作環形加覆
葛索十八巨里繫葛環垂下十八柱以鎮風搖進獻油苫六
番左右柱間作窓以為納明十八面橫結中竹三層草苫三
十六浮圍排結於三層橫結竹仍設白木仰帳仍作　隧道
閣二間半穿柱穴六處立柱六箇（各長二十尺內八地三尺丈夫一尺實長十六尺）
掛掾木三箇（各長二十三尺內兩端穿孔各一尺實二十一尺）又掛從掾木三箇（各長九尺內兩端穿孔各五寸實八尺）又掛道里木十五箇（各長十三尺內兩端穿孔各一尺五寸實十尺）半間連接　罔家門前道里上掛壼掾六十四箇（各長六十四箇各長貼平交壼初覆油苫十二番間間貼付羅分竹（每二寸）再覆草苫三十七浮日募姑停
九月初九日平明捴護使都監提調都廳本所郎廳齊會　罔
家內奉審　隧道閣三處鋪飛乃六十束其上加結藁劍及
龍舍音左右扶橫結四層竹草苫二十四浮結於四層橫結
竹　罔家門前　隧道閣連接處設永簷帳　罔家內設排
帳畢後
九月初十日平明捴護使都監提調都廳本所郎廳齊會　罔
家內奉審金井基址鍊正
九月十一日未明時捴護使領議政金煜都監提調金履素鄭
民始李文源都廳俞漢謨徐邁修本所郎廳李廷恢李社源
錦城尉朴明源禮曹判書李在簡都承旨金載瓚遷　園都
監都廳李晩秀果川縣監尹行任地師金養直朴大良朱南
述蔡潤銓相地官朴仁素齊會　罔家內奉審裁　穴處十
分商確奏時官奏卯時安正　壙金井機以篩下黃土平鋪
金井機外四面杵等穿　壙中心去浮土尺餘掘至一尺取
監色真土一塊初裹壯紙再裹油紙細繩封結入盛於白布
袋封結都廳書臣誼封捴護使者啣本所郎廳龍仁縣令李
社源賫持上去本所書吏負持穿　壙之後停止仍為實土
限金井機上橫置鍊正木六箇覆白木甲帳堅封十二處
封標書寫書臣誼封都廳着啣再覆進獻六油苫一番加覆

細綱席一立（長廣依金井機時伯冬節改用）　凫家本掾內合湊處懸剪板
兩端扳中釘鐵渠圈環環中貫紅鄉絲三甲索索端繫懸鐵
垂下封　閘正中　凫家門作分閘四足以為閘閉之地自
是日本所郎廳直宿於　凫家內涉土匝二名守直
九月十二日平明捴護使都監提調都廳本所郎廳齊會　凫
家內奉審金井機外四面補土鍊正
九月十三日平明捴護使都監提調都廳本所郎廳齊會　凫
家內奉審淨石所下磚石基址尺量後穿地正
九月十五日平明捴護使都監提調都廳本所郎廳齊會　凫
家內奉審下磚石地正三物灰平等
九月十六日平明捴護使領議政金煜都監提調金履素鄭民
始芳文源都廳俞漢謨徐邁修本所郎廳等運灰等社源錦
城尉朴明源地師仝奉直朴大良朱南述蓉潤銓相地官朴
仁素齊會　凫家內奉審開坏　封標穿　壙至三尺許承
監色土一塊封裹之鄭如初而入盛於黑漆櫝子外封都廳
書吏證封捴護使者御侍地官朴仁素賫持上去本所使令
負持穿至九尺平穿後監色土一塊封裹之鄭如初入盛於
白布巾帊都廳書吏證封捴護使者御侍（同下倣此）（都承旨不
入）（兩次使上去）
等地灰三物灰五十七石平鋪六寸杵等三寸準限後未及
鍊正日暮始停　封標如前
九月十七日平明捴護使都監提調都廳本所郎廳齊會　凫
家內開坏　封標　壙中奉審後地灰鍊正　壙中下壁以
造獻油芚依其長廣裁折金井機上隅以鐵渠廣頭釘貼付
羅分付白楸以下閘閘杻木釘貼付以防外　梓宮下隅之
襯土　壙中上左右三壁以油芚依其長廣裁折付之以為
外　梓宮下　玄宮時俾無土崖散落之慮而等虧灰之時
則次次稍墐使不入於等灰之中金井機左右前後設白畝
席白木籠地衣金井機上下設大防木二箇其上左右安排
大朱往板二立扳上設小防木五箇（白畝席作長白木兩頭
鑽孔子其裏也）穿孔以熟麻三甲所二巨里綳結兩頭如連珠狀間置粉茶
散輪木各一箇　隧道閣設仰帳左右排帳下排空石上排
白畝席白木籠大地衣前面設大遮日下排地衣　穴前設
杻把子二十四浮篙索綳結貼付於地上（有舉上山明傳無之遠）
酉時量外　梓宮無事到　園所捴護使以下出諸內紅箭
門外祇迎（本所郎廳凫家穿直不為祇迎）外　梓宮直諸　隧道閣前面
遮日下奉　安馬木上（自有舉前面長杻入隧道閣內）仍為奉引於　隧
道閣正中奉　安解結裹閉坏俄下隅扳捴護使都監提調
都廳本所郎廳與陪進還　園都監堂上兵曹判書尹墩
長生殿郎廳工曹佐郎徐教修眼同詳細奉審則內外茶色
小無傷處還閉俄下隅扳更為結裹　隧道閣前面設面帳
仍為奉　安陪進堂郎入去　壙上　封標如前
九月十八日寅時量捴護使都監提調都廳本所郎廳齊會
凫家內開坏　封標　壙中奉審外　梓宮奉　安上面設
來往板其上排置粉茶散輪木奉引外　梓宮於　壙上防
木上解結裹奉審後以雪錦子紬巾淨拭以白細布綳結造
四巨里熟麻裹白苧布造二巨里舉奉（別有後及領後本邑將校有力人左右奉）
造淨掃　壙中以待正時奉時官奉卯時奉外　梓宮稍上

後去防木及散輪徐徐牽下　壙中足臺上以粉綵標天板正中十分均正坐向後去足臺以紬巾濡淨水拭粉痕加損臺三立於外　拌窑上損臺上覆以進獻油芚一番其上以盛沙白木甲佾六仆排置以防等灰時動搖之患上左右三面以進獻油芚裁折付之次次稍陞等灰時以防漆色傷污之患撤去　壙上所排諸具捲護使上去三次監色土封進本邑將校負持始等三面旁灰（上及西廣三尺東廣一尺八寸壙深八尺）第一次三物灰三十六石再次三十八石三次三十二石四次三十五石五次三十六石六次三十六石七次三十五石八次三十八石九次三十七石十次三十七石十一次三十五石十二次三十六石十三次三十九石每次平鋪六寸杵等三寸準限至損臺上面畢等仍等天灰第一次三物灰六十五石再次六十二石三次六十二石四次六十石五次六十五石每次平鋪六寸杵等三寸準限至金井機下隅畢等撤去金井機仍造覆釜形初次三物灰四十石再次三十七石三次三十石每次杵等日暮始停不為　封標以白木甲帳油芚網席覆之

九月十九日平明都監提調都廳本所郎廳齊會　兗家內奉審覆釜形第四次三物灰二十五石五次十五石每次杵等鍊正自天灰上高二尺（天灰上東邊置金井機排木一株表壙深八尺六寸二分廣六寸一分者等三物灰造覆釜形後拔去其木以上還填合成覆釜形證迹）下磚石排設始役（用上石物大小等石兩分擊行）

九月二十二日下磚石畢排設正地臺石排設始役

九月二十六日正　壙半月　壙正地臺石屏風石排置後正

壙前面金井機下隅屏風石內橫隅立半月　壙編結柱三株（西柱間廣十八尺東柱間廣九尺）柱木三條結橫木六株以鍊正真長木三十九箇排立於橫結木之內以葛索結之扭把子二浮付結於真木之內網席十二立懸障於把子之內以生葛間間結之以熟麻大索二巨里結於編結柱木之頭引結於兗家後面兩柱通里之間設白木面帳以木二柱撐支於編結前面柱木半月　壙等土時俾勿動搖設曲墻地臺石

九月二十七日半月　壙始役以三物泥灰摻限二三寸淋付於正地臺石屏風石內取吉方土於甲庚地先鋪於覆釜形之上以篩下黃土次次平鋪杵等至屏風石上隅姑停

九月二十八日半月　壙滿石始役

十月初一日半月　壙滿石引石半排設

十月初二日平明都監提調都廳本所郎廳齊會　兗家內奉審滿石內以三物泥灰摻限二三寸淋付自屏風石上隅鋪土等至滿石上隅後以三物泥灰摻限三四寸覆鋪土上杵等如作覆釜形又為等土馬右邊自初次至第五次次次杵等以成半月　壙形未及鍊正日暮姑停

十月初三日平明撤去馬右邊鍊正後衣涉草拔去編結撐支木退　壙金井機基址鍊正

十月初四日平明都監提調都廳本所郎廳齊會　兗家內奉審安退　壙金井機（正壙金井機長一尺廣邊尺）仍為穿　壙與正壙地平均齊鍊正長興庫官員率百人入　壙中排設見樣而退　壙中左右下三壁設白木揮帳以鑞染廣頭釘貼付羅分竹於金井機上邊中腰以下以扭木釘貼付設下排白

木槨地衣沙土匠以錯鑿下隅板左右遍旁灰外　梓宮假
下隅板扶開正下隅板習儀後　同殿堂　傅教長生　不為下來　還閉假下
隅板仍下隅　壙油芚以白木甲俥十五件各盛　壙中土
積置外　梓宮下隅板前面　穿堅隅板堅隨之意　壙後外　梓宮　封標如
正　壙封標儀垤　誌石於　槨遊石下碑石下
十月初五日平明都監提調都廳本所郎廳齊會　殯家內開
坼　封標退　壙中奉審後設拘捧機於　壙上穿柱穴金
井機外四隅立柱四箇各長九尺入地二尺　丈尺一尺實去尺　加掾木又加道
里木及轆轤四掾四掾兩端揷箭木各二箇如十字形以熱
麻三甲索周結箭木端掛熟麻裹白苧布洁二巨里於轆轤
四掾安輪舉於　壙內開坼外　梓宮假下隅板內設甃木
隅木平均習儀後撤去諸具仍閉假下隅板前面堅積盛土

甲俥　封標如儀　隧道閣前面扭把子編結如前排設半
月　墳瓦簷甃石
十月初六日平明都監提調都廳本所郎廳齊會　殯家內奉
審退　壙左右前面設白紋席白木槨地衣　隧道閣內下
排空石上排白紋席白木槨大地衣左右設白木排帳素屏
風二坐前面設大遮日下排地衣未時量　大舉進抵　園
所都監堂上以下出紅箭門外祇迎哭再拜奉安　梓宮於
丁字閣成　殯是日　殯家內用鍮燭臺四坐　紅紗方燭籠珍用故未及設　殯家內明火夜深後撤去
隧道閣內左右柱懸熾燭籠二雙達夜明火
十月初七日辰時　大駕到　園所詣　園上奉審　壙中後
等地灰三物灰五十五石平鋪六寸等至三寸準限後與正
壙地灰拘齊鍊正撤去隔　壙油芚設紙帳　形如紙子兩端繫紅繩以為掩

靜　壙中下排白木槨地衣上排別紋席紫的槨地衣安輪
舉　長生殿提調下退　壙內開坼假下隅板奉審外　梓
宮內淨拭排設甃木隅木不開假下隅板仍下紙帳設大求
徃扳二立於　壙上扳上設別轆轤機扳左右機扳上兩頭
立童子柱四箇童子柱內機扳上釘輪箭鐵各四巨里貫布
洁其上加四掾二株各端扣箭木二箇如十字形以紅鄉絲
三甲所圍結箭端四掾釘圍釘各八箇白細布綳結洁四巨
里各端繫箸木掛於四掾圍釘間童子柱四掾上橫加中防
木二箇　機扳松木二箇各長九尺寸廣九寸童子柱加時木四箇各長二尺一寸四八寸機扳六寸如時木二箇各長九尺廣五寸厚二寸四分四掾圍五寸厚二寸五分廣五寸厚二寸四分四掾釘四寸廣

隧道閣內排設來往板頭與　肩舁機頭連接舁　梓宮官率　侍衛別監奉引　梓宮詣　壙上防木上　大駕隨　舁　圍揔護使及內外都監提調都廳本所郎廳時原任大臣宗親諸執事奉陪而入他餘官員並不許入差備一丙侍去素錦褚（素錦褚自內出）梓宮防蓋有舁　解結裹以轆轤熟麻裹白苧布混二匝里別轆轤白細布綳結混四匝里奉　梓宮稍陞後撤去結裹諸具及小防木散物本徐徐奉下於現壙中輸舁上撤去　壙上兩排別轆轤及來往板　大駕臨金井機東邊西向立還　御　隧道閣外東　小次差備官盥手撤去兩覆　抴衣右議政盥手由層橋下現　壙中以雲錦子紬巾漬香醞藥合水淨拭　梓宮以新　抴衣三稱加於　梓宮（自內出時梓宮上鋪黃緞覆綳黃緞付板各二以現金鋪鎖付）

（抴衣左右扶翊還來抴護使以下入參諸臣退伏初階外哭如始臨位次）

盡哀再拜以待正時奏時官奏支時抴護使舉舁　梓宮官下現　壙舁　梓宮奉入　梓宮於　玄宮門（啞西付下隅板輸舁兩輪）長生殿提調以支撤木背負　梓宮下隅準限奉入後拔去外　梓宮內所設吃木隅木抴護使以下退伏初階外哭盡哀再拜（別監議政外班一體哭再拜）殿下贈王莎土匝及　長生殿木手等撤去　壙中輸舁　殿下贈王贈弟　親奠乃開外　梓宮下隅板　長生殿提調下現　壙內貼付白苧布於下隅板四方相接處加荼於布上而現本所郎廳李廷忱下現　壙內付表紙（長二尺廣一尺用蠟塗尺）於下隅板正中執義朴聖泰盡手書臣謹封著名而現抴護使本都監提調一員本所郎廳下現　壙內奉審而出右議政下現　壙內跪于　玄宮門外本所郎廳奉三物灰所盛函及小小鍾跪進右議政以鍾承灰　玄宮門前左右中三處各置三抔而現（贈王弟函稍移下現）莎土匝等以加灰填於下隅板左右邊旁灰穿鑿處仍下紙帳　大駕還　御齋室正　壙前面間三尺（禮及葬設）大隅板板兩頭釘大圈環以三甲索結環中懸於　壙上橫木　壙中下壁立成結板二立以鍊正木四簡捧支於隅板兩頭上下以防等灰時初採之與始等前面旁灰第一次三物灰十五石再次十四石三次十六石四次十五石五次十四石六次十六石七次十八石八次十七石九次十六石十次十四石十一次十六石十二次十三石十三次十五石每次平鋪六寸等至三寸準限高與槨壙上面相齊而後止撤去大隅板諸具及兩排地衣　大駕臨　冤

家內　親覽　壙後還　圍都監堂上一員下現　壙內所一排函親自照點傳授本所仍即傳授於大浮石所大浮石所以各揀石函排置於現　壙內本所將白水灰八十石填於石函間空處踏等至石函上面相齊後以三物灰平鋪於石函之上自初次至八次每次三十五石式平鋪六寸抔等至三寸與前面旁灰相齊而後止是日達夜

十月初八日　大駕行辭　圍禮初階下哭再拜還　圍都監提調以下　侍衛諸臣三階下哭再拜辰時　大駕還宮始等天灰第一次三物灰六十石再次五十八石三次五十七石四次六十石五次六十五石每次平鋪六寸抔等至三寸準限畢等高與金井機下隅相齊而後止撤去拘捧機及金井機仍造覆釜形初次三物灰三十五石再次三十石三次

二十五石四次二十石五次十二石每次抃等與正　壙覆釜形相齊而後止（延續天灰上來遞廣六寸一分以上實等合造覆釜形與正體同）以白木甲帳油苫網席覆之不為　封標毀撤半月　墳堝結

十月初九日平明掔護使都監提調郁廳本所郎廳齊會　園上奉審前面正地釐石屏風石排設後本所以三物泥灰摩一二三寸塗付於正地釐石屏風石內仍等篩下黃土次次平鋪抃等至屏風石上隅而止

十月初十日平明掔護使都監提調郁廳本所郎廳齊會　園上奉審前面滿石引石排設

十月十一日平明掔護使都監提調郁廳本所郎廳齊會　園上奉審以三物泥灰滿石內摩限二三寸塗付自屏風石上隅連鋪篩下黃土次次抃等至滿石上隅以三物泥灰摩限三四寸周鋪抃等如作覆釜形後又為等土馬古洁自初次至五次次次抃等未及鍊正姑停毀撤　隧道閣設羊石虎一石掔護使上去

十月十二日平明都監提調郁廳本所郎廳齊會　園上奉審撤去馬古洁前後左右高低尺量鍊成　墳形後蓋覆莎草撤毀　冤家柱穴處以篩下黃土填等未及鍊正姑停前面尾簷裳石排設始役

十月十三日平明都監提調郁廳本所郎廳齊會　園上奉審曲墻內地平鍊正後被莎草　覜遊石丈石武石馬石排設

十月十四日平明都監提調郁廳本所郎廳齊會　園上奉審曲墻內莎草畢役修掃尾簷裳石畢排設長明燈排設

十月十五日平明都監提調郁廳本所郎廳齊會　園上奉審二階上被莎草修掃補土所莎草未盡諸處盡為被莎畢役（自二階被莎補土所衆行）

十月十六日平明都監提調以下齊會奉審　園上及內諸處後史加修掃辰時仍行安　園奠於　丁字閣（祭官以都監堂郎白事出下）提調以下着祭服入參祭班罷後退伏紅箭門外哭拜而退仍為上去（果川止宿）

十月十七日早朝復　命

外　梓宮見揀

外長七尺九寸

外廣三尺六寸五分

外高三尺五寸一分

金井機

內長十尺六寸（減退一尺）

內廣七尺二寸五分

木廣八寸厚六寸（以上營造尺）

穴深九尺限金井機下隅（周尺）

封　園制度

前高十一尺五寸

後高十尺五寸

左右高各十一尺

園徑三十二尺（正甲面左廣）

周回一百尺

冤家園徑四十五尺

隧道閣長三十尺

廣二十一尺 以上造尺
石灰十五斗八里五百石 金川部下定承用本所所用三百石造成所承用二百石
露梁細沙十五斗八里三百石 運累預收護津別將擬來泊鴨汕及營門騎卒細
三物貢土封等黃土 白外甲虎方色品張好者取用
油灰十斗 白休紙法油文合折搗
慕華館莎草一千張 副上及初階上面鴨四最要運用都監移出使各軍門車子載事
三物交合式 都下正灰十五斗都下黃土五斗都下細沙五斗文合前下和水用之

造成所
郎廳副司果吳在文
監造官副司果呂駿永

鄉別看役李元榮
金之澤 以工水原將校
京看役李貴男 御營廳教鍊官
鄉看役牌將金昌九
白光郁
加定朴興國
李光鉉 以工水原將校
書吏李民秀
文時大 以上漢城府

孟世光 工曹
金景義 漢城府
庫直徐得鳳 軍資監
使令柳得春等三名 司僕寺軍
守直軍士二名 在京時給

己酉七月十五日會同十九日出 園所

本所郎廳監造官分差為有置其中有貿賤官負依幕等事目
各具司掌行是在果無貿賤官負依幕鋪陳發每方席案息
屏風漏江木光明臺筆墨硯匣硯石書案兩傘北分土唾口
盞茶甫兒臺具陶所羅揮手巾茶母等物依例進排為弥書
吏所用筆墨硯匣硯石公事下白紙二卷白休紙二斤紙俄
次厚油紙一張及謄錄假衣次東堂落幅紙一度文書所成
柳筒柳箕各一部勝木一升網席三立網具空石二十立等
物依謄錄進排為弥守直軍士二名段在京時給定送事兵
曹及衛將所良中捧甘何如 手決逸地進排貿賣物往來之弊
除之

取考膳錄則開基始役段小浮石所邊首率石手專掌舉行為
予添掘地拾石地正等事本所為之定礎等階填土等役小
浮石所為之為有置今亦依此舉行之意捧廿何如 手決小浮石所
無峻舉行開基時段
自本所專當舉行
丁字閣以下各處掛所入柚骨今將措備是如予貿取以用
何如 手決貿用
齋室以下散手根木方以毀破舊件取用是在果 丁字閣以
下散手根木編結纂索及泥匠所用細折穀草依例捧廿結
所取用何如 手決依施
丁字閣所排廬筆編結次匠人十名依膳錄高陽郡良中定色
吏領付事移文畿營是遣所入廬草入董進排之意捧廿經
工監何如 手決依施

丁字閣工塔草立宮等横浪處塗褙次年分休紙二斤依例捧
廿取用何如 手決依施
丁字閣上樑後蓋尾時或有雨下之弊是良置真大笘五十番
依前例用遞次兩倉良中捧廿待令何如 手決此則當下來矣
取考丙申膳錄則 丁字閣上樑時及各處紅箭門竪立時所
用新排大來注十二艮衣用遞次取用為添先依月十六日
及各處窓户付接魚膠十張陶罐二部軍器寺良中領為進
排事捧廿何如 手決依施
丁字閣圍排紅箭門及洞口紅箭門段置自本所造作是遣洞
口外紅箭門段本官造作竪立乃是膳錄是置以此知委
營何如 手決依施
丁字閣四面立紅門是遣用把子圍排矣以把子不能整齊

啓稟後代用軍門布帳自是近例是置今番段何以為之是
乎喻 手決今番段以本官布帳代用
已有 成命自本官當舉行
取考丙申膳錄則 丁字閣丹青畫員八人畫僧二十二名使
役為乎矣辛亥膳錄則畫僧段三南及畿營捉來使役是遣
近年則以南北漢畫僧畿邑畫僧使役是如乎今番則依近
例以南北漢畫僧及畿邑畫僧起送之意發關為乎旀畫員
八人段置越期定送事捧廿圖畫署何如 手決依施
紅箭門所入三物所材木所取時一體舉行為乎旀 韓鞫教
是時辛亥膳錄則內人假家二十一間假 齋室六十九間
是遣丙申膳錄則內人假家四十一間假 齋室六十七間
是如乎今番則何以舉行是乎喻指一分付何如 手決材木所取以用
紅箭門今番則既經燒燼只設大紅箭門下
玄宮後撤去復竪永排紅箭門禁並置之事

取考膳錄則 丁字閣以下散手以始役時伐去木取用是如
乎今番段 園所既無伐木之處而本邑多有伐去木矣不
喻根木編結索皆是地方官進排則散手亦當自地方官舉
行捧廿結所何如 手決依施
本所使役各邑匠人等所用鍊粧別音使嬬治所舉行之意捧
廿何如 手決依施
本所木手所用松烟十二兩依膳錄該監良中捧廿取用何如
本所凡舉行各樣文書極為浩多紙地用度倍於他所矣不喻
園所一應諸事及 韓鞫時移文往復等事專管舉行是乎所
叅考辛亥膳錄則書吏所用白休紙十五日一斤式取用是
如乎今番段依此取用為乎旀筆墨已盡無餘黃筆四柄真

墨二丁亦為捧甘取用何如手決依施
今此上梯時節次則依儀註通禮院舉行是在果排設凡節段
取考辛亥謄錄則遮帳屏風地衣高足床三兩燭一雙紫丹
香及香爐香盒各一地排等物本官舉行是遣丙午謄錄則
京各司良中捧甘取用是如乎以何年例舉行是乞喻指一
分付教是乎旀　祭物米酒果自都監措備是如乎亦為磨
鍊上下何如手決祭物依謄錄磨鍊排設凡節依辛亥謄錄本官良中舉行
上梯文奉　安處所以　香大廳等待是在果所排床屏揮帳
地衣等物分付本官以為排設之地是遣床巾二件濟用監
良中捧甘取用何如手決依施
取考丙申謄錄則依補綳勿設退搆床卓並為排設於　丁字
閣內是遣　攢宮制度段着真粉茶正鍊材木先設四面地
防於　丁字閣御間排置於　神門內以虛其前為　靈座
諸具及床卓排設之地是遣仍為立柱於地防上平坊雲角
欹隅板朴工梯木小露小攔次第造成之後使兩傘匠設竹
網於其上仍以魚膠四面付接以白紬正布甲巾覆於其上
三覆搗鍊紙段依補綳所載勿用是遣又覆白搗鍊紬甲帳
落纓童道里具設白搗鍊紬四面中揮帳又設四面樟子而
塗褙則以上品搗鍊紙為之內設黑三升仰帳樟子左畫青
龍右畫白虎南畫朱雀北畫玄武亦為有置今番段置依此
舉行何如手決依施
丁字閣丹青時假恭匠所用筆器等物不入於織營分辦中乙
仍于捧甘該司矣遷　園都監防偽私通內依謄錄取用於
地方官亦為有如乎捧甘結所取用是乎喻稟手決依施
取考辛亥儀軌則吉帷宮不為排設　梓宮上　山陵教是時
紙牖移　安於　丁字閣東邊為有如可　梓宮　上　山陵
教是後更以青木綃地衣排設後　紙牖奉　安於御間當
中床卓排設事　遮禦之奪為有置同地衣宮入待令之意
捧甘分長興庫何如手決依施
因山教是時大紅箭門材木自此無待用之路而取考辛亥謄
錄則大紅箭門次船竹十二箇舖工監進排是如載錄為有
置今番段置量入捧甘何如手決依置
丁字閣　正殿三間拜位廳二間前後簷階內外所排白木綃
白紋地衣見樣造作為有如可　梓宮上　園教是後即撤
白紋地衣更設青木綃別紋地衣為乎旀　大擧陪進時月
臺下實土等階上白紋地衣一浮依等階長廣見樣造作為
乎旀　神御平床下排別紋地衣一浮藍紬綃上排彩花席
一張紫的綃床下排別紋席一張藍紬綃　梓宮下排九張
付油苫一浮別紋地衣一浮藍紬綃上層平床一坐上排彩
花席一張紫的綃下排別紋席一張藍紬綃下層平床一坐
上排彩花席一浮紫的綃　靈座滿頂骨平床下排彩花席
一浮紫的綃床上排彩花席一張紫的綃座子上排彩花席
紫的綃見樣造作　靈宮小攔床下排彩花席地衣一浮紫
的綃上排彩花席一張紫的綃內拱紅紬　大擧　肩舉退
安處下排鋪陳及　水刺間供上廳破家等油苫仰遮帳
祭物中陳所內外　水刺間正殿六廛中防下初塗白紙再
塗楮注紙三塗白菱花帶青菱花柱頭塗白菱花帶青菱花
齋室塗褙鋪陳舉行等物隨所入該庫官員率屏風匠塗褙單

親自看撿乃是謄錄是置依此舉行之意分長與庫良中捧
甘何如（手決依施）
取考謄錄則　櫬宮制度從　梓宮長廣各加二尺造成故
梓宮長廣高下尺數詳細回移之意移文　長生殿為有置
今亦依此移文何如（手決依施）
櫬宮內鴉青木綿仰帳新造排設之意前已稟定矣舊　園所
則以黑三升仰帳排設是如乎一都監之內不可異同排設
仰帳所入黑三升捧甘取用何如（手決依施）
取考丙申謄錄則　靈座　靈寢排設諸具從出於　魂殿都
監　發靷日運來　陵所成　殯前是如為有置今番段置
依此舉行之意捧甘各該司何如（手決依施）
取考謄錄則　神御平床一坐床卓具道乃木二十四箇禁火
毛掃乃四箇　齋室所排　香撒沐槽架子　祭祀撒床卓
諸具及砧木等物別工作造備進排餠石大小磨石等物段
小浮石所磨正進排為有置並只預先捧甘何如（手決依施）
取考謄錄則　壙中習儀時假輪臺板遷　園都監一房精造
運來為有置今番段置依此舉行之意移文何如（手決依施）
取考辛亥丙申兩年謄錄則　丁字閣上　園習儀時　有舉
則遷　園都監一房專當整齊以待輪舉亦為專掌次知是
遣破　殯所帳帟次則通禮院專掌舉行是如為有矣即捨
禮曹關內九月二十日上　園習儀處所京都監良中設幕
次行禮亦為有卧乎所各處捧甘一節何以舉行是乎喻稟
取考丙申謄錄則　神門朱簾一部龜紋編結籃紬緣及童道
（手決處所既定於京都監則捧甘等節亦當自京都監知委事）

里具草綠落纓具出見揀造作懸次草綠綿綠三甲所二良
衣素帳懸次白綿綠三甲所十良衣朱荼貼木及輪箇曲金
雉尾幡二柄禁火豆毛二坐和水鹽六斗等物及時進排事
各該司良中捧甘何如（手決依施）
取考丙申謄錄則　櫬宮內回南首上下層平床及來往板二
立散輪木十箇着真粉荼別工作造作進排鋪排褥席則濟
用監分長與庫舉行是如為有置今番段置依此舉行之意
捧甘何如（手決依施）
取考謄錄則　丁字閣永排硯匣一坐筆墨具臨時進排為乎
於禹木諸具輪舉等物遷　園都監一房前期運來習儀後
遷授於別工作為有如可臨時取用是如乎並只移文捧甘
何如（手決依施）

丁字閣　碑閣梯上塗灰所入白土性不膩粘勢將和紙作泥
以避罅隙之慮是如乎白休紙十介加磨鍊捧甘依用何如
（手決依施）
取考謄錄則　丁字閣以下地正塗炭合四百六石半以十五
斗全石取用於灰契是遷所盛空石自都廳上下是如乎今
番則以三物所貿來金川灰餘數中取用何如（手決依施）
櫬宮所用笑裳香四柄捧甘取用是遷香亭之四坐段用遷為
有置今亦依此捧甘何如（手決依施）
靈寢所排畫屏四坐素屏二坐依謄錄造送之意移文遷　園
都監何如（手決依施）
取考辛亥謄錄則　發靷教是時　丁字閣所排紅紗方燭籠
四坐例自遷　園都監造送是遷下　玄宮教是時左右羅

列松明炬差使員擔當為有如孚令番段置依此舉行之意
移文遷　園都監及織營何如（手次依施）
取考丙申謄錄則　丁字閣　殿內排設內侍次知舉行　殿
外排設則司鑰與長興庫典設司分掌舉行為有置依此舉
行之意各該司良中捧甘何如（手次依施）
取考丙申謄錄則大小輪擧　肩輿遷　園都監專掌舉行各
樣儀物遷　園都監各該房臨時整齊次第排列於洞口內
為乎旀咨　攢宮與陵幕次則通禮院專掌舉行為乎旀
發靷前一日遷　園都監一房率匠手預設輪擧而自月壹朔
攢宮地防前為有置令番段置依此舉行之意移文捧甘何如（手次依施）
取考丙申謄錄則　丁字閣所排玉燈一坐及　攢宮造成所
覆竹網或竹簟不為編結以戶曹所在取用是遣假募匠所
用黃州朱土二斗段置亦以戶曹所在取用是如乎玉燈懸
索紅絨絲三甲所一艮衣并以臨時進排之意移文捧甘何（如手次依施）
大擧儀物假家不為造作只設油遮日及雨備事　遮簟定奪
為有置以此舉行之意移文遷　園都監為乎旀　梓宮上
園教是時左右羅列木燭臺用遷次進排為乎旀儀物入置假
家代遮竹入量進排事捧甘何（如手次油遮日則已為捧甘文是在果遮竹依例捧甘）
取考辛亥謄錄則　大擧到　園所前一日早朝典設司設遮
帳於　丁字閣東西庭及拜位廳左右簷下又設　紙牖幕
次於東庭又設　祭物中陳所於西庭　正殿東楹上別設
遮帳以為內外　祭物中陳所而拜位廳前面　大擧陪進
處又設大遮日一浮又設四面布帳圍排上皆用揮帳為有
置令番段置依此舉行之意捧甘何（如手次依施）
取考丙申謄錄則　發靷教是時　丁字閣所排大鍮燭臺二
雙中鍮燭臺三雙黃燭入量進排為乎旀　梓宮上　園教
是時剌燭望燭行路羅列黃燭玉燈燈油每日一升五合式
及時進排為乎旀　水剌間造果廳　祭物熟設處白木仰
帳隨所入磨鍊進排是如乎令亦依此捧甘何如（手次依施）
取考丙申謄錄則　梓宮陪進教是時　大擧馬木所排板乎
段當令別工作預備以待是在果遷　園都監事知木手前
期出送覲勢排置是如乎　大擧馬木高長橫杜尺數詳細
書送之意遷　園都監良中移文何如（手次依施）
丁字閣所排大蘆簟所入依謄錄捧甘取用何如（手次依稟排甘為乎矣）
麻段捧置中量入取用大蘆簟十四浮戶曹所在取用
本所木手泥匠等所用中繩為先八十把捧甘取用何如（手次依施）
家舍次第毀撤工匠無依接之處木手以公廨破材木分營土
室而覆鋪空石一百立綸結網几三十立可以容入是如為
去乎依此上下何如（手次依施）
本所使役大引鋸入接假家所用空石五十立網几十立及治
木所空石五十立乘所委收聚次網具空石五十立即速上
下何如（手次依施）
丁字閣木物載運時所用筒瓦四十艮衣上下何如（手次斬半為先上下）
丁字閣地正所入沙運來時所盛空石二百立網皆四十即為
上下以為運沙之地何如（手次五十立先上下）
地正時運土軍擔舉所入空石二十立及　齋室撐柱機械所

入莒洗三十艮衣鄉募軍二牌幕所入空石各四十立依他例上下何如（手決依施）

香大廳　齋室以下各處修補時洗淨所用巨布進排之意捧甘何如（手決依施）

齋室撐持修補時及三門修補所入莒洗九十艮衣木手假家所入空石五十立即速上下以為及時取用之地何如（手決依施）

香大廳修補所入空石三十立網元四十立莒洗二十艮衣杻三太十箇即速上下以為及時取用之地何如（手決依施）

大次撐柱機械所用莒洗八十艮衣上下何如（手決依施）

取考辛亥謄錄則永排紅箭門柱礎二箇及油灰小浮石所前期排立為有置令番段置依此擧行之意捧甘何如（手決依施）

今八月二十六日二提調入　侍時大紅箭門永排紅箭門不可不各設事　筵稟榮　允教是如予大紅箭門竪立事分付本官何如（手決依施）

敬考謄錄則　聲勒教是時　園所應行等事本道差使員及地方官擧行是如乎各採物種數又依後錄分定列邑後其物某事段某邑擔當擧行是如明白區別修成冊上送為乎矣成冊亦端次知色吏姓名書填為旀各其該吏預為待令於　園所凡百事件這這聞見本所後擧行事嚴飭施行之意徽廟良中聲關知委何如（手決依施）

園上地排及內外　水剌間造果廳內外　祭物中陳所各樣儀物列立處所設遮帳所入長木抹木莒麻索　園內一應地排事

梓宮上　園時左右列立松明炬事（以上差使員擔當）

紅箭門外山路修治等事

水剌間造果廳燈盞所用砂鍾子隨所入事

丁字閣四面守直軍十六名定送事（以上地方官擔當）

本道工房營吏結束色吏待令於布帳外聽分付擧行事

水剌間造果廳如有不時責納之物則這這聽分付擧行事

聲勒日一路傳語結束色吏及營吏一人待令于洞口傳語即時告課俾無一時遲滯之弊事

各處泥匠所用大木槽十部各處馬廐木槽進排事（以上本道擔當）

丁字閣永排　神御平床褥一坐及卓衣以　內下件當為排設是在果　梓宮結果白木連三疋三甲所一艮衣二甲所一艮衣退　嬪習儀所用曳洗白布三甲所一艮衣二甲所一艮衣朱簾幬次草綠鄉絲三甲所二艮衣素帳幬次三甲所十艮衣玉燈心柱綿花入量等物依謄錄進排之意濟用監尚衣院良中捧甘何如（手決依施）

贈玉贈帛案褥席自　園所都監造進事　傳教教是如予案在遷　園都監褥席段詳細出見採縫造陪進日前期進排于　園所事捧甘尚衣院濟用監何如（手決依施）

燒火秩

丁字閣內排白綾白紋地衣一浮

攢宮下排六張付油芚一浮

上排別紋席一浮　床下排彩花席一浮

下層平床一坐　床上排彩花席一浮

龍文一箇　柔心二箇（彩花席及櫻子具）

囲南首平床一坐　竹簟一浮

上排別紋席一浮　褥一内出
上排彩花席一浮
攢宮内鴉青三升仰帳一浮新造
四面甲揮帳四部　攢宮白紬覆巾一件
竹簟一部　攢宮上白紬仰帳一浮
三門紅綃帳三浮移用
玉燈懸索紅絨繩三甲所二長衣
攢宮上下地衣八箇　杜木四箇
四面樟子十二支　蓋呢一部
上下赤貼　束往板二立
馬木二箇　散輪木十箇
拜位廳所排白紋地衣一浮
左右簷階所排白紋地衣二浮
大舉下排白紋地衣一浮　肩舉下排白紋地衣一浮
腰彩舉下排白紋地衣四浮
誌石下排白紋地衣一浮　香亭子下排白紋地衣一浮
以上本所次知舉行
靈座諸具
方交倚一坐　彩花地衣一浮
草綠褾紋緞座子一坐　彩花席三件
倚子一坐　交倚覆蓋方紬褥一件
滿頂骨高攔平床一坐　草綠褾紋緞褥一
黑粧緞滿頂巾一件　揮帳一件
四面床一坐

牧丹屏一坐
攢宮諸具
白紬甲素帳一件　草綠褾紋緞褥一件
白紬甲素帳一件　彩花席一張
三升仰帳一件　滿花地衣一浮
四貼二升屏七坐以上移用件内都監次知舉行

爐冶所
郎廳副司　渠金　盤盞
京　音　役金德尚　廣梁倉使
書吏薛守範　清城尉
書員金喜燁　司宰監
庫直徐重圾
使令車興大　以上東關書
守直軍士二名　本宮時給

本所出去新　園所後各所進排鐵物萬分時急正鐵一千斤炭一百石為先上下為乎弥治匠等所用鍊粧輸運次車子一輛即為待令之意分付何如（手次依施）

本月十七日京着後及書吏一人先往新　園所設爐治七坐於火藥外是乎所爐冶假家及冶匠艾幕分定各邑已為造作而匠手入接處地排空石每名一立式二十九立上下何如（手次依施）

本所初頭鐵炭先已上下者今既盡用是如乎見今工後日漸浩煩自今為始所用鐵炭流伊上下後以為往實入磨助之地何如（手次依施）

本所募軍元定十名而其在鄙省之道減去三名以一爐一名式七名許付之意分付何如（手次依施）

本所文書所用白休紙捧甘取用後從實入會減之地何如（手次依施）

本所工後連以浮石所鐵物之晝夜打造　丁字閣鐵物尚未入手期日促迫生事丁寧是如乎參董事狀爐冶二坐姑為加設伴無很役之地何如（手次時急事後其勢似然依重）

本所粧飾鐵物造成次造匠五名鎖鑰匠一名鍼匠一名扑排匠一名推捉使役何如（手次依施）

本所造匠鐵匠鎖鑰匠等艾幕自本府結所造給而地排空石三十立上下何如（手次依施）

本所各採鐵物及粧飾等物一依各所捧甘打造稱董於都廳後還為受来隨時進排何如（手次依施）

取考丙申謄錄則薪鐵一百斤鍊作正鐵五十斤炭一石正鐵

己酉七月十五日會同十九日出　園所

稟目秋

取考丙申謄錄則本所初頭鐵物艾爐於軍器寺打造出去而今以期日之迫急勢不得周旋是如乎各軍門良中所在鐵物姑先移文借去以為及時進排之地何如（手次依稟移文）

本所郎廳依幕所用地衣登每方席沙唾口各一及書吏二人文書所用筆墨各一紫硯一面亜具書板二箇白休紙一斤柳笥柳箕各二部摺子鎖鑰具二部謄錄假衣次落幅紙半張紙帖次孛油紙一張軍匠牌等依謄錄捧甘取用何如（手次依施）

本所守直軍士二名依謄錄自會同日為始定送事捧甘何如（手次依施）

麤造正八每百斤劣十五斤炭六石精造正八每百斤劣三十斤炭九石五斗精精造正八每百斤劣五十斤炭十六石五斗是如乎令番段置依丙申謄錄施行何如（手決依施）

本所治役幾乎垂畢風爐及各項匠手鱗次減去何如（手決依施）

營造鐵物從實入依淳祈磨勘計料為乎矣其他窰入與用還物種後錄仰稟後文广書依例會成何如（手決依施）

大浮石所

郎廳別司果徐直修

京別有役沈覓俔　前縣監

丁遇泰　前僉使

鄉別有役金泰瑞　本府通校

京有役柳惠根　前僉知（前僉知改鄉官）

朴震彧　別侍衛（別侍衛改鄉官）

鄉頭役門將趙宽玉

金良澤

加定軍役倫

金光麗

李京五

洪元杜　以上水原通校

書吏金聲麗

金世煖　以上刑曹

書員金為洙　軍器寺

庫直姜宽哲　軍資監

使令林遇春等三名　（良中二刑曹一）

守直軍士二名　（刑曹）

七月十六日會同十八日本所郎廳先為下直率自役匠募等出往江華府煤音島浮石所二十日始役水原鷄峯浮石段補土所監造官申文顯無察董役（見浮石條）八月初五日因都監甘結本所郎廳撤還於鷄峰浮石所後監造官轉往如岐山分所浮石九月初八日還入內役所

稟目秩

本所書吏紙帢次原油紙一張謄錄假衣次落幅紙一度文書所盛柳箕一部措子一部具錙鑰紫硯匣具三坐土火爐二坐黃筆真墨各三書板三介膠末五升白休紙五斤燈油依謄錄捧甘取用何如（手決依施）

本所郎廳依幕所用鋪陳及糧饌點火木等物依謄錄捧甘何如（手決依施）

本所出役時所用各攩物種極其浩多故自前依謄錄事予二輛捧甘京兆取用矣今番則程途頗遠車運有獘營門卜馬移文劃給以為輸運之地何如（手決依施）

本所使役石手一百名治匠十牌募軍六十名依禀定付役而石手每名募助役一名肉助役一名每十五名火丁一名三十名卜直一名治匠每名募助役二名肉助役一名火丁卜直一依石手例支給募軍則每牌火丁二名卜直一名以元數中依例定給何如（手決石手四十名治匠四名募軍三十名姑先付役）

石手邊首一名自會同日在京時給付料何如（手決依施）

本所使役石手不可不預先知委待令而京石手下鄉者及外方元居石手自都監發關各該道使之因夜押送之地何如（手決發潤）

本所郎廳今十九日到江華府面議於該府留守探問於斛事史校則浮石處距邑內四十里而細石及艾石所在處相距亦為數十里土磊丘積尋得石面甚難不可以數少募軍舉行且石品甚剛實難浮出而本府元無鐵物只有正鐵四百斤炭一百十六石而炭石不完云募軍三十名石手二十名治匠二名姑先加付初頭所用鐵物嚴飭爐冶所使之因夜進排為於強鐵限五十斤即為上下營門炭優數劃給為乎矣郎廳明曉率匠募等進往煤音島始役計料并即區處何如（手決浮石處所今已分定兩所工役自當減半匠募等加送非所可論炭則七百石劃送鐵則自戶曹劃送數為五百斤以下貧役匠募料布廣鍊以送以此姑先取用於江華府）

卽伏見江華府所下別諭則水原石物浮出數文令浮石所郎廳往復都監詳細停當亦教是如乎依　聖敎詳確於別看役及石手等處則以為敲石虎石羊石籠臺及下臙石曲墻所入各攩石物初堦二堦石等小小石物浮出於水原是遣其餘體大石物不可不浮出於江華府是如乙仍于玆以馳報為去乎詳細停當以為舉行之地何如（手決魄遊石及屛風石所入舡浮出其餘石物一並勿為浮出）

本所石物尺量以何年謄錄舉行是乙喻指一分付何如（手決石物尺量依辛亥年例浮出）

正鐵五百斤炭七百石區劃本所是乎乃石役今既分所七百石炭數甚夥肰三百石舡輸送煤音島四百石今姑停罷何如（手決依施）

魄遊石三次浮出而俱不準尺今以細石之準尺者浮出裁正是如乎艾石段濮埋石窟之中者不過二處而多年浮出石脉殆盡所餘者體薄尺短云今若以艾石浮出則諸般石物之不及尺量已無可言玆以仰稟（手決本所浮石撤罷之意昨已捧甘是如乎奉匠手）

園上圓徑為三十二尺屛風石所入各攩石物要為出見攩次（分定於畿邑）

六油苫二番細繩五百把取用何如（手決油苫姑置之細繩依施）

本所石役萬分急迫自今八月十二日連為同夜董役是如乎百牌石手一併達夜則反有晝役不實之處故分作二隊輪回替役而匠手等夜役時饒氣債依他匠手例逐日上下為旀夜役時所用炬子優數陸續輸送何如（手決饒氣債依造成所例每名一錢式上下炬子出送事分付）

石役萬分急迫外方石手隨其來到并卽付役是遣石手味匠

刻手等夜役時所用黃蠟肉膏從所入逐日上下何如（手決依施）

本所石物同夜治鍊盡為除卜曳下於平垣處而各項預差石物使看役將校軍仍晝看檢鱗次輸入計料為手祘本所用餘炬子一百四十八柄生葛十同窖石六十一立赤心木及支乃木合九十一介并姑蓬授於里任處是遣郎廳仍還內役所董役之地何如（手決依施）

魂遊石及籠壘石磨正時所入金井機肩支木古音木長山木剪板證木隨所用并木手別工作良中知委待令磨正石令小浮石所優數待令手巾布十七尺自都廳上下露梁細沙及玉沙容所入輸來是遣強中礪石及延日礪石優數知委等待所用雜物擔桶二箇木槽一部果鄸子五箇中瓮一箇磨正石曳洗次較草隨所入石物修掃次尾箒三十箇一一

捧甘取用石物起畫雕刻時畫負一人及所用機械木編結木令造成所待令何如（手決依施）

石物磨鍊時所用長竹二介柱金一介石物封裹次破帳五十浮依例戶曹及各司捧甘取用何如（手決依施）

曲墻所入各樣石子及星石令小浮石所依例進排半方甎瓦礫灰夫瓦防草令蓊瓦所待令是遣　碑石籠壘加舊築確萬分時恐更為促關於內都監使之出見樣冈夜馳送之地何如（手決依施）

刻手匠掌匣所用獐皮二張捧甘取用　表石及誌石奉安假家所入油遮日揮帳地衣令長興庫典設司待令假家造成及古音木守直校卒令結所待令高足床床巾木紅袱各二件令濟用監繕工監待令事分付何如（手決誌石奉安於誌石依施）

等曲墻時泥匠三十名蓋匠六名依例令造成所待令為遣油灰所用法油十斗白休紙三十斤粥米二斗馬尾竹篩各八部揀固木五十介泥匠所用芻耳六十介掌匣次狗皮十二張加莫金七十介細繩四百把依謄錄捧甘取用各樣石物排設處初揩二揩地正灰曲墻地正及等墻蓋瓦灰油灰所用石灰支鐵古音青石優數待令　魂遊石排設時所用假鼓木四介　碑石竪立時所用加馬肩支二介直巨木四介令別工作待令各樣石物上山時所用大束淺十巨里自都廳上下中雪馬二部令輸石所待令何如（手決依施）

各樣石物上山時小小石物以擔機舁運體大石物以馬也之板曳運事甚便易云以造成所用餘邊板四立三物所來往板二立取用何如（手決依施）

本所使役刻手八名手巾布每名各一尺依例上下是遣石物進排時所用橫結木五十介大圓板一立證木二十介令別工作進排北心算令結所入量進排何如（手決依施）

取考丙申謄錄則本所所用灰合為三百九十石而三物所滓灰猶為多數取用是如乎各樣所用灰優數區劃俾無臨時窘甚之地為乎旀排設石手所着白布衣布巾布機繩鉏各三十件依謄錄捧甘取用石物結裹次牛毛氈二十浮皮紙十卷亦為取用纔纔次茵匠一名以長興庫待令匠手推移使役何如（手決依施）

曲墻地正時所用擔桶五部椵三太二十介果鄸子二介揀固木六十介屏風石方位刻字　魂遊石前面坐向刻字及坐向石刻字填紅次漆朱紅五兩阿膠四兩石手所用白蠟四兩片臘脂二張青花一斤中綿子二斤白綿絲一斤唐朱紅一兩唐粉三兩紅綿絲八兩大

銅絲二十四把書筆十柄捧甘取用何如（手決依施）
等曲墻所用黃土及面土所用白土以運沙車優數運峙俾無臨時窘
是之獎石物上山時擔軍所着白布頭巾六十件捧甘取用是遣
魂遊石上山時所用大衆法二長衣依謄録以大衆法取用石物排
設後修掃所用草省尾箒各二十介捧甘取用何如（手決依施）
石手等所告内石物修掃之際屏風石雖刻處不可以草省揮掃是如
為卧予所洗淨次手巾布二十尺即為上下為手旅盖匠或有使役
之事二名姑為待令何如（手決依施）
石物排設時古音次新鼓一介畫為破碎用之是如予本價廣録上下
何如（手決依施）
碑石姑未甲録見樣出不出來籠漆加簷以草見樣鑿壁後籠臺則安
排於　碑閣内加簷及加馬肩支直巨木姑為等待於　碑閣近處
是如可待豎立時取用何如（手決依施）
本所草謄録所用白休紙二斤白紙二卷黃筆三柄真墨一丁
捧甘取用何如（手決依施）
本所所用各樣物種實入與用還之類區別仰稟為去乎依例
會減事移文戶曹何如（手決依施）
石物尺量
正地臺石十二箇長各八尺三寸廣二尺六寸高二尺外
面起畫六寸
隅屏風石十二箇廣各四尺五寸厚一尺六寸高二尺用
粧三寸
面屏風石十二箇廣各三尺七寸五分厚一尺六寸高二
尺
滿石十二箇長各八尺三寸廣二尺五寸高一尺三寸下
面起畫六寸
引石十二箇長各四尺五寸廣一尺一寸五分高八寸連
花并葉高一尺七寸
隅瓦簷蒙石十二箇長各二尺七寸廣四尺六寸高一尺
三寸五分
面瓦簷蒙石二十四箇長各二尺七寸廣二尺五寸五分
高一尺三寸五分
瓦簷蒙石十二面每面隅瓦簷蒙石各一箇面瓦簷蒙石
各二箇每面廣各九尺七寸瓦長一尺八寸五分夫瓦廣
四寸女瓦廣七尺五分蒙長七寸
下碑石四十八箇長簷見小溝石所
滿石篆刻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十二字引石蓮
花上篆刻癸艮甲乙巽丙丁坤庚辛乾壬十二字填紅
魂遊石長九尺九寸廣五尺九寸高一尺七寸八分前面篆
刻癸坐二字填紅
敲石四箇各高一尺七寸四面廣二尺五寸
下碑石二箇長各四尺九寸五分廣六尺高一尺三寸
長明燈臺上高四尺八寸座下一尺五寸八面每面廣各
一尺二寸五分
盖石高三尺五寸八面每面廣各二尺
望柱二箇長各七尺五寸八面每面廣各六寸
望臺高二箇臺上高各二尺臺下八寸八面每面廣各一
尺一寸三分

文石二箇長各八尺八寸臺上高六尺八寸臺下二尺廣二尺六寸厚二尺二寸

武石二箇長各九尺一寸臺上高七尺一寸臺下二尺廣二尺八寸厚二尺二寸五分

羊石二箇長各四尺五寸臺上高二尺七寸臺下一尺廣一尺三寸五分

虎石二箇長各四尺九寸臺上高二尺一寸臺下一尺廣一尺六寸五分

馬石二箇長各五尺臺上高三尺一寸臺下一尺廣一尺六寸五分

碑籠臺石長五尺三寸廣三尺五寸高二尺七寸

下碑石二箇長三尺三寸五分廣四尺九寸高二尺二寸

加簷石長四尺九寸廣三尺四寸高二尺五寸

曲墻後面外長五十尺七寸五分內長四十七尺隅面長三十六尺二寸潤出長三十三尺三寸左右長五十七尺五寸後面高三尺八寸磨墻下左右高三尺八寸厚二尺

花階三層高三尺六寸廣四尺

誌石函長三尺四寸廣二尺九寸高一尺四寸

贈玉函長一尺二寸五分廣四寸三分高四寸五分

瞽帛函長二尺五寸三分廣九寸六分高四寸八分

坐向石長二尺廣一尺厚五寸書刻以　顯隆園左旋乾亥龍癸坐丁向（丙午）分金乾乙申得水午破穴深九尺用周尺屏風石圓徑三十二尺用營造尺隔灰一尺窮灰三尺地灰三寸用禮器尺天灰限金井正地臺石下用碑石環

鋪碑石下等灰厚一尺七寸（分金縫針填紅埋安於　魂遊碑石左側

蓋石長廣與坐向石同

屏風石後面至曲墻十二尺八寸

正地臺左邊至曲墻十七尺七寸右邊同

屏風石前面至　魂遊石間五尺七寸

屏風石前面至初階十一尺八寸

魂遊石前面至長明燈間十三尺五寸

初階至再階間二十九尺

曲墻左邊至右邊間六十七尺八寸

良簷壕石至曲墻十五尺後面至花階五尺五寸前面至魂遊碑石二尺

望柱至文石間七尺五寸左右同

文石至武石間五尺五寸左右同

武石至馬石間六尺五寸左右同

初階至羊石間二十九尺三寸左右同

羊石至虎石間十三尺八寸左右同

曲墻下虎石左右相距四十一尺八寸

曲墻臺下至羊虎石各間三尺九寸左右同

望柱左右相距五十七尺六寸

文石左右相距六十三尺六寸武石相距尺量同

馬石左右相距六十九尺

初階至文石間五尺六寸

曲墻所入女夫尾合一納九百十張

女夫防草合一訥五百十五張
半方甎五訥一百六十張
瓦礫八量
石物排設
屏風石排設處圍徑三十二尺用營造尺掘土長七尺深七尺初次搥固後以三物灰杵築至四尺後下碑石仍為排設碑石上仍設正地廛石正地廛石上仍設屏風石屏風石上仍設滿石滿石十二隅仍設引石正地廛石四面環設瓦簷裝石三十六箇而各據石排設時縫合處以油灰填實支鐵股水鐵及正鐵作凡用之
曲墻圍徑二十三間而後面長五十尺七寸五分掘土深至四尺廣則四尺五寸左右隅面長三十六尺二寸左右長闊只三十三尺三寸掘土深各五尺廣各三尺初次搥固後以三物灰杵築地平後仍設地廛石及花塔
初階長七十七尺前面高八寸左右高六尺五分掘土深五尺廣二尺五寸初次搥固後以三物灰杵築地平後仍為排設
二階長九十六尺高七寸五分掘土深五尺廣二尺五寸初次搥固後以三物灰杵築地平後仍為排設
魄遊石排設處掘土深七尺八寸長十四尺廣八尺五寸初次搥固後以三物灰杵築四尺後　誌石函排設處還為掘土石函安排後　誌石函四部並與外木函仍為排設於石函內而空隙處以細沙填實仍覆蓋石以大鋼絲十字形縫結又以三物灰杵築後下碑石仍為排設以假鼓

木四箇先為排設於下碑石上　魄遊石安排於假鼓木上後仍設鼓石假鼓木撤去
虎石排設處掘土深三尺五寸廣三尺長六尺初次搥固後以三物灰杵築仍為排設
羊石排設處掘土深三尺五寸廣三尺長六尺初次搥固後以三物灰杵築仍為排設
望柱排設處掘土深五尺廣五尺長五尺初次搥固後以三物灰杵築望臺高先為排設望柱仍為安排
文石排設處掘土深七尺廣五尺長五尺初次搥固後以雜石填築再次搥固後以三物灰杵築仍為排設
武石排設處掘土深七尺廣五尺長五尺初次搥固後以雜石填築再次搥固後以三物灰杵築仍為排設
馬石排設處掘土深五尺廣三尺長六尺五寸初次搥固後以雜石填築再次搥固後以三物灰杵築仍為排設
長明燈排設處掘土深七尺廣九尺五寸長十尺五寸初次搥固後以雜石填築再次搥固後以三物灰杵築仍為豎立後蓋石安排
坐向石埋安處掘土深四尺廣一尺五寸長三寸初次搥固後以三物灰填築一尺後仍為埋安以蓋石覆之三物灰又為填築至地平
碑籠臺排設處掘土深七尺廣五尺五寸長七尺五寸初次搥固後以三物灰杵築後下碑石先為排設籠臺石仍為安排
屏風石後八面先為排設後半月封　墳前四面下　玄

宮後次第排設羊虎石封　園前先為排設其餘各揀石
物封　園後次第排設十月十四日畢役

補土所

郎　廳掌樂院僉正鄭東協
監造官司饔院奉事申文顯

京　別看役鄭道弘　前僉使
京　看　役柳孝源　前僉知監教授官
鄉領役牌將金致祥
嚴重武
崔道義
崔考純
加定全行一
黃再淡
洪允祥

黃啓清　以上水原將校
書吏申益文
朱景輝　以上刑曹
庫直金正元　軍資監
使令李命大等二名　兵曹寺
守直軍士二名　仁京　以上樂院

己酉七月十五日會同十九日出　園所二十日辰時始役

稟目秩

本所文書所用白休紙二斤謄錄假衣次落幅紙半張捧甘取用為乎於文書入成楮子一部具銷鎗募軍放料次木斗升各一用還次別工作良中捧甘取用何如手次依施
本所所用木朱却五箇木釘三箇細繩二百把草省五箇尾箒三箇馬尾篩三部依例捧甘取用何如手次自都廳備給
本所使役募軍自今二十日六牌為先付役之意仰稟手次依施
本所被莎時所用削刀十柄分付爐冶所預先打造以為及時取用之地何如手次依施
本所莎土匠十五名自繕工監知委領付本所以為使役之意捧甘該監何如手次依施

被莎時所用木椎三十箇木小時即二十箇古未乃二十箇及
小抹木段隨所入進排事依謄錄分付別工作何如 手決 依施
被莎時所用削刀十柄不足是如乎削刀十柄加進排事分付
為乎弥鉾十箇急速進排之意并以搽甘爐冶所何如 依手決施
莎草搽上時文書及各項公事所用白休紙筆墨流伊搽甘取
用是遣從實入會減何如 依手決施
本所所用刃加乃四十五箇内二十三箇案山役處持去是遣
只餘二十二箇而諸處役事及補土時恐有不足之慮刃加
乃二十箇廣光耳十箇即為造作之意分付爐冶所何如 手決
如 依手決施 各斬半造給
本所補土所用鐵小時即五柄急速打造之意分付爐冶所何
如 依手決施

補土時買土價及莎草價從實入上下何如 手決 依施
本所草謄錄次白紙一卷白休紙一斤黃草真墨各二依謄錄
捧甘取用何如 手決 依施
本所所用各種實入與用還之類區別後錄仰稟為去乎依例
移文戶曹以為會減之地何如 手決 依施
補土尺量
穴前補土高十尺長四十九尺五寸東廣三十六尺五寸
西廣同
曲墻外左右補土高十三尺五寸東廣二十五尺五寸西
廣十五尺五寸 以上用營造尺
第一珠圓六十九尺高六尺高加等二尺
第二珠圓八十尺高六尺高加等三尺
第三珠圓一百六十尺高九尺高加等五尺
第四珠圓五十七尺高六尺高加等二尺
案山及龍虎莎脫處皆補土被莎尺量無

小浮石所
監造官副司 勇金相儼
鄉領役牌將崔致璥
金以兌
加定尹龍大
崔時福 忠州原將校
書吏李宜新 兵曹
白龍瑞 刑曹
庫直金時郁 廣興倉
使令李夢鶚等三名 兵曹廣興倉
守直軍士二名 左右捕盜廳

本所石子輸運板車車雲馬據機造具翻石時小雲馬二部輸
石所良中分付為只為手次以支
乃本代用
浮石時所用生筍及爐冶炭預先區劃量宜上下為只為手次
筍三十同炭一百石先下
初頭所用各採鐵物及雜物中不得已取用者出社　圍所後
自都監區處事分付而所用物種全數未滿事將狼狽是如
乎就其中不得已不可廢之物種從略磨鍊取用何如為乎
喻手次依施
浮石時着役假家負役工匠募軍入按處雜物入置庫間機械
木支乃及出去時監造官根餼所騎馬書吏二人石手遣手
一名所騎馬柴軍刀尺依例預為分付為只為手次考例施行
不遠所騎勿論

石手五十名及爐冶五坐領率出去為乎矣募軍取考謄錄則
石手八十名則募軍九十名是如乎今番石手為五十名則
募軍當付六十名是乎弥匠人等每十五名火丁一名每三
十名卜直一名式量宜定給而浮石處假庫直一名依例以
募軍中定給是遣留待石手冶匠等姑未受料糊口甚艱日
後計減次石手等處錢二十兩冶匠處錢五兩先為上下為
只為手次石手以三十名姑先使役爐冶座數募軍定額依
石手從減是遣料布計減次各項並十五兩先上下柴
軍刀尺磨鍊以給假庫直係是不緊勿論

今月二十二日領率匠募往如坡山浮石處遍尋石脉則或壁
立崖間而頑根入地或暴露一面而全身埋土必用衆力然
後可以掘開浮出募軍四十五名石手二十名冶匠二名特
令加付是遣加付匠募等火丁卜直及料布並磨鍊上下為
已酉七月十五日監造官　啓下水原地在外十八日仕進都
監十九日出　圍所二十日往如坡山浮石八月二十八日
還入內役所
手本秩
本所監造官依幕諸具及筆墨硯石硯匣等物依例捧甘取用
為只為手次依施
本所書吏所用白紙一卷白休紙一斤白筆真墨各一柳箕一
部紙俗次厚油紙一張謄錄假衣次落幅紙半張膠末一升
等物捧甘取用為只為手次依施
本所守直軍士二名自會同日在京時給定送事捧甘為只為
手次依施
石手遣手一名在京時待令料布依例磨鍊上下為只為手次
依施

只為手決石手十名治匠一名自明日加付募軍一牌翊者已為加出送

匠募等料布在前則劃給本所隨時分給矣今審則自都廳上下乙仍于匠募等往還之間工役漸遲事甚可悶匠募願目處即為分付料布駄送於還来車子以為分給之地為只為手決匠募料依之上下

鐵物中立釘大中排地乃非音金及爐炭生葛尚不来到事甚渇悶促令輸送是遣石手所用生牛皮三令在京時捧来者中路冒雨盡為腐傷不可入用是乎所生牛皮二三令覓送事分付本府為只為手決生葛炭已為出送而輸入大浮石所云何不推尋以用乎鐵物令乃打造當待造成出送見在果牛皮日子無多似不盡傷姑令以前来者推用

匠募等並助役今至一百五十名是如乎食鼎二坐不可以炊飯飡不喻村家稍閙茜且多每當飯時便同閙塲食鼎四

五坐及木果薪子七八箇借給事分付本府為只為手決鋼嘴口二坐看送而器四排移以用

鍊装之物亦甚艱辛刃加乃十柄具泛斧子二箇串光伊五箇廣光伊五箇打造出送事分付為只為手決加乃等物翊赤出送

定礎之則漸近治石之後時急而石品外多虞頑内甚堅硬去頑冶硬功力十倍且所入石数為千餘堀而今以四十名匠手萬無浮出鍊琢之勢石手二十名治匠一名更為加付是乎弥石手治匠所處假家更為分付為只為手決石手四十名決無不足之理不但所稟如此為令速疎工役大浮石所石手自上葺合付者数且夥外就其中十名移付未前治匠一坐赤依石手例移設是遣假家段大浮石所二十間加分定中五間木所造給之意分付

本所進排各採石子其数甚夥而最難浮出者方三尺圓柱石十六堀長六尺下磚石五十堀是如乎其中圓柱石浮出最急故專力浮出前所報四堀外昨今連浮六堀合為十堀而石根最大處今以大浮石所移設勢将拾而之他而小小浮出處又為大浮石先占之地此山之内無處可浮事甚冏措是乎所所浮圓柱石十堀及階砌石為先知委該所以為輸入之地為只為手決依施

本所加付石手十名治匠一坐匠人假家五間依題音推覓於大浮石所則以為本所匠手亦為苟艱将欲防稟是如終不移送是乎所更此仰稟俯量處分為只為手決本所係緊急大浮石所工匠自江華還付并役則便是両所合役其中十名移付何必持難而況有商量分排則堅執不送極為可嘲依前稟題十名石手一咪爐冶並即推付使役是遣假家亦依日前分定入接而石物已浮者並為中釘以待輸石所運役之地

本所浮出石子品甚堅硬而前題所下強鐵性甚柔軟一再琢石則刓不可用故日加厳飭而勢自倍入是乎所強鐵限三十斤更為上下為只為手決折半上下

定礎日字不遠而各採鐵物十分不足萬無越期挙行之路色釘限百箇立釘限五十箇非音金限百箇小夢同伊十箇中夢同伊三箇大中排支乃各三箇斧子五箇急速輸送事分付為只為手決前稟所題小給者年数倘給前稟数中不足者依此稟如数首急速造給

昨日輸来色釘體小不可用而使役時急姑先取用是在果此後則心以體大打造之意分付該所為乎弥強鐵段柔軟不用還為上送以品強者各別擇給為只為手決依稟強鐵段生牛皮前来者盡為腐傷不可用限五六張即為輸送為乎弥募軍只是七十五名掘土戈石萬無挙行之勢募軍一牌亦為加付空石前来百立十分不足限二百立特為加給文書所用白休紙二斤亦為上下為只為手決依施

昨日請得本府石手二十名矣今日赴役者只是五名更為分付石手十五名及治匠二名各持鍊粧即為出送為只為手決
減數付役妻斫訖當更續出送
空礎期日已迫石子亦已運入是乎所本所監造官領率匠募還入內役所董役自是前例而堂上分付內姑留董飭浮石亦是乎等以監造官則仍留而石手邊首領率如干石手及募軍明日入去之意敢稟手決辦公入送本所五役依無妙例之端是喻小浮數又亦此時然
入役不必以邊首入送商量事勢使之入送而喻入石數今姑不多則不必一時多送而手留空入役
御井石等即本所舉行而等墻則依例自造成所舉行為只為手決依施
園上所入石子則下磚石曲墻地臺石星石及初花階石再階石釜自本所鍊正進排而運石及排設大浮石所依例舉行為只為手決依施
本所單謄錄修正次白休紙一斤厚白紙一卷筆墨各一丱未一升依例捧甘取用為只為手決依施
本所所用各採物種實入與用還之類區別後錄仰稟為去乎依例會減事移文广書為只為手決依施
石物狀
丁字閣所入石數
三間圓柱礎十箇四面長高各三尺
古莫石十二箇　粧點石八箇
神門前後左右扶門地方石四箇長各六尺
一字簷階石前面七箇合長四十四尺
左右面各四箇合長各二十八尺八寸

拜位廳二間圓柱礎四箇四面長高各三尺
退階石前面五箇合長二十一尺六寸
左右面各三箇合長各二十尺
月臺四疊前後面長四十四尺五寸
前面及左右四尺自半以後三疊後面一疊
左右面長各七十七尺五寸
前面高五尺四寸　風石二十五箇
雲搆毛老石二箇　搆石三箇長各四尺二寸
東邊橋三層石三箇　西邊橋三層石三箇
神門橋石一箇長六尺廣四尺
駕石一箇
後面花階石十三箇合長四十四尺

左右澗只石二十箇合長各十八尺
月臺前第一階石二十七箇合長八十七尺
第二階石二十七箇合長八十七尺
香御路階石上層三十八箇合長一百六尺在一字階上
御路階石上層三十五箇合長一百六尺在一字階上
紅箭門柱礎石二箇四面高長各二尺八寸
下輦隊階石八箇四面長各十四尺
隅石四箇
園上下磚石四十八箇長各五尺二寸上廣一尺六寸下廣二尺五寸高一尺二寸依大浮石所見條
山神床石一箇廣四尺長二尺五寸
曲墻地臺石一百箇　星石三百十五箇

初階石十九箇　二階石二十一箇
三層花階石三十箇　隅石二箇
瘞坎石四箇長各四尺
碑閣二間方柱礎六箇四面高長各二尺
古莫石八箇　粧點石四箇
內外地方石四箇　四面階石二十一箇
隅石四箇
水判間三間半柱礎八箇　四面階石十八箇
隅石四箇　古莫石十四箇
粧點石二箇
守僕房三間半柱礎八箇　四面階石二十箇
隅石四箇　古莫石十四箇

粧點石二箇
御井石四疊合十六箇
禁川橋石十五箇長各六尺高一尺三寸廣一尺七寸
左右礎石合七十五箇
香大廳典　祀廳　齋室以本府衙舍分定故營造石材無
餠石一箇長四尺五寸廣二尺九寸高一尺二寸
生鮮石一箇長四尺廣二尺九寸高一尺二寸
泡磨石二部　膠磨石二部
白石一箇　砧石二箇
鵝里石十二箇（已上石子八百七十七箇內停石二百三箇毁撤石二百七十四箇）
海州磚石四千立　江華磚石二千立

輸石所
監造官司宰監直長宋欽書
京　看　役車運萬　禁衛營別武士
鄕領役牌將嚴述武
加定安仁文　金重彬
車碩福　以上水色將校
書吏黃志運　刑曹
庫直韓景潤　司畜寺
使令金守良　兵曹
守直軍士二名　在京時定

五十同取用於卜定二百十五同取用於貢人處是如乎今
酱陂姑未知所入之數是乎乃取用之道指一分付爲只爲
手決自都廳
容入上下
本所造洁所用造泥板二立負役匠募料米分給次本斗升各
一箇軍丁脾四立用還次別工作良中捧甘取用爲只爲手
依
施
本所募軍取考各年謄錄則隨其使役之多小或三十名或三
十五名或二十名使役是如乎今酱陂工役既不浩多以二
十名使役爲只爲手決依施
本所機械造作見方時急車匠四名舡匠三名皂鉅軍二名嚴
飭斆甘於訓局御營廳繕工監是遣造洁軍十二名卽江上
居民中造纜者也移文工曹使管領押付於本所爲只爲手
決

舡匠造洁軍
減削捧甘
今酱石材車運計料則各軍門及車契貢人處易飭捧甘車子
牛隻數及車夫姓名并以修成冊來納本所以爲使役爲只
爲手決依施
蔔洁自都監令造以給亦救是故造洁軍不爲捧甘矣今聞雪
馬戔洁與雜用蔔洁不同更令本所依前措備亦是如乎造
洁軍依例捧甘使役爲乎旀生蔔陂待都監區劃卽爲上下
爲只爲手決五
名使役
中雪馬五部小雪馬三部措備事更爲分付教是乎所體本與
真木取用之道區別題下爲乎旀使役匠手陂置借用他所
挺爲蔔艱車匠二名加定而舡匠三名皂鉅軍二名星火捉
來使役爲只爲手決依
衆爲乎矣體本陂取用於造成
所真本可合者給價貿用次捧甘本府

己酉七月十五日會同十九日出　園所
手本秩
本所文書所用白休紙七斤半黃筆七柄真墨七丁紫硯二面
厚白紙一卷白紙二卷假衣次落幅紙半張紙帢次厚油紙
一張灌輪真油二斗生牛皮四張文書所盛柳篋一部擔子
具鎖鑰一部自都廳發甘取用爲只爲手決依施
取考辛亥丙申謄錄則各樣石物以板車搪機雪馬等機械
載運矣今番陂置依此例造作使用是乎乙喻聞別車限二
十輛造作云　硯遊石載運次大雪馬一部斸石次小小雪
馬三部瓮造作是遣其餘大小石材皆以牛車載運是乎乙
喻指一分付俾無臨時窘急之患爲只爲手決大雪馬
一部瓮措備
取考丙申謄錄則本所造洁所入生蔔三百六十五同內一百

今此運石不至多日而車子破傷已為三四輛是乎所修補材
木不可不預備真傢本未圓徑一尺許者限五十株知委本
府星火貿納於本所以為不時入用之地為只為手次施
運石車子輪捅結裹次熟麻大索擔機杠頭結裹次熟麻小索
及鼈石二甲葛洁車牛駕領三甲葛洁等物臨時取用軋致
遲滯是如乎上項各項洁優數上下自本所隨其絶傷即地
分給俾無窘急之弊為乎旀擔機杠頭朴只廣頭釘每機八
箇式爐冶兩良中捧甘取用為只為依手次施
今日兩勢竟夕不止大車則沒輪於淖泥一車駕至十四五牛
而終不能前進仍致夜深故不得已放還是造平車則卜雖
稍輕泥道昏夜其能得達有未可必石子既未輸入則人畜
之勞雖曰備至付料一節恐難如例參量處分為只為手次車子
之泥淖沒輪難進勢兩必然則不
可無參酌之端料各依例應錄

灌輪真油已盡無餘而京貢人處勢難取用都廳所在肉膏限
一斗上下為乎旀平車一輛輪筒圍鐵一箇破碎不用是如
乎分付爐冶所打造以給為只為手次施

別工作

分差官繕工監造役李端亨

分差訓士尹昌放
書員張南翼
金振玉
庫直卞昌胤
使令金一得
守直軍士一名在京時定

都監進排各採木當四板子等出去木物捧為沽多載運次車
子三輛即為定送事捧甘為只為手次依施
謄錄該衣次落幅紙一度依謄錄該司良中捧甘為只為手次依施
本所出往　園所為去乎監役官根饌及奴子散料騎馬粥米
草太等依例進排事分付本府為只為手次考同施行
本所監役官依幕房及書員房燈油每日三夕式自出去日限
半後進排事捧甘為只為手次依施
本所舉行是在　壽安進排大木盖木盖兒開造古木筆造古
木餠竹該草柿木等木物伐木募軍一牌依謄錄上下為只
各所募軍所用斧子先伊紬柏木等物例自地方官雜物所取
為手次依施

已酉七月十五日會同十九日出　園所二十日始役
手本秩
本所監役官分差都監為有置允公會勿忝差　忝安徐除本
司仕上直事史胄及繕工監良中捧甘為只為手次依施
本所所用紫硯一面黃筆貝墨各一書員所用筆墨各一白紙
二卷白休紙八兩文書所盛柳箕一部依謄錄各該司良中
捧甘為只為手次依施
都監在京時本所依幕溫埃每日點火燒木半升燈油三夕炭
三升自會同日為始進排事捧甘為只為手次依施
本所諸色工匠及木物假家伍間造作事捧甘為只為手次依施
都監在京時各採木物造作進排次薄松板六十立中小条里
木各二十箇小小椽三百箇等從實入進排事捧甘為只為

用為有置依謄錄勿使本所之意分付各所為只為手次依施
取考謄錄則　靈幄殿內陳設床卓尚衣院專當次知是遣中
排床卓內都監專當次知是如載錄為有置依例舉行事尚
衣院及內都監良中移文為只為手次依施
今此　園所　丁字閣以下諸處應進排物種造作舉行是在
果各採床卓　茶器四及鐵物等取考辛亥丙申謄錄參互
仰稟為去乎參商教是後以為造作進排之地為只為手次依施
三物所甘內　駕家及　隧道閣成造時所用應進排各採物
種進排亦是如乎所入物力依謄錄進排為只為手次依施
取考謄錄則三物所進排士色封　進小揩三物所盛函各一
部松烟明油荏鐵漆粧飾又丁纓子具內塗褚注紙為有置
依謄錄造作進排為只為手次依施

取考謄錄則各色工匠等所用風板松木毛老臺等物以其実
常時所持之物取用事載錄為有置依謄錄各所良中捧廿
為只為手次依施
本所進排大小床卓及各樣木器四所八木物段方以分定是
在三十五株體木俚俚分排磨鍊措備是乎乃萬各所進排
浩多以頭折木没數取用是遣令無尺寸木所餘是如乎插
攙及馬木石手所用発床等所入實無推移取用之路同運
致木中大椒二箇體木二箇即為上下以為及時舉行之地
為只為手次依施
令番丁字閣以下齋室及諸處應進排之外內資內贍奉常
寺司饗院進排器四則以舊園所別工作進排取用事各
其司良中捧廿為只為手次依施進四戶曲移文自本所進排

濃園部監閣被新色畫碑所 茶亭所用木器四及園所
三寺 茶亭所用各樣木器四所八木物曽有所仰 稟請
得足如乎造成所用餘大椒材木中取用為只為手次依施
濃園都監閣被新色畫碑所 茶亭所用大中小油盖兒十
部 園所 茶亭所用奉常寺內資寺內贍寺每度油盖兒
十部及本所進排油盖兒每部所入戶材兒二十二部八箇
曲之次椒木方一寸五分一尺深次草法椒一張內條椒半
半張生學五分明油五合半筋五分魚膠五分太末一合等
依準折進排事捧廿為只為手次依施
三物所廿擄大散椀木三十箇進排為有置散椀木每箇小朴
擄木六尺落次丁粉四合阿膠二錢等所入物力依例捧廿
為只為手次依施

典祀廳所用花籠一部自分長興庫依謄錄姿稍進排事捧廿
為只為手次依施
京都監舉条巾 贈玉贈帛排案床自都監造作待令亦教是
如乎本所常為造作待令是乎矣即聞京都監多有前排餘
件云将来取色以用事甚便好未知何如是乎喻旨一處分
為只為手次依移
本所進排各樣器四所八鐵物及 園所永進排鐵物等打造
次取考丙申謄錄則七百餘斤是如乎正鐵一百斤炭六石
為先上下為只為手次依施
本所進排器四所入正鐵前上下一百斤許餘其餘六百七十
七斤依數上下為只為手次折半上下
本所正鐵三百三十八斤前已上下教是置打造炭十八石依
猶有上下為只為手次依施
本所正鐵只以折半上下教是置令以折半之數十分不足改
更為手本為去乎依丙申例未下条正鐵三百三十五斤及
各色匠人鍊鉄添鐵次強鐵五十斤等上下是遣炭則每百
斤五石五斗式依猶有上下為只為手次正鐵折半上下強鐵十五斤上下依準上下
本所正鐵又以折半上下教是置折半之數猶為不足同未下
条正鐵一百六十八斤上下以為挙行之地為只為手次上下
本所各樣床卓及器四造成時各樣匠人所用炭十石為先上
下是乎旀 茶器與床卓着落土字三間令方造作為有置
所入柱道里椒木等自本所伐木中取用是遣蓋覆草厰乃
三駄及地排空石三十立每伍非網亢十箇等上下為只為

本所各色匠人及　園所待令募軍各採床卓器皿着森土字
所排及掃草小木木人盛次合空石三百立綱元五十箇為
先上下為只為手次空石二百立綱元二十五箇上下
本所進排　神御半床各採床卓器皿粧飾打造所入炭十分
不足以致停役之境是如手同炭限二十石上下為掃着森
土字所排及木木人盛次不足空石四十立亦為上下為只
為手次依施
本所所用各採物種實入數用途之類後錄仰禀為去手會成
次移文戶曹為只為手次依施

分長興庫
分差官長興庫直長金義行

書員朴宝漢
庫直李鶴齡
使令林永龍
守直軍士一名　在京
將定

己酉七月十五日會同十九日出　園所
手本狀
分庫直長金義行分差都監為有置凡公會上直及差　忝安
徐事史曺良中捧甘為只為手次依施
分庫文書所用白休紙一斤筆墨各一式依謄錄每十日取用
為乎於硯石硯匣柳筒各一部及謄錄假衣次東空浴幅紙
半張退排事各該司捧甘為只為手次依施
分庫所用各樣紙地席子一依謄錄東告後捧甘取用載在各
年謄錄是遣此外各所所用物種段無論紙席元無出来之
例而各所或有懲索之弊是良置舉實手本為去乎依前取
用于本長興庫事各所良中分付為只為手次相考前例舉行
分庫各處仰遞油芚建幅所入生苧七兩黃蜜五錢及床卓座

面紙起盡所用阿膠一兩五錢莫子唐棣匙各一箇依謄錄
進排事各該司捧甘為只為 手次依施
㓜家　隧道閘盖覆油芚連幅時所用中竹三箇依謄錄用遞
次進排事捧甘為只為 手次依施
各揀床卓所排座面紙曲水起盡次　園所待令盡負一負一
時待令事分付為孫中剪板長剪板各一及各處仰遮油芚
朴排次二寸頭釘鐵本等物依謄錄別工作爐冶所次如舉
行為只為 手次捧甘
取考辛亥謄錄則　㓜家　隧道閘　丁字閣以下諸處鋪陳
皆以白席白縕造排是如乎今番段置當依辛亥謄錄皆以
白席白縕造排是白喻自分庫不敢擅便如是仰稟為去乎
恭尚教是後指一分付俾無臨時做錯之事為只為 手次依謄錄舉

行
取考丙申謄錄則九油芚段戊成卜定取用是遣京司元無九
油芚名目故自庚子不為卜定後以進獻六油芚代用是如
乎今番段置依謄錄以進獻六油芚代用為去乎從實入次
進排于　園所事該庫良中捧甘為只為 手次依施
守　殿宮以下登每方席梁次真空石三十立各揀床卓所排
座面紙曲水起盡次唐朱紅五丙依謄錄進排為乎孫齋室
以下各處障子班子塗次落幅紙五軸從實入次進排事各
該司捧甘為只為 手次空石自都廳上下其餘依施
丁字閣齋室以下各處塗褙所用馬尾篩二部尾箒三柄白布
白紬巾各五件依謄錄進排事繕工監濟用監良中捧甘為
只為 手次依施

取考謄錄則　大擧　肩擧下排地衣及　腰擧下排六張付
地衣二浮　空葦下排九張付地衣二浮段自分庫造作擧
行是遣其餘　腰彩擧等下排地衣則遷　園都監分長興
庫造作之物出来移用為有置今番段置依例擧行事及輪
擧草席各揀兩備段置分庫則元無造作之事例以遷　園
都監分長興庫造作進排為有置並以擧行事移文遷　園
都監俾無臨時生事之弊為只為 手次移文
取考丙申謄錄則　御齋室鋪陳以白文席白木縕造排為當
是在果辛亥謄錄則各處鋪陳俱為昭載而　齋室所排段
元不載錄故無可據文頃是遣至於各　陵園齋室則俱以
別文青縕永排為有置今番則內外　齋室所排當以何席
何縕造作是白喻自分庫不敢擅便如是論稟指一分付以
為擧行之地為只為 手次此後內都監知委事回移內　遷稟後以別文青縕造排
丁字閣以下各處塗褙所用熟棚次釜罨各一坐方文里二十
箇大所羅陶東海木瓢子各五箇用遞次進排事及腰朱隨
所入燒木十五自分依謄錄進排事幾營及結所良中捧甘
為只為 手次依施
丁字閣內外　齋室　典祀廳內外　水剌間諸處塗褙軍三
十名今二十二日及良該吏依例領付撿飭事乎帝署良中
捧甘為乎孫屏風匠林遇春等五名依謄錄赴役事內需司
良中捧甘為乎孫內外　齋室障子班子初塗落幅紙比前
倍入以五軸太半不足從實入次限五軸加捧甘取用為只
為 手次依施
分庫所掌各處仰遮油芚連幅次史匠二名依謄錄定送事分

付工曹為只為手次依施
本庫所掌各採紙地席子油芚等物種員持次募軍五名依賸
錄使役為只為手次依施
本庫實入物種與燒火物種區別仰稟移文戶曹以為會減之
地為只為手次依施

燔厓所
令差官厓署別提雇募閔

書員尹弘贊
庫直庾世昌
使令張順金
守直軍士一名 在京時雇

已酉七月十五日會同十九日出 園所二十日始役
手本秩
本所別提雇募閔分差本都監為有置凡公會勿參差徐安祚
事吏曹良中分付為只為手次依施
今此 園所所用厓帆燔造萬分時急訓鍊都監禁衛營
廳良中依例移文軍門厓星火起送事分付為只為手次依施
本所所掌厓帆別設於土宜處因夜燔造為乎矣至於龍鬚頭
各揀雜種日字急迫勢難及期燔出是如乎同雜種段捧甘
該署使之進排為只為手次依施
丁字閣及諸處所入各揀雜種令馬契入調發馬大以陸路駄
運目是謄錄是如乎以此意捧甘京地及馬契為只為手次依施
丁字閣及諸處所用各揀乾正厓帆露置空處盖覆事苔二百

二十浮小竹八十介用遂次捧甘為只為 手次 草苞自都廳 上下小竹捧甘

曲墻所入瓦礫例以碎瓦取用而今番則別設墻所瓦礫不敷

今以用餘瓦子碎用為只為 手次依施

丁字閣所用大瓦防草牙鋏時直入手中次破布帳一浮上下

事分付該曹為只為 手次帳一浮木匠布二疋捧甘取用

今此 園所 丁字閣諸處所入龍鬚頭雜種等物實入數後

錄仰稟為去乎移文戶曹以為會成之地為只為 手次依施

경기도박물관 학술총서

顯隆園園所都監儀軌 原典

인 쇄 2006년 2월
발 행 2006년 2월
편 집 경기도박물관
발행처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85번지
TEL. 031-288-5360
FAX. 031-288-5379
제 작 경인M&B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11
TEL. 031-231-5520~7
FAX. 031-231-5519

(비매품)